

#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 연구III

책임연구원 최창욱

공동연구원 문호영 김정주

N

Y

P

T



##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 연구Ⅲ

- ▶ 책임연구원 : 최창욱(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선임연구위원)
- ▶ 공동연구원 : 문호영(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부연구위원)  
김정주(모든학교 체험학습연구소 · 연구소장)
- ▶ 연구보조원 : 김평화(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위촉연구원)



## 발 간 사 ■ ■ ■

청소년활동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구에 대한 대응으로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의 다각화, 청소년 친화적인 프로그램의 보급, 창의적 체험활동 강화, 자유학기제 도입 등 보다 다양한 활동을 통한 학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국가발전의 주요 동력으로 청소년들이 성장하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활동경험의 제공이 필수적이라는 인식이 확대되고 있는 것입니다.

본 보고서의 저자들인 최창욱 박사와 문호영 박사가 앞선 연구에서 꾸준히 제시한 바와 같이 1987년 청소년육성법 제정 이후 현재까지 국립청소년수련원을 포함한 청소년활동의 거점이 되는 청소년수련시설과 청소년단체의 대폭적인 증가,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 청소년활동사전신고제 등 국가적 차원의 관리와 지원을 위한 제도의 확대, 청소년관련학과의 획기적인 증대로 인한 청소년활동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청소년지도사 양성의 확대 등 청소년활동 분야는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청소년활동 기반의 획기적인 양적 증대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청소년활동의 질, 청소년들의 활동참여 현황과 문제점, 효과 등에 대한 실태 파악은 미미하였습니다. 아니 아직까지도 청소년활동의 현주소를 명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는 청소년들의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와 효과를 반복적으로 측정하여, 근거중심(evidence-based) 청소년활동정책을 과학적으로 지원하고자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 연구’를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2016년도는 3차 년도 연구로 1차 년도와 2차 년도 연구에서 활용된 조사도구를 청소년활동의 성과를 위한 정의적 부분을 추가 및 보완하였으며, 청소년활동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방안도 구체화하여 제시하였습니다.

이 연구의 결과가 청소년활동 정책을 보다 과학적으로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이 연구를 진행함에 있어 연구진과 연구진행과정에서 자문과 지원을 아끼지 않은 학자들과 청소년현장 전문가, 청소년정책 담당 공무원, 그리고 청소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6년 12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원장 노 혁



## 국 문 초 록

이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를 조사 및 분석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청소년활동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정책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의 달성을 위해 관련문헌 분석,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 등을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청소년활동정책 로드맵을 수립하여 제시하였다.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 결과, 최근 1년간 96.1%의 청소년이 청소년활동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영역별로는 '건강·보건활동'(93.6%)의 참여율이 가장 높게 조사되었다. 청소년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보통수준을 상회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참여정도, 성취기대수준은 보통수준으로 나타났다. 청소년활동의 참여형태는 '학교에서 단체로 참여'가, 참여경로는 '학교 선생님의 권유로'가, 장애요인으로는 '참여할 시간이 없어서'가 가장 많았다.

청소년활동 희망 시간으로는 '학교 수업시간 중'을 가장 많이 선택하였고, 희망 장소로는 '야외'에서의 활동을 가장 선호하였으며, 대부분이 '친구'와 함께 청소년활동에 참여하고 싶다고 응답하였다. 청소년활동의 활성화요인으로는 청소년활동 시간의 확보와 프로그램의 흥미로운 구성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향후 참여하고 싶은 활동은 '문화예술활동', '진로탐색 및 직업체험활동', '모험개척활동' 등의 순으로 대답하였다. 아울러 청소년활동의 만족도, 참여정도, 성취기대수준이 청소년들의 자아존중감, 진로성숙도, 주관적 행복감, 공동체의식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청소년활동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언은 2차년도 연구의 4개 분야 13개 정책과제를 전문가들과 숙고하여 5개 분야 20개 세부추진과제로 재정리하여 제시하였다. 5개 분야는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의 개선, 청소년지도자 역량개발 및 처우개선, 청소년활동 시설 및 단체의 기능강화, 청소년활동 홍보 및 정보제공 시스템 구축, 청소년활동정책 기반조성이다.

주제어 : 청소년활동,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 청소년활동정책



# 연구 요약

## 1. 연구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를 조사 및 분석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청소년활동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정책방안을 제시하는 것임.

## 2. 연구방법

- 국내·외 관련문헌 분석
-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
  - 전국 초중고 학생 대상 변형비례배분 층화표집
- 전문가자문회의 및 정책실무협의회
  - 전문가자문회의 : 학계 및 현장 전문가
  - 정책실무협의회 : 여성가족부 등 유관 중앙행정부처 공무원

## 3. 주요결과

- 청소년활동 참여경험, 만족도, 장애요인, 활성화요인, 향후 참여하고 싶은 청소년활동 등의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전국 초·중·고등학생 8,62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함.
- 최근 1년간 청소년활동에 참여한 청소년은 96.1%로 조사됨. 청소년활동 영역별 참여율은 '건강·보건활동'(93.6%), '문화예술활동'(85.2%), '진로탐색 및 직업체험활동'(72.5%), '봉사활동'(62.9%), '과학정보활동'(61.2%), '모험개척활동'(57.8%), '자기(인성)계발활동'(50.8%),

‘환경보존활동’(48.8%), ‘교류활동’(33.9%) 순으로 나타남.

- 청소년활동의 ‘전반적인 만족도’(M=3.37)는 보통수준을 상회하는 것으로 조사됨. 세부내용별로는 ‘지도자 만족도’(M=3.43)가 가장 높았고, 이어서 ‘활동내용 만족도’(M=3.37), ‘시설·공간·장비 만족도’(M=3.32), ‘일정·시간 만족도’(M=3.27) 순으로 확인됨. 한편, 청소년활동의 참여정도(M=2.99), 성취기대수준(M=3.05)은 보통수준으로 나타남.
- 청소년활동의 참여형태는 ‘학교에서 단체로 참여’(46.0%)가, 참여경로는 ‘학교 선생님의 권유로’(38.6%)가, 장애요인으로는 ‘참여할 시간이 없어서’(30.5%)가 가장 많았음.
- 청소년활동 희망 시간으로는 ‘학교 수업시간 중’(43.7%)이 가장 많았으며, 희망 장소로는 ‘야외’(43.1%)가 가장 많았음. 그리고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친구’(85.2%)와 함께 청소년활동에 참여하고 싶다고 응답함. 청소년활동의 활성화요인으로는 ‘청소년활동 시간이 더 확보되어야 한다’(25.7%)와 ‘프로그램이 좀 더 흥미롭게 구성되어야 한다’(24.9%)를 강조함.
- 향후 가장 참여하고 싶은 청소년활동으로는 ‘문화예술활동’(22.5%), ‘진로탐색 및 직업체험활동’(21.5%), ‘모험개척활동’(17.0%) 등의 순으로 조사됨. 그리고 청소년수련시설의 이용률은 ‘청소년수련관’(38.0%), ‘청소년수련원’(36.4%), ‘유스호스텔’(26.4%), ‘청소년야영장’(19.1%), ‘청소년문화의집’(17.3%) 순으로 확인됨. 한편, 청소년활동정책에 대한 인지정도(3점 척도 기준)는 평균 1.15~1.44로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지난 1년 동안 청소년들의 하루 평균 여가시간은 평일 하루 3.21시간(SD=2.20), 휴일 하루 7.73시간(SD=3.61), 방학 중 하루 7.88시간(SD=3.52)으로 조사됨.
- 청소년활동 만족도, 참여정도, 성취기대수준이 정의적 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활동내용 만족도’, ‘지도자 만족도’, ‘시설·공간·장비 만족도’, ‘청소년활동 참여정도’, ‘청소년활동 성취기대수준’이 자아존중감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됨. ‘활동내용 만족도’, ‘지도자 만족도’, ‘시설·공간·장비 만족도’, ‘일정·시간 만족도’, ‘청소년활동 참여정도’, ‘청소년활동 성취기대수준’이 청소년의 주관적 행복감에 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됨.
- 그리고 ‘활동내용 만족도’, ‘지도자 만족도’, ‘청소년활동 참여정도’, ‘청소년활동 성취기대수준’은 청소년의 진로성숙도, 공동체의식, 리더십생활기술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4. 정책제언

- 청소년활동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언은 2차년도 연구의 4개 분야(‘청소년활동 참여 기회 보장’, ‘청소년활동 운영기관 및 지도자 역량 강화’, ‘청소년활동을 위한 가정, 학교, 지역사회 지원 확보’, ‘청소년활동정책 기반 강화’) 13개 정책과제를 13인의 학계 및 현장 전문가가 발전시킨 내용들을 토대로 연구진이 5개 분야 20개 세부추진과제로 재정리하여 제시함.
- 구체적인 정책영역과 세부정책과제는 다음 표와 같음.

정책영역	세부추진과제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의 개선	(1) 정기적인 청소년활동 참여실태 및 요구조사 실시 (2) 환경변화에 대응한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3) 효과적인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의 특성 요인 분석 및 적용 (4) 청소년활동의 효과성 검증을 위한 중단연구 및 국제비교연구 (5) 현장 청소년지도자의 프로그램 역량 개발
청소년지도자 역량개발 및 처우 개선	(1) 청소년지도사 직무역량 개발 (2) 청소년지도사 기본활동 필수교육과정 지정 및 운영 (3) 청소년지도사 처우개선 (4) 청소년지도사 배치체계 개선 (5) 청소년지도자 학교 동아리활동 코디네이터 배치 추진
청소년활동 시설 및 단체의 기능 강화	(1) 청소년수련시설의 기능 재정립 (2)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개선 지원 (3) 청소년단체의 활동 기반 강화 (4) 청소년활동 거점시설의 확보 및 운영
청소년활동 홍보 및 정보제공 시스템 구축	(1) 청소년활동 홍보 추진체계 구축 (2) 청소년활동 정보서비스 추진체계 구축
청소년활동 정책 기반조성	(1) 청소년활동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 (2) 시도 및 시군구 청소년활동진흥센터의 설치 및 기능 강화 (3)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제 도입 지원 (4) 청소년육성기금의 조성 확대



# 목 차

I. 서 론 .....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3
2. 연구내용 .....	5
3. 연구방법 .....	7
II. 연구개요 및 선행연구 분석 .....	9
1.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 연구 I」 개요 .....	11
2.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 연구 II」 개요 .....	17
3. 청소년활동 참여 및 효과 관련 선행연구 분석 .....	23
III. 설문조사 개요 .....	27
1. 표본설계 .....	29
2. 조사도구 .....	42
3. 분석방법 .....	50
IV. 설문조사 결과 .....	53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	55
2.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 .....	56
3. 정의적 특성 .....	100
4.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변인과 정의적 특성 간의 관계 .....	101
5. 소 결 .....	106
V. 요약 및 정책제언 .....	109
1. 요약 .....	111
2. 정책제언 .....	113

참고문헌 .....	125
부 록 .....	133
1. 설문지 .....	135
2. 정책제언 구체화 .....	147

# 표 목 차

〈표 II-1〉 청소년 활동·문화 관련 선행 실태조사의 개요 .....	12
〈표 II-2〉 2014년 제1차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 항목 구성 .....	14
〈표 II-3〉 2014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 문항내용 및 출처 .....	15
〈표 II-4〉 2014년도-2015년도 조사문항 비교 .....	18
〈표 II-5〉 2015년도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 연구 II 조사문항 구성 .....	19
〈표 III-1〉 초등학교, 중학교 지역×학년별 학생수, 학교수 .....	30
〈표 III-2〉 고등학교 지역×학교급×학년별 학생수 .....	30
〈표 III-3〉 고등학교 지역×학교급×학년별 학교수 .....	31
〈표 III-4〉 초등학교, 중학교 지역×학년별×성별 학생수 .....	31
〈표 III-5〉 고등학교 지역×학교급×학년별 남학생수 .....	32
〈표 III-6〉 고등학교 지역×학교급×학년별 여학생수 .....	32
〈표 III-7〉 초등학교, 중학교 지역×학년별 학급당 평균 학생수 .....	33
〈표 III-8〉 고등학교 지역×학교급×학년별 학급당 평균 학생수 .....	33
〈표 III-9〉 학교급×학년별 모집단 크기, 목표 표본크기 .....	35
〈표 III-10〉 단순비례배분에 의한 표본크기 할당: 학생수 .....	36
〈표 III-11〉 단순비례배분에 의한 표본크기 할당: 학교수 .....	36
〈표 III-12〉 변형비례배분에 의한 예상 표본크기, 학교수 .....	37
〈표 III-13〉 변형비례배분에 의한 예상 표본크기, 학생수 .....	37
〈표 III-14〉 2014년~2016년도 조사문항 비교 .....	43
〈표 III-15〉 2016년도 조사문항 구성 .....	44
〈표 IV-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	55
〈표 IV-2〉 청소년활동 참여경험(2016년도) .....	57
〈표 IV-3〉 건강·보건활동 참여경험(2016년도) .....	59
〈표 IV-4〉 과학정보활동 참여경험(2016년도) .....	60
〈표 IV-5〉 교류활동 참여경험(2016년도) .....	62
〈표 IV-6〉 모험개척활동 참여경험(2016년도) .....	63

〈표 IV-7〉 문화예술활동 참여경험(2016년도) .....	64
〈표 IV-8〉 봉사활동 참여경험(2016년도) .....	66
〈표 IV-9〉 진로탐색 및 직업체험활동 참여경험(2016년도) .....	67
〈표 IV-10〉 환경보존활동 참여경험(2016년도) .....	69
〈표 IV-11〉 자기(인성)계발활동 참여경험(2016년도) .....	70
〈표 IV-12〉 청소년활동 만족도: 전반적 만족도(2016년도) .....	72
〈표 IV-13〉 청소년활동 만족도: 활동내용 만족도(2016년도) .....	73
〈표 IV-14〉 청소년활동 만족도: 지도자 만족도(2016년도) .....	74
〈표 IV-15〉 청소년활동 만족도: 시설·공간·장비 만족도(2016년도) .....	75
〈표 IV-16〉 청소년활동 만족도: 일정·시간 만족도(2016년도) .....	75
〈표 IV-17〉 청소년활동 참여정도(2016년도) .....	77
〈표 IV-18〉 청소년활동 성취기대수준(2016년도) .....	78
〈표 IV-19〉 청소년활동 참여형태(2016년도) .....	80
〈표 IV-20〉 청소년활동 참여경로(2016년도) .....	83
〈표 IV-21〉 청소년활동 장애요인(2016년도) .....	85
〈표 IV-22〉 청소년활동 희망 시간(2016년도) .....	87
〈표 IV-23〉 청소년활동 희망 장소(2016년도) .....	89
〈표 IV-24〉 청소년활동에 함께 참여하고 싶은 대상(2016년도) .....	90
〈표 IV-25〉 청소년활동 활성화요인(2016년도) .....	92
〈표 IV-26〉 향후 참여하고 싶은 청소년활동-1순위(2016년도) .....	95
〈표 IV-27〉 청소년 여가시간: 평일 하루 평균 여가시간(방학제외)(2016년도) .....	98
〈표 IV-28〉 청소년 여가시간: 휴일 하루 평균 여가시간(방학제외)(2016년도) .....	99
〈표 IV-29〉 청소년 여가시간: 방학 중 하루 평균 여가시간(2016년도) .....	100
〈표 IV-30〉 청소년활동 만족도, 참여정도, 성취기대수준과 정의적 특성 간의 상관관계 .....	102

〈표 IV-31〉 청소년활동 만족도, 참여정도, 성취기대수준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	103
〈표 IV-32〉 청소년활동 만족도, 참여정도, 성취기대수준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	103
〈표 IV-33〉 청소년활동 만족도, 참여정도, 성취기대수준이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	104
〈표 IV-34〉 청소년활동 만족도, 참여정도, 성취기대수준이 공동체의식에 미치는 영향 .....	105
〈표 IV-35〉 청소년활동 만족도, 참여정도, 성취기대수준이 리더십생활기술에 미치는 영향 .....	105
〈표 V-1〉 청소년활동정책 세부추진과제 .....	115

# 그림 목차

【그림 Ⅰ-1】 연도별 연구 추진 계획 .....	6
【그림 Ⅳ-1】 청소년활동 참여율(연도별 추이) .....	56
【그림 Ⅳ-2】 청소년활동 영역별 참여율(연도별 추이) .....	58
【그림 Ⅳ-3】 건강·보건활동 세부 활동 참여율(연도별 추이) .....	59
【그림 Ⅳ-4】 과학정보활동 세부 활동 참여율(연도별 추이) .....	61
【그림 Ⅳ-5】 교류활동 세부 활동 참여율(연도별 추이) .....	62
【그림 Ⅳ-6】 모험개척활동 세부 활동 참여율(연도별 추이) .....	63
【그림 Ⅳ-7】 문화예술활동 세부 활동 참여율(연도별 추이) .....	65
【그림 Ⅳ-8】 봉사활동 세부 활동 참여율(연도별 추이) .....	66
【그림 Ⅳ-9】 진로탐색 및 직업체험활동 세부 활동 참여율(연도별 추이) .....	68
【그림 Ⅳ-10】 환경보존활동 세부 활동 참여율(연도별 추이) .....	69
【그림 Ⅳ-11】 자기(인성)계발활동 세부 활동 참여율(연도별 추이) .....	71
【그림 Ⅳ-12】 청소년활동 만족도(연도별 추이) .....	71
【그림 Ⅳ-13】 청소년활동 참여정도(2016년도) .....	76
【그림 Ⅳ-14】 청소년활동 성취기대수준(2016년도) .....	78
【그림 Ⅳ-15】 청소년활동 참여형태(연도별 추이) .....	79
【그림 Ⅳ-16】 청소년활동 참여경로(연도별 추이) .....	82
【그림 Ⅳ-17】 청소년활동 장애요인(연도별 추이) .....	84
【그림 Ⅳ-18】 청소년활동 희망 시간(2016년도) .....	86
【그림 Ⅳ-19】 청소년활동 희망 장소(2016년도) .....	88
【그림 Ⅳ-20】 청소년활동에 함께 참여하고 싶은 대상(2016년도) .....	90
【그림 Ⅳ-21】 청소년활동 활성화요인(연도별 추이) .....	91
【그림 Ⅳ-22】 향후 참여하고 싶은 청소년활동-1순위(연도별 추이) .....	94
【그림 Ⅳ-23】 청소년활동 관련시설 이용경험(연도별 추이) .....	96
【그림 Ⅳ-24】 청소년활동정책 인지도(연도별 추이) .....	97
【그림 Ⅳ-25】 평일, 휴일, 방학 하루 평균 청소년 여가시간(2016년도) .....	97
【그림 Ⅳ-26】 정의적 특성(2016년도) .....	100

# 제 I 장

---

##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내용
3. 연구방법



제 I 장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청소년활동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확대되고 있다. 기존 청소년활동 분야에서는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의 다각화와 청소년 친화적인 프로그램의 보급에 노력하고 있으며, 교육 분야에서는 창의적 체험활동, 자유학기제 등 교실수업에서 벗어나 다양한 활동을 통한 학습을 강조하고 있다. 즉, 청소년들이 스스로 역량을 개발하고, 건강한 발달을 촉진하며, 국가발전의 주요 동력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활동경험의 제공이 필수적이라는 인식이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최창욱, 문호영, 김진호, 2015: 3).

1987년 청소년육성법의 제정 이후 현재까지 국립청소년수련원 5곳(2016년 이후 추가로 2곳 건립예정)을 포함한 청소년활동의 거점이 되는 청소년수련시설과 청소년단체가 증가하였다. 또한 각 제도별 논란의 여지가 있기는 하지만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 청소년활동사전신고제 등 국가적 차원의 관리와 지원을 위한 제도들도 확대되었다. 청소년학과 및 관련 학과의 확대에 의한 청소년활동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청소년지도사 양성 등의 성과를 이루었다(최창욱 외, 2015: 3을 재구성).

역사적으로 청소년활동에 초점을 맞춘 조사는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 2006년과 2007년 2차례에 걸쳐 실시한 ‘청소년활동 참가실태 조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창의적 체험활동 지역사회 운영모형 개발 연구’(김현철 외, 2012), 국가 청소년활동정책 체계화 연구(김현철 외, 2013)에서 실시하였다. ‘청소년활동 참가실태 조사’는 참여 현황파악에 초점을 맞춘 조사로 2년에 걸쳐 실시된 후 중단되었고, 김현철 외(2012, 2013)의 연구는 창의적 체험활동에 초점을 맞춘 조사와 활동정책 체계화를 위한 기초현황 파악의 일환으로 실시되어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를 종합적으로 조망하기는 힘들었다(최창욱 외, 2015: 4).

최근 실시되고 있는 여성가족부의 ‘청소년종합실태조사’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한국아

동청소년패널조사' 등에서 청소년활동 실태의 단편적인 사항들을 살펴볼 수 있지만, 청소년활동 실태를 종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조사결과가 없어 청소년활동 정책의 근거로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즉, 청소년활동 기반의 증대와 다수의 조사연구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청소년활동의 참여정도, 참여방법, 청소년활동 참여에 대한 현황과 효과에 대한 실태 파악이 미미하여 청소년정책 방향설정과 개발에 있어 한계를 보여 왔다.

근거 중심(evidence-based)의 청소년활동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청소년활동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가 필요하다. 앞서 제시한 것처럼 청소년활동에 대한 기회가 많아지고 있지만, 청소년활동이 영역별로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청소년활동 참여에 대한 종합적인 실태를 파악하기 어렵다. 또한, 조사에 있어서도 비정기적 조사가 간헐적으로 이루어지기는 했으나, 지속적인 조사 및 연구는 부족하여 청소년활동 참여에 대한 정기실태조사를 통하여 실시를 통해 과학적 정책 지원의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최창욱 외, 2015: 4).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는 근거중심 청소년활동정책의 개발과 적용을 과학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에 걸쳐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 연구'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2014년도 1차 년도 연구는 그간의 청소년활동 개념을 광의적으로 포괄하고, 이에 맞추어 조사도구를 개발하였으며,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정책제언을 하였다. 2015년도 2차 년도 연구는 청소년활동 개념에 대한 진중한 모색과 더불어 1차 년도 조사도구를 수정 및 보완한 조사도구를 활용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와 더불어 청소년활동 전반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실태조사 결과, 전문가의견조사 결과, 전문가자문회의의 결과를 토대로 종합적으로 제시하였다.

이 연구의 1차적인 목적은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것이다.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1차 년도, 2차 년도, 3차 년도의 주요 청소년활동 실태의 시계열적 자료를 추가로 제시하였다. 하지만 조사자체 보다는 그 결과를 활용하는 것이 정책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2차 년도에 종합적으로 제시한 정책제언을 세부적으로 구체화하는 작업도 부가적으로 실시하였다.

따라서 2016년도 3차 조사에 해당하는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 연구 III』의 연구 목표들은 다음과 같이 설정될 수 있다.

첫째, 3차 년도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2014년 1차 년도, 2015년 2차 년도에 이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통합조사를 통하여 전국 규모의 3차 년도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둘째, 시계열 자료를 제시하였다. 1~3차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 결과 중 비교가능한 결과들을 시계열적으로 제시하였다.

셋째, 정책제언을 구체화하였다. 2차 년도 조사에서 제시한 종합적인 정책제언을 사안별로 세분화하여 구체화시키는 작업을 실시하였다.

## 2. 연구내용

### 1)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를 위한 설문문항 보완 및 신규 정의적 문항 배치

2014년 1차 년도 조사도구를 수정하고 보완한 2015년도 2차 년도 실태조사 설문지를 다시 점검하고, 부분적으로 수정하며, 청소년활동의 성과 또는 효과성을 확인할 수 있는 문항 등 신규로 요청되는 조사도구들을 발굴·보완하였다. 이 부분은 이론적 배경에 과정과 결과를 제시하였다.

### 2)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분석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분석을 위하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통합조사를 통하여 전국규모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3차 년도인 2016년부터는 1, 2차 조사결과와의 비교자료를 제시하였다. 조사결과부분에 과정과 결과를 제시하였다.

### 3) 청소년활동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언

2015년도 2차 년도 연구에서 제시한 5개 영역 17개 정책과제들을 세부적으로 파고들어 실제 정책과 연결성을 갖는 구체적인 세부정책과제와 로드맵을 개발하여 제시하였다. 이 부분은 요약, 결론 및 제언 부분에 과정과 결과를 제시하였다.

#### 4) 연차별 주요 추진계획

이 연구는 총 5차 년도 연구 중 3차 년도 연구에 해당하며, 각 년도별 주요 추진계획은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1차 년도 (2014년)	연구내용	·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 설문지 개발 ·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 1차 년도 조사
	연구방법	· 문헌연구, 전문가협의회, 워크숍, 전문가 의견조사 · 전국규모 설문조사
2차 년도 (2015년)	연구내용	·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 2차 년도 조사 · 부가조사(청소년활동 참여 실태 관련 전문가 의견조사)
	연구방법	· 문헌연구, 전문가협의회, 워크숍, 전문가 의견조사 · 전국규모 설문조사
3차 년도 (2016년)	연구내용	·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 3차 년도 조사
	연구방법	· 문헌연구, 전문가협의회, 워크숍 · 전국규모 설문조사
4차 년도 (2017년)	연구내용	·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 4차 년도 조사 · 부가조사(청소년활동 활성화정책 심화참여 실태 관련 전문가 의견조사)
	연구방법	· 문헌연구, 전문가협의회, 워크숍, 전문가 의견조사 · 전국규모 설문조사
5차 년도 (2018년)	연구내용	·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 5차 년도 조사 · 5개년 실태조사 종합
	연구방법	· 문헌연구, 전문가협의회, 워크숍, 전문가 의견조사 · 전국규모 설문조사

【그림 1-1】 연도별 연구 추진 계획

\* 자료: 최창욱, 문호영, 김진호(2015).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 연구 II」. p. 6. 수정.

### 3. 연구방법

#### 1) 문헌연구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 1차년도, 2차년도를 개괄하고,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 및 효과에 대한 선행연구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과제가 기초과제로 조사에 중점을 두고 있어 설문지 개발을 위한 문헌연구에 중점을 두어 연구를 수행하였지만, 2차년도 최종보고서 평가결과 청소년활동과 정의적특성의 관계에 대한 분석의 필요성에 대한 요구를 받아들여 이에 대한 선행연구를 분석하였다.

#### 2) 전문가자문회의

연구 진행 과정에서 전문가들의 의견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하여 전문가자문회의를 수시로 개최하였다. 전문가자문회의의 내용은 연구진행 과정에 대한 의견수렴, 설문지 수정 및 보완, 청소년활동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언 구체화 등이었다. 특히 청소년활동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언은 2차년도 기개발된 17개 과제를 다시 심층적으로 논의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수정 보완이 이루어졌다.

#### 3) 전국규모 실태조사

2014년도에 실시한 1차년도 연구, 2015년도에 실시한 2차년도 연구의 조사도구를 수정·보완하여 전문가의 검토를 거친 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매년 실시하는 통합조사를 통하여 전국 초·중고에 다니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 4) 기타 연구방법; 정책실무협의회, 현장실무협의회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 결과 활용방안과 정책반영을 협의하기 위하여 청소년정책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의 주요 과와 정책실무협의회를 개최하였고, 역시 활용방안과 정책의 현장 적용성 강화를 위하여 현장전문가들과의 현장실무협의회를 개최하였다.



## 제 II 장

---

# 연구개요 및 선행연구 분석

1.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 연구 I」 개요
2.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 연구 II」 개요
3. 청소년활동 참여 및 효과 관련 선행연구 분석



## 제 II 장 연구개요 및 선행연구 분석

### 1.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 연구 I」 개요<sup>1)</sup>

1차년도 연구는 청소년활동의 참여 실태를 조사하여 과학적 정책 지원의 근거를 제공하고, 청소년활동의 의미와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산과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를 위한 설문지개발과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주요 연구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활동, 문화활동, 직업체험활동에 대한 문헌을 수집·분석하고,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에 대한 선행연구와 주요 국가의 청소년활동 관련 정책에 대한 문헌자료를 검토하였다. 둘째, 청소년활동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자문회의를 통해 설문문항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청소년활동 활성화를 위한 정책 대안을 도출하였다. 셋째, 전문가 의견조사를 통하여 설문문항의 적합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고, 수집된 전문가 의견을 분석하여 설문 문항을 수정·보완하였으며, 정부의 청소년활동 관련 정책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목적으로 현재 시행중인 청소년활동 정책에 대한 만족도와 한계 및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넷째, 청소년활동의 참여 실태와 효과성 및 요구를 파악하기 위하여 2014년 조사에서는 체험활동, 문화활동, 직업체험활동을 주 내용으로 하는 「청소년 체험활동 및 문화활동 실태조사」를 전국의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4,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다섯째, 청소년활동정책에 대한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와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문가 워크숍을 실시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협의하였다.

이론적 배경에서는 청소년활동의 개념을 광범위하게 탐색하였고, 국내외 청소년활동정책의 동향을 파악하였다. 국내동향은 여성가족부의 청소년활동정책, 교육부의 청소년활동 관련 정책

1) 연차연구의 특성상 독자들의 가독성을 높이기 위하여 임희진, 송병국(2014)의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 연구 I」의 주요 연구내용을 최창욱, 문호영, 김진호(2015)의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 연구 II」의 pp. 26~32에 실었으며, 다시 이를 재인용하여 여기에 수록함.

(창의적 체험활동, 자유학기제 등), 문화체육관광부의 청소년활동 관련 정책을 파악하였다. 국외 청소년활동정책은 미국, 호주, 네덜란드, 노르웨이, 유럽연합의 주요 청소년활동정책을 탐색하였다. 한편, 설문지 구성과 관련하여 국내 청소년활동 참여 관련 조사연구의 동향을 파악하였고, 청소년활동 참여 효과 관련 연구동향을 분석하였다.

임희진, 송병국(2014)의 연구에서는 김현철 외(2013)의 연구를 바탕으로 <표 II-1>과 같이 각종 청소년활동 참여 관련 조사연구를 분석하였고 이 중의 일부를 설문지 개발에 활용하였다.

**표 II-1** 청소년 활동·문화 관련 선행 실태조사의 개요

연구자(연도)	조사명	조사대상	조사영역
여성가족부 (2012)	2011 청소년종합실태조사	9~24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문화(개인 활동 및 시설이용 경험 /미디어, 인터넷)</li> <li>- 가정생활(부모님과의 활동/부모님의 대화/안전/가정생활 만족도)</li> <li>- 학교생활 및 방과 후 활동</li> <li>- 진로 및 아르바이트(향후 진로 계획/진로교육 경험/진로체험 경험/장래 희망 직업/아르바이트 경험)</li> </ul>
임지연, 최인재, 김형주 (2008)	한국 청소년 발달지표 조사Ⅲ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중1~고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배경(청소년인구/생활여건)</li> <li>- 투입(청소년 기관 및 프로그램/청소년지도사/청소년정책 재정)</li> <li>- 과정(청소년 활동/청소년 단체/청소년 복지/청소년 상담/청소년 교류/청소년 자원봉사/청소년 선도 및 교정/청소년 보호/학교교육)</li> <li>- 결과(신체적 건강/정의적 특성/인지적 특성/사회적 역량/시민적 역량/진로 및 직업적 역량)</li> </ul>
임지연, 김정주, 김신영, 김민 (2009)	한국 청소년 지표 조사Ⅳ - 아동·청소년 활동·문화 지표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초4~고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소년 활동(활동의식-활동가치, 활동태도/활동경험-집단활동, 봉사활동, 문화활동, 야외활동, 스포츠활동, 교류활동, 시설이용)</li> <li>- 청소년 문화(문화의식-문화가치, 문화태도/ 문화경험-순수예술문화, 대중예술문화, 정보문화)</li> <li>- 청소년역량(정서적/인지적/사회적/시민적/직업적 역량)</li> </ul>

연구자(연도)	조사명	조사대상	조사영역
이종원, 장근영, 김호순 (2007)	청소년활동 참가실태 조사연구 (국가청소년위원회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초4~초6 중1~중2 고1~고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소년활동을 여가활동, 체험활동, 봉사활동, 동아리활동, 교류활동의 다섯 가지 하위유형으로 분류</li> <li>- 각 유형별 활동에 대한 참여경험과 횟수, 참여 계기, 참여시기 및 기간, 활동 만족도</li> <li>- 여가활동 참여, 청소년시설 이용경험, 주5일제 수업의 영향</li> </ul>
장근영, 김기현 (2006)	청소년활동 참가실태 조사연구 (국가청소년위원회 · 한국청소년개발원)	초,중,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소년활동 프로그램별 참가현황</li> <li>- 일상생활과 청소년활동</li> </ul>
임영식, 문성호, 정경은 (2008)	청소년 인증수련활동 영역별 효과성 척도 개발 연구 (보건복지가족부 · 한국청소년진흥센터)	11~16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학정보, 봉사, 문화예술</li> <li>- 교류, 직업체험, 모험개척, 환경보존</li> </ul>
문성호, 문호영, 김용대 (2009)	청소년활동프로그램 공모사업 만족도 조사 (보건복지가족부)	초,중,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태, 만족도, 효과성(청소년활동 프로그램 관심도, 스트레스 해소, 긍정적 사고, 단체활동 참여, 친구와의 관계, 학교선생님과의 관계, 학교생활의 즐거움, 학습의욕)</li> </ul>
김현철 외 (2012)	창의적 체험활동 지역사회 운형모형 개발연구 II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초4~고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창의적 체험활동에 대한 인식(만족도), 학업동기(내적/외적/무동기), 자아존중감, 몰입</li> </ul>
김현철 외 (2013)	국가 청소년활동정책 체계화 연구	초6 중2 고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체험활동 영역별 참여도 및 참여방식</li> <li>- 참여활동 장애요인 및 요구</li> <li>- 체험활동 관련시설 이용경험</li> <li>- 체험활동에 대한 인식 및 태도, 자아존중감, 동기, 몰입, 행복감, 학습활동 참여</li> </ul>

\* 자료: 임희진, 송병국(2014),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 연구 I」, pp. 47~48.

이 연구를 위한 설문지는 김현철 외(2013)의 「체험활동 및 문화활동 실태조사」 내용, 안선영, 김희진, 강영배, 배경내(2013)의 「청소년 직업체험 실태조사」 내용과의 연계성을 유지하면서, 청소년 활동·문화 관련 선행 실태조사(여성가족부, 2013; 임지연 외, 2009; 여성가족부, 2012; 문화체육관광부, 2012; 김현철 외, 2012; Rogenberg, 1965; 김아영, 2008; 한국고용정보원, 2006; 한국방정환재단, 연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2010)를 검토하고 설문문항을 수정·보완하였다. 설문지 초안에 대해서 예비조사(집단면접조사)와 전문가 의견조사를 실시하여 최종적으로

설문지를 확정하였다. 최종 확정된 실태조사 조사항목, 출처는 다음 <표 II-2>, <표 II-3>과 같다.

**표 II-2** 2014년 제1차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 항목 구성

조 사 내 용		문 항	
		문항 수	문항번호
체험활동 참여여부 및 참여방식과 참여도	건강·보건활동	9	문1, 문1-1(1~8)
	과학정보활동	9	문2, 문2-1(1~8)
	교류활동	9	문3, 문3-1(1~8)
	모험개척활동	9	문4, 문4-1(1~8)
	문화예술활동	9	문5, 문5-1(1~8)
	봉사활동	9	문6, 문6-1(1~8)
	직업체험활동	9	문7, 문7-1(1~8)
	환경보존활동	9	문8, 문8-1(1~8)
	자기(인성)계발활동	9	문9, 문9-1(1~8)
	사회참여활동	9	문10, 문10-1(1~8)
체험활동 참여 전후의 교육 여부		2	문11(1~2)
참여하고 싶었던 체험활동 유무 및 참여 못한 이유		2	문12, 문12-1
적극적인 체험활동 참여를 위한 필요요소		1	문13
체험활동 관련 시설 이용 경험		5	문14(1~5)
문화예술 행사 직접 관람여부 및 횟수		40	문15(1~8)
문화예술 행사 참여여부 및 횟수		20	문16(1~10)
진로체험 경험여부 및 도움정도		9	문17(1~9)
체험활동에 대한 인식 및 태도		16	문18(1~16)
동기		18	문19(1~18)
자아존중감		10	문20(1~20)
진로성숙도		27	문21(1~27)
행복감		7	문22(1~7)
가족구성원		1	배경문항1
부모님의 학력		2	배경문항2(1~2)
부모님의 직업		2	배경문항3(1~2)
응답자의 학교성적		1	배경문항4
가정의 경제수준		1	배경문항5
총 문항수		254	

\* 자료: 임희진, 송병국(2014),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 연구 I」, p. 59.

표 II-3

2014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 문항내용 및 출처

영역	내용	출처
체험활동 참여변인	체험활동 영역별 참여여부 · 건강·보건활동 · 봉사활동 · 과학정보활동 · 직업체험활동 · 교류활동 · 환경보존활동 · 모험·개척활동 · 자기(인성)개발활동 · 문화예술활동 · 사회참여활동	· 여성가족부(2013)의 인증수련활동 영역별 분류를 토대로 작성
	체험활동 영역별 참여방식 · 8개 참여방식에 대한 참여여부 및 참여도 (소극적 참여와 적극적 참여로 응답)	· 김현철 외(2013) 수정·보완
	체험활동 참여전후 교육여부 · 사전교육 · 사후교육	· 안선영 외(2013) 수정·보완
	체험활동 장애요인 및 요구 · 참여하고 싶은 활동 중 참여하지 못한 활동 유무 · 참여하지 못한 이유(1, 2, 3순위로 응답) · 체험활동 적극 참여를 위해 필요한 것 (1, 2, 3순위로 응답)	· 임지연 외(2009) 수정·보완
	체험활동 관련시설 이용경험 · 체험활동 관련 시설 이용 경험 정도 (5개 시설 각각에 대한 이용경험)	· 여성가족부(2012)의 청소년종합실태조사를 참고하여 작성
	문화예술 행사 관람 및 참여 · 문화예술 행사 관람여부 및 관람횟수 · 문화예술 행사 참여여부 및 참여횟수	· 문화체육관광부(2012)를 참고하여 작성
	진로체험 경험여부 · 진로체험 유형별 경험여부 및 도움정도	· 안선영 외(2013)를 참고하여 작성
정의적 특성변인	체험활동에 대한 인식 및 태도(15개 문항)	· 김현철 외(2012)
	자아존중감(10개 문항)	· Rogenberg(1965)
	동기 · 외재적 동기(6개 문항) · 내재적 동기(6개 문항) · 무동기(6개 문항)	· 김아영(2008)
	진로 성숙도 · 계획성(5개 문항) · 독립성(5개 문항) · 태도(5개 문항) · 자신지식(6개 문항) · 진로행동(6개 문항)	· 한국고용정보원(2006)
	행복감 · 주관적 행복(6개 문항) · 행복도(1개 문항)	· 한국방정환재단, 연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2010)

\* 자료: 임희진, 송병국(2014),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 연구 I」, p. 180.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먼저,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에 있어서 청소년의 체험활동 참여율은 99.3%로 대부분의 청소년은 한 개 영역 이상의 청소년활동을 경험하고 있었고, 참여율이 높은 체험활동 영역은 「문화예술활동」(92.1%), 「직업체험활동」(79.8%), 「건강·보건활동」(79.0%)이었으며, 2013년에 비해 「문화예술활동」, 「건강·보건활동」, 「직업체험활동」이 증가하였고, 「모험개척활동」은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가족유형, 학업성적, 경제수준별로는 유의차가 있는 모든 영역에서 양부모가정, 학업성적 상위, 경제수준 상층에 속한 학생들의 참여율이 높았고, 이러한 경향은 문화예술행사 관람률 및 참여율의 경우에도 같았다.

둘째, 체험활동의 폭을 살펴보면, 절반 정도의 청소년들은 10개 영역 중 4개 영역 내외의 체험활동에 참여하고 있었으며, 4개 영역 이상의 체험활동을 경험하고 있는 청소년은 전체 청소년의 70%였다. 체험활동의 참여 경로는 학교에서 단체로 참여하는 방식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교내동아리활동으로 참여, 개인적으로 활동하는 방식이 모든 활동 영역에서 많았다. 여자 청소년, 초등학생, 학업성적이 상위인 학생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체험활동에 참여하였으며, 특성화계 고등학생들의 적극적 참여율이 낮은 편이었다. 청소년의 진로체험은 「진로캠프」, 「직업인 초청 강연」, 「시청각자료를 통한 체험」 등의 간접 체험 경험률이 높았으나, 청소년들은 「직업모의체험」, 「직업현장 업무 체험」, 「학교에서의 실습 및 견학」 등 직접 체험이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였다.

셋째, 체험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전과 후에 매번 교육을 받았다는 청소년은 각각 5명 중 1명 정도에 불과하였고, 사전·사후교육은 학교유형별로는 특성화계 고등학교, 지역규모별로는 읍/면지역에서 특히 미흡하였다. 청소년 10명 중 4명 이상은 참여하고 싶은 체험활동에 참여하지 못한 경험이 있었고, 참여하고 싶은 체험활동에 참여하지 못한 이유는 「참여할 시간이 없어서」, 「어떤 내용의 활동들이 있는지 몰라서」, 「프로그램의 내용이 마음에 안 들어서」라고 응답하였다.

넷째, 청소년활동 참여의 관련 요인과 관련해서는 가정의 경제수준이 높은 청소년들이 다양한 체험활동에 참여하고,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으며, 관련시설 이용률도 높았다. 또한 어머니가 직업을 가진 경우보다 전업주부인 경우에 더 많은 종류의 체험활동을 경험하고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전·사후교육을 받은 청소년이 체험활동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였고, 사전·사후 교육은 프로그램의 안전과 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사전·사후교육을 충실히 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필요성이 나타났다. 참여방식에 있어서는 학교에서 단체로 참여하거나 교내동아리활동으로 참여하는 경우 등 학교를 기반으로 하는 참여방식일

경우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청소년이 많았다. 청소년이 다양한 활동을 경험할수록 체험활동에 대한 인식 및 태도, 내재적 동기, 진로성숙도, 행복감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진로성숙도 중에서는 특히 진로에 대한 계획성과 진로행동 수준이 크게 향상되었으며, 체험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청소년들이 소극적으로 참여한 청소년들에 비해 체험활동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내재적 동기, 진로성숙도, 자아존중감, 행복감이 높게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에 기반하여 전문가의견조사를 통하여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청소년활동정책 추진계획의 수립, 청소년체험활동 프로그램의 질 관리, 타 부처 정책사업과의 연계, 지역사회 연계와 학교와의 협력 강화, 소외계층 청소년에 대한 지원 강화, 청소년들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한 선도적 사업의 추진, 과학적인 청소년활동정책 추진시스템의 구축 등의 정책제언을 하였다.

## 2.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 연구 II」 개요<sup>2)</sup>

2차 년도 연구는 1차 년도 연구에 이어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를 조사하고, 청소년활동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관련 문헌분석,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 전문가의견조사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 1)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

2015년도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를 위한 조사문항은 문헌연구, 자문회의, 연구진회의 등을 통해 확정하였다. 조사문항은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를 향후 5년간 비교·분석하기 위해 1차 년도의 핵심적인 내용을 유지하면서, 신규로 필요한 문항을 추가하였다.

2014년도 1차 년도 조사문항과 2015년도 수정 및 보완된 2차 년도 조사내용을 비교하면 <표 II-4>와 같다. <표 II-4>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조사내용 중 8개 분야가 2014년과 동일하고, 7개 분야는 수정 및 보완하였으며, 6개 분야는 신규로 배치하였다. 2015년도 조사문항의 구성은 <표 II-5>와 같다.

2) 최창욱, 문호영, 김진호(2015)의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 연구 II」의 주요 연구내용을 요약한 것임.

표 II-4 2014년도-2015년도 조사문항 비교

조사 영역	조사내용	2014년	2015년		
			동일	수정·보완	신규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	청소년활동 영역별 참여경험	○		○	
	청소년활동 만족도				○
	청소년활동 참여형태	○		○	
	청소년활동 참여경로				○
	청소년활동 장애요인	○		○	
	청소년활동 활성화요인	○		○	
	향후 참여하고 싶은 청소년활동				○
	청소년활동 관련시설 이용경험	○		○	
	청소년정책 인지도				○
	문화예술 행사 참여여부 및 횟수	○		○	
	청소년활동 참여 전후의 교육 여부	○			
	참여하고 싶었던 청소년활동 유무	○			
	문화예술 행사 직접 관참여부 및 횟수	○			
	진로체험 경험여부 및 도움정도	○			
정 의 적 특 성	자아존중감	○	○		
	진로성숙도	○		○	
	행복감	○	○		
	리더십생활기술				○
	청소년활동에 대한 인식 및 태도	○			
	동기	○			
배 경 변 인	성별	○	○		
	가족구성원	○	○		
	거주 지역				○
	부모님 학력	○	○		
	부모님 취업여부	○	○		
	학업성적	○	○		
	가정의 경제수준	○	○		

\* 자료: 최창욱, 문호영, 김진호(2015).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 연구 II」. p. 52, 수정

조사 영역	조사내용		문항	
			문항수	문항번호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	청소년활동 영역별 참여경험	건강·보건활동	7	문1(1~7)
		과학정보활동	6	문2(1~6)
		교류활동	4	문3(1~4)
		모험개척활동	5	문4(1~5)
		문화예술활동	8	문5(1~8)
		봉사활동	7	문6(1~7)
		진로탐색 및 직업체험활동	5	문7(1~5)
		환경보존활동	6	문8(1~6)
		자기(인성)계발활동	4	문9(1~4)
		청소년참여활동	6	문10(1~6)
	청소년활동 만족도	5	문11(1~5)	
	청소년활동 참여형태	1	문12	
	청소년활동 참여경로	1	문13	
	청소년활동 장애요인	1	문14	
	청소년활동 활성화요인	1	문15	
	향후 참여하고 싶은 청소년활동	1	문16	
	청소년활동 관련시설 이용경험	10	문17(1~10)	
	청소년정책 인지도	9	문18(1~9)	
	정의적 특성	자아존중감	10	문19(1~10)
진로성숙도		7	문20(1~7)	
행복감		7	문21(1~6), 문21(7)	
리더십생활기술		30	문22(1~30)	
배경변인	성별	1	배경문항1	
	가족구성원	1	배경문항2	
	거주 지역	1	배경문항3	
	부모님 학력	1	배경문항4	
	부모님 취업여부	1	배경문항5	
	학업성적	1	배경문항6	
	가정의 경제수준	1	배경문항7	

\* 자료: 최창욱, 문호영, 김진호(2015).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 연구 II」. pp. 53~54. 수정

이상의 조사도구를 활용하여 청소년활동 영역별 참여경험, 청소년활동 만족도, 청소년활동 참여형태, 청소년활동 참여경로, 청소년활동 장애요인, 청소년활동 활성화요인, 향후 참여하고 싶은 청소년활동, 청소년활동 관련시설 이용경험, 청소년정책 인지도, 청소년활동 참여경험과 정의적 특성 등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를 살펴보기 위해 전국 초·중·고등학생 10,50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최근 1년간 청소년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비율은 97.4%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청소년활동 영역별로 살펴보면, ‘건강·보건활동’의 참여율이 93.7%로 가장 높았고, ‘문화예술활동’(79.7%)과 ‘진로탐색 및 직업체험활동’(63.8%)도 비교적 높게 분석되었다. 이어서 ‘모험개척활동’(55.7%), ‘봉사활동’(55.4%), ‘과학정보활동’(53.6%), ‘환경보존활동’(42.4%), ‘자기(인성)계발활동’(41.3%), ‘교류활동’(25.5%), ‘청소년참여활동’(15.3%) 순으로 높은 참여율을 보고하였다. 2014년도와 비교했을 때 청소년활동의 전체 참여율은 유사하였으나 영역별 참여율에 있어서는 눈에 띄는 차이가 발견되기도 하였다. 즉, ‘모험개척활동’(22.3%p), ‘과학정보활동’(19.4%p), ‘환경보존활동’(13.9%p), ‘건강·보건활동’(12.1%p)은 큰 증가폭을 보인 반면, ‘진로탐색 및 직업체험활동’(15.8%p), ‘문화예술활동’(13.2%p)의 참여율은 크게 감소하였다.

둘째, 청소년활동의 전반적인 만족도는 평균 3.32로 보통수준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는 ‘지도자 만족도’의 평균이 3.36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 ‘활동내용 만족도’(M=3.31), ‘시설·공간·장비 만족도’(M=3.27), ‘일정·시간 만족도’(M=3.22) 순으로 조사되었다.

셋째, 청소년활동의 참여형태는 주로 ‘학교에서 단체로 참여’(51.0%)하였으며, 그 다음 ‘교내동아리활동으로 참여’(21.4%)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활동에 참여하게 된 경로는 ‘학교 선생님의 권유로’ 참여했다는 응답이 38.7%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부모님 및 가족의 권유로’(19.1%), ‘친구 또는 선배의 권유로’(15.4%) 참여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넷째, 청소년활동의 장애요인을 살펴본 결과, ‘참여할 시간이 없어서’라는 응답이 33.1%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청소년활동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 필요한 활성화요인에 대해서는 ‘청소년활동 시간이 더 확보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28.1%로 가장 많았으며, ‘프로그램이 좀 더 흥미롭게 구성되어야 한다’(21.5%)가 후순위로 조사되었다. 또한 향후 참여하고 싶은 청소년활동으로는 ‘문화예술활동’(21.1%)과 ‘진로탐색 및 직업체험활동’(21.0%)이 가장 선호되었으며, ‘모험개척활동’(16.4%), ‘과학정보활동’(11.6%), ‘건강·보건활동’(9.7%) 등의 순으로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섯째, 청소년활동 관련시설의 이용경험을 분석한 결과, ‘도서관’ 이용률이 67.1%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 ‘공연 및 전시시설’(53.8%), ‘수목원, 수목림, 자연 휴양림’(39.2%), ‘주민센터, 문화센터’(35.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현재 시행되고 있는 청소년정책에 대한 인지수준은 평균 1.18~1.41로 높지 않았으며, ‘청소년운영위원회’(M=1.41)와 ‘청소년어울림마당’(M=1.40)에 대한 인지도가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곱째, 청소년의 정의적 특성 가운데 자아존중감의 평균점수는 3.58, 진로성숙도는 평균 3.64, 주관적 행복감은 평균 3.82, 리더십생활기술은 평균 3.54로 보통수준 이상으로 높게 확인되었다. 또한 이러한 특성들은 청소년활동의 참여경험 유무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참여 청소년이 비참여 청소년보다 정의적 특성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2) 전문가의견조사

청소년활동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을 도출하고자 학계전문가 10명, 현장전문가 12명, 관계공무원 3명 등 25명을 대상으로 총 2회에 걸쳐 전문가 의견조사를 진행하였다. ‘청소년활동 참여 장애요인과 활성화 방안’, ‘청소년활동정책의 현재 문제점과 향후 필요한 정책’, ‘학교 밖 청소년의 청소년활동 참여 장애요인과 활성화 방안’에 관한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문가들이 제시한 청소년활동 참여의 장애요인을 살펴보면, 참여 청소년의 측면에서는 ‘시간부족’이, 운영기관 및 지도자 측면에서는 ‘청소년지도자의 열악한 근무환경’이, 가정·학교·지역사회 측면에서는 ‘청소년활동에 대한 낮은 인식’, ‘입시위주의 교육풍토’가 가장 큰 문제로 언급되었다.

둘째, 청소년활동 참여 활성화를 위해 참여 청소년 측면에서는 ‘학교 등과 청소년활동시설 간 연계·협력 강화’, ‘학교 교육과정의 변화를 통한 입시부담 완화’가, 운영기관 및 지도자 측면에서는 ‘재정지원 확대’, ‘청소년지도자 처우개선’이, 가정·학교·지역사회 측면에서는 ‘청소년활동 인식개선’, ‘학교와 협력 및 연계사업 강화’ 등이 중요하게 강조되었다.

셋째, 청소년활동정책의 현 문제점으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는 ‘청소년(활동)정책 예산부족’이, 청소년기관 차원에서는 ‘청소년활동지원기관의 행정전달체계 기능 미흡’, ‘시·군·구 단위 청소년활동 전달체계 부재’가, 청소년수련시설 차원에서는 ‘청소년수련시설 지원·관리 부족’이 가장 크게 지적되었다. 그리고 청소년단체 차원에서의 가장 큰 문제점은 ‘청소년단체, 관련기관과의 연계·협력 부족’인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향후 필요한 청소년활동정책에 대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는 ‘청소년육성기금 등 청소년(활동)정책 재정 확충’, ‘청소년육성전담공무원 도입 및 확대’가, 청소년기관 차원에서는 ‘청소년활동지원기관으로서의 역할·기능 재정립’, ‘청소년활동지원기관 간 연계·협력 강화’가 중요하게 언급되었다. 또한 청소년수련시설 차원에서는 ‘청소년수련시설 지원·관리 강화’, ‘청소년지도자 법적 배치기준 개정’이, 청소년단체 차원에서는 ‘청소년단체의 역할·기능 재정립’, ‘청소년단체, 관련기관과의 연계·협력 강화’, ‘청소년단체별 특성화·전문화’ 등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다섯째, 학교 밖 청소년의 청소년활동 참여 장애요인을 조사한 결과, 참여 청소년 측면에서는 ‘청소년활동 정보 부족 및 접근의 어려움’이, 운영기관 및 지도자 측면에서는 ‘관련 예산 및 지도인력 부족’이 가장 큰 문제로 나타났다. 아울러 가정·학교·지역사회 측면에서의 가장 큰 장애요인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부정적 인식 및 관심부족’이며, 제도적·정책적 측면에서는 ‘수요자 특성에 따른 활동프로그램 부족’으로 예산부족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여섯째, 학교 밖 청소년의 청소년활동 참여 활성화를 위해 참여 청소년측면에서는 ‘학교, 상담·복지시설 등과의 연계·협력 강화’, ‘특성화된 활동프로그램 개발·보급’이, 운영기관 및 지도자 측면에서는 ‘종사자의 처우 개선’, ‘학교, 상담·복지시설 등과의 연계·협력 강화’, ‘전문 인력 확보 및 배치’가, 가정·학교·지역사회 측면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 네트워크 강화’, ‘학교 밖 청소년 대상 활동프로그램 개발·보급’,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및 관심 제고’가, 제도적·정책적 측면에서는 ‘관련 부처 간 연계·협력 체계 구축 및 강화’, ‘청소년활동 지원 종합계획 수립’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3) 정책제언

청소년 실태조사, 전문가의견조사, 전문가자문회의, 정책연구협의회 등을 통하여 청소년활동 참여 활성화를 위한 기본전략과 정책제언을 제시하였다. 먼저 청소년활동 참여 활성화를 위한 기본전략은 청소년 주도성, 활동기반의 안정성, 청소년활동 운영기관 및 청소년활동지도자의 전문성, 연계·협력의 지속성, 활동의 효과성 등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이러한 기본전략을 바탕으로 청소년활동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을 다음과 같이 5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첫째, 청소년활동 참여기회 보장을 위하여 학교, 청소년활동 운영기관 간 연계·협력 강화, 청소년 친화적 활동프로그램 개발·보급, 청소년활동 정보제공

기능 강화가 필요하다. 둘째, 청소년활동 운영기관 및 지도자 역량 강화를 위하여 표준임금표 개선 등 청소년지도자 복지 증진, 청소년수련시설 직종전환 등 청소년활동 운영기관에 재정여건 개선, 청소년지도자 직무연수 확대·강화가 필요하다. 셋째, 청소년활동을 위한 가정, 학교, 지역사회 지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가정, 학교, 지역사회의 청소년활동 인식개선, 청소년활동시설의 접근성 강화, 가족, 학교, 지역사회 연계 청소년활동프로그램 운영·확대가 필요하다. 넷째, 청소년활동정책 기반을 강화하기 위하여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활동정책 기반 강화, 청소년기관의 청소년활동정책 기반 강화, 청소년수련시설의 청소년활동정책 기반 강화, 청소년단체의 청소년활동정책 기반 강화가 필요하다. 다섯째, 학교 밖 청소년의 청소년활동 참여 강화를 위하여 학교 밖 청소년 관련기관 간 네트워크 강화, 학교 밖 청소년 대상 활동프로그램 개발·보급, 전문 인력확보·배치 및 종사자의 처우 개선,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청소년활동 제도·정책의 개선·보완이 필요하다.

### 3. 청소년활동 참여 및 효과 관련 선행연구 분석

청소년활동 참여 및 효과 관련 선행연구들은 독립변수를 기준으로 볼 때 크게 3가지 영역으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청소년활동 경험 유무 또는 활동 경험의 강도(strength)별 종속변수의 정도를 파악하는 연구들이다. 둘째, 청소년활동의 동기나 만족도별 종속변수의 정도를 파악하는 연구들이다. 셋째, 위 첫째와 둘째를 모두 연구한 연구들이다. 각 분류별 최근 순으로 관련 연구들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활동 경험유무 또는 활동경험의 강도별 종속변수의 정도를 파악하는 연구들은 강현주, 신인순(2015), 최경학, 문성호(2015), 홍은숙, 이화숙(2015), 김인설, 정득, 이종석(2014), 도종수, 성준모(2013), 정건희, 김용수, 김경휘(2013), 김남정, 임영식(2012), 김우철, 임순선, 한상철(2011), 김재철, 황매향, 김아영(2011), 박재숙(2010), 임영식, 문성호, 정경은(2010) 등이 있다.

강현주, 신인순(2015)은 청소년 체험활동이 공동체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지역사회인식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분석자료는 한국아동청소년패널 중학교 1학년 4차년도 데이터 1,978명을 활용하였다. 체험활동을 하는 청소년이 그렇지 않은 청소년보다 공동체의식이

높게 나타났다. 홍은숙, 이화숙(2015)은 청소년의 체험활동 중 자원봉사활동 경험이 진로의식 성숙에 미치는 영향을 부산시 중고등학교 2학년 재학생 376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자원봉사활동 경험이 많은 청소년들이 진로의식 성숙도가 높게 나타났다.

최경학, 문성호(2015)는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 탐험활동과 자아탄력성과의 교차검증을 2014년 7월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 동장 단계의 활동을 하고 있는 청소년들을 모집단으로 하여 탐험활동을 하기로 한 청소년 85명과 참여하고 있지 않은 청소년 6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탐험활동을 하는 청소년의 자아탄력성이 높게 나타났다. 김인설 외(2014)는 문화예술활동이 청소년 정서에 미치는 영향을 생태학적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한국아동청소년패널 2차년도 데이터에서 중학교 2학년 학생 2270명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는데 문화예술활동 경험집단의 긍정적 정서가 강하게 나타났다.

도중수, 성준모(2013)는 청소년활동 경험이 사회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2008년 한국아동·청소년 종합실태조사 데이터 중 중고등학생 2,070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청소년활동 경험이 사회성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밝혀내었다. 정건희 외(2013)는 청소년활동이 시민성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2012년 전북청소년활동진흥센터 '청소년활동 실태조사' 청소년 1,606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는데 청소년활동경험이 시민성 인식 향상에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왔다.

김남정, 임영식(2012)은 청소년 스트레스와 삶의 만족도 관계에서 청소년활동의 중재효과를 청소년참여기구 청소년 145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는데 청소년활동이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삶의 만족도를 높임을 밝혀내었다. 김우철 외(2011)는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 활동경험과 진로성숙도와의 관계를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 활동을 희망하거나 경험이 있는 청소년 153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활동경험이 있는 집단과 참여정도는 높은 집단의 진로성숙도가 높게 나타났다.

김재철 외(2011)는 체험활동과 진로성숙 간의 관계에서 긍정적 자아관과 내적가치관의 매개효과를 2007년 한국청소년패널조사 데이터 고등학교 3학년 2,332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는데 체험활동 참여가 긍정적 자아관과 내적직업가치관을 갖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재숙(2010)은 청소년 수련활동과 자원봉사활동, 자아존중감, 공동체의식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2008년 아동청소년종합실태조사 데이터 중고등학생 2,004명을 분석하였는데 수련활동과 자원봉사활동이 자아존중감을 높이고 이는 곧 공동체의식을 높인다는 결과를 보였다.

임영식 외(2010)는 청소년 인증수련활동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인증수련활동 프로그램 실시 5개 기관 및 시설 이용 청소년 108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인증수련활동은 직업체험활동의

효과성 하위영역인 자기이해, 실천의지, 경제의식, 직업이해 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청소년활동의 동기나 만족도별 종속변수의 정도를 파악하는 연구들은 진은설(2013), 류시영, 강방훈(2012), 김순규, 최혜정, 박신애(2012) 등이 있다.

진은설(2013)은 청소년활동의 참여동기, 활동만족도, 적응유연성 및 행복감의 관계를 연구하기 위하여 전국 16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청소년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중고등학생 425명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청소년활동 참여동기는 활동만족도, 적응유연성, 행복감을 높여주었고, 활동만족도는 적응유연성과 행복감을 높여주었다.

류시영, 강방훈(2012)은 청소년 체험활동의 만족도와 자아존중감 및 행복감의 관계를 아시아태평양잼버리에 참가한 한국 청소년 스카우트대원 203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체험활동 만족도는 자아존중감과 행복감을 높여주었다.

김순규 외(2012)는 청소년활동 참여만족, 도움정도, 관심정도가 청소년의 개인, 가족, 학교측면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2011년 전북 청소년활동 실태 및 욕구조사 데이터의 청소년 1,063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는데 청소년활동 참여만족, 도움정도, 관심정도가 자아존중감을 매개하여 청소년들의 개인, 가족, 학교 만족도는 높여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위 첫째와 둘째를 모두 연구한 연구들은 이웅택, 광현, 이은경(2016), 박주현, 이태자(2015), 김윤나(2012), 최창욱, 신윤호(2012), 김미현, 이현우, 정영근(2011), 문성호, 문호영(2010) 등이 있다.

이웅택 외(2016)는 청소년의 체험활동 만족, 참여수준과 삶의 만족에 대한 중단연구를 한국아동·청소년패널 3·5차년도 데이터 2,27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그 결과 청소년의 체험활동 만족도와 체험활동 참여수준은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주현, 이태자(2015)는 청소년 체험활동의 참여시간과 참여만족도가 삶의 만족도와 공동체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한국아동청소년패널 4차년도 데이터 2,108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청소년체험활동 총 참여시간과 참여만족도는 공히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와 공동체의식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윤나(2012)는 청소년정책참여활동의 특성이 생활역량에 미치는 영향을 청소년참여대회에 참가한 전국의 청소년참여위원회 및 청소년운영위원회 소속 청소년 212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청소년정책참여활동에 관한 중요성 인식정도, 참여활동의 정도가 청소년들의 생활역량을

강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창욱, 신윤희(2012)는 중등학생 청소년의 리더십생활기술과 청소년 활동 경험과의 관계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2010년 창의적 체험활동 설문조사 데이터의 중고등학생 7,098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주요 청소년참여변인인 참여기간, 참여정도, 성취기 대수준, 만족도 등이 높을수록 리더십생활기술 및 하위영역이 높게 나타났다.

김미현 외(2011)는 청소년 문화활동의 참여동기, 참여태도, 참여빈도 및 자기효능감의 구조적 관계 분석은 P시 인문계 고등학교 2학년 221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그 결과 청소년 문화활동의 참여빈도가 자기효능감에 직접적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성호, 문호영(2010)은 청소년 활동의 참여실태, 만족도 및 영역별 효과성을 청소년활동프로그램 공모사업에 참여한 청소년 중 만족도 분석은 1,141명, 효과성 분석은 625명을 활용하였다. 청소년활동 참여정도는 만족도와 효과성을 높였고, 만족도는 효과성을 높였다.

이상의 연구들에서 공통적인 사항은 청소년활동 참여는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청소년 활동 참여 실태 및 효과 분석에 대한 연구들은 청소년활동 전체의 효과로 일반화하기 힘들다. 측정도구와 활동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도 이에 대한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지만, 청소년활동 참여관련 변인과 정의적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석하고자 하였다.

## 제 Ⅲ 장

---

# 설문조사 개요

1. 표본설계
2. 조사도구
3. 분석방법



## 제 III 장 설문조사 개요

### 1. 표본설계<sup>3)</sup>

#### 1) 모집단 분석

##### (1) 모집단

본 조사의 모집단은 조사시점 기준 전국 초등학교 4~6학년, 중학교 1~3학년, 고등학교 1~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다.

##### (2) 모집단 분석

먼저 16개 광역 시도별, 학교급별, 학년별 학생수를 <표 III-1>과 <표 III-2>에 정리하였다. 전체 조사대상 학생수는 4,683,052명이며 각 학교급별 학생수는 초등학교 1,333,402명(28.5%), 중학교 1,573,960명(33.6%), 고등학교 1,775,690명(37.9%)이다. 고등학교의 경우 고교유형과 학제를 기준으로 4개의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고등학교의 유형 구분은 다음과 같다.

- 유형 1(일반고) : 일반고 중 일반, 종합고등학교
- 유형 2(자율고) : 자율고 중 일반고등학교
- 유형 3(특성화고) : 가사, 공업, 농림업, 상업, 수산, 실업, 해양고등학교, 특성화고(대안교육), 특수목적고 중 예술, 체육고등학교
- 유형 4(특수목적고) : 과학, 국제, 외국어고등학교

지역×학교급×학년별 학교수 및 학생수 분포는 <표 III-2>~<표 III-8>에 정리되어 있다.

3) 이 부분은 강현철 교수(호서대학교)가 집필하였음. 표본설계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2016년 한국 아동·청소년 통합 조사'의 일환으로 이루어졌고, 4개의 과제가 동일한 표본설계를 바탕으로 조사를 진행함.

표 III-1 초등학교, 중학교 지역×학년별 학생수, 학교수

구분	학생수						학교수					
	초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4학년	5학년	6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서울	68,960	75,688	78,537	76,575	85,997	99,237	598	598	598	384	384	384
경기	111,646	120,900	124,124	120,138	134,725	151,815	1,215	1,212	1,218	613	613	612
인천	23,926	25,500	26,968	25,942	29,551	33,123	241	241	242	134	132	132
강원	12,347	13,249	13,691	14,124	15,872	17,700	330	328	343	162	162	162
충북	13,101	14,254	14,545	14,656	16,869	18,661	262	262	258	128	128	128
충남	19,628	20,968	21,176	20,826	23,641	25,991	427	432	434	205	205	205
대전	13,665	14,963	15,474	15,234	17,093	19,402	147	148	148	88	88	88
경북	19,911	21,103	22,160	22,129	25,596	29,227	399	410	415	287	286	287
경남	28,368	30,670	31,592	31,267	35,964	40,632	477	484	488	272	272	272
부산	23,588	25,808	27,453	27,130	31,546	35,662	306	306	306	171	171	170
대구	20,184	21,817	23,663	23,023	26,886	30,605	220	220	220	124	124	123
울산	10,037	10,730	11,305	10,903	13,021	14,837	120	120	119	62	62	61
전북	15,687	16,852	17,628	18,179	20,654	23,204	384	389	390	209	209	208
전남	14,369	15,742	16,432	16,818	19,368	22,017	411	411	416	246	250	252
광주	13,988	15,458	16,688	16,122	18,697	21,370	153	153	153	89	88	88
제주	5,990	6,229	6,640	6,470	7,333	8,128	112	112	114	45	44	44
합계	415,395	449,931	468,076	459,536	522,813	591,611	5,802	5,826	5,862	3,219	3,218	3,216

표 III-2 고등학교 지역×학교급×학년별 학생수

구분	유형 1(일반고)			유형 2(자율고)			유형 3(특성화고)			유형 4(특수목적고)		
	1학년	2학년	3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서울	64,164	67,478	72,003	14,211	13,148	13,712	18,885	18,310	18,139	2,157	2,191	2,181
경기	118,967	118,930	120,442	3,839	4,111	4,137	20,378	20,562	21,821	2,597	2,543	2,636
인천	21,725	22,175	23,461	1,989	1,747	1,828	7,646	7,565	7,680	761	782	638
강원	14,012	14,405	14,596	157	157	141	3,393	3,516	3,535	214	190	155
충북	11,025	11,300	11,770	1,550	1,589	1,543	5,332	5,469	5,466	247	232	166
충남	17,632	17,236	17,382	2,221	2,221	1,873	6,114	6,203	6,189	447	341	289
대전	11,972	12,468	12,714	2,891	2,857	2,776	3,611	3,727	3,787	434	437	488
경북	19,905	19,307	20,493	2,576	2,627	2,645	7,115	7,051	7,214	233	219	139
경남	30,131	30,512	31,140	2,770	2,747	2,839	5,720	5,859	6,079	562	535	363
부산	21,346	22,383	23,956	3,510	3,596	3,739	9,151	8,893	8,891	1,210	1,239	1,080
대구	18,278	18,533	19,829	5,586	5,723	5,956	6,689	6,446	6,747	328	311	246
울산	10,437	10,688	11,480	1,049	937	979	3,064	3,293	3,242	262	248	182
전북	16,677	17,121	17,346	997	959	908	5,443	5,534	5,554	219	216	174
전남	13,496	13,600	13,723	2,224	2,251	2,318	6,433	6,445	6,791	213	203	131
광주	15,157	15,503	15,995	1,138	1,105	1,050	4,262	4,379	4,771	94	94	12
제주	5,022	4,949	5,091	229	226	222	2,247	2,187	2,281	143	134	106
합계	409,946	416,588	431,421	46,937	46,001	46,666	115,483	115,439	118,187	10,121	9,915	8,986

표 III-3 고등학교 지역×학교급×학년별 학교수

구분	유형 1(일반고)			유형 2(자율고)			유형 3(특성화고)			유형 4(특수목적고)		
	1학년	2학년	3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서울	184	184	184	43	43	43	81	81	81	10	10	10
경기	352	344	338	13	13	13	82	82	82	13	13	13
인천	79	79	79	8	7	7	31	31	31	5	5	5
강원	86	86	86	1	1	1	28	27	27	2	2	2
충북	46	46	45	6	6	6	29	29	29	2	2	2
충남	76	72	70	10	10	9	39	39	39	4	3	3
대전	37	37	37	8	8	8	14	14	14	3	3	3
경북	119	117	117	11	11	11	60	60	60	3	3	3
경남	137	136	136	10	10	10	40	40	40	4	4	4
부산	81	80	80	14	14	14	42	42	43	7	7	7
대구	50	50	50	17	17	17	22	22	22	3	3	3
울산	36	35	35	4	4	4	13	13	12	2	2	2
전북	92	91	91	3	3	3	36	36	36	2	2	2
전남	80	80	82	8	8	8	53	53	53	2	2	2
광주	46	46	46	4	4	4	16	16	16	1	1	1
제주	17	17	17	1	1	1	10	10	10	2	2	2
합계	1,518	1,500	1,493	161	160	159	596	595	595	65	64	64

표 III-4 초등학교, 중학교 지역×학년별×성별 학생수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남학생수			여학생수			남학생수			여학생수		
	4학년	5학년	6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서울	35,603	38,929	40,529	33,357	36,759	38,008	39,846	44,740	51,877	36,729	41,257	47,360
경기	57,437	62,188	64,120	54,209	58,712	60,004	62,406	69,903	78,975	57,732	64,822	72,840
인천	12,278	13,093	13,826	11,648	12,407	13,142	13,416	15,231	17,112	12,526	14,320	16,011
강원	6,389	6,901	7,070	5,958	6,348	6,621	7,383	8,313	9,364	6,741	7,559	8,336
충북	6,779	7,465	7,575	6,322	6,789	6,970	7,694	8,757	9,748	6,962	8,112	8,913
충남	10,084	10,806	10,951	9,544	10,162	10,225	10,883	12,127	13,486	9,943	11,514	12,505
대전	7,097	7,714	7,971	6,568	7,249	7,503	7,954	8,950	10,079	7,280	8,143	9,323
경북	10,307	11,140	11,629	9,604	9,963	10,531	11,750	13,489	15,559	10,379	12,107	13,668
경남	14,751	16,140	16,730	13,617	14,530	14,862	16,488	19,016	21,606	14,779	16,948	19,026
부산	12,177	13,268	14,344	11,411	12,540	13,109	14,147	16,459	18,773	12,983	15,087	16,889
대구	10,611	11,433	12,431	9,573	10,384	11,232	12,362	14,163	16,243	10,661	12,723	14,362
울산	5,295	5,676	6,023	4,742	5,054	5,282	5,729	6,927	7,853	5,174	6,094	6,984
전북	8,244	8,672	9,058	7,443	8,180	8,570	9,594	10,567	12,029	8,585	10,087	11,175
전남	7,340	8,213	8,504	7,029	7,529	7,928	8,744	10,125	11,574	8,074	9,243	10,443
광주	7,232	8,024	8,776	6,756	7,434	7,912	8,395	9,669	11,143	7,727	9,028	10,227
제주	3,187	3,305	3,471	2,803	2,924	3,169	3,495	3,874	4,176	2,975	3,459	3,952
합계	214,811	232,967	243,008	200,584	216,964	225,068	240,286	272,310	309,597	219,250	250,503	282,014

표 III-5 고등학교 지역×학교급×학년별 남학생수

구분	유형 1(일반고)			유형 2(자율고)			유형 3(특성화고)			유형 4(특수목적고)		
	1학년	2학년	3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서울	31,789	33,895	36,071	9,850	9,009	9,440	8,766	8,345	8,057	821	808	752
경기	61,451	61,496	62,214	1,800	2,011	2,077	11,146	10,981	11,257	843	922	927
인천	11,324	11,524	11,981	1,218	1,045	1,101	3,995	3,911	3,904	335	347	267
강원	6,919	7,159	7,117	86	88	83	2,224	2,305	2,287	104	95	65
충북	5,498	5,622	5,853	896	931	906	3,018	3,077	2,903	91	100	57
충남	8,966	8,703	8,741	1,296	1,250	1,080	3,593	3,578	3,508	187	123	75
대전	5,775	5,970	6,076	1,908	1,861	1,824	2,025	2,154	2,148	188	204	187
경북	9,902	9,488	10,147	1,667	1,717	1,721	4,377	4,239	4,213	121	122	39
경남	14,582	14,686	15,100	2,223	2,231	2,281	3,542	3,645	3,667	223	221	111
부산	10,580	11,366	12,131	1,931	2,033	2,119	5,658	5,420	5,097	524	551	407
대구	8,758	9,293	9,740	3,041	3,204	3,322	4,254	3,978	4,110	170	184	120
울산	5,242	5,556	5,847	567	480	521	1,925	1,989	1,913	106	109	49
전북	8,056	8,343	8,607	863	830	785	3,161	3,204	3,130	84	74	60
전남	6,286	6,220	6,268	1,656	1,663	1,707	3,735	3,710	3,820	91	92	48
광주	7,512	7,802	7,964	689	663	663	2,314	2,312	2,560	81	73	10
제주	2,643	2,631	2,779	0	0	0	1,271	1,193	1,224	59	62	34
합계	205,283	209,754	216,636	29,691	29,016	29,630	65,004	64,041	63,798	4,028	4,087	3,208

표 III-6 고등학교 지역×학교급×학년별 여학생수

구분	유형 1(일반고)			유형 2(자율고)			유형 3(특성화고)			유형 4(특수목적고)		
	1학년	2학년	3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서울	32,375	33,583	35,932	4,361	4,139	4,272	10,119	9,965	10,082	1,336	1,383	1,429
경기	57,516	57,434	58,228	2,039	2,100	2,060	9,232	9,581	10,564	1,754	1,621	1,709
인천	10,401	10,651	11,480	771	702	727	3,651	3,654	3,776	426	435	371
강원	7,093	7,246	7,479	71	69	58	1,169	1,211	1,248	110	95	90
충북	5,527	5,678	5,917	654	658	637	2,314	2,392	2,563	156	132	109
충남	8,666	8,533	8,641	925	971	793	2,521	2,625	2,681	260	218	214
대전	6,197	6,498	6,638	983	996	952	1,586	1,573	1,639	246	233	301
경북	10,003	9,819	10,346	909	910	924	2,738	2,812	3,001	112	97	100
경남	15,549	15,826	16,040	547	516	558	2,178	2,214	2,412	339	314	252
부산	10,766	11,017	11,825	1,579	1,563	1,620	3,493	3,473	3,794	686	688	673
대구	9,520	9,240	10,089	2,545	2,519	2,634	2,435	2,468	2,637	158	127	126
울산	5,195	5,132	5,633	482	457	458	1,139	1,304	1,329	156	139	133
전북	8,621	8,778	8,739	134	129	123	2,282	2,330	2,424	135	142	114
전남	7,210	7,380	7,455	568	588	611	2,698	2,735	2,971	122	111	83
광주	7,645	7,701	8,031	449	442	387	1,948	2,067	2,211	13	21	2
제주	2,379	2,318	2,312	229	226	222	976	994	1,057	84	72	72
합계	204,663	206,834	214,785	17,246	16,985	17,036	50,479	51,398	54,389	6,093	5,828	5,778

표 III-7 초등학교, 중학교 지역×학년별 학급당 평균 학생수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4학년	5학년	6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서울	23.9	23.9	23.8	27.0	28.6	30.6
경기	23.3	23.7	23.6	29.2	30.9	31.3
인천	22.4	22.6	22.6	26.3	29.5	31.9
강원	14.1	14.2	13.8	19.5	20.8	23.4
충북	15.4	15.9	16.2	22.4	24.1	26.0
충남	15.9	15.9	16.3	23.4	24.3	25.0
대전	21.4	21.3	21.6	28.7	29.6	31.9
경북	17.2	17.1	17.0	18.9	19.7	20.8
경남	17.4	17.6	17.7	24.1	25.5	27.0
부산	20.9	21.1	21.4	25.6	28.3	30.4
대구	21.8	22.1	22.3	25.2	28.6	31.4
울산	21.2	21.5	21.8	26.7	27.8	30.8
전북	14.8	14.9	14.8	21.0	22.3	23.1
전남	14.7	15.0	15.0	20.5	21.9	22.1
광주	21.8	21.9	22.2	27.1	30.6	32.8
제주	18.0	17.8	17.6	25.9	27.7	28.9
합계	19.4	19.6	19.6	24.6	26.3	27.7

표 III-8 고등학교 지역×학교급×학년별 학급당 평균 학생수

구분	유형 1(일반고)			유형 2(자율고)			유형 3(특성화고)			유형 4(특수목적고)		
	1학년	1학년	1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서울	31.0	32.0	33.4	31.4	29.9	30.3	26.8	25.7	25.4	25.1	24.7	23.1
경기	31.7	31.9	33.2	29.7	30.4	30.4	28.2	28.4	29.3	25.0	24.4	24.7
인천	28.1	28.3	30.1	29.3	29.7	30.5	28.6	27.7	28.1	23.2	23.4	16.3
강원	26.9	27.8	27.8	14.3	14.3	12.8	21.4	22.4	22.7	25.5	23.1	17.2
충북	31.1	32.1	33.1	29.0	30.1	29.1	27.2	27.9	27.8	21.1	20.0	12.1
충남	29.8	30.7	31.5	29.6	29.5	28.5	25.5	25.5	25.7	20.0	20.8	17.1
대전	32.1	33.5	34.5	33.7	33.5	32.4	29.0	28.7	28.6	19.3	19.6	18.6
경북	26.5	26.5	28.0	29.9	30.4	30.8	24.1	24.0	24.7	22.4	21.2	10.3
경남	29.5	30.0	30.4	31.0	30.2	31.1	23.3	23.3	23.6	24.4	23.4	15.8
부산	29.1	29.8	31.3	28.7	29.5	30.3	25.9	24.6	23.9	21.4	21.8	19.1
대구	31.9	32.2	34.4	32.2	32.7	33.4	28.7	27.0	27.7	20.5	19.4	14.3
울산	32.2	32.2	34.6	32.6	29.2	30.5	27.6	28.7	28.8	23.2	22.1	16.0
전북	25.4	27.2	27.4	33.2	31.7	29.8	24.2	24.9	24.7	20.0	19.5	13.0
전남	27.2	27.3	27.6	31.6	31.8	32.8	22.2	21.6	22.0	23.3	22.3	13.3
광주	35.8	35.4	36.5	35.6	34.5	33.8	30.1	30.2	30.8	15.7	15.7	6.0
제주	34.2	34.0	35.0	32.7	32.3	31.7	29.8	29.0	30.1	22.9	21.6	15.9
합계	29.9	30.4	31.5	30.9	30.6	30.8	25.9	25.7	25.9	23.0	22.5	18.6

## 2) 표본설계

### (1) 표본크기

표본크기는 표본추출방법과 모집단의 특성 및 층화방법 등의 영향을 받지만, 단순임의추출의 상황 하에서 통계분석 단위별로 평균 추정치의 목표오차  $d$ 를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통제할 것인가에 따라서 아래 식으로 계산할 수 있다.

$$n = \frac{N(zs)^2}{Nd^2 + (zs)^2}$$

여기서  $N$ 은 모집단의 크기이고,  $s$ 는 관심변수의 표준편차이며,  $z$ 은 신뢰계수이다(신뢰수준 95% 하에서  $z = 1.96$ 이다).

조사내용이 비율인 경우에 모비율 추정에 대한 표본크기는 아래 식으로 계산할 수 있다.

$$n = \frac{Nz^2pq}{Nd^2 + z^2pq}$$

여기서  $p$ 는 비율의 값이며  $q = 1 - p$ 이다. 본 연구에서는 1차 표본추출 단위가 학교이고 추출된 학교에서 표본학급을 선정하여 해당 학급의 모든 학생을 조사하는 일종의 층화집락추출방법을 사용할 것이므로, 목표오차를 실제로  $d$  이하로 통제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산출한 값보다 표본크기를 더 크게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조사에 따른 소요비용과 조사기간 등을 고려하여 표본크기를 결정하는 방법이 현실적으로 적용되기도 한다.

본 연구의 전체 목표 표본크기는 조사의 비용 및 시간을 고려하여 9,000(초등학교: 3,000, 중학교: 3,000, 고등학교: 3,000)으로 결정되었다. 이 때 모비율의 추정에 대하여 예상되는 표본오차는 단순임의추출을 가정하는 경우 95% 신뢰수준 하에서 약  $\pm 1.0\%$ 이다. 층화집락추출의 상황 하에서의 실제 표본오차는 이보다 조금 더 크게 되겠지만 일반적인 기준에서 볼 때 충분히 허용할만한 수준으로 판단된다.

(2) 층화

조사내용의 특성과 모집단의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조사모집단을 2015년 교육통계연보에 수록된 전국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현황을 기초로 지역구분과 학교구분을 층화변수로 고려한다. 즉, 층화변수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지역구분 : 광역 시도 (16개), 세종시는 충남에 포함
- 학교구분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유형 1, 유형 2, 유형 3, 유형 4 (6개)
- 학년 (3개)

단, 고등학교 중 유형 2(자율고)와 유형 3(특성화고)은 광역시도별로 층화를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지역을 5개 권역으로 묶어서 층화한다. 또한 유형 4(특수목적고)는 지역별 층화를 수행하지 않는다.

표 III-9 학교급×학년별 모집단 크기, 목표 표본크기

학교급		학년	모집단크기		단순비례배분 목표 표본크기		변형비례배분 예상 표본크기	
초등학교	초등학교	4	415,395	1,333,402 (28.5%)	3,000 (33.3%)	3,000 (33.2%)		
		5	449,931					
		6	468,076					
중학교	중학교	1	459,536	1,573,960 (33.6%)	3,000 (33.3%)	3,042 (33.6%)		
		2	522,813					
		3	591,611					
고등학교	유형 1 (일반고)	1	409,946	1,257,955 (26.9%)	2,125 (23.6%)	3,000 (33.3%)	1,860 (20.6%)	3,003 (33.2%)
		2	416,588					
		3	431,421					
	유형 2 (자율고)	1	46,937	139,604 (3.0%)	236 (2.6%)	465 (5.1%)		
		2	46,001					
		3	46,666					
	유형 3 (특성화고)	1	115,483	349,109 (7.5%)	590 (6.6%)	546 (6.0%)		
		2	115,439					
		3	118,187					
	유형 4 (특수목적고)	1	10,121	29,022 (0.6%)	49 (0.5%)	132 (1.5%)		
		2	9,915					
		3	8,986					
합계			4,683,052 (100.0%)	9,000 (100.0%)	9,045 (100.0%)			

**표 III-10** 단순비례배분에 의한 표본크기 할당: 학생수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일반고	자율고	특성화고	특수목적고
서울	502	499	344	37	174	49
경기	802	775	605	58	75	
인천	172	169	114			
강원	88	91	73	38	84	
충북	94	96	58			
충남	139	134	88			
대전	99	99	63			
경북	142	147	101	65	200	
경남	204	206	155			
부산	173	180	114			
대구	148	153	96			
울산	72	74	55	38	58	
전북	113	118	86			
전남	105	111	69			
광주	104	107	79			
제주	42	42	25			
합계	3,000	3,000	2,125	236	590	49

\* 총계: 9,000명

**표 III-11** 단순비례배분에 의한 표본크기 할당: 학교수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일반고	자율고	특성화고	특수목적고
서울	25.1	19.2	11.1	1.2	6.7	2.2
경기	40.1	29.8	19.5	1.9	2.9	
인천	8.6	6.5	3.7			
강원	4.4	3.5	2.3	1.2	3.2	
충북	4.7	3.7	1.9			
충남	6.9	5.2	2.8			
대전	5.0	3.8	2.0			
경북	7.1	5.6	3.3	2.1	7.7	
경남	10.2	7.9	5.0			
부산	8.6	6.9	3.7			
대구	7.4	5.9	3.1			
울산	3.6	2.8	1.8	1.2	2.2	
전북	5.6	4.5	2.8			
전남	5.2	4.3	2.2			
광주	5.2	4.1	2.5			
제주	2.1	1.6	0.8			
합계	150.0	115.4	68.5	7.6	22.7	2.2

\* 총계: 366.5개

**표 III-12** 변형비례배분에 의한 예상 표본크기, 학교수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일반고	자율고	특성화고	특수목적고	
서울	24(8)	21(7)	6(2)	3(1)	6(2)	6(2)	
경기	39(13)	30(10)	12(4)	3(1)	3(1)		
인천	9(3)	6(2)	3(1)				
강원	6(2)	3(1)	3(1)	3(1)	3(1)		
충북	6(2)	3(1)	3(1)				
충남	6(2)	6(2)	3(1)				
대전	6(2)	3(1)	3(1)				
경북	6(2)	6(2)	3(1)				
경남	9(3)	9(3)	3(1)	3(1)	6(2)		
부산	9(3)	6(2)	3(1)				
대구	6(2)	6(2)	3(1)				
울산	3(1)	3(1)	3(1)	3(1)	3(1)		
전북	6(2)	6(2)	3(1)				
전남	6(2)	3(1)	3(1)				
광주	6(2)	3(1)	3(1)				
제주	3(1)	3(1)	3(1)				
합계	150(50)	117(39)	60(20)	15(5)	21(7)		6(2)

\* ( ) 안의 수치는 학년별 학교수임. 총계: 369(123)개

**표 III-13** 변형비례배분에 의한 예상 표본크기, 학생수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일반고	자율고	특성화고	특수목적고	
서울	480	546	186	93	156	132	
경기	780	780	372	93	78		
인천	180	156	93				
강원	120	78	93	93	78		
충북	120	78	93				
충남	120	156	93				
대전	120	78	93				
경북	120	156	93				
경남	180	234	93	93	156		
부산	180	156	93				
대구	120	156	93				
울산	60	78	93	93	78		
전북	120	156	93				
전남	120	78	93				
광주	120	78	93				
제주	60	78	93				
합계	3,000	3,042	1,860	465	546		132

\* 총계: 9,045명

### (3) 표본배분

학생수에 단순비례하도록 지역구분×학교급=59개 각 층에 표본크기를 할당하면 <표 III-10>과 같다. 표본으로 선정된 학교에서 한 학년, 한 학급을 선정하여 조사하되 선정된 학급에 속한 학생들을 모두 조사할 것이므로, 각 층에 할당된 표본크기를 각 층의 학급당 평균 학생수로 나누면 <표 III-11>과 같이 조사될 학교수가 할당된다. 결론적으로 총 367개 정도의 학교가 조사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이와 같이 각 층에 단순비례배분으로 표본을 할당할 경우 특정한 층에 너무 작은 표본크기가 배당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한다. 예를 들어, 전라 지역의 자율고 고등학교에 38명(학년당 약 13명)의 표본이 배당되는데, 이 경우 한 학교를 방문하여 이렇게 소수의 표본만 조사한다는 것은 매우 비효율적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선정된 한 학급 전체를 조사할 계획이므로 실제로는 학년당 약 30명의 학생이 조사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표본크기가 목표한 것보다 커지게 된다. 아니면 전라 지역의 자율고에 대해서는 한 학급에서 13명만 조사해야 하는 어려움이 생기게 된다. 즉, 목표보다 표본크기가 커지는 것을 허용하든가 아니면, 다른 층에서 일부 표본크기를 줄여서 변형비례배분 형태의 표본설계를 수행해야 한다. 그러나 <표 III-9>에서 볼 수 있듯이 변형비례배분을 수행하여도 단순비례배분에 비하여 각 층의 표본크기가 크게 달라지지는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원칙 하에 학교수 및 표본크기를 결정하는 변형비례배분을 수행하도록 한다.

- 각 학년별로 지역구분×학교급=43개 각 층에 최소 한 개 이상의 학교를 할당되도록 한다.
- 각 학년별로 층별 모집단크기에 비례하도록 학교수를 할당하되 조사될 예상 학생수가 초등학교 3,000명, 중학교 3,000명, 고등학교 3,000명을 넘도록 한다.

전국 학급당 평균 학생수는 대략 초등학교 20명, 중학교 26명, 고등학교 일반고(유형 1) 31명, 자율고(유형 2) 31명, 특성화고(유형 3) 26명, 특수목적고(유형 4) 22명이다. 따라서 지역구분×학교급별 모집단크기에 비례하도록 표본크기를 배분하되, 위의 원칙과 상황을 고려하여 보완함으로써 각 층별 조사될 학교수를 결정하고 예상되는 조사 학생수를 계산하면 <표 III-12>, <표 III-13>과 같다.

#### (4) 표본추출

각 학교구분과 지역구분별로 할당된 표본학교의 추출은 <표 III-12>에 주어진 표본배분 결과를 이용하여 확률비례추출법으로 선정한다. 즉, 각 학년별로 지역구분×학교급=59개 층내에서 조사 대상 학생수를 기준으로 확률비례추출법으로 표본학교를 선정하되, 초등학교의 경우 각 학년별 학급수가 2개 이상, 중·고등학교의 경우 각 학년별 학급수가 3개 이상인 학교가 추출되도록 조정한다. 또한 학급당 평균 학생수가 20명 이상인 학교가 추출되도록 한다. 그리고 선정된 표본학교 내에서 각 학년별 1개의 표본학급을 무작위로 선정하고, 그 학급의 모든 학생들을 조사한다.

추출된 학교 층의 조사협조 거절로 조사가 불가능할 경우, 동일한 층 내의 학교 리스트에서 무작위로 대체한다. 또한 사전 학교 섭외과정에서 우열반, 특수반 등 특별편성이 되어 있는 학급은 제외하며, 지역별 성별 구성비율도 고려하여 최종 조사될 학교 및 학급을 선정한다.

#### (5) 성별 사후층화

본 연구에서는 학교 및 학급을 추출하여 조사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조사 시에는 성별 비율을 맞추기가 어렵다. 즉, 성별은 매우 중요한 변수이지만 표본설계 및 표본추출 시 성별을 고려하기가 어렵게 된다. 따라서 성별 분포가 모집단 분포와 다르게 조사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후층화 가중치를 통해 표본에서의 성별 분포의 편향을 조정하고자 한다.

### 3) 가중치와 모수추정

#### (1) 가중치

본 조사의 표본추출은 일종의 층화집락추출법이라 할 수 있으며 학교구분과 지역구분을 층으로 간주할 수 있다. 각 층에서 일차추출단위인 학교는 학생수를 기준으로 확률비례추출법으로 선정하고 추출된 표본학교에서는 학급을 랜덤하게 선정한 후에 학생을 조사하므로 추출된 표본학교에서 학생을 랜덤하게 선정하여 조사하는 이단집락추출법으로 생각할 수 있으므로 표본추출률을 아래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f_{hij} = n_h \frac{B_{hi}}{\sum_{i=1}^{N_h} B_{hi}} \cdot \frac{n_{hi}}{B_{hi}} = n_h \frac{n_{hi}}{\sum_{i=1}^{N_h} B_{hi}}$$

여기서  $N_h$ 는  $h$ 층에 속한 전체 학교의 수이고,  $n_h$ 는  $h$ 층의 표본 학교수이며,  $B_{hi}$ 는  $h$ 층에서  $i$ 번째 학교의 학생수를 나타내고,  $n_{hi}$ 는 추출된 표본학교에서 조사한 학생수를 나타낸다.

표본추출률에 대한 가중치는 추출률의 역수이므로 아래와 같은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W_{hij}^a = \frac{\sum_{i=1}^{N_h} B_{hi}}{n_h n_{hi}}$$

또한 각 세부 층의 성별( $k=1,2$ ) 모집단 크기를 반영하여 사후층화 가중치를 산출한다. 즉, 사후층화 가중치는

$$W_{h(k)j}^b = \frac{N_{h(k)}}{\sum_{l=1}^{n_{h(k)}} W_{h(k)j}^a}$$

여기서  $N_{h(1)}$ 과  $N_{h(2)}$ 는 각 세부 층에 속한 남학생과 여학생의 모집단 크기이고,  $\sum W_{h(k)j}^a$ 는 각 세부 층의 성별 기본 가중치의 합계이다.

최종 가중치는 기본 가중치와 사후층화 가중치를 곱하여 아래와 같이 산출한다.

$$W_{h(k)ij}^f = W_{hij}^a \times W_{h(k)j}^b$$

## (2) 모수추정

### ① 용어 정의

- $Y_{hij}$  : 관측치 (각 조사항목에 대한 응답)
  - $h$  : 층의 번호 ( $h = 1, 2, \dots, H$ ). 학교구분×지역구분에 따른 번호.

-  $i$  : 각 층 내에서의 집락(학교)의 번호 ( $i = 1, 2, \dots, n_h$ ).

-  $j$  : 각 집락 내의 학생의 번호 ( $j = 1, 2, \dots, m_{hi}$ ).

$m_{hi}$  :  $h$ 번째 층의  $i$ 번째 집락으로부터 추출된 학생수.

•  $w_{hij}$  : 표본 가중치

-  $h$ 번째 층,  $i$ 번째 집락,  $j$ 번째 학생에 대한 표본 가중치

•  $n = \sum_{h=1}^H \sum_{i=1}^{n_h} m_{hi}$  : 전체 표본크기.

### ② 모평균에 대한 추정

• 관찰값  $Y_{hij}$ 가 수치형(numerical) 변수인 경우, 모평균에 대한 추정치는 다음과 같이 표본 가중치를 고려한 가중평균(Ratio estimator)으로 계산됨.

•  $\bar{Y} = \left( \sum_{h=1}^H \sum_{i=1}^{n_h} \sum_{j=1}^{m_{hi}} w_{hij} Y_{hij} \right) / w \dots$  : 모평균에 대한 추정치

-  $w \dots = \sum_{h=1}^H \sum_{i=1}^{n_h} \sum_{j=1}^{m_{hi}} w_{hij}$  : 표본 가중치의 합계

### ③ 모비율에 대한 추정

• 관찰값  $Y_{hij}$ 가 범주형(categorical) 변수인 경우, 각 범주  $c_k$ 에 대하여 먼저 다음과 같이 지시변수(indicator variable)를 생성함.

•  $Y_{hij}^{(c_k)} = I(Y_{hij} = c_k) = \begin{cases} 1, & \text{if } Y_{hij} = c_k \\ 0, & \text{otherwise} \end{cases}$

-  $c_k$  :  $Y_{hij}$ 가 가질 수 있는 범주의 값 ( $k = 1, \dots, l$ )

• 이러한 지시변수  $Y_{hij}^{(c_k)}$ 로부터 모평균의 경우와 동일하게 가중평균을 계산하여 범주  $c_k$ 의 모비율에 대한 추정치를 계산함

### ④ 분산의 추정

•  $\hat{V}(\bar{Y}) = \sum_{h=1}^H \hat{V}_h(\bar{Y})$  : 분산의 추정치

-  $N_h$  : 층  $h$ 의 총 집락의 수

-  $f_h$  :  $h$  번째 층의 표본추출율,  $n_h/N_h$ .

-  $n_h > 1$  일 때,

$$\widehat{V}_h(\bar{Y}) = \frac{n_h(1-f_h)}{n_h-1} \sum_{i=1}^{n_h} (e_{hi\cdot} - \bar{e}_{h..})^2$$

$$e_{hi\cdot} = \left( \sum_{j=1}^{m_{hi}} w_{hij} (Y_{hij} - \bar{Y}) \right) / w_{h..}$$

$$\bar{e}_{h..} = \left( \sum_{i=1}^{n_h} e_{hi\cdot} \right) / n_h$$

-  $n_h = 1$  일 때,

$$\widehat{V}_h(\bar{Y}) = \begin{cases} \text{missing, if } n_{h'} = 1 \text{ for } h' = 1, 2, \dots, H \\ 0, & \text{if } n_{h'} > 0 \text{ for some } 1 \leq h' \leq H \end{cases}$$

⑤ 표준오차, 오차한계(표본오차)의 추정

- $\text{StdErr}(\bar{Y}) = \sqrt{\widehat{V}(\bar{Y})}$  : 표준오차의 추정치
- $z_{\alpha/2} \times \text{StdErr}(\bar{Y})$  : 오차한계(표본오차)의 추정치,  
95% 신뢰수준의 경우( $\alpha=0.05$ )  $z_{\alpha/2}=1.96$ 임.

## 2. 조사도구<sup>4)</sup>

### 1) 조사문항 개발절차 및 구성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Ⅲ의 조사문항은 2차년도 연구의 설문지를 바탕으로 문헌연구, 자문회의, 연구자회의 등을 통해 수정·보완하였다. <표 III-14>과 같이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 영역에서는 7개, ‘정의적 특성’ 영역에서는 1개, ‘배경변인’ 영역에서는 1개의 조사내용을 2015년 조사에 비해 추가하였다.

4) 이 부분은 2차년도 연구인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 연구Ⅱ(최창욱 외, 2015)의 pp. 51~61(조사도구)까지의 내용을 재 인용한 후 수정·보완하였음.

표 III-14 2014년~2016년도 조사문항 비교

조사영역	조사내용	2014년	2015년	2016년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	청소년활동 영역별 참여경험	○	○	○
	청소년활동 만족도		○	○
	청소년활동 참여정도			○
	청소년활동 성취기대수준			○
	청소년활동 지원정도			○
	청소년활동 참여형태	○	○	○
	청소년활동 참여경로		○	○
	청소년활동 장애요인	○	○	○
	청소년활동 희망 시간			○
	청소년활동 희망 장소			○
	청소년활동에 함께 참여하고 싶은 대상			○
	청소년활동 활성화요인	○	○	○
	향후 참여하고 싶은 청소년활동		○	○
	청소년활동 관련시설 이용경험	○	○	○
	청소년활동정책 인지도		○	○
	청소년 여가시간			○
	문화예술 행사 참여여부 및 횟수	○		
	청소년활동 참여 전후의 교육 여부	○		
	참여하고 싶었던 청소년활동 유무	○		
	문화예술 행사 직접 관람여부 및 횟수	○		
정의적 특성	진로체험 경험여부 및 도움정도	○		
	자아존중감	○	○	○
	진로성숙도	○	○	○
	행복감	○	○	○
	공동체의식			○
	리더십생활기술		○	○
	청소년활동에 대한 인식 및 태도	○		
배경변인	동기	○		
	성별	○	○	○
	연령			○
	가족구성원	○	○	
	거주 지역		○	
	부모님 학력	○	○	
	부모님 취업여부	○	○	
	학업성적	○	○	○
가정의 경제수준	○	○	○	

\* 출처: 최창욱 외(2015).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 연구Ⅱ. p. 52. 수정

구체적으로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 영역에서는 청소년활동 영역별 참여경험, 청소년활동 만족도, 청소년활동 참여정도, 청소년활동 성취기대수준, 청소년활동 지원정도, 청소년활동 참여형태, 청소년활동 참여경로, 청소년활동 장애요인, 청소년활동 희망 시간, 청소년활동 희망 장소, 청소년활동에 함께 참여하고 싶은 대상, 청소년활동 활성화요인, 향후 참여하고 싶은 청소년활동, 청소년활동 관련시설 이용경험, 청소년활동정책 인지도, 청소년 여가시간에 대해 살펴보았다. ‘정의적 특성’에서는 자아존중감, 진로성숙도, 행복감, 공동체 의식, 리더십생활기술을 조사하였으며, ‘배경변인’으로는 성별, 연령, 학업성적, 가정의 경제수준 등을 포함하였다.

표 III -15 2016년도 조사문항 구성

조사 영역	조사내용		문항	
			문항수	문항번호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	청소년활동 영역별 참여경험	건강·보건활동	8	문1, 문1-1(1~7)
		과학정보활동	7	문2, 문2-1(1~6)
		교류활동	5	문3, 문3-1(1~4)
		모험개척활동	6	문4, 문4-1(1~5)
		문화예술활동	9	문5, 문5-1(1~8)
		봉사활동	8	문6, 문6-1(1~7)
		진로탐색 및 직업체험활동	6	문7, 문7-1(1~5)
		환경보존활동	7	문8, 문8-1(1~6)
		자기(인성)개발활동	5	문9, 문9-1(1~4)
	청소년활동 만족도		5	문10(1~5)
	청소년활동 참여정도		1	문11
	청소년활동 성취기대수준		1	문12
	청소년활동 지원정도		4	문13(1~4)
	청소년활동 참여형태		1	문14
	청소년활동 참여경로		1	문15
	청소년활동 장애요인		1	문16
	청소년활동 희망 시간		1	문17
	청소년활동 희망 장소		1	문18
	청소년활동에 함께 참여하고 싶은 대상		1	문19
	청소년활동 활성화요인		1	문20
향후 참여하고 싶은 청소년활동		1	문21	
청소년활동 관련시설 이용경험		10	문22(1~10)	

조사 영역	조사내용	문항	
		문항수	문항번호
	청소년활동정책 인지도	9	문23(1~9)
	청소년 여가시간	3	문24(1~3)
정의적 특성	자아존중감	10	문25(1~10)
	진로성숙도	7	문26(1~7)
	행복감	7	문27(1~6), 문27(7)
	공동체의식	4	문28(1~4)
	리더십생활기술	30	문29(1~30)
배경변인	성별, 연령, 학업성적, 가정의 경제수준	4	배경문항1~4

\* 출처: 최창욱 외(2015).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 연구Ⅱ. pp. 53~54. 수정.

## 2) 조사내용

### (1)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

#### ① 청소년활동 영역별 참여경험

청소년활동 영역별 참여경험은 인증수련활동 영역별 분류(여성가족부, 2014a)를 바탕으로 구성하였다. 2016년 조사에는 2015년에 포함시킨 청소년참여활동을 제외하고, 9개의 인증수련활동 영역과 동일하게 청소년활동 영역을 구분하였다. 다만, 2015년 조사와 마찬가지로 '직업체험활동'의 명칭을 '진로탐색 및 직업체험활동'으로 변경하여 조사하였다. 즉, '건강·보건활동', '과학정보활동', '교류활동', '모험개척활동', '문화예술활동', '봉사활동', '진로탐색 및 직업체험활동', '환경보존활동', '자기(인성)계발활동'의 9가지로 청소년활동 영역을 구분하였다.

영역별 세부 활동 역시 인증수련활동의 활동 예시(여성가족부, 2014a)를 참고로 구성하였다. 추가로 '문화예술활동'은 문화향수실태조사(문화체육관광부, 2012)를 참고로 문화예술행사를 분류한 연구(임희진, 송병국, 2014)를 참조하였다. 각 문항은 최근 1년간 청소년활동에 '참여한 적 없음'과 '참여한 적 있음'으로 질문하였으며, '참여한 적 있음'은 '1~2번', '3~4번', '5번 이상'으로 측정하였다.

### ② 청소년활동 만족도

청소년활동 만족도에서는 '전반적', '활동내용', '지도자', '시설·공간·장비', '일정·시간'의 5가지 만족도를 조사하였으며, 조사문항은 문성호 외(2009)의 연구에서 사용된 문항을 수정하여 활용하였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의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 ③ 청소년활동 참여정도

청소년활동에 대한 참여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최창욱, 전명기(2013)의 연구에서 사용된 문항을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구체적으로 최근 1년간 참여한 청소년활동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는지를 '아주 소극적으로 참여하였다' ~ '아주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의 5점 척도로 질문하였다.

### ④ 청소년활동 성취기대수준

최근 1년간 참여한 청소년활동에 대한 성취기대수준을 확인하기 위해 최창욱, 전명기(2013)의 연구에서 활용한 문항을 수정하여 활용하였다. 구체적으로 청소년활동에 참여하면서 자신의 발전에 얼마나 많은 기대하였는지에 대해 '전혀 기대한 것이 없다' ~ '아주 기대가 컸다'의 5점 척도로 질문하였다.

### ⑤ 청소년활동 지원정도

청소년활동에 대한 주변사람들의 지원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김현철, 최창욱, 민경석(2010)의 연구를 참고로 문항을 재구성하였다. 구체적으로 부모님 혹은 보호자, 학교 선생님, 친구, 청소년지도자가 최근 1년간 참여한 청소년활동에 대해 얼마나 도와주거나 지원해 주었는지를 '전혀 지원이 없다' ~ '매우 지원이 많다'의 5점 척도로 질문하였다.

### ⑥ 청소년활동 참여형태

최근 1년간 주로 어떤 형태로 청소년활동에 참여하였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9개의 항목(학교에서 단체로 참여, 교내동아리활동으로 참여, 청소년활동시설에서 참여, 교내-교외 연계활동으로 참여, 청소년단체활동으로 참여, 온라인동아리활동으로 참여, 종교활동으로 참여, 개인적으로 참여, 가족과 함께 참여) 중 하나를 선택하게 하였다. 조사문항은 김현철 외(2013)의 연구를 참고하여 개발한 임희진, 송병국(2014)의 설문문항을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⑦ 청소년활동 참여경로

최근 1년간 주로 어떤 경로로 청소년활동에 참여하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친구 또는 선배의 권유로’, ‘부모님 및 가족의 권유로’, ‘학교 선생님의 권유로’, ‘청소년 시설 및 단체 지도자의 권유로’, ‘홍보 및 게시판의 정보를 통해 자발적으로’, ‘인터넷 상의 정보를 활용하여 자발적으로’, ‘기타’의 6가지 항목 중 하나를 선택하게 하였다. 문항은 ‘2014 청소년종합실태조사’(여성가족부, 2014b)에서 활용한 문항을 사용하였다.

⑧ 청소년활동 장애요인

최근 1년간 청소년활동에 참여할 때 가장 방해가 된 요인이 무엇인지 살펴보기 위해 8가지 항목(공부에 방해가 될 것 같아서, 참여할 시간이 없어서, 참가비용이 부담돼서, 부모님의 반대 때문에, 프로그램의 내용이 마음에 안 들어서, 어떤 내용의 활동들이 있는지 몰라서, 신청하는 방법을 몰라서, 같이 참여할 친구가 없어서, 기타) 중 하나를 선택하게 하였다. 조사문항은 임지연 외(2009)의 연구를 참고하여 수정·보완한 임희진, 송병국(2014)의 문항을 수정하여 활용하였다.

⑨ 청소년활동 희망 시간

청소년활동 희망 시간을 살펴보기 위해 문성호, 윤동엽, 박승곤, 정지윤(2014)의 연구에서 사용한 문항을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방과 후’, ‘주말’, ‘학교 수업시간 중’, ‘방학기간’, ‘기타’ 중에서 청소년활동에 참여하기 가장 좋은 시간대를 선택하게 하였다.

⑩ 청소년활동 희망 장소

청소년활동 희망 장소를 확인하기 위해 김현철 외(2010)의 연구에서 활용한 문항을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구체적으로 ‘학교’, ‘청소년시설’(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수련원 등), ‘문화시설’(도서관, 박물관 등), ‘야외’(공원, 호수, 산, 바다 등), ‘기타’ 중 가장 희망하는 활동 장소를 선택하게 하였다.

⑪ 청소년활동에 함께 참여하고 싶은 대상

청소년들이 청소년활동에 함께 참여하고 싶은 대상이 누구인지 살펴보기 위해 오해섭, 맹영임, 문호영(2014)의 연구에서 사용한 문항을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혼자’, ‘친구’, ‘가족’, ‘선·후배’,

‘기타’ 중 청소년활동에 함께 참여하고 싶은 대상을 선택하게 하였다.

⑫ 청소년활동 활성화요인

청소년활동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기 위해 9가지 항목(청소년활동 시간이 더 확보되어야 한다, 청소년활동에 대한 정보를 더 쉽게 얻을 수 있어야 한다, 프로그램을 선택할 때 청소년의 의사가 좀 더 많이 반영되어야 한다, 선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더 많아져야 한다, 프로그램이 좀 더 흥미롭게 구성되어야 한다, 프로그램이 안전하게 운영되어야 한다, 관련분야의 전문가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더 많아져야 한다, 청소년활동 참가비용 지원이 필요하다, 기타) 중 하나를 선택하게 하였다. 조사문항은 임지연 외(2009)의 연구를 참고하여 개발한 임희진, 송병국(2014)의 문항을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⑬ 향후 참여하고 싶은 청소년활동

‘건강·보건활동’, ‘과학정보활동’, ‘교류활동’, ‘모험개척활동’, ‘문화예술활동’, ‘봉사활동’, ‘진로 탐색 및 직업체험활동’, ‘환경보존활동’, ‘자기(인성)개발활동’, ‘청소년참여활동’ 중 앞으로 참여하고 싶은 청소년활동 3가지를 순서대로 선택하게 하였다.

⑭ 청소년활동 관련시설 이용경험

최근 1년간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 ‘도서관’, ‘공연 및 전시시설’, ‘사회복지관’, ‘수목원·수목림·자연 휴양림’, ‘주민센터·문화센터’의 10개 시설을 이용해 본 경험이 있는지에 대해 ‘이용한 적 없음’, ‘이용한 적 있음’으로 질문하였다. ‘이용한 적 있음’은 ‘1~2번’, ‘3~5번’, ‘6~9번’, ‘10번 이상’으로 측정하였다. 조사문항은 ‘2011 청소년종합실태조사 결과보고서’(여성가족부, 2012)를 참고하여 개발한 임희진, 송병국(2014)의 설문문항과 ‘2014 청소년종합실태조사’(여성가족부, 2014b)의 설문문항을 참고하여 수정·보완하였다.

⑮ 청소년활동정책 인지도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 ‘청소년어울림마당(청소년문화존)’, ‘청소년특별회의’,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운영위원회’,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e-청소년)’, ‘대한민국 청소년박람회’, ‘청소년수련활동 신고제’의 9가지 청소년활동정책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를 '전혀 모른다' ~ '잘 알고 있다'의 3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조사문항은 '2014 청소년종합실태조사'(여성가족부, 2014b)를 참고로 수정·보완하였다.

## ⑩ 청소년 여가시간

청소년의 여가시간을 확인하기 위해 '2014 국민여가활동조사'(문화체육관광부, 2014), '2009 한국 아동·청소년 온라인게임 및 가족여가활동실태조사'(이기봉, 2010)를 참고로 문항을 재구성하였다. 구체적으로 지난 1년 동안 하루 평균 여가시간(식사시간, 취침, 학교수업, 학교숙제, 학원·과의 등의 시간을 제외한 자유 시간)에 대해 평일, 휴일, 방학으로 구분하여 질문하였다.

### (2) 정의적 특성

#### ①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은 Rosenberg(1965)의 척도를 활용하였다. 척도는 5개의 역 문항(문25-3, 문25-5, 문25-8, 문25-9, 문25-10)을 포함하여 총 10문항이다. 각 문항은 Likert 4점 척도로 측정하며, 역 문항의 역 채점 후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으로 평가한다(임희진, 송병국, 2014 재인용). 본 연구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 ~ '매우 그렇다'의 5점 척도로 수정하여 활용하였으며, 척도의 Cronbach's Alpha는 .859로 나타났다.

#### ② 진로성숙도

청소년들의 진로성숙도를 측정하기 위해 '한국청소년패널조사(KYPS)' 중2 패널 문항을 사용하였다(이경상, 조혜영, 박현수, 2004). 척도는 7문항으로 모두 역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문항을 역 변환한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성숙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척도의 Cronbach's Alpha는 .802로 분석되었다.

#### ③ 행복감

행복감은 '한국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의 구축과 국제비교연구조사 결과보고서'(한국방정환재단, 연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2010)에서 사용한 '주관적 행복'(6문항)에 1개 문항(여러 가지 면에서 볼 때 나는 행복하다)을 추가한 임희진, 송병국(2014)의 조사문항(4점 척도)을 재인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행복감 7문항 중 주관적 행복감 6문항만을 활용하였고, 각 문항은

5점 척도로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1문항(문27-6)을 역 채점한 후 점수가 높을수록 주관적 행복감이 높은 것으로 해석하였으며, Cronbach's Alpha는 .800으로 확인되었다.

#### ④ 공동체의식

공동체의식은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CYPS)'의 문항을 사용하였다(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5). 총 4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문항은 4점 Likert 척도로 이루어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각 문항에 대해 5점 Likert 척도로 수정하여 사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공동체의식이 높은 것으로 해석하였다. 척도의 Cronbach's Alpha는 .790으로 조사되었다.

#### ⑤ 리더십생활기술

리더십생활기술은 최창욱(2001)이 Dormody & Seevers(1995), Morris(1996), Seevers & Dormody(1995), Seevers, Dormody & Clason(1995), Wingenbach(1995) 등을 참고하여 개발한 문항을 활용하였다. 전체 30문항으로 구성된 이 척도의 각 문항은 Likert형 5점 척도로 측정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리더십생활기술 수준이 높은 것을 뜻한다. 척도의 Cronbach's Alpha는 .964로 나타났다.

### (3) 배경변인

배경변인으로는 성별, 연령, 학업성적, 가정의 경제수준 등을 확인하였다. 연령은 직접 기입하는 방법으로, 이외의 배경변인은 해당보기를 선택하는 방법으로 조사하였다.

## 3. 분석방법<sup>5)</sup>

분석은 빈도분석, 배경변인(성별, 학교급, 지역규모, 학업성적, 경제수준)에 따른  $\chi^2$  검증과 t 검증, ANOVA(사후검증 Scheffe)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최근 1년간 청소년활동에 참여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의 '청소년활동 만족도'(활동내용 만족도, 지도자 만족도, 시설·공간·장비 만족도,

5) 이 부분은 2차년도 연구인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 연구Ⅱ(최창욱 외, 2015)의 p. 61(분석방법)의 내용을 재인용한 후 수정·보완하였음.

일정·시간 만족도), '청소년활동 참여정도', '청소년활동 성취기대수준'과 '정의적 특성'(자아존중감, 진로성숙도, 주관적 행복감, 공동체의식, 리더십생활기술) 간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상관관계분석(Pearson 적률상관), 다중회귀분석(Enter 방식)을 실시하였다.



## 제 IV 장

---

# 설문조사 결과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2.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
3. 정의적 특성
4.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변인과  
정의적 특성 간의 관계
5. 소 결



## 제 IV 장 설문조사 결과<sup>6)</sup>

###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는 총 8,627명이며, 이 중 남자 청소년이 52.0%, 여자 청소년이 48.0%로 나타났다.

**표 IV-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단위: 명, %)

구분		빈도	비율
전체		8627	100.0
성별	남자	4490	52.0
	여자	4137	48.0
학교급	초등학교	2456	28.5
	중학교	2900	33.6
	고등학교	3271	37.9
지역규모	대도시	3655	42.4
	중소도시	4112	47.7
	읍면지역	860	10.0
학업성적	상	3086	35.9
	중	3408	39.6
	하	2104	24.5
경제수준	상	4051	47.1
	중	3309	38.5
	하	1240	1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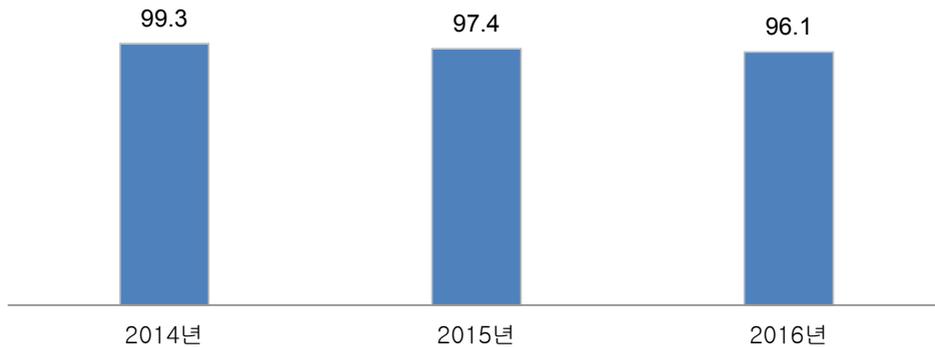
6)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에 대한 연도별 추이는 1차년도(임희진, 송병국, 2014), 2차년도(최창욱 외, 2015) 조사결과를 활용하여 비교·제시하였음.

학교급별로는 초등학생이 28.5%, 중학생이 33.6%, 고등학생이 37.9%로, 거주 지역의 규모에 따라서는 대도시 거주 청소년이 42.4%, 중소도시 거주 청소년이 47.7%, 읍면지역 거주 청소년이 10.0%로 확인되었다. 학업성적별로 살펴보면, 상위권에 속한 청소년이 35.9%, 중위권의 청소년이 39.6%, 하위권의 청소년이 24.5%로 분석되었으며, 가정 경제수준의 경우 상 집단이 47.1%, 중 집단이 38.5%, 하 집단이 14.4%로 조사되었다(<표 IV-1>).

## 2.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

### 1) 청소년활동 참여경험

2014년 1차년도 연구와 2015년 2차년도 연구를 토대로 최근 3년 동안의 청소년활동 참여경험에 대해 살펴보았다.



- \* 주: 1) 2014년 연구에서는 '건강·보건활동', '과학정보활동', '교류활동', '모험개척활동', '문화예술활동', '봉사활동', '직업체험활동', '환경보존활동', '자기(인성)계발활동', '사회참여활동'의 10가지로 청소년활동을 분류함.  
 2) 2015년 연구에서는 '건강·보건활동', '과학정보활동', '교류활동', '모험개척활동', '문화예술활동', '봉사활동', '진로탐색 및 직업체험활동', '환경보존활동', '자기(인성)계발활동', '청소년참여활동'의 10가지로 청소년활동을 분류함.  
 3) 2016년 연구에서는 '건강·보건활동', '과학정보활동', '교류활동', '모험개척활동', '문화예술활동', '봉사활동', '진로탐색 및 직업체험활동', '환경보존활동', '자기(인성)계발활동'의 9가지로 청소년활동을 분류함.

【그림 IV-1】 청소년활동 참여율(연도별 추이)

그 결과([그림 IV-1]), 2014년에는 응답자의 99.3%에 해당하는 청소년이, 2015년에는 97.4%의 청소년이, 2016년에는 96.1%의 청소년이 청소년활동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참여율은 매년 근소하게 낮아졌으나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최근 1년간 청소년활동에 참여한 경험을 일반적 특성별로 살펴본 결과(<표 IV-2>)에서는 여자 청소년(97.6%)이 남자 청소년(94.8%)보다( $p<.001$ ), 초등학생(98.1%)과 중학생(97.0%)이 고등학생(93.9%)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참여율을 보였다( $p<.001$ ). 그리고 대도시(97.0%)에 거주하는 청소년이 중소도시(95.6%)나 읍면지역(95.2%)에 거주하는 청소년보다( $p<.01$ ), 학업성적이 상위권(98.2%)이거나 중위권(96.6%)인 청소년이 하위권(92.3%) 청소년보다( $p<.001$ ), 가정의 경제수준이 높을수록(상 97.3%, 중 95.7%, 하 93.6%) 청소년활동에 더 많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p<.001$ ).

**표 IV-2** 청소년활동 참여경험(2016년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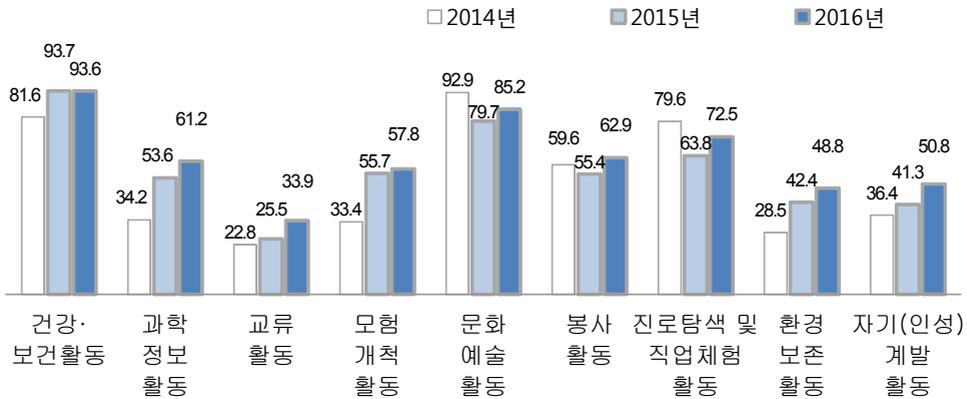
구분		참여한 적 있음	참여한 적 없음	전체	통계치
전체		96.1	3.9	100.0	-
성별	남자	94.8	5.2	100.0	$\chi^2=47.655$ $p=0.000$
	여자	97.6	2.4	100.0	
학교급	초등학교	98.1	1.9	100.0	$\chi^2=76.745$ $p=0.000$
	중학교	97.0	3.0	100.0	
	고등학교	93.9	6.1	100.0	
지역규모	대도시	97.0	3.0	100.0	$\chi^2=13.885$ $p=0.001$
	중소도시	95.6	4.4	100.0	
	읍면지역	95.2	4.8	100.0	
학업성적	상	98.2	1.8	100.0	$\chi^2=118.443$ $p=0.000$
	중	96.6	3.4	100.0	
	하	92.3	7.7	100.0	
경제수준	상	97.3	2.7	100.0	$\chi^2=36.479$ $p=0.000$
	중	95.7	4.3	100.0	
	하	93.6	6.4	100.0	

## 2) 청소년활동 영역별 참여경험

청소년활동의 영역별 참여경험에 대한 최근 3년간의 연도별 추이를 보면, 전반적으로 '건강보

건활동'과 '문화예술활동'의 참여율은 높은 반면, '교류활동'의 참여율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과학정보활동', '교류활동', '모험개척활동', '환경보존활동', '자기(인성)개발활동'의 참여율은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문화예술활동', '봉사활동', '진로탐색 및 직업체험활동'의 참여율은 2015년에 비해 높게 보고되었다.

2016년도 청소년활동의 참여경험을 영역별로 살펴보면, '건강·보건활동'의 참여율이 93.6%로 가장 높았고, '문화예술활동'(85.2%)과 '진로탐색 및 직업체험활동'(72.5%)의 참여율도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이어서 '봉사활동'(62.9%), '과학정보활동'(61.2%), '모험개척활동'(57.8%), '자기(인성)개발활동'(50.8%), '환경보존활동'(48.8%), '교류활동'(33.9%) 순으로 참여 청소년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림 IV-2】 청소년활동 영역별 참여율(연도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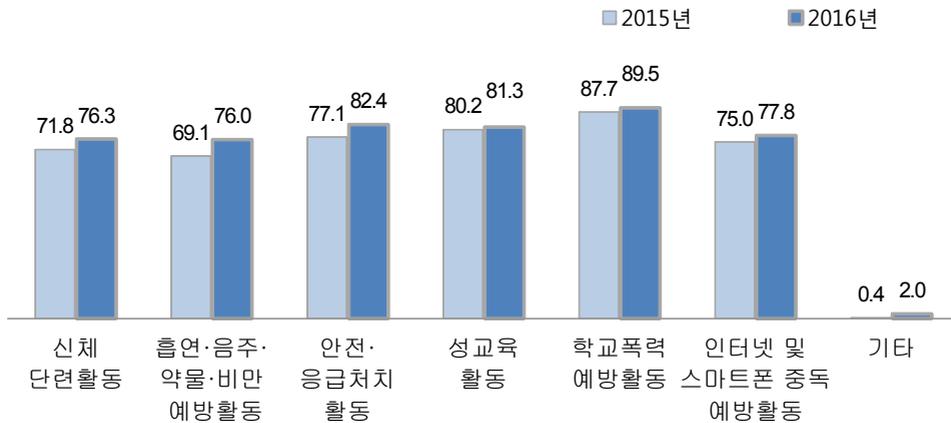
(1) 건강·보건활동 참여경험

건강·보건활동의 참여경험을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 분석한 결과(<표 IV-3>), 지역규모를 제외한 특성들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성별에 따라서는 여자 청소년(95.2%)이 남자 청소년(92.2%)보다( $p<.001$ ),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96.2%)나 중학교(95.2%)가 고등학교(90.2%)보다 참여경험이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p<.001$ ). 그리고 학업성적이 높을수록(상 96.1%, 중 94.2%, 하 89.0%)( $p<.001$ ), 가정의 경제수준이 높을수록(상 95.2%, 중 93.0%, 하 89.8%) 참여율도 높게 나타났다( $p<.001$ ).

표 IV-3 건강·보건활동 참여경험(2016년도)

(단위: %)

구분		참여한 적 있음	참여한 적 없음	전체	통계치
전체		93.6	6.4	100.0	-
성별	남자	92.2	7.8	100.0	$\chi^2=32.043$ $p=0.000$
	여자	95.2	4.8	100.0	
학교급	초등학교	96.2	3.8	100.0	$\chi^2=104.025$ $p=0.000$
	중학교	95.2	4.8	100.0	
	고등학교	90.2	9.8	100.0	
지역규모	대도시	94.3	5.7	100.0	$\chi^2=5.578$ $p=0.061$
	중소도시	93.0	7.0	100.0	
	읍면지역	93.5	6.5	100.0	
학업성적	상	96.1	3.9	100.0	$\chi^2=108.033$ $p=0.000$
	중	94.2	5.8	100.0	
	하	89.0	11.0	100.0	
경제수준	상	95.2	4.8	100.0	$\chi^2=47.929$ $p=0.000$
	중	93.0	7.0	100.0	
	하	89.8	10.2	100.0	



【그림 IV-3】 건강·보건활동 세부 활동 참여율(연도별 추이)

건강·보건활동의 세부 활동에 대한 청소년의 참여율을 분석한 결과, '학교폭력 예방활동'이 89.5%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안전·응급처치활동'이 82.4%, '성교육활동'이 81.3%로 높게 나타났다. 이어서 '인터넷 및 스마트폰 중독 예방활동'(77.8%), '신체단련활동'(76.3%), '흡연·음주

약물·비만 예방활동'(76.0%), '기타'(2.0%) 순으로 높게 조사되었다. 전반적으로 2015년도 연구결과와 유사하였으며, '흡연·음주·약물·비만 예방활동'(6.9%p), '안전·응급처치활동'(5.3%p), '신체단련 활동'(4.5%p)의 참여율은 5%포인트 내외로 증가하였다.

(2) 과학정보활동 참여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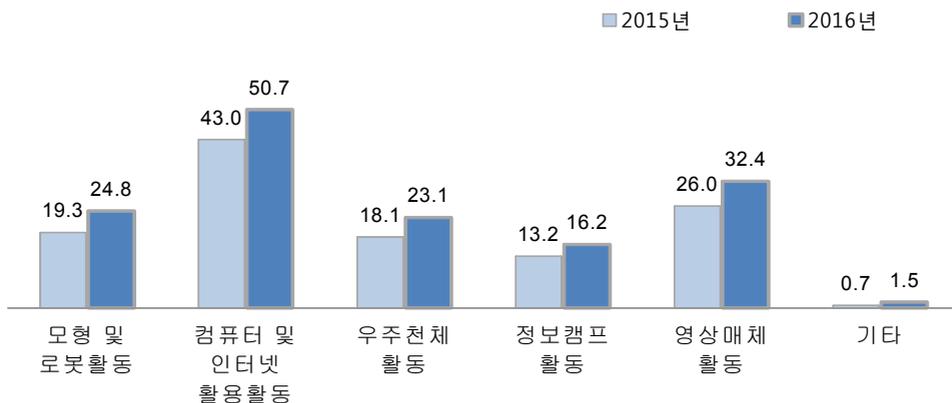
과학정보활동에 참여한 경험을 일반적 특성에 따라 살펴보면, 남자 청소년(63.1%)이 여자 청소년(59.2%)보다( $p<.001$ ), 학교급이 낮을수록(초 78.6%, 중 59.6%, 고 49.7%)( $p<.001$ ), 대도시(63.0%) 거주 청소년이 중소도시(60.2%) 또는 읍면지역(58.7%) 거주 청소년보다 참여경험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p<.05$ ). 그리고 학업성적이 높을수록(상 70.0%, 중 60.2%, 하 50.0%)( $p<.001$ ), 가정의 경제수준별로는 상 집단(67.1%)에 속하는 청소년이 중(56.3%)·하 집단(55.2%)의 청소년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참여율을 보고하였다( $p<.001$ ).

표 IV-4 과학정보활동 참여경험(2016년도)

(단위: %)

구분		참여한 적 있음	참여한 적 없음	전체	통계치
전체		61.2	38.8	100.0	-
성별	남자	63.1	36.9	100.0	$\chi^2=13.942$ $p=0.000$
	여자	59.2	40.8	100.0	
학교급	초등학교	78.6	21.4	100.0	$\chi^2=497.594$ $p=0.000$
	중학교	59.6	40.4	100.0	
	고등학교	49.7	50.3	100.0	
지역규모	대도시	63.0	37.0	100.0	$\chi^2=9.031$ $p=0.011$
	중소도시	60.2	39.8	100.0	
	읍면지역	58.7	41.3	100.0	
학업성적	상	70.0	30.0	100.0	$\chi^2=213.152$ $p=0.000$
	중	60.2	39.8	100.0	
	하	50.0	50.0	100.0	
경제수준	상	67.1	32.9	100.0	$\chi^2=112.292$ $p=0.000$
	중	56.3	43.7	100.0	
	하	55.2	44.8	100.0	

세부 활동별로 살펴보면([그림 IV-4]), 과학정보활동 가운데 ‘컴퓨터 및 인터넷 활용활동’의 참여율이 50.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영상매체활동’(32.4%), ‘모형 및 로봇활동’(24.8%), ‘우주천체활동’(23.1%), ‘정보캠프활동’(16.2%), ‘기타’(1.5%) 순으로 나타났다. 세부 활동의 참여 순위는 2015년도 연구결과와 동일하게 분석되었다. 한편, ‘컴퓨터 및 인터넷 활용활동’(7.7%p), ‘영상매체활동’(6.4%p) 등을 비롯한 모든 활동의 참여율이 증가하였다.



【그림 IV-4】 과학정보활동 세부 활동 참여율(연도별 추이)

### (3) 교류활동 참여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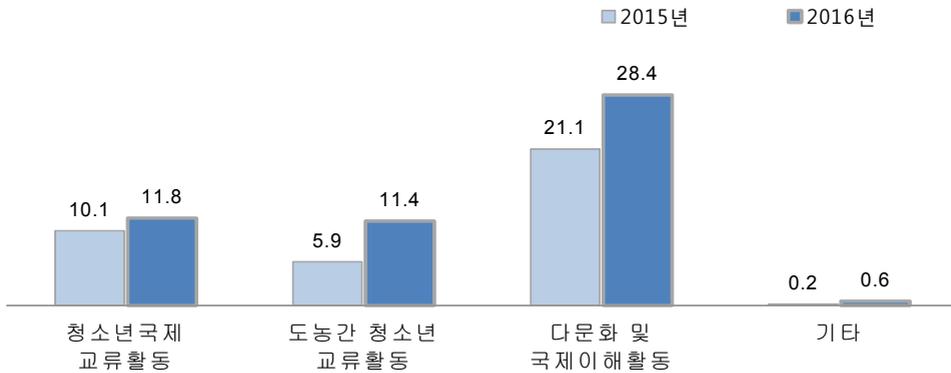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교류활동의 참여경험을 비교하였다(<표 IV-5>). 그 결과, 여자 청소년(35.1%)이 남자 청소년(32.8%)보다( $p<.05$ ), 학교급이 낮을수록(초 57.0%, 중 30.6%, 고 19.4%)( $p<.001$ ), 읍면지역(40.0%)에 거주하는 청소년이 대도시(33.9%)나 중소도시(32.6%)에 거주하는 청소년보다 상대적으로 교류활동에 많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p<.001$ ). 또한 학업성적이 높을수록(상 41.7%, 중 33.0%, 하 23.9%)( $p<.001$ ), 가정의 경제수준이 높을수록(상 39.6%, 중 30.3%, 하 24.8%) 참여경험이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p<.001$ ).

교류활동의 세부 활동별 참여율을 살펴보면([그림 IV-5]), ‘다문화 및 국제이해활동’이 28.4%로 가장 높았고, ‘청소년국제교류활동’이 11.8%, ‘도농간 청소년교류활동’이 11.4%, ‘기타’ 0.6% 순으로 나타났다. 세부 활동의 참여 순위는 2015년도 연구결과와 동일하게 나타났다. 다만, 2015년도에 비해 ‘다문화 및 국제이해활동’(7.3%p)과 ‘도농간 청소년교류활동’(5.5%p) 등에 대한 청소년들의 참여가 보다 활발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IV-5 교류활동 참여경험(2016년도)

(단위: %)

구분		참여한 적 있음	참여한 적 없음	전체	통계치
전체		33.9	66.1	100.0	-
성별	남자	32.8	67.2	100.0	$\chi^2=4.941$ $p=0.026$
	여자	35.1	64.9	100.0	
학교급	초등학교	57.0	43.0	100.0	$\chi^2=905.096$ $p=0.000$
	중학교	30.6	69.4	100.0	
	고등학교	19.4	80.6	100.0	
지역규모	대도시	33.9	66.1	100.0	$\chi^2=17.211$ $p=0.000$
	중소도시	32.6	67.4	100.0	
	읍면지역	40.0	60.0	100.0	
학업성적	상	41.7	58.3	100.0	$\chi^2=177.897$ $p=0.000$
	중	33.0	67.0	100.0	
	하	23.9	76.1	100.0	
경제수준	상	39.6	60.4	100.0	$\chi^2=124.370$ $p=0.000$
	중	30.3	69.7	100.0	
	하	24.8	75.2	100.0	



【그림 IV-5】 교류활동 세부 활동 참여율(연도별 추이)

(4) 모험개척활동 참여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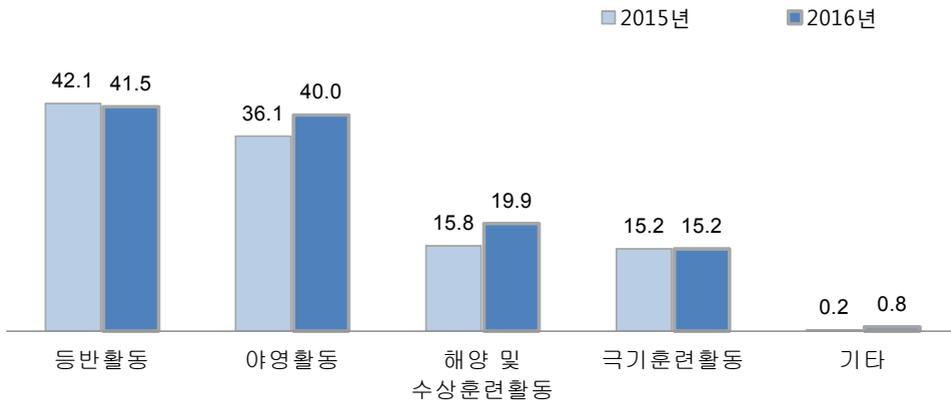
모험개척활동의 참여경험을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별로 분석한 결과(<표 IV-6>), 남자 청소년(59.0%)이 여자 청소년(56.5%)보다( $p<.05$ ), 학교급이 낮을수록(초 71.2%, 중 58.5%, 고 47.0%) 참여율

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p < .001$ ). 거주 지역의 규모에 따라서는 대도시(59.5%), 읍면지역(58.1%), 중소도시(56.2%) 순으로( $p < .05$ ), 학업성적이 높을수록(상 64.0%, 중 57.4%, 하 49.3%)( $p < .001$ ), 가정의 경제수준이 높을수록(상 62.8%, 중 56.1%, 하 46.0%) 높은 참여율을 보였다( $p < .001$ ).

표 IV-6 모험개척활동 참여경험(2016년도)

(단위: %)

구분		참여한 적 있음	참여한 적 없음	전체	통계치
전체		57.8	42.2	100.0	-
성별	남자	59.0	41.0	100.0	$\chi^2=5.616$ $p=0.018$
	여자	56.5	43.5	100.0	
학교급	초등학교	71.2	28.8	100.0	$\chi^2=338.663$ $p=0.000$
	중학교	58.5	41.5	100.0	
	고등학교	47.0	53.0	100.0	
지역규모	대도시	59.5	40.5	100.0	$\chi^2=8.577$ $p=0.014$
	중소도시	56.2	43.8	100.0	
	읍면지역	58.1	41.9	100.0	
학업성적	상	64.0	36.0	100.0	$\chi^2=111.026$ $p=0.000$
	중	57.4	42.6	100.0	
	하	49.3	50.7	100.0	
경제수준	상	62.8	37.2	100.0	$\chi^2=115.853$ $p=0.000$
	중	56.1	43.9	100.0	
	하	46.0	54.0	100.0	



【그림 IV-6】 모험개척활동 세부 활동 참여율(연도별 추이)

구체적으로, 모험개척활동의 세부 활동에 대한 참여율을 보면, '등반활동'이 41.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야영활동'이 40.0%로 그 뒤를 이었다. 다음으로 '해양 및 수상훈련활동'이 19.9%, '극기훈련활동'이 15.2%, '기타'가 0.8%의 순으로 분석되었다. 이처럼 세부 활동의 참여 순위는 2015년도 조사와 유사하게 나타났으며, '해양 및 수상훈련활동'(4.1%p)과 '야영활동'(3.9%p) 등에서 청소년 참여가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 (5) 문화예술활동 참여경험

문화예술활동의 참여경험을 일반적 특성에 따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성별에 따라서는 여자 청소년(90.7%)이 남자 청소년(80.1%)보다( $p<.001$ ), 학교급이 낮을수록(초 91.0%, 중 85.0%, 고 80.9%)( $p<.001$ ), 대도시(86.6%) 거주 청소년이 중소도시(84.3%)나 읍면지역(83.2%) 거주 청소년보다 참여율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p<.01$ ). 그리고 학업성적이 높을수록(상 90.2%, 중 85.1%, 하 77.8%)( $p<.001$ ), 가정의 경제수준별로는 상 집단(88.1%)이 중(83.2%) 또는 하 집단(80.7%)에 비해 문화예술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p<.001$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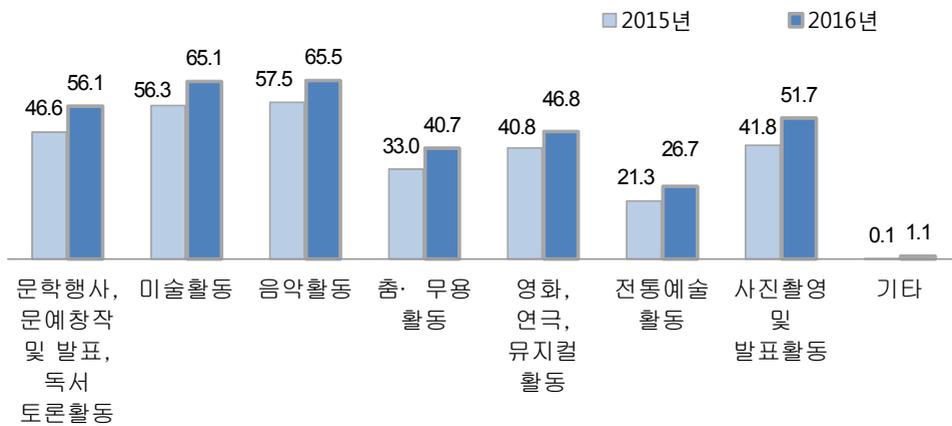
표 IV-7 문화예술활동 참여경험(2016년도)

(단위: %)

구분		참여한 적 있음	참여한 적 없음	전체	통계치
전체		85.2	14.8	100.0	-
성별	남자	80.1	19.9	100.0	$\chi^2=191.684$ $p=0.000$
	여자	90.7	9.3	100.0	
학교급	초등학교	91.0	9.0	100.0	$\chi^2=112.622$ $p=0.000$
	중학교	85.0	15.0	100.0	
	고등학교	80.9	19.1	100.0	
지역규모	대도시	86.6	13.4	100.0	$\chi^2=11.009$ $p=0.004$
	중소도시	84.3	15.7	100.0	
	읍면지역	83.2	16.8	100.0	
학업성적	상	90.2	9.8	100.0	$\chi^2=153.332$ $p=0.000$
	중	85.1	14.9	100.0	
	하	77.8	22.2	100.0	
경제수준	상	88.1	11.9	100.0	$\chi^2=56.700$ $p=0.000$
	중	83.2	16.8	100.0	
	하	80.7	19.3	100.0	

세부 활동별로 참여율을 보면, 청소년들은 '음악활동'(65.5%)과 '미술활동'(65.1%)에 주로 많이 참여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문학행사, 문예창작 및 발표, 독서토론활동'(56.1%), '사진촬영 및 발표활동'(51.7%)의 참여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영화, 연극, 뮤지컬활동'(46.8%), '춤·무용활동'(40.7%), '전통예술활동'(26.7%), '기타'(1.1%)의 순으로 참여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2015년도 결과와 비교했을 때 모든 활동의 참여율이 증가하였으며, 특히 '사진촬영 및 발표활동'(9.9%p)과 '문학행사, 문예창작 및 발표, 독서토론활동'(9.5%p), '미술활동'(8.8%p), '음악활동'(8.0%p)은 10%포인트 내외로 크게 상승하였다.



【그림 IV-7】 문화예술활동 세부 활동 참여율(연도별 추이)

#### (6) 봉사활동 참여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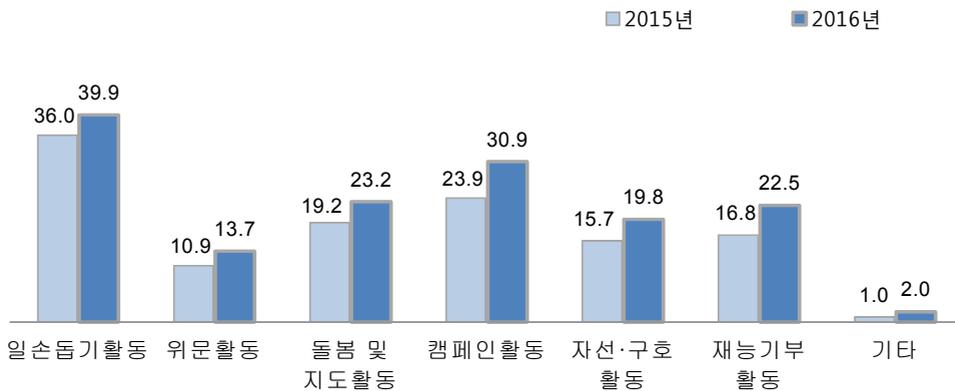
봉사활동의 참여경험을 일반적 특성에 따라 분석한 결과(<표 IV-8>), 학교급을 제외한 특성들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우선, 성별의 경우 여자 청소년(67.6%)이 남자 청소년(58.6%)보다( $p<.001$ ), 거주 지역의 규모가 클수록(대 65.5%, 중 61.9%, 읍 56.7%)( $p<.001$ ), 학업성적이 높을수록(상 68.5%, 중 61.4%, 하 57.1%) 참여율이 높게 나타났다( $p<.001$ ). 그리고 가정의 경제수준별로는 상 집단(66.9%)에 속하는 청소년이 하 집단(60.1%)이나 중 집단(59.1%)의 청소년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참여율을 보고하였다( $p<.001$ ).

표 IV-8 봉사활동 참여경험(2016년도)

(단위: %)

구분		참여한 적 있음	참여한 적 없음	전체	통계치
전체		62.9	37.1	100.0	-
성별	남자	58.6	41.4	100.0	$\chi^2=75.296$ p=0.000
	여자	67.6	32.4	100.0	
학교급	초등학교	62.2	37.8	100.0	$\chi^2=1.116$ p=0.572
	중학교	63.6	36.4	100.0	
	고등학교	62.9	37.1	100.0	
지역규모	대도시	65.5	34.5	100.0	$\chi^2=26.399$ p=0.000
	중소도시	61.9	38.1	100.0	
	읍면지역	56.7	43.3	100.0	
학업성적	상	68.5	31.5	100.0	$\chi^2=75.011$ p=0.000
	중	61.4	38.6	100.0	
	하	57.1	42.9	100.0	
경제수준	상	66.9	33.1	100.0	$\chi^2=51.483$ p=0.000
	중	59.1	40.9	100.0	
	하	60.1	39.9	100.0	

봉사활동의 참여율을 세부 활동별로 살펴본 결과에서는 '일손돕기활동'이 39.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캠페인활동'이 30.9%의 참여율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돌봄 및 지도활동'이 23.2%, '재능기부활동'이 22.5%, '자선·구호활동'이 19.8%, '위문활동'이 13.7%, '기타'가 2.0%의 순으로 분석되었다.



【그림 IV-8】 봉사활동 세부 활동 참여율(연도별 추이)

이러한 세부 활동의 참여 순위는 2015년도 연구결과와 동일하게 나타났으나 ‘캠페인활동’(7.0%p), ‘재능기부활동’(5.7%p), ‘자선·구호활동’(4.1%p) 등을 비롯한 전반적인 활동의 참여율이 상승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그림 IV-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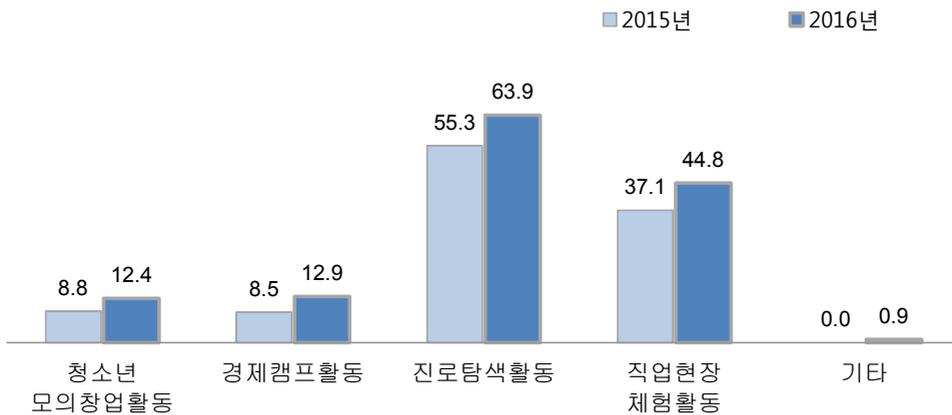
(7) 진로탐색 및 직업체험활동 참여경험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진로탐색 및 직업체험활동의 참여경험을 비교한 결과, 성별의 경우 여자 청소년(76.8%)이 남자 청소년(68.5%)보다( $p<.001$ ), 학교급별로는 중학생(74.9%), 고등학생(71.9%), 초등학생(70.3%) 순으로 참여율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p<.001$ ). 또한 거주하는 지역규모가 클수록(대 74.6%, 중 72.1%, 읍 65.2%)( $p<.001$ ), 학업성적이 높을수록(상 77.7%, 중 71.5%, 하 66.2%)( $p<.001$ ), 가정의 경제수준에 따라서는 상 집단(74.1%)이 중·하 집단(71.0%)보다 참여 청소년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p<.01$ ).

표 IV-9 진로탐색 및 직업체험활동 참여경험(2016년도)

구분		참여한 적 있음	참여한 적 없음	전체	통계치
전체		72.5	27.5	100.0	-
성별	남자	68.5	31.5	100.0	$\chi^2=73.795$ $p=0.000$
	여자	76.8	23.2	100.0	
학교급	초등학교	70.3	29.7	100.0	$\chi^2=15.431$ $p=0.000$
	중학교	74.9	25.1	100.0	
	고등학교	71.9	28.1	100.0	
지역규모	대도시	74.6	25.4	100.0	$\chi^2=31.281$ $p=0.000$
	중소도시	72.1	27.9	100.0	
	읍면지역	65.2	34.8	100.0	
학업성적	상	77.7	22.3	100.0	$\chi^2=84.726$ $p=0.000$
	중	71.5	28.5	100.0	
	하	66.2	33.8	100.0	
경제수준	상	74.1	25.9	100.0	$\chi^2=10.637$ $p=0.005$
	중	71.0	29.0	100.0	
	하	71.0	29.0	100.0	

진로탐색 및 직업체험활동의 세부 활동에 대한 참여율을 분석한 결과에서는 '진로탐색활동'이 63.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직업현장체험활동'의 참여가 44.8%로 많았으며, '경제캠프활동'(12.9%), '청소년모의창업활동'(12.4%), '기타'(0.9%) 순으로 조사되었다. 2015년도 결과와 비교해 보면, '진로탐색활동'(8.6%p)과 '직업현장체험활동'(7.7%p) 등에 대한 청소년의 참여가 활발해진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IV-9】 진로탐색 및 직업체험활동 세부 활동 참여율(연도별 추이)

#### (8) 환경보존활동 참여경험

최근 1년간 환경보존활동의 참여경험을 일반적 특성에 따라 분석하였다([표 IV-10]). 우선, 성별에 따라서는 여자 청소년(50.2%)이 남자 청소년(47.5%)보다( $p<.05$ ), 학교급이 낮을수록(초 72.8%, 중 47.6%, 고 31.8%) 참여한 청소년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p<.001$ ). 거주 지역의 규모별로는 대도시(51.0%) 거주 청소년이 읍면지역(47.7%) 혹은 중소도시(47.0%) 거주 청소년보다 참여율이 높았고( $p<.01$ ), 학업성적이 높을수록(상 57.5%, 중 47.6%, 하 37.9%)( $p<.001$ ), 가정의 경제수준이 높을수록(상 56.3%, 중 42.9%, 하 39.9%) 높은 참여율을 보고하였다( $p<.001$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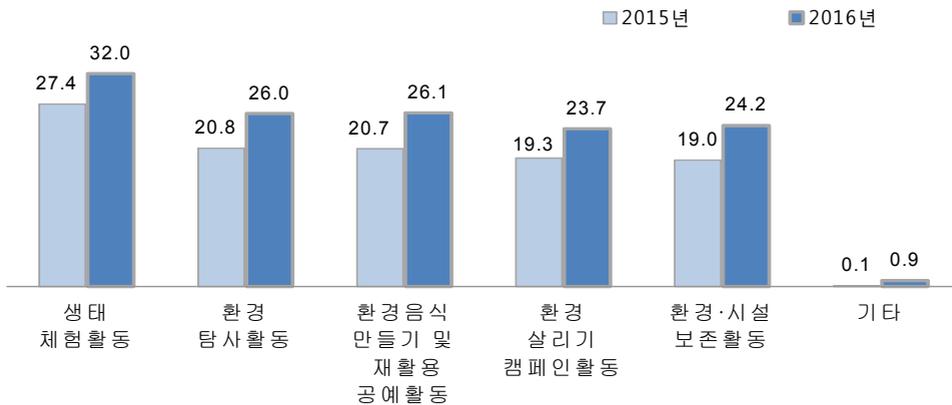
세부 활동별로 자세히 살펴보면([그림 IV-10]), 환경보존활동 중 '생태체험활동'의 참여경험이 32.0%로 가장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환경음식 만들기 및 재활용공예활동'(26.1%), '환경탐사활동'(26.0%), '환경·시설 보존활동'(24.2%), '환경살리기캠페인활동'(23.7%), '기타'(0.9%) 순으로 참여율이 높게 나타났다.

표 IV-10 환경보존활동 참여경험(2016년도)

(단위: %)

구분		참여한 적 있음	참여한 적 없음	전체	통계치
전체		48.8	51.2	100.0	-
성별	남자	47.5	52.5	100.0	$\chi^2=5.957$ $p=0.015$
	여자	50.2	49.8	100.0	
학교급	초등학교	72.8	27.2	100.0	$\chi^2=943.930$ $p=0.000$
	중학교	47.6	52.4	100.0	
	고등학교	31.8	68.2	100.0	
지역규모	대도시	51.0	49.0	100.0	$\chi^2=12.660$ $p=0.002$
	중소도시	47.0	53.0	100.0	
	읍면지역	47.7	52.3	100.0	
학업성적	상	57.5	42.5	100.0	$\chi^2=194.234$ $p=0.000$
	중	47.6	52.4	100.0	
	하	37.9	62.1	100.0	
경제수준	상	56.3	43.7	100.0	$\chi^2=176.408$ $p=0.000$
	중	42.9	57.1	100.0	
	하	39.9	60.1	100.0	

2015년도 결과와 비교해 보면, 전반적으로 세부 활동의 참여율이 상승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환경음식 만들기 및 재활용공예활동'(5.4%p), '환경탐사활동' 및 '환경·시설 보존활동'(5.2%p)의 참여율은 5%포인트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V-10】 환경보존활동 세부 활동 참여율(연도별 추이)

(9) 자기(인성)계발활동 참여경험

자기(인성)계발활동의 참여경험을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별로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여자 청소년(54.2%)이 남자 청소년(47.6%)보다( $p<.001$ ), 학교급이 낮을수록(초 57.1%, 중 51.7%, 고 45.2%)( $p<.001$ ), 거주지역의 규모가 클수록(대 53.8%, 중 49.5%, 읍 43.8%) 참여율이 높게 나타났다( $p<.001$ ). 학업성적에 따라서는 성적이 좋을수록(상 58.0%, 중 50.4%, 하 40.6%) 자기(인성)계발활동에 더 많이 참여하였고( $p<.001$ ), 가정의 경제수준별로는 상 집단(56.5%)의 청소년이 하 집단(46.2%)이나 중 집단(45.3%)에 속하는 청소년보다 참여경험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p<.001$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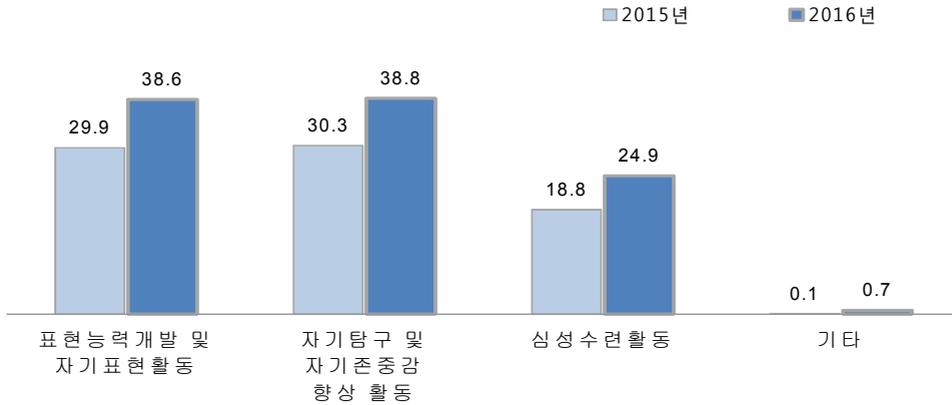
표 IV -11 자기(인성)계발활동 참여경험(2016년도)

(단위: %)

구분		참여한 적 있음	참여한 적 없음	전체	통계치
전체		50.8	49.2	100.0	-
성별	남자	47.6	52.4	100.0	$\chi^2=36.596$ $p=0.000$
	여자	54.2	45.8	100.0	
학교급	초등학교	57.1	42.9	100.0	$\chi^2=80.505$ $p=0.000$
	중학교	51.7	48.3	100.0	
	고등학교	45.2	54.8	100.0	
지역규모	대도시	53.8	46.2	100.0	$\chi^2=32.759$ $p=0.000$
	중소도시	49.5	50.5	100.0	
	읍면지역	43.8	56.2	100.0	
학업성적	상	58.0	42.0	100.0	$\chi^2=150.689$ $p=0.000$
	중	50.4	49.6	100.0	
	하	40.6	59.4	100.0	
경제수준	상	56.5	43.5	100.0	$\chi^2=103.669$ $p=0.000$
	중	45.3	54.7	100.0	
	하	46.2	53.8	100.0	

세부 활동의 참여율을 분석한 결과에서는 '자기탐구 및 자기존중감 향상 활동'이 38.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표현능력개발 및 자기표현활동'의 참여율도 38.6%로 높게 나타났다. 이어서 '심성수련활동'은 24.9%, '기타' 0.7% 순으로 참여율을 보고하였다. 자기(인성)계발활동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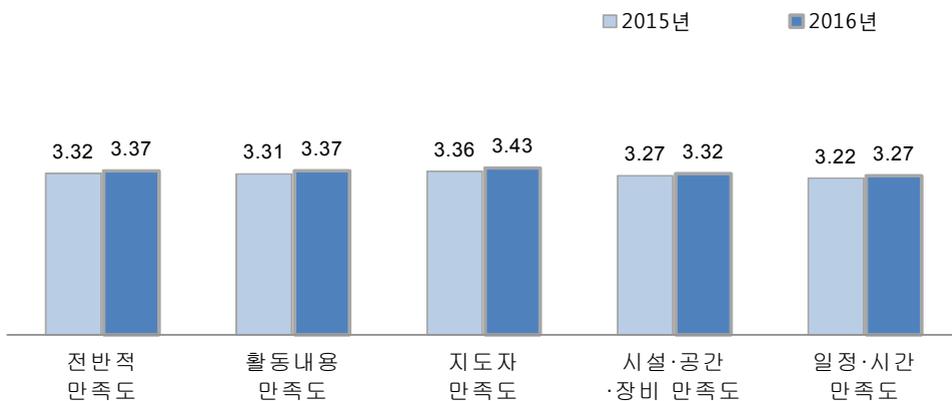
세부 활동들은 2015년도 연구결과에 비해 '표현능력개발 및 자기표현활동'이 8.7%포인트, '자기탐구 및 자기존중감 향상 활동'이 8.5%포인트, '심성수련활동'이 6.1%포인트 상승하는 등 비교적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그림 IV-11】 자기(인성)개발활동 세부 활동 참여율(연도별 추이)

### 3) 청소년활동 만족도

최근 1년간 청소년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활동의 만족도를 Likert형 5점 척도로 질문하였다.



\* 주: 전혀 그렇지 않다(1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2점), 보통이다(3점), 그런 편이다(4점), 매우 그렇다(5점)

【그림 IV-12】 청소년활동 만족도(연도별 추이)

그 결과([그림 IV-12]), '전반적인 만족도'는 평균 3.37로 보통수준을 상회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내용별로 살펴본 결과에서는 '지도자 만족도'가 평균 3.43으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 '활동내용 만족도'(M=3.37), '시설·공간·장비 만족도'(M=3.32), '일정·시간 만족도'(M=3.27) 순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청소년활동 만족도는 2015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1) 청소년활동 만족도: 전반적 만족도

일반적 특성에 따라 청소년활동의 전반적 만족도를 분석한 결과, 모든 특성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즉, 여자 청소년(M=3.39)이 남자 청소년(M=3.35)보다( $p<.05$ ), 학교급이 낮을수록(초 3.62, 중 3.37, 고 3.17) 더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p<.001$ ). 지역규모별로는 대도시(M=3.44) 거주 청소년이 읍면지역(M=3.36)이나 중소도시(M=3.30) 거주 청소년보다( $p<.001$ ), 학업성적이 높을수록(상 3.54, 중 3.33, 하 3.17)( $p<.001$ ), 가정의 경제수준이 높을수록(상 3.45, 중 3.34, 하 3.22) 전반적인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p<.001$ ).

표 IV-12 청소년활동 만족도: 전반적 만족도(2016년도)

구분	평균 <sup>1)</sup>	표준편차	통계치	사후검증
전체	3.37	.90	-	-
성별	남자	3.35	t=-2.214 p=0.027	-
	여자	3.39		
학교급	초등학교 <sup>a</sup>	3.62	F=178.401 p=0.000	a>b>c
	중학교 <sup>b</sup>	3.37		
	고등학교 <sup>c</sup>	3.17		
지역규모	대도시 <sup>a</sup>	3.44	F=22.971 p=0.000	a>b,c
	중소도시 <sup>b</sup>	3.30		
	읍면지역 <sup>c</sup>	3.36		
학업성적	상 <sup>a</sup>	3.54	F=109.067 p=0.000	a>b>c
	중 <sup>b</sup>	3.33		
	하 <sup>c</sup>	3.17		
경제수준	상 <sup>a</sup>	3.45	F=32.564 p=0.000	a>b>c
	중 <sup>b</sup>	3.34		
	하 <sup>c</sup>	3.22		

\* 주: 1) 전혀 그렇지 않다(1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2점), 보통이다(3점), 그런 편이다(4점), 매우 그렇다(5점)

(2) 청소년활동 만족도: 활동내용 만족도

청소년활동의 내용에 관한 만족도를 살펴보면, 성별에 따라서는 여자 청소년(M=3.41)이 남자 청소년(M=3.34)보다( $p<.01$ ), 학교급이 낮을수록(초 3.62, 중 3.38, 고 3.18)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p<.001$ ). 거주 지역의 규모에 따라서는 대도시(M=3.44) 청소년이 중소도시(M=3.31) 청소년보다( $p<.001$ ), 학업성적이 높을수록(상 3.54, 중 3.34, 하 3.17) 높은 만족도를 보고하였으며( $p<.001$ ), 가정의 경제수준별로는 상 집단(M=3.44)이 중(M=3.33)·하 집단(M=3.28)에 비해 만족도를 높게 평가하였다( $p<.001$ ).

표 IV-13 청소년활동 만족도: 활동내용 만족도(2016년도)

구분		평균 <sup>1)</sup>	표준편차	통계치	사후검증
전체		3.37	0.91	-	-
성별	남자	3.34	0.96	t=-3.443 p=0.001	-
	여자	3.41	0.86		
학교급	초등학교 <sup>a</sup>	3.62	0.97	F=165.585 p=0.000	a>b>c
	중학교 <sup>b</sup>	3.38	0.88		
	고등학교 <sup>c</sup>	3.18	0.84		
지역규모	대도시 <sup>a</sup>	3.44	0.92	F=19.589 p=0.000	a>b
	중소도시 <sup>b</sup>	3.31	0.88		
	읍면지역	3.38	0.95		
학업성적	상 <sup>a</sup>	3.54	0.93	F=107.108 p=0.000	a>b>c
	중 <sup>b</sup>	3.34	0.87		
	하 <sup>c</sup>	3.17	0.89		
경제수준	상 <sup>a</sup>	3.44	0.95	F=21.750 p=0.000	a>b,c
	중 <sup>b</sup>	3.33	0.87		
	하 <sup>c</sup>	3.28	0.85		

\* 주: 1) 전혀 그렇지 않다(1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2점), 보통이다(3점), 그런 편이다(4점), 매우 그렇다(5점)

(3) 청소년활동 만족도: 지도자 만족도

청소년활동의 지도자 만족도를 일반적 특성별로 살펴본 결과에서는 성별을 제외한 모든 특성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표 IV-14>). 구체적으로, 학교급이 낮을수록(초 3.73,

중 3.41, 고 3.21)( $p<.001$ ), 대도시(M=3.50) 혹은 읍면지역(M=3.47) 거주 청소년이 중소도시(M=3.36) 거주 청소년보다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p<.001$ ). 또한 학업성적이 높을수록(상 3.60, 중 3.39, 하 3.23)( $p<.001$ ), 가정의 경제수준이 높을수록(상 3.51, 중 3.38, 하 3.28) 지도자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p<.001$ ).

표 IV-14 청소년활동 만족도: 지도자 만족도(2016년도)

구분		평균 <sup>1)</sup>	표준편차	통계치	사후검증
전체		3.43	0.91	-	-
성별	남자	3.41	0.96	t=-1.732 p=0.083	-
	여자	3.45	0.86		
학교급	초등학교 <sup>a</sup>	3.73	0.98	F=235.870 p=0.000	a>b>c
	중학교 <sup>b</sup>	3.41	0.86		
	고등학교 <sup>c</sup>	3.21	0.83		
지역규모	대도시 <sup>a</sup>	3.50	0.90	F=23.315 p=0.000	a,c>b
	중소도시 <sup>b</sup>	3.36	0.91		
	읍면지역 <sup>c</sup>	3.47	0.96		
학업성적	상 <sup>a</sup>	3.60	0.93	F=106.311 p=0.000	a>b>c
	중 <sup>b</sup>	3.39	0.88		
	하 <sup>c</sup>	3.23	0.89		
경제수준	상 <sup>a</sup>	3.51	0.95	F=38.036 p=0.000	a>b>c
	중 <sup>b</sup>	3.38	0.86		
	하 <sup>c</sup>	3.28	0.88		

\* 주: 1) 전혀 그렇지 않다(1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2점), 보통이다(3점), 그런 편이다(4점), 매우 그렇다(5점)

#### (4) 청소년활동 만족도: 시설·공간·장비 만족도

청소년활동이 진행된 시설, 공간 및 장비에 대한 만족도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 IV-15>와 같다. 구체적으로, 성별에 따라서는 여자 청소년(M=3.35)이 남자 청소년(M=3.28)보다( $p<.01$ ), 학교급이 낮을수록(초 3.61, 중 3.33, 고 3.07) 상대적으로 높은 만족도를 보고하였다( $p<.001$ ). 거주 지역의 규모별로는 대도시(M=3.39)나 읍면지역(M=3.36)의 청소년이 중소도시(M=3.24)의 청소년보다( $p<.001$ ), 학업성적이 높을수록(상 3.48, 중 3.27, 하 3.14)( $p<.001$ ), 가정의 경제수준이 높을수록(상 3.40, 중 3.26, 하 3.17) 시설·공간·장비에 대해 더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p<.001$ ).

표 IV-15 청소년활동 만족도: 시설·공간·장비 만족도(2016년도)

구분		평균 <sup>1)</sup>	표준편차	통계치	사후검증
전체		3.32	0.93	-	-
성별	남자	3.28	0.98	t=-3.055 p=0.002	-
	여자	3.35	0.88		
학교급	초등학교 <sup>a</sup>	3.61	0.99	F=237.065 p=0.000	a>b>c
	중학교 <sup>b</sup>	3.33	0.89		
	고등학교 <sup>c</sup>	3.07	0.85		
지역규모	대도시 <sup>a</sup>	3.39	0.93	F=24.859 p=0.000	a,c>b
	중소도시 <sup>b</sup>	3.24	0.92		
	읍면지역 <sup>c</sup>	3.36	0.99		
학업성적	상 <sup>a</sup>	3.48	0.97	F=84.655 p=0.000	a>b>c
	중 <sup>b</sup>	3.27	0.88		
	하 <sup>c</sup>	3.14	0.91		
경제수준	상 <sup>a</sup>	3.40	0.98	F=37.242 p=0.000	a>b>c
	중 <sup>b</sup>	3.26	0.89		
	하 <sup>c</sup>	3.17	0.87		

\* 주: 1) 전혀 그렇지 않다(1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2점), 보통이다(3점), 그런 편이다(4점), 매우 그렇다(5점)

(5) 청소년활동 만족도: 일정·시간 만족도

표 IV-16 청소년활동 만족도: 일정·시간 만족도(2016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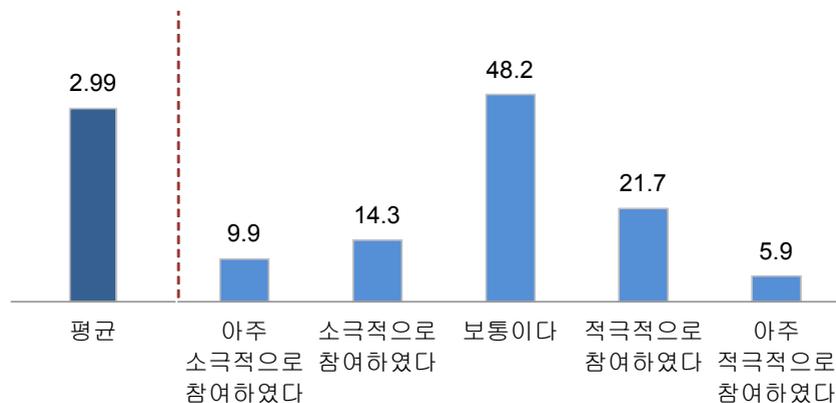
구분		평균 <sup>1)</sup>	표준편차	통계치	사후검증
전체		3.27	0.96	-	-
성별	남자	3.24	1.00	t=-2.793 p=0.005	-
	여자	3.30	0.90		
학교급	초등학교 <sup>a</sup>	3.55	1.01	F=197.383 p=0.000	a>b>c
	중학교 <sup>b</sup>	3.29	0.92		
	고등학교 <sup>c</sup>	3.04	0.88		
지역규모	대도시 <sup>a</sup>	3.33	0.95	F=15.408 p=0.000	a,c>b
	중소도시 <sup>b</sup>	3.21	0.95		
	읍면지역 <sup>c</sup>	3.31	0.99		
학업성적	상 <sup>a</sup>	3.42	0.99	F=77.955 p=0.000	a>b>c
	중 <sup>b</sup>	3.25	0.91		
	하 <sup>c</sup>	3.08	0.93		
경제수준	상 <sup>a</sup>	3.36	0.99	F=39.131 p=0.000	a>b>c
	중 <sup>b</sup>	3.22	0.91		
	하 <sup>c</sup>	3.11	0.95		

\* 주: 1) 전혀 그렇지 않다(1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2점), 보통이다(3점), 그런 편이다(4점), 매우 그렇다(5점)

<표 IV-16>과 같이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일정·시간 만족도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여자 청소년(M=3.30)이 남자 청소년(M=3.24)보다( $p<.01$ ), 학교급이 낮을수록(초 3.55, 중 3.29, 고 3.04)( $p<.001$ ), 대도시(M=3.33) 또는 읍면지역(M=3.31) 거주 청소년이 중소도시(M=3.21) 거주 청소년보다 만족도 수준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p<.001$ ). 그리고 학업성적이 높을수록(상 3.42, 중 3.25, 하 3.08)( $p<.001$ ),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상 3.36, 중 3.22, 하 3.11) 일정과 시간에 대해 만족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p<.001$ ).

#### 4) 청소년활동 참여정도

최근 1년간 청소년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에게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했는지 질문하고, Likert형 5점 척도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분석결과, 청소년활동의 참여정도는 평균 2.99의 보통 수준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응답분포를 보면, 절반가량의 청소년이 '보통이다'(48.2%)로 응답하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는 21.7%, '소극적으로 참여하였다'는 14.3%, '아주 소극적으로 참여하였다'는 9.9%, '아주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는 응답이 5.9%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IV-13】 청소년활동 참여정도(2016년도)

청소년활동의 참여정도를 일반적 특성에 따라 분석한 결과에서는 거주 지역의 규모를 제외한 특성들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여자 청소년(M=3.06)이 남자 청소년

(M=2.94)보다( $p<.001$ ), 학교급이 낮을수록(초 3.20, 중 3.01, 고 2.82)( $p<.001$ ), 학업성적이 높을수록(상 3.18, 중 2.95, 하 2.78)( $p<.001$ ), 가정의 경제수준이 높을수록(상 3.09, 중 2.93, 하 2.85) 청소년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p<.001$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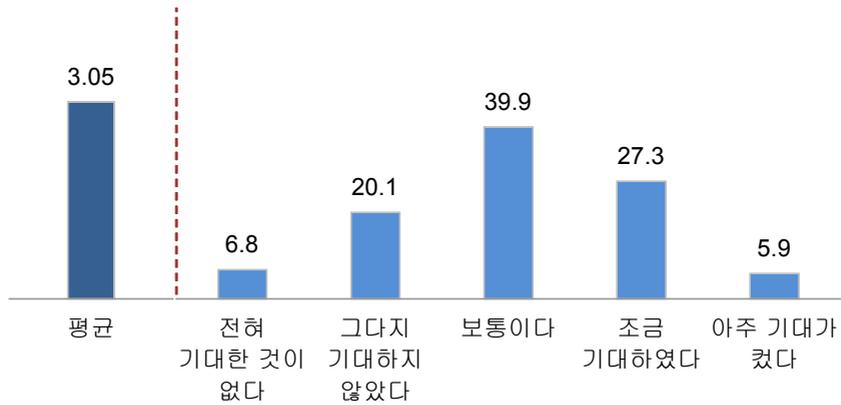
표 IV-17 청소년활동 참여정도(2016년도)

구분		평균 <sup>1)</sup>	표준편차	통계치	사후검증
전체		2.99	1.00	-	-
성별	남자	2.94	1.02	t=-5.553 p=0.000	-
	여자	3.06	.97		
학교급	초등학교 <sup>a</sup>	3.20	.97	F=103.048 p=0.000	a>b>c
	중학교 <sup>b</sup>	3.01	.99		
	고등학교 <sup>c</sup>	2.82	.99		
지역규모	대도시	3.02	1.01	F=2.082 p=0.125	
	중소도시	2.97	.99		
	읍면지역	3.00	.96		
학업성적	상 <sup>a</sup>	3.18	1.00	F=101.970 p=0.000	a>b>c
	중 <sup>b</sup>	2.95	.95		
	하 <sup>c</sup>	2.78	1.01		
경제수준	상 <sup>a</sup>	3.09	1.00	F=38.350 p=0.000	a>b>c
	중 <sup>b</sup>	2.93	.97		
	하 <sup>c</sup>	2.85	1.00		

\* 주: 1) 아주 소극적으로 참여하였다(1점), 소극적으로 참여하였다(2점), 보통이다(3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4점), 아주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5점)

### 5) 청소년활동 성취기대수준

최근 1년간 청소년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활동에 참여하면서 자신의 발전에 얼마나 많은 기대를 하였는지 Likert형 5점 척도로 질문하였다. 그 결과, 청소년활동의 성취기대수준은 평균 3.05의 보통 수준으로 분석되었다. 응답분포율을 보면, '보통이다'의 응답이 39.9%로 가장 많았고, '조금 기대하였다'가 27.3%, '그다지 기대하지 않았다'가 20.1%로 조사되었다. 이어서 '전혀 기대한 것이 없다'는 응답이 6.8%, '아주 기대가 컸다'는 의견도 5.9%를 차지하였다.



【그림 IV-14】 청소년활동 성취기대수준(2016년도)

청소년활동의 성취기대수준을 일반적 특성에 따라 분석한 결과, 거주 지역규모를 제외하고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8 청소년활동 성취기대수준(2016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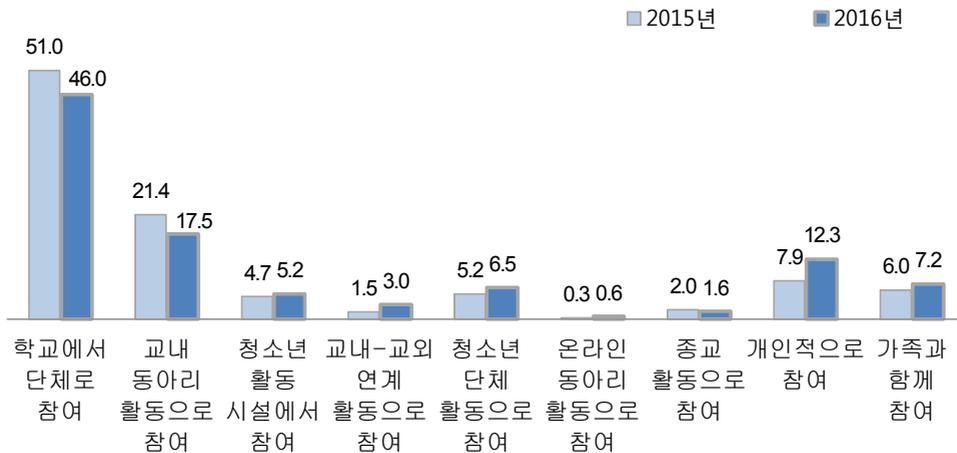
구분		평균 <sup>1)</sup>	표준편차	통계치	사후검증
전체		3.05	.99	-	-
성별	남자	3.01	1.00	t=-3.795 p=0.000	-
	여자	3.10	.98		
학교급	초등학교 <sup>a</sup>	3.32	1.00	F=128.150 p=0.000	a)b,c
	중학교 <sup>b</sup>	2.98	.96		
	고등학교 <sup>c</sup>	2.92	.97		
지역규모	대도시	3.07	.99	F=2.005 p=0.135	
	중소도시	3.03	1.00		
	읍면지역	3.10	.96		
학업성적	상 <sup>a</sup>	3.23	1.01	F=93.769 p=0.000	a)b)c
	중 <sup>b</sup>	3.02	.96		
	하 <sup>c</sup>	2.84	.96		
경제수준	상 <sup>a</sup>	3.15	1.01	F=36.948 p=0.000	a)b)c
	중 <sup>b</sup>	3.00	.94		
	하 <sup>c</sup>	2.89	1.02		

\* 주: 1) 전혀 기대한 것이 없다(1점), 그다지 기대하지 않았다(2점), 보통이다(3점), 조금 기대하였다(4점), 아주 기대가 컸다(5점)

구체적으로, 성별에 따라서는 여자 청소년(M=3.10)이 남자 청소년(M=3.01)보다( $p<.001$ ), 학교 급별로는 초등학생(M=3.32)이 중학생(M=2.98)이나 고등학생(M=2.92)보다 성취기대수준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p<.001$ ). 그리고 학업성적이 높을수록(상 3.23, 중 3.02, 하 2.84)( $p<.001$ ), 가정의 경제수준이 높은 청소년일수록(상 3.15, 중 3.00, 하 2.89) 청소년활동에 참여하면서 자신의 발전에 더 많이 기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p<.001$ )(<표 IV-18>).

## 6) 청소년활동 참여형태

최근 1년간 청소년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주로 어떤 형태로 참여하였는지 질문한 결과, '학교에서 단체로 참여'했다는 응답이 46.0%로 가장 많이 보고되었고, 그 다음으로 '교내 동아리활동으로 참여'가 17.5%, '개인적으로 참여'가 12.3%로 나타났다. 이 외에 '가족과 함께 참여'(7.2%), '청소년단체활동으로 참여'(6.5%), '청소년활동시설에서 참여'(5.2%), '교내-교외 연계활동으로 참여'(3.0%), '종교활동으로 참여'(1.6%), '온라인동아리활동으로 참여'(0.6%) 순으로 청소년활동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V-15】 청소년활동 참여형태(연도별 추이)

2015년도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과반 수 이상(51.0%)이 '학교에서 단체로 참여'하고, '교내동아리 활동으로 참여'한 경우도 21.4%로 학교에서 청소년활동에 참여한 비율이 72.4%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한편, 당해 연도 조사에서는 학교에서 참여한 경험이 89%포인트 감소하는 대신 ‘개인적으로 참여’(4.4%p)하거나 ‘교내-교외연계활동으로 참여’(1.5%p), ‘가족과 함께 참여’(1.2%p) 등의 비율이 높아짐으로써 청소년활동의 참여형태가 전년도에 비해 보다 다양해졌음을 볼 수 있다.

표 IV-19 청소년활동 참여형태(2016년도)

(단위: %)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전체	통계치	
전체	46.0	17.5	5.2	3.0	6.5	.6	1.6	12.3	7.2	100.0	-	
성별	남자	45.3	17.7	5.5	3.1	5.7	.8	1.7	12.7	7.5	100.0	$\chi^2=18.531$ $p=0.018$
	여자	46.8	17.2	4.9	3.0	7.3	.4	1.6	11.9	6.9	100.0	
학교급	초등학교	38.3	11.0	4.6	2.1	14.1	.8	2.0	10.1	17.0	100.0	$\chi^2=973.792$ $p=0.000$
	중학교	49.6	16.6	5.4	3.5	4.3	.6	1.6	13.5	4.8	100.0	
	고등학교	48.8	23.4	5.4	3.4	2.5	.4	1.4	13.0	1.7	100.0	
지역규모	대도시	46.6	16.3	5.3	2.8	7.3	.5	1.6	12.3	7.2	100.0	$\chi^2=42.463$ $p=0.000$
	중소도시	45.3	18.6	5.2	3.6	5.3	.7	1.7	12.7	6.9	100.0	
	읍면지역	46.9	17.4	4.4	1.8	8.6	.4	1.5	10.5	8.6	100.0	
학업성적	상	42.0	15.8	6.0	3.2	8.1	.7	1.7	12.4	10.0	100.0	$\chi^2=137.187$ $p=0.000$
	중	47.1	18.3	4.5	2.7	6.4	.4	1.6	12.2	6.8	100.0	
	하	50.5	18.6	5.2	3.3	4.1	.7	1.6	12.4	3.7	100.0	
경제수준	상	42.8	16.1	5.4	3.1	8.0	.6	1.6	12.0	10.3	100.0	$\chi^2=183.218$ $p=0.000$
	중	48.8	19.1	5.0	2.7	5.7	.6	1.2	12.0	4.9	100.0	
	하	49.1	17.6	5.2	3.5	3.6	.4	3.1	14.4	3.2	100.0	

\* 주: ① 학교에서 단체로 참여, ② 교내동아리활동으로 참여, ③ 청소년활동시설에서 참여, ④ 교내-교외(지역사회)연계활동으로 참여, ⑤ 청소년단체활동으로 참여, ⑥ 온라인동아리활동으로 참여, ⑦ 종교활동으로 참여, ⑧ 개인적으로 참여, ⑨ 가족과 함께 참여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별로 살펴보면, 성별에 따라서는 남녀 모두 1~3순위가 동일한 가운데 1순위인 ‘학교에서 단체로 참여’한 경우, 여자 청소년(46.8%)이 남자 청소년(45.3%)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 순위(4순위)로 남자 청소년은 ‘가족과 함께 참여’가 7.5%로, 여자 청소년은 ‘청소년단체활동으로 참여’가 7.3%로 나타나는 등 응답 순위에서도 차이를 보였다 ( $p<.05$ ). 학교급별로 보면, 1순위 ‘학교에서 단체로 참여’는 중학생(49.6%)과 고등학생(48.8%)이 초등학생(38.3%)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초등학생은 ‘가족과 함께 참여’(17.0%), ‘청소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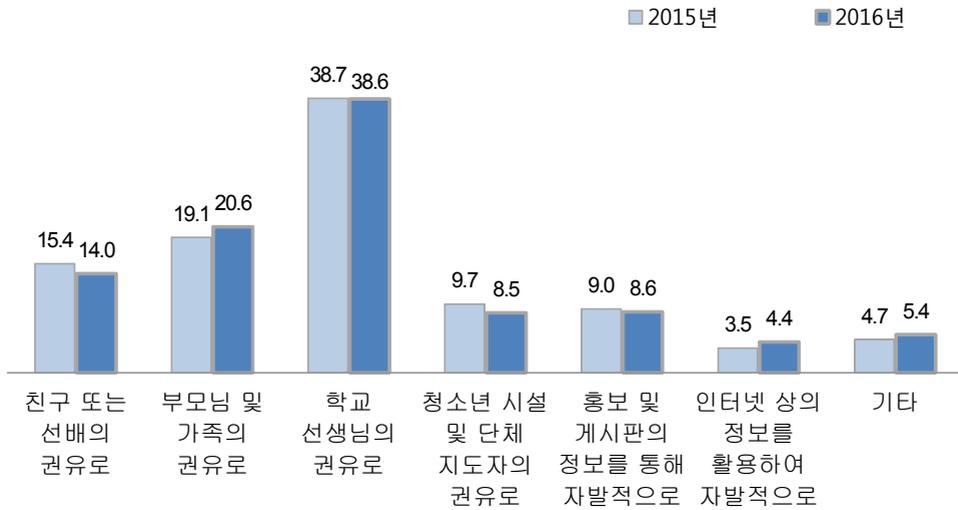
년단체활동으로 참여'(14.1%) 순으로, 중·고등학생은 '교내동아리활동으로 참여'(중 16.6%, 고 23.4%), '개인적으로 참여'(중 13.5%, 고 13.0%) 순으로 응답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p < .001$ ).

거주 지역규모의 경우, 1~3순위는 전체 순위와 동일하게 나타났으나 그 다음 순위로 대도시는 '청소년단체활동으로 참여'(7.3%)가, 중소도시는 '가족과 함께 참여'(6.9%)가, 읍면지역은 '청소년단체활동으로 참여' 및 '가족과 함께 참여'(8.6%)가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p < .001$ ). 학업성적에 따라서는 1순위 '학교에서 단체로 참여'는 성적이 낮을수록(하 50.5%, 중 47.1%, 상 42.0%), 2순위 '교내동아리활동으로 참여'는 하위권(18.6%)과 중위권(18.3%) 청소년이 상위권(15.8%) 청소년보다 참여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가족과 함께 참여'는 학업성적이 높을수록(상 10.0%, 중 6.8%, 하 3.7%)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p < .001$ ). 가정의 경제수준별로 보면, 1순위 '학교에서 단체로 참여'는 하 집단과 중 집단(하 49.1%, 중 48.8%)이 상 집단(42.8%)보다, 2순위 '교내동아리활동으로 참여'는 중 집단(19.1%), 하 집단(17.6%), 상 집단(16.1%) 순으로, 3순위 '개인적으로 참여'는 하 집단(14.4%)에 속하는 청소년이 상 집단과 중 집단(12.0%)의 청소년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가정의 경제수준이 높을수록(상 10.3%, 중 4.9%, 하 3.2%) '가족과 함께 참여'가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p < .001$ ).

## 7) 청소년활동 참여경로

최근 1년간 청소년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주로 어떤 경로를 통해 참여하였는지 살펴보았다(그림 IV-16). 그 결과, '학교 선생님의 권유로' 참여했다는 답변이 38.6%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부모님 및 가족의 권유로'(20.6%), '친구 또는 선배의 권유로'(14.0%) 참여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청소년들은 '홍보 및 게시판의 정보를 통해 자발적으로'(8.6%), '청소년 시설 및 단체 지도자의 권유로'(8.5%), '기타'(5.4%), '인터넷 상의 정보를 활용하여 자발적으로'(4.4%) 참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같은 응답률은 2015년도 결과와 전체적으로 유사하지만, '부모님 및 가족의 권유로'(1.5%p), '인터넷 상의 정보를 활용하여 자발적으로'(0.9%p) 참여한 경우 등은 소폭 상승하였으며, '친구 또는 선배의 권유로'(1.4%p), '청소년 시설 및 단체 지도자의 권유로'(1.2%p) 참여한 경로 등은 소폭 하락하였다.



【그림 IV-16】 청소년활동 참여경로(연도별 추이)

청소년활동의 참여경로를 일반적 특성에 따라 분석한 결과, 성별에 따라서는 남녀 모두 '학교 선생님의 권유로' 참여한 경우가 1순위로 나타났으나 남자 청소년(39.5%)이 여자 청소년(37.7%)보다 더 많았으며, 2순위 '부모님 및 가족의 권유로' 참여한 경우도 남자 청소년(22.9%)이 여자 청소년(18.1%)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홍보 및 게시판의 정보를 통해 자발적으로' 참여한 비율은 여자 청소년(10.4%)이 남자 청소년(6.8%)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p < .001$ ).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의 경우, '부모님 및 가족의 권유로'(36.1%), '학교 선생님의 권유로'(31.4%)의 순으로, 중학생은 '학교 선생님의 권유로'(40.0%), '부모님 및 가족의 권유로'(20.5%)의 순으로, 고등학생은 '학교 선생님의 권유로'(43.0%), '친구 또는 선배의 권유로'(19.1%)의 순으로 주로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p < .001$ ).

거주 지역의 규모별로 살펴보면, 1~3순위는 지역규모에 관계없이 동일하지만 2순위 '부모님 및 가족의 권유로' 참여한 비율은 읍면지역(22.7%)이 대도시(20.6%)나 중소도시(20.1%)보다 높게 조사되었다. 또한 중소도시는 '홍보 및 게시판의 정보를 통해 자발적으로' 참여한 비율(9.9%)이, 읍면지역은 '청소년 시설 및 단체 지도자의 권유로' 참여한 비율(11.0%)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p < .001$ ). 학업성적에 따라서는 상위권과 중위권의 청소년들은 '학교 선생님의 권유로'(상 36.0%, 중 39.1%), '부모님 및 가족의 권유로'(상 27.1%, 중 18.2%), '친구 또는 선배의 권유로'(상 10.4%, 중 14.8%) 순으로 청소년활동에 주로 참여하였고, 하위권의 청소년들은 '학교 선생님의

권유로'(42.0%), '친구 또는 선배의 권유로'(18.2%), '부모님 및 가족의 권유로'(14.4%) 순으로 보다 많이 참여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p<.001$ ). 마지막으로 가족의 경제수준별로 보면, 상 집단과 중 집단의 청소년들은 '학교 선생님의 권유로'(상 36.3%, 중 40.5%), '부모님 및 가족의 권유로'(상 24.6%, 중 18.1%), '친구 또는 선배의 권유로'(상 12.8%, 중 14.8%)의 순으로, 하 집단의 청소년들은 '학교 선생님의 권유로'(41.4%), '친구 또는 선배의 권유로'(16.0%), '부모님 및 가족의 권유로'(13.8%)의 순으로 높은 참여율을 보고하였다( $p<.001$ ).

**표 IV-20** 청소년활동 참여경로(2016년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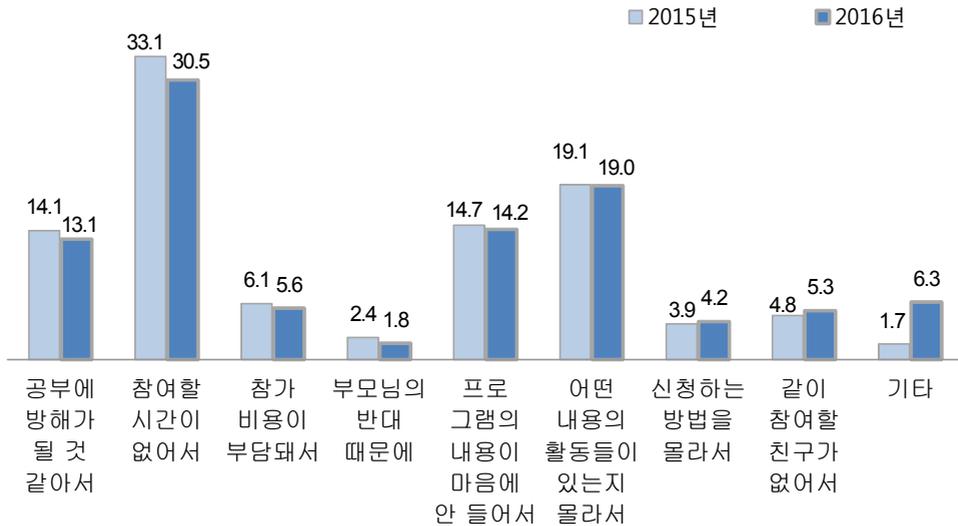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전체	통계치
전체		14.0	20.6	38.6	8.5	8.6	4.4	5.4	100.0	-
성별	남자	14.2	22.9	39.5	8.4	6.8	3.9	4.3	100.0	$\chi^2=79.141$ $p=0.000$
	여자	13.8	18.1	37.7	8.6	10.4	4.9	6.5	100.0	
학교급	초등학교	8.7	36.1	31.4	8.3	7.1	3.2	5.2	100.0	$\chi^2=697.963$ $p=0.000$
	중학교	13.0	20.5	40.0	9.4	7.3	4.2	5.6	100.0	
	고등학교	19.1	8.6	43.0	7.7	11.0	5.4	5.3	100.0	
지역규모	대도시	14.3	20.6	38.8	8.6	7.4	4.5	5.9	100.0	$\chi^2=41.351$ $p=0.000$
	중소도시	13.8	20.1	38.3	7.8	9.9	4.6	5.3	100.0	
	읍면지역	13.6	22.7	39.2	11.0	7.4	2.4	3.6	100.0	
학업성적	상	10.4	27.1	36.0	7.9	8.9	4.9	4.8	100.0	$\chi^2=183.862$ $p=0.000$
	중	14.8	18.2	39.1	9.1	9.0	4.2	5.7	100.0	
	하	18.2	14.4	42.0	8.3	7.5	3.8	5.7	100.0	
경제수준	상	12.8	24.6	36.3	8.7	8.7	4.2	4.7	100.0	$\chi^2=96.833$ $p=0.000$
	중	14.8	18.1	40.5	7.9	8.2	4.3	6.2	100.0	
	하	16.0	13.8	41.4	9.3	9.2	4.9	5.4	100.0	

\* 주: ① 친구 또는 선배의 권유로, ② 부모님 및 가족의 권유로, ③ 학교 선생님의 권유로, ④ 청소년 시설 및 단체 지도자의 권유로, ⑤ 홍보 및 게시판의 정보를 통해 자발적으로, ⑥ 인터넷 상의 정보를 활용하여 자발적으로, ⑦ 기타

### 8) 청소년활동 장애요인

청소년들에게 최근 1년간 청소년활동에 참여하면서 가장 방해가 된 요인에 대해 확인하였다([그림 IV-17]). 구체적으로 청소년들은 '참여할 시간이 없어서'(30.5%)를 가장 큰 청소년활동의 장애요인으로 선택하였다. 이어서 '어떤 내용의 활동들이 있는지 몰라서'(19.0%), '프로그램의

내용이 마음에 안 들어서'(14.2%), '공부에 방해가 될 것 같아서'(13.1%) 등의 순으로 반응하였다. 2015년도 조사도 유사한 순위를 보였지만, 주요 장애요인들에 대한 응답률에서 다소 차이가 있었다. 예를 들어, '참여할 시간이 없어서'(2.6%p), '공부에 방해가 될 것 같아서'(1.0%p) 등의 응답률이 2015년도와 비교했을 때 다소 감소하였다.



【그림 IV-17】 청소년활동 장애요인(연도별 추이)

일반적 특성별로 살펴본 결과(<표 IV-21>), 성별에 따라서는 남녀 모두 1~4순위가 전체 순위와 동일한 것으로 분석되었고, 2순위 '어떤 내용의 활동들이 있는지 몰라서'(남 17.4%, 여 20.7%)를 제외한 응답에서는 남자 청소년이 여자 청소년보다 약간씩 높은 응답률(0.9%p~2.7%p)을 보였다 ( $p<.001$ ). 학교급의 경우, 초등학생과 중학생은 '참여할 시간이 없어서'(초 28.3%, 중 31.3%), '어떤 내용의 활동들이 있는지 몰라서'(초 19.4%, 중 18.1%), '프로그램의 내용이 마음에 안 들어서'(초 11.0%, 중 17.5%) 순으로, 고등학생은 '참여할 시간이 없어서'(31.6%), '어떤 내용의 활동들이 있는지 몰라서'(19.5%), '공부에 방해가 될 것 같아서'(18.5%) 순으로 청소년활동의 장애요인 꼽았다( $p<.001$ ). 거주 지역의 규모별로 보면, 대도시와 읍면지역은 '참여할 시간이 없어서'(대 31.0%, 읍 30.5%), '어떤 내용의 활동들이 있는지 몰라서'(대 17.6%, 읍 20.1%), '프로그램의 내용이 마음에 안 들어서'(대 14.9%, 읍 12.7%) 순으로, 중소도시는 '참여할 시간이 없어서'(30.1%), '어떤 내용의 활동들이 있는지 몰라서'(20.0%), '공부에 방해가 될 것 같아서' 및 '프로그램의 내용이

마음에 안 들어서'(13.9%) 순으로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p<.01$ ).

청소년활동의 방해요인에 대해 학업성적이 상위권인 청소년은 '참여할 시간이 없어서'(32.0%), '어떤 내용의 활동들이 있는지 몰라서'(17.9%), '공부에 방해가 될 것 같아서'(14.8%) 순으로, 중위권과 하위권 청소년은 '참여할 시간이 없어서'(중 30.5%, 하 28.1%), '어떤 내용의 활동들이 있는지 몰라서'(중 19.5%, 하 20.0%), '프로그램 내용이 마음에 안 들어서'(중 13.9%, 하 17.0%) 순으로 응답하였다( $p<.001$ ). 가정의 경제수준별로 보면, 상 집단은 '참여할 시간이 없어서'(31.9%), '어떤 내용의 활동들이 있는지 몰라서'(18.4%), '공부에 방해가 될 것 같아서'(14.4%) 순으로, 중하 집단은 '참여할 시간이 없어서'(중 30.4%, 하 26.0%), '어떤 내용의 활동들이 있는지 몰라서'(중 19.4%, 하 19.9%), '프로그램의 내용이 마음에 안 들어서'(중 13.9%, 하 16.6%) 순으로 응답하는 등 청소년활동 장애요인에 대한 차이를 보였다( $p<.001$ ).

표 IV-21 청소년활동 장애요인(2016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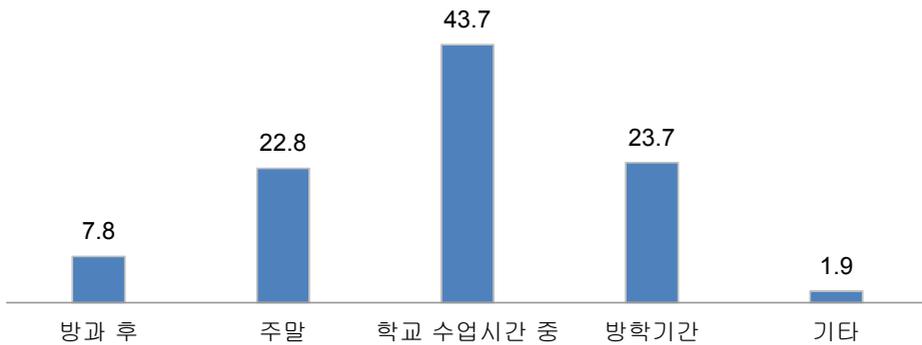
(단위: %)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전체	통계치	
전체	13.1	30.5	5.6	1.8	14.2	19.0	4.2	5.3	6.3	100.0	-	
성별	남자	13.6	31.0	5.2	2.1	15.5	17.4	3.6	5.6	5.9	100.0	$\chi^2=41.458$ $p=0.000$
	여자	12.6	30.1	6.0	1.4	12.8	20.7	4.7	5.1	6.6	100.0	
학교급	초등학교	9.0	28.3	7.7	3.0	11.0	19.4	4.2	8.5	8.8	100.0	$\chi^2=334.486$ $p=0.000$
	중학교	10.8	31.2	5.2	1.4	17.5	18.1	4.3	4.9	6.7	100.0	
	고등학교	18.5	31.6	4.4	1.1	13.8	19.5	4.0	3.3	3.9	100.0	
지역규모	대도시	12.7	31.0	6.0	1.7	14.9	17.6	4.6	5.1	6.4	100.0	$\chi^2=37.313$ $p=0.002$
	중소도시	13.9	30.1	5.1	1.7	13.9	20.0	3.6	5.9	5.8	100.0	
	읍면지역	11.3	30.5	6.2	2.5	12.7	20.1	5.1	3.7	7.8	100.0	
학업성적	상	14.8	32.0	5.1	1.9	12.8	17.9	3.2	5.6	6.7	100.0	$\chi^2=73.657$ $p=0.000$
	중	13.5	30.5	5.4	1.9	13.9	19.5	4.1	5.2	6.0	100.0	
	하	9.9	28.1	6.8	1.3	17.0	20.0	5.7	5.2	6.0	100.0	
경제수준	상	14.4	31.9	4.6	1.9	13.8	18.4	3.7	5.1	6.1	100.0	$\chi^2=72.333$ $p=0.000$
	중	12.2	30.4	5.5	1.5	13.9	19.4	4.4	5.8	6.8	100.0	
	하	11.3	26.0	9.2	1.9	16.6	19.9	4.9	4.9	5.4	100.0	

\* 주: ① 공부에 방해가 될 것 같아서, ② 참여할 시간이 없어서, ③ 참가비용이 부담돼서, ④ 부모님의 반대 때문에, ⑤ 프로그램의 내용이 마음에 안 들어서, ⑥ 어떤 내용의 활동들이 있는지 몰라서, ⑦ 신청하는 방법을 몰라서, ⑧ 같이 참여할 친구가 없어서, ⑨ 기타

## 9) 청소년활동 희망 시간

청소년들에게 청소년활동에 참여하기 가장 좋은 시간대를 질문하였다. 그 결과, '학교 수업시간 중'이 43.7%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방학기간'이 23.7%, '주말'이 22.8%로 나타났으며, 이어서 '방과 후'(7.8%), '기타'(1.9%)의 순으로 참여하기를 희망한다고 응답하였다.



【그림 IV-18】 청소년활동 희망 시간(2016년도)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 분석한 결과에서는 거주 지역의 규모에 따른 차이를 제외한 특성들에서 통계적 유의성이 나타났다(<표 IV-22>).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남자 청소년은 '학교 수업시간 중'(44.5%), '주말'(23.2%), '방학기간'(22.4%) 순으로, 여자 청소년은 '학교 수업시간 중'(42.9%), 방학기간(25.2%), '주말'(22.3%) 순으로 청소년활동에 참여하기를 주로 희망하였다( $p < .01$ ). 학교급별로는 초등학생의 경우, '학교 수업시간 중'과 '방학기간'에 대한 응답률이 각각 32.2%로 가장 높았고, '주말'이 26.7%의 차순위로 확인되었다. 한편, 중고등학생은 '학교 수업시간 중'(중 52.8%, 고 44.3%), '주말'(중 20.1%, 고 22.2%), '방학기간'(중 19.7%, 고 21.0%) 순 등으로 응답하였으며, 특히 중학생은 과반 수 이상이 '학교 수업시간 중'을 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p < .001$ ).

학업성적별로는 상위권과 하위권 청소년은 '학교 수업시간 중'(상 39.7%, 하 52.9%), '방학기간'(상 27.2%, 하 18.9%), '주말'(상 24.5%, 하 17.5%) 순 등으로, 중위권은 '학교 수업시간 중'(41.8%), '주말'(24.4%), '방학기간'(23.7%) 순 등으로 청소년활동의 참여를 희망하였다( $p < .001$ ). 경제수준에 따른 분석결과에서는 청소년 가정의 경제적 수준과 상관없이 전체 순위와 동일한 순위로 청소년활동의 참여시간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1순위 '학교 수업시간 중'은 경제수준이 낮을수

록(하 49.2%, 중 44.4%, 상 41.5%), 2순위 '방학기간'(상 25.2%, 중 23.5%, 하 19.8%)과 3순위 '주말'(상 24.1%, 중 22.4%, 하 19.0%)은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선호하는 경향이 더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p < .001$ ).

**표 IV-22** 청소년활동 희망 시간(2016년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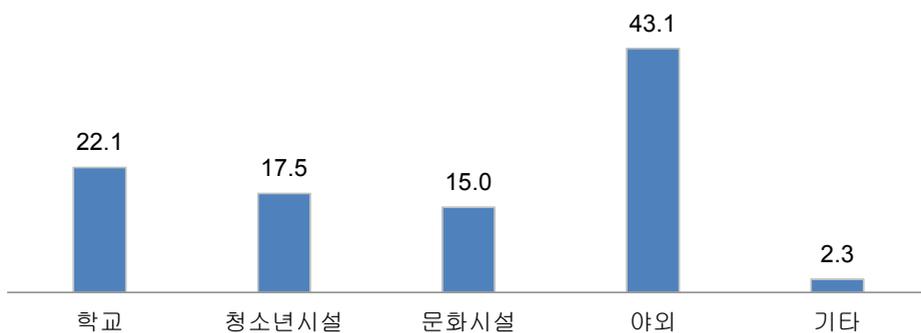
구분	방과 후	주말	학교 수업시간 중	방학기간	기타	전체	통계치	
전체	7.8	22.8	43.7	23.7	1.9	100.0	-	
성별	남자	7.6	23.2	44.5	22.4	2.3	100.0	$\chi^2=16.676$ $p=0.002$
	여자	8.1	22.3	42.9	25.2	1.5	100.0	
학교급	초등학교	7.0	26.7	32.2	32.2	2.0	100.0	$\chi^2=304.222$ $p=0.000$
	중학교	6.2	20.1	52.8	19.7	1.2	100.0	
	고등학교	9.9	22.2	44.3	21.0	2.6	100.0	
지역규모	대도시	7.7	23.0	43.3	24.2	1.8	100.0	$\chi^2=9.510$ $p=0.301$
	중소도시	7.8	23.0	44.4	22.7	2.1	100.0	
	읍면지역	8.4	21.0	42.3	26.7	1.6	100.0	
학업성적	상	6.6	24.5	39.7	27.2	2.0	100.0	$\chi^2=136.295$ $p=0.000$
	중	8.2	24.4	41.8	23.7	2.0	100.0	
	하	9.1	17.5	52.9	18.9	1.7	100.0	
경제수준	상	7.2	24.1	41.5	25.2	1.9	100.0	$\chi^2=45.491$ $p=0.000$
	중	7.8	22.4	44.4	23.5	1.9	100.0	
	하	10.0	19.0	49.2	19.8	2.1	100.0	

### 10) 청소년활동 희망 장소

청소년활동을 어떤 장소에서 참여하고 싶은지 확인한 결과([그림 IV-19]), 공원, 호수, 산, 바다 등 '야외'(43.1%)에서의 활동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학교'(22.1%), '청소년시설'(17.5%), '문화시설'(15.0%), '기타'(2.3%)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청소년활동의 희망 장소를 일반적 특성에 따라 살펴보면(<표 IV-23>), 1순위 '야외'(남 45.2%, 여 40.9%), 2순위 '학교'(남 23.4%, 여 20.7%)는 여자 청소년보다 남자 청소년이, 3순위 '청소년시설'

(여 20.1%, 남 15.1%), 4순위 '문화시설'(여 16.6%, 남 13.6%)은 남자 청소년보다 여자 청소년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p<.001$ ). 학교급에 따라서는 초등학생과 중학생은 '야외'(초 53.2%, 중 40.5%), '학교'(초 18.9%, 중 23.4%), '청소년시설'(초 15.1%, 중 19.0%) 등의 순으로, 고등학생은 '야외'(37.8%), '학교'(23.3%), '문화시설'(18.3%) 등의 순으로 높은 응답률을 보고하였다. 1순위 '야외'에 대한 응답률은 학교급이 낮을수록 높았으며, 초등학생은 절반 이상이 야외에서의 활동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p<.001$ ).



【그림 IV-19】 청소년활동 희망 장소(2016년도)

거주 지역규모별로 분석한 결과에서는 1순위 '야외'는 읍면지역(47.3%), 대도시(43.7%), 중소도시(41.7%) 순으로, 2순위 '학교'는 중소도시(23.1%), 읍면지역(22.0%), 대도시(20.9%) 순으로, 3순위 '청소년시설'은 중소도시(18.3%), 대도시(16.8%), 읍면지역(16.3%) 순으로, 4순위 '문화시설'은 지역규모가 클수록(대 16.3%, 중 14.3%, 읍 13.2%)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p<.01$ ). 학업성적별로 보면, 1순위 '야외'는 상위권(45.0%)이 하위권(42.4%)이나 중위권(41.8%)보다, 2순위 '학교'는 하위권(23.4%) 또는 중위권(23.1%)이 상위권(20.0%)보다 응답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4순위 '문화시설'에 대한 응답률은 성적이 좋을수록(상 15.9%, 중 15.1%, 하 13.6%)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p<.01$ ). 가정의 경제수준에 따라서는 1순위 '야외'는 경제수준이 높을수록(상 46.2%, 중 40.6%, 하 39.9%), 2순위 '학교'는 중·하 집단(23.7%)의 청소년이 상 집단(20.2%) 청소년보다 더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순위 '청소년시설'은 중 집단(18.9%)의 청소년이 하 집단(16.9%)이나 상 집단(16.6%)의 청소년보다, 4순위 '문화시설'은 하 집단(16.5%) 청소년이 상 집단(14.9%)이나 중 집단(14.6%) 청소년보다 상대적으로 더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p<.001$ ).

표 IV-23 청소년활동 희망 장소(2016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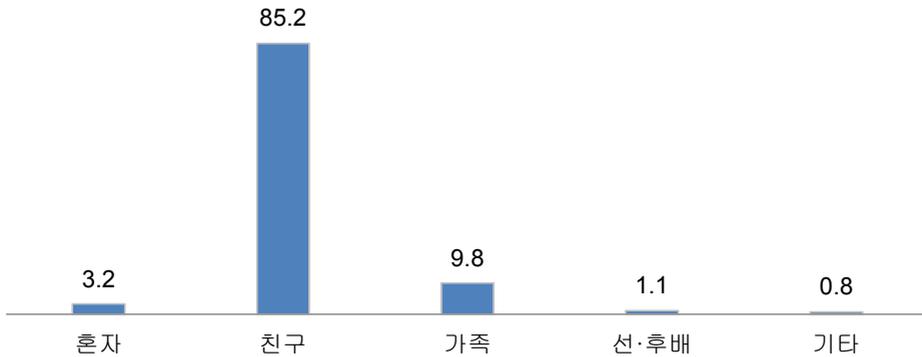
(단위: %)

구분	학교	청소년 시설	문화시설	야외	기타	전체	통계치
전체	22.1	17.5	15.0	43.1	2.3	100.0	-
성별	남자	23.4	15.1	13.6	45.2	2.7	$\chi^2=67.053$ $p=0.000$
	여자	20.7	20.1	16.6	40.9	1.8	
학교급	초등학교	18.9	15.1	10.9	53.2	1.9	$\chi^2=167.746$ $p=0.000$
	중학교	23.4	19.0	14.8	40.5	2.2	
	고등학교	23.3	18.0	18.3	37.8	2.7	
지역규모	대도시	20.9	16.8	16.3	43.7	2.3	$\chi^2=25.269$ $p=0.001$
	중소도시	23.1	18.3	14.3	41.7	2.5	
	읍면지역	22.0	16.3	13.2	47.3	1.2	
학업성적	상	20.0	17.1	15.9	45.0	2.0	$\chi^2=23.412$ $p=0.003$
	중	23.1	17.7	15.1	41.8	2.2	
	하	23.4	17.6	13.6	42.4	3.0	
경제수준	상	20.2	16.6	14.9	46.2	2.1	$\chi^2=39.729$ $p=0.000$
	중	23.7	18.9	14.6	40.6	2.3	
	하	23.7	16.9	16.5	39.9	3.0	

### 11) 청소년활동에 함께 참여하고 싶은 대상

청소년활동에 참여한다면 누구와 함께 참여하고 싶은지 질문한 결과(<그림 IV-20>), 대부분의 응답자가 '친구'(85.2%)를 선택하였다. 다음으로 '가족'이라 응답한 청소년이 9.8%로 나타났으며, 이어서 '혼자'(3.2%), '선·후배'(1.1%), '기타'(0.8%)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일반적 특성에 따라서는 성별의 경우, '친구'에 대한 응답은 여자 청소년(85.8%)이 남자 청소년(84.7%)보다 많이 나타난 반면, '혼자' 참여하고 싶다는 응답은 남자 청소년(3.9%)이 여자 청소년(2.5%)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의 차이를 보였다( $p<.01$ ). 학교급별로는 초등학생과 중학생은 '친구'(초 70.2%, 중 91.3%), '가족'(초 25.9%, 4.4%) 등의 순으로, 고등학생은 '친구'(91.1%), '혼자'(4.1%) 등의 순으로 함께 참여하고 싶은 대상을 응답하였다( $p<.001$ ). 거주 지역규모에 따라서는 1순위 '친구'는 중소도시(86.2%)나 대도시(85.4%) 청소년이 읍면지역(79.6%) 청소년보다, 2순위 '가족'은 읍면지역(14.5%), 대도시(10.2%), 중소도시(8.4%) 순으로 응답률이 높게 나타나는 등의 차이가 발견되었다( $p<.001$ ).



【그림 IV-20】 청소년활동에 함께 참여하고 싶은 대상(2016년도)

표 IV-24 청소년활동에 함께 참여하고 싶은 대상(2016년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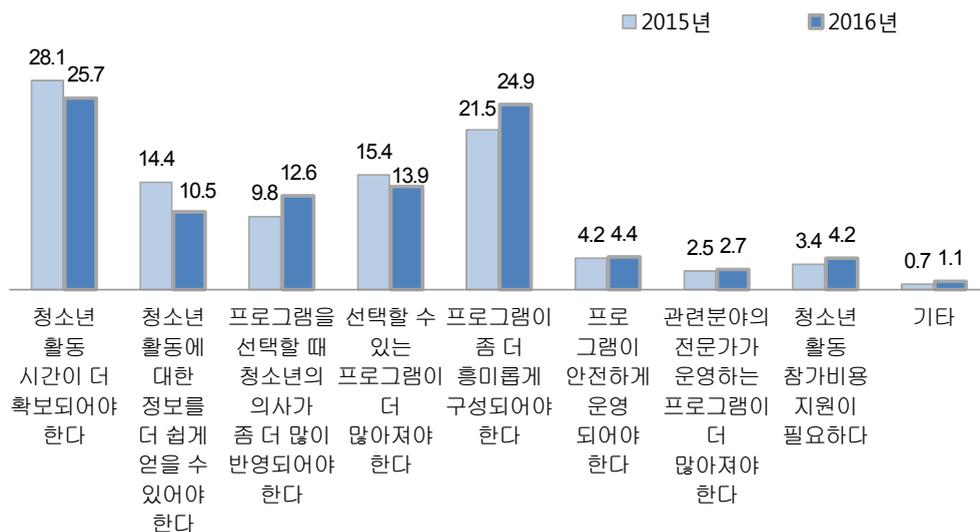
구분	혼자	친구	가족	선·후배	기타	전체	통계치
전체	3.2	85.2	9.8	1.1	.8	100.0	-
성별	남자	3.9	84.7	9.6	1.0	.8	$\chi^2=14.595$ p=0.006
	여자	2.5	85.8	9.9	1.2	0.7	
학교급	초등학교	2.4	70.2	25.9	.7	0.7	$\chi^2=1046.961$ p=0.000
	중학교	2.9	91.3	4.4	.7	.7	
	고등학교	4.1	91.1	2.3	1.7	.8	
지역규모	대도시	3.1	85.4	10.2	.8	.5	$\chi^2=42.676$ p=0.000
	중소도시	3.2	86.2	8.4	1.2	1.0	
	읍면지역	3.8	79.6	14.5	1.3	.9	
학업성적	상	2.8	83.6	12.2	.6	.8	$\chi^2=74.392$ p=0.000
	중	2.7	85.6	9.8	1.3	.6	
	하	4.5	87.3	6.0	1.2	0.9	
경제수준	상	2.4	83.5	12.3	1.0	.7	$\chi^2=87.479$ p=0.000
	중	3.4	86.7	8.2	.9	0.8	
	하	5.0	86.9	5.7	1.7	.7	

학업성적에 따라 살펴보면, 1순위 '친구'와 함께 하고 싶다는 의견은 성적이 낮을수록(하 87.3%, 중 85.6%, 상 83.6%), 2순위 '가족'은 성적이 높을수록(상 12.2%, 중 9.8%, 하 6.0%), 3순위 '혼자'는 하위권(4.5%)이 상위권(2.8%)이나 중위권(2.7%)보다 상대적으로 많이 보고되었다( $p<.001$ ). 가정의 경제수준에서는 1순위 '친구'는 하 집단(86.9%)이나 중 집단(86.7%)에 속하는 청소년이 상 집단

(83.5%)의 청소년보다, 2순위 '가족'은 경제수준이 높을수록(상 12.3%, 중 8.2%, 하 5.7%), 3순위 '혼자'는 경제수준이 낮을수록(하 5.0%, 중 3.4%, 상 2.4%) 더 희망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p < .001$ ).

## 12) 청소년활동 활성화요인

청소년들에게 청소년활동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조사한 결과는 다음 [그림 IV-2]와 같이 조사되었다. 즉, 청소년들은 청소년활동의 활성화요인으로 '청소년활동 시간이 더 확보되어야 한다'(25.7%)와 '프로그램이 좀 더 흥미롭게 구성되어야 한다'(24.9%)를 높게 평가하였다. 다음으로 '선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더 많아져야 한다'(13.9%), '프로그램을 선택할 때 청소년의 의사가 좀 더 많이 반영되어야 한다'(12.6%), '청소년활동에 대한 정보를 더 쉽게 얻을 수 있어야 한다'(10.5%)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그림 IV-2] 청소년활동 활성화요인(연도별 추이)

2015년도 조사에서도 청소년들은 청소년활동 시간의 확보와 프로그램의 흥미로운 구성을 강조하는 등 전반적으로 2016년도와 유사한 순위를 보였다. 다만, '프로그램이 좀 더 흥미롭게 구성되어야 한다'(3.4%p), '프로그램을 선택할 때 청소년의 의사가 좀 더 많이 반영되어야 한

다'(2.8%p) 등의 항목은 전년도 대비 응답률이 소폭 증가한 반면, '청소년활동에 대한 정보를 더 쉽게 얻을 수 있어야 한다'(3.9%p), '청소년활동 시간이 더 확보되어야 한다'(2.4%p), '선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더 많아져야 한다'(1.5%p)의 응답률은 소폭 감소하였다.

표 IV-25 청소년활동 활성화요인(2016년도)

(단위: %)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전체	통계치	
전체	25.7	10.5	12.6	13.9	24.9	4.4	2.7	4.2	1.1	100.0	-	
성별	남자	28.3	9.8	11.9	13.0	24.0	4.5	2.8	4.3	1.4	100.0	$\chi^2=46.468$ p=0.000
	여자	23.0	11.2	13.4	14.8	25.8	4.3	2.5	4.1	0.8	100.0	
학교급	초등학교	22.0	12.0	7.8	14.5	23.2	10.5	3.0	5.6	1.4	100.0	$\chi^2=507.113$ p=0.000
	중학교	23.5	8.4	15.3	14.4	29.5	2.9	1.9	3.4	0.6	100.0	
	고등학교	30.6	11.2	13.8	12.9	22.0	1.2	3.1	4.0	1.4	100.0	
지역규모	대도시	25.6	11.1	12.8	13.7	24.6	4.1	2.7	4.2	1.1	100.0	$\chi^2=25.609$ p=0.060
	중소도시	26.0	9.8	12.7	13.3	25.9	4.3	2.7	4.1	1.1	100.0	
	읍면지역	24.8	10.7	11.3	17.2	21.4	6.0	2.5	4.8	1.4	100.0	
학업성적	상	24.8	11.2	11.6	13.5	26.5	4.4	2.9	4.0	1.2	100.0	$\chi^2=27.313$ p=0.038
	중	25.5	10.7	13.2	14.0	23.7	5.0	2.5	4.4	1.1	100.0	
	하	27.4	9.1	13.1	14.2	24.5	3.4	2.7	4.4	1.2	100.0	
경제수준	상	25.3	10.6	11.4	13.6	26.1	5.5	3.1	3.2	1.1	100.0	$\chi^2=87.077$ p=0.000
	중	26.3	10.5	12.9	14.8	23.9	3.9	2.0	4.7	1.0	100.0	
	하	25.4	9.7	15.9	12.5	23.2	2.2	3.3	6.4	1.4	100.0	

\* 주: ① 청소년활동 시간이 더 확보되어야 한다, ② 청소년활동에 대한 정보를 더 쉽게 얻을 수 있어야 한다, ③ 프로그램을 선택할 때 청소년의 의사가 좀 더 많이 반영되어야 한다, ④ 선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더 많아져야 한다, ⑤ 프로그램이 좀 더 흥미롭게 구성되어야 한다, ⑥ 프로그램이 안전하게 운영되어야 한다, ⑦ 관련분야의 전문가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더 많아져야 한다, ⑧ 청소년활동 참가비용 지원이 필요하다, ⑨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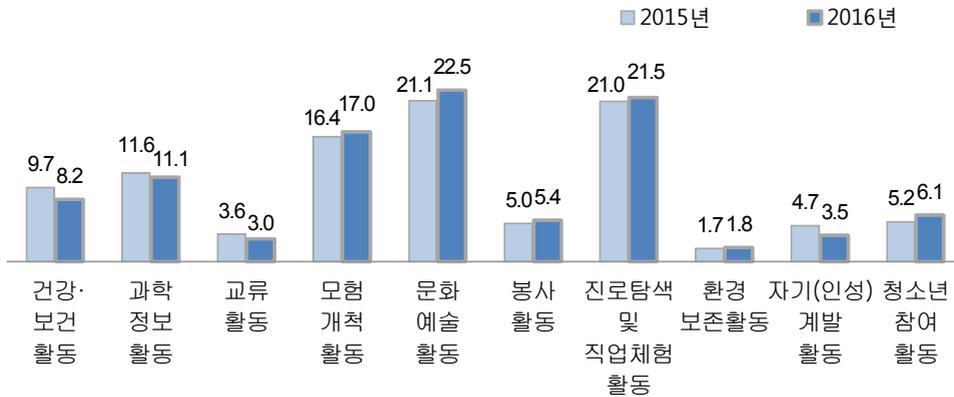
일반적 특성별로 살펴본 결과, 지역규모를 제외한 특성들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성별에 따라서 보면, 남자 청소년은 '청소년활동 시간이 더 확보되어야 한다'(남 28.3%, 여 23.0%)를, 여자 청소년은 '프로그램이 좀 더 흥미롭게 구성되어야 한다'(남 24.0%, 여 25.8%)를 청소년활동의 활성화요인 중 1순위로 지목하였다( $p<.001$ ). 학교급의 경우 초등학교와 중학생은 '프로그램이 좀 더 흥미롭게 구성되어야 한다'(초 23.2%, 중 29.5%, 고 22.0%)를 1순위로 지목하였으며, 중학생의 응답률이 다른 학년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고등학생은 '청소년활동 시간이 더 확보되어야 한다'(초 22.0%, 중 23.5%, 고 30.6%)를 1순위로 강조하였다. 한편, 중고등학

생(중 15.3%, 고 13.8%)은 초등학생(7.8%)에 비해 '프로그램을 선택할 때 청소년의 의사가 좀 더 많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초등학생(10.5%)은 중·고등학생(중 2.9%, 고 1.2%)에 비해 '프로그램이 안전하게 운영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p<.001$ ).

학업성적의 경우, 상위권의 청소년은 '프로그램이 좀 더 흥미롭게 구성되어야 한다'(상 26.5%, 중 23.7%, 하 24.5%)를 1순위로 꼽았다. 중위권과 하위권의 청소년은 '청소년활동 시간이 더 확보되어야 한다'(상 24.8%, 중 25.5%, 하 27.4%)를 가장 강조하였으며, 청소년활동 시간의 확보에 관한 응답률은 성적이 낮을수록 높게 나타났다( $p<.05$ ). 가정의 경제수준의 경우, 상 집단의 청소년은 '프로그램이 좀 더 흥미롭게 구성되어야 한다'(상 26.1%, 중 23.9%, 하 23.2%)를 1순위로 지목하였다. 중 집단과 하 집단의 청소년은 '청소년활동 시간이 더 확보되어야 한다'(상 25.3%, 중 26.3%, 하 25.4%)를 가장 많이 선택하였다. 이 외에 '프로그램을 선택할 때 청소년의 의사가 좀 더 많이 반영되어야 한다'(하 15.9%, 중 12.9%, 상 11.4%)와 '청소년활동 참가비용 지원이 필요하다'(하 6.4%, 중 4.7%, 상 3.2%)의 응답률은 가정의 경제수준이 낮을수록, '프로그램이 안전하게 운영되어야 한다'의 응답률은 경제수준이 높을수록(상 5.5%, 중 3.9%, 하 2.2%) 높게 확인되었다( $p<.001$ ).

### 13) 향후 참여하고 싶은 청소년활동

청소년들에게 향후 가장 참여하고 싶은 청소년활동을 질문하였다. 그 결과([그림 IV-22]), 보기로 제시한 10가지 활동 중 '문화예술활동'(22.5%)과 '진로탐색 및 직업체험활동'(21.5%)의 욕구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어서 '모험개척활동'(17.0%), '과학정보활동'(11.1%), '건강·보건활동'(8.2%), '청소년참여활동'(6.1%), '봉사활동'(5.4%), '자기(인성)계발활동'(3.5%), '교류활동'(3.0%), '환경보존활동'(1.8%)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2015년도와 비교했을 때 향후 참여하고 싶은 청소년활동에 대한 순위는 동일하게 나타났으나, 영역별 응답률에 있어서는 다소 차이를 보였다. 즉, '문화예술활동'(1.4%p) 등은 소폭 증가한 반면, '건강·보건활동'(1.5%p), '자기(인성)계발활동'(1.2%p) 등에 대한 욕구는 소폭 감소하였다.



【그림 IV-22】 향후 참여하고 싶은 청소년활동-1순위(연도별 추이)

일반적 특성에 따라 향후 참여하고 싶은 청소년활동에 대한 차이를 살펴본 결과, 지역규모를 제외한 모든 특성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었다(<표 IV-26>). 즉, 성별에 따라서 남자 청소년은 ‘모험개척활동’(남 23.1%, 여 10.5%)을, 여자 청소년은 ‘문화예술활동’(남, 12.8%, 여 33.0%)을 향후 가장 참여하고 싶은 청소년활동이라 응답하였다. 이어서 2순위로 남녀 모두 ‘진로탐색 및 직업체험활동’(남 18.0%, 여 25.3%)을 선택하였지만 여자 청소년의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 외 ‘과학정보활동’은 남자 청소년(17.8%)이 여자 청소년(3.7%)에 비해 더 많이 참여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 $p<.001$ ). 학교급의 경우, 초등학생은 ‘모험개척활동’(초 23.8%, 중 16.4%, 고 12.4%)을, 중학생과 고등학생은 ‘문화예술활동’(초 14.0%, 중 23.5%, 고 27.9%)을 가장 참여하고 싶은 청소년활동으로 선택하였다. 이어서 2순위는 학교급과 상관없이 ‘진로탐색 및 직업체험활동’(초 19.2%, 중 22.6%, 고 22.2%)으로 나타났으며, 중·고등학생이 초등학생에 비해 더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한편, ‘과학정보활동’의 경우 학교급이 낮을수록(초 14.7%, 중 11.0%, 고 8.4%) 선호도가 높게 나타났다( $p<.001$ ).

학업성적의 경우, 상위권에 속한 청소년은 ‘진로탐색 및 직업체험활동’(상 20.3%, 중 21.3%, 하 23.5%)을 가장 참여하고 싶은 활동으로 응답하였다. 다만 진로탐색 및 직업체험활동의 경우 학업성적이 낮을수록 더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중위권과 하위권의 청소년은 ‘문화예술활동’(상 19.6%, 중 24.2%, 하 24.2%)을 가장 희망하는 활동으로 대답하였다. 그밖에 ‘모험개척활동’(상 19.4%, 중 16.5%, 하 14.4%)과 ‘과학정보활동’(상 15.5%, 중 10.3%, 하 5.9%)은 학업성적이 높을수록 참여의향도 높게 확인되었다( $p<.001$ ). 가정의 경제수준에 따라서는 상 집단은 ‘진로탐색 및

직업체험활동'(21.5%), '문화예술활동'(19.4%), '모험개척활동'(18.1%) 순으로, 중 집단과 하 집단은 '문화예술활동'(중 24.4%, 하 27.7%), '진로탐색 및 직업체험활동'(중 21.4%, 하 21.5%), '모험개척활동'(중 16.5%, 하 14.7%) 순으로 향후 참여하고 싶은 활동을 선택하였다. 아울러 '문화예술활동'은 경제수준이 낮을수록, '과학정보활동'(상 13.4%, 중 9.2%, 하 8.4%)과 '모험개척활동'은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참여의향이 높게 나타났다( $p < .001$ ).

**표 IV-26**    향후 참여하고 싶은 청소년활동-1순위(2016년도)

												(단위: %)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전체	통계치
전체		8.2	11.1	3.0	17.0	22.5	5.4	21.5	1.8	3.5	6.1	100.0	-
성별	남자	10.1	17.8	2.8	23.1	12.8	4.6	18.0	2.1	3.1	5.6	100.0	$\chi^2=1094.039$ $p=0.000$
	여자	6.1	3.7	3.2	10.5	33.0	6.2	25.3	1.6	3.8	6.6	100.0	
학교급	초등학교	9.4	14.7	1.4	23.8	14.0	5.2	19.2	3.5	2.0	6.8	100.0	$\chi^2=445.622$ $p=0.000$
	중학교	7.6	11.0	2.5	16.4	23.5	5.0	22.6	1.2	3.4	6.8	100.0	
	고등학교	7.8	8.4	4.6	12.4	27.9	6.0	22.2	1.1	4.6	4.9	100.0	
지역규모	대도시	8.0	11.3	3.2	17.3	23.1	5.2	20.0	2.1	3.5	6.3	100.0	$\chi^2=25.384$ $p=0.115$
	중소도시	8.0	11.1	2.9	16.2	22.5	5.7	22.6	1.7	3.3	5.9	100.0	
	읍면지역	9.7	9.8	2.5	19.5	19.7	4.6	22.5	1.6	3.9	6.2	100.0	
학업성적	상	7.0	15.5	3.2	19.4	19.6	4.5	20.3	2.2	3.3	5.1	100.0	$\chi^2=190.575$ $p=0.000$
	중	8.2	10.3	2.8	16.5	24.2	5.3	21.3	1.6	3.6	6.2	100.0	
	하	9.8	5.9	2.9	14.4	24.2	6.8	23.5	1.6	3.5	7.4	100.0	
경제수준	상	7.9	13.4	2.9	18.1	19.4	5.1	21.5	2.0	3.4	6.3	100.0	$\chi^2=98.570$ $p=0.000$
	중	8.1	9.2	3.2	16.5	24.4	5.6	21.4	1.7	3.4	6.6	100.0	
	하	9.1	8.4	2.7	14.7	27.7	6.0	21.5	1.5	4.0	4.3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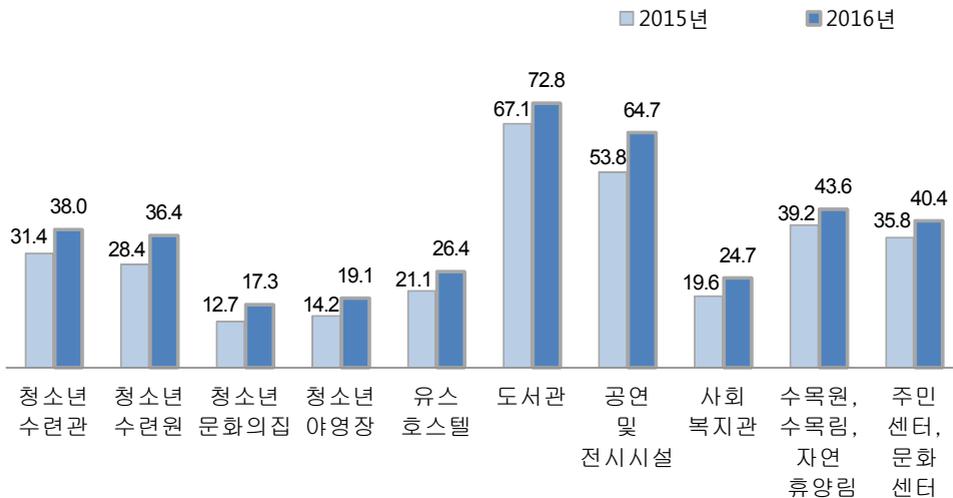
\* 주: ① 건강·보건활동, ② 과학정보활동, ③ 교류활동, ④ 모험개척활동, ⑤ 문화예술활동, ⑥ 봉사활동, ⑦ 진로탐색 및 직업체험활동, ⑧ 환경보존활동, ⑨ 자기(인성)개발활동, ⑩ 청소년참여활동

#### 14) 청소년활동 관련시설 이용경험

청소년들에게 10가지 시설을 제시하고, 최근 1년간 각 시설의 이용 경험을 질문하였다(그림 IV-23). 분석결과, '도서관' 이용률이 72.8%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서 '공연 및 전시시설'(64.7%), '수목원, 수목림, 자연 휴양림'(43.6%), '주민센터, 문화센터'(40.4%)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청소년수련시설의 이용률을 살펴보면, '청소년수련관'이 38.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

로 ‘청소년수련원’(36.4%), ‘유스호스텔’(26.4%), ‘청소년야영장’(19.1%), ‘청소년문화의 집’(17.3%) 순으로 분석되었다.

관련시설 이용경험은 2015년도와 동일한 순위로 조사되었지만, 이용률이 전년도에 비해 전반적으로 상승하였다. 구체적으로 청소년수련시설의 이용률은 2015년도에 비해 ‘청소년수련관’ 6.6%포인트, ‘청소년수련원’ 8.0%포인트, ‘청소년문화의집’ 4.6%포인트, ‘청소년야영장’ 4.9%포인트, ‘유스호스텔’ 5.3%포인트 상승하였다. 관련시설인 ‘도서관’(5.7%p), ‘공연 및 전시시설’(10.9%p), ‘사회복지관’(5.1%p), ‘수목원, 수목림, 자연 휴양림’(4.4%p), ‘주민센터, 문화센터’(4.6%p)의 이용률도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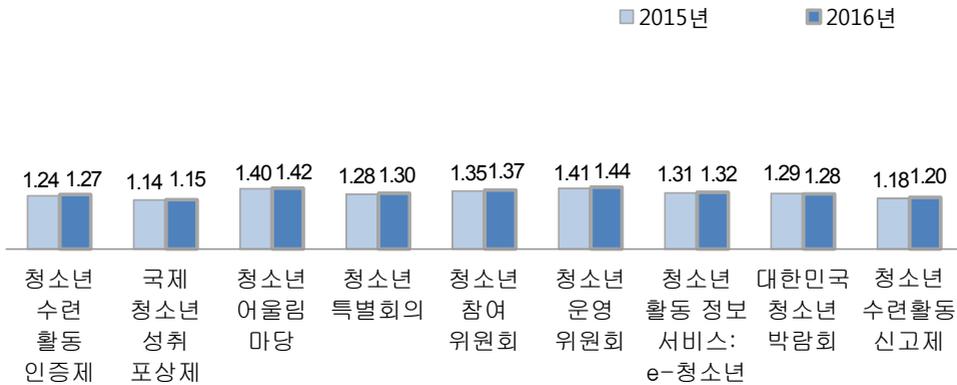


【그림 IV-23】 청소년활동 관련시설 이용경험(연도별 추이)

### 15) 청소년활동정책 인지도

9가지 청소년활동정책에 대한 인지정도를 3점 척도로 질문하였다. 그 결과([그림 IV-24]), 평균 1.15~1.44의 인지정도를 나타내며, 청소년활동정책에 대한 인지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청소년운영위원회(M=1.44), 청소년어울림마당(M=1.42), 청소년참여위원회(M=1.37),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 e-청소년(M=1.32), 청소년특별회의(M=1.30), 대한민국청소년박람회(M=1.28),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M=1.27), 청소년수련활동신고제(M=1.20),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M=1.15)의 순으로 인지도가 높게 확인되었다. 2015년도 청소년활동정책

인지도 평균은 1.18~1.41의 수준이었으며, 2016년도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 주: 1) 전혀 모른다(1점), 들어본 적이 있다(2점), 잘 알고 있다(3점)

【그림 IV-24】 청소년활동정책 인지도(연도별 추이)

## 16) 청소년 여가시간

지난 1년 동안 하루 평균 여가시간을 평일, 휴일, 방학으로 구분하여 질문하였다. 그 결과, 청소년들의 여가시간은 평일 하루 평균 3.21시간(SD=2.20), 휴일 하루 평균 7.73시간(SD=3.61), 방학 중 하루 평균 7.88시간(SD=3.52)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IV-25】 평일, 휴일, 방학 하루 평균 청소년 여가시간(2016년도)

(1) 청소년 여가시간: 평일 하루 평균 여가시간(방학제외)

청소년의 평일 하루 평균 여가시간은 3.21시간(SD=2.20)으로 나타났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차이를 살펴본 결과에서는 성별을 제외한 특성들에서 통계적 유의성이 발견되었다. 학교급이 낮을수록(초 3.71, 중 3.41, 고 2.66)( $p<.001$ ), 읍면지역(M=3.43)에 거주하는 청소년이 중소도시(M=3.21)와 대도시(M=3.16)에 거주하는 청소년보다 평일 하루 여가시간이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p<.01$ ). 그리고 학업성적이 낮을수록(하 3.52, 중 3.23, 상 2.98)( $p<.001$ ), 가정의 경제수준별로는 중 집단(M=3.29)과 하 집단(M=3.40)의 청소년이 상 집단(M=3.09)의 청소년보다 평일 하루 평균 여가시간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p<.001$ ).

표 IV-27 청소년 여가시간: 평일 하루 평균 여가시간(방학제외)(2016년도)

(단위: 시간)

구분	평균	표준편차	통계치	사후검증
전체	3.21	2.20	-	-
성별	남자	3.22	t=0.422 p=0.673	-
	여자	3.20		
학교급	초등학교 <sup>a</sup>	3.71	F=182.464 p=0.000	a>b>c
	중학교 <sup>b</sup>	3.41		
	고등학교 <sup>c</sup>	2.66		
지역규모	대도시 <sup>a</sup>	3.16	F=5.071 p=0.006	c>a,b
	중소도시 <sup>b</sup>	3.21		
	읍면지역 <sup>c</sup>	3.43		
학업성적	상 <sup>a</sup>	2.98	F=37.995 p=0.000	c>b>a
	중 <sup>b</sup>	3.23		
	하 <sup>c</sup>	3.52		
경제수준	상 <sup>a</sup>	3.09	F=12.423 p=0.000	b,c>a
	중 <sup>b</sup>	3.29		
	하 <sup>c</sup>	3.40		

(2) 청소년 여가시간: 휴일 하루 평균 여가시간(방학제외)

청소년의 휴일 하루 여가시간은 평균 7.73시간(SD=3.61)이며, 성별을 제외한 일반적 특성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구체적으로 학교급에 따라서는 중학생(M=8.46),

초등학생(M=8.05), 고등학생(M=6.85)의 순으로( $p<.001$ ), 거주 지역의 규모별로는 읍면지역(M=8.29)의 청소년이 중소도시(M=7.78)와 대도시(M=7.55)의 청소년보다 휴일 하루 여가시간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p<.001$ ). 학업성적별로는 하위권(M=8.12)이 중위권(M=7.68)과 상위권(M=7.54)보다( $p<.001$ ), 가정의 경제수준별로는 하 집단(M=8.01)과 중 집단(M=7.86)이 상 집단(M=7.55)의 청소년보다 휴일 하루 평균 여가시간이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p<.001$ ).

**표 IV-28** 청소년 여가시간: 휴일 하루 평균 여가시간(방학제외)(2016년도)

구분		평균	표준편차	통계치	사후검증
전체		7.73	3.61	-	-
성별	남자	7.78	3.69	t=1.237 p=0.216	-
	여자	7.68	3.51		
학교급	초등학교 <sup>a</sup>	8.05	3.61	F=171.923 p=0.000	b>a>c
	중학교 <sup>b</sup>	8.46	3.49		
	고등학교 <sup>c</sup>	6.85	3.52		
지역규모	대도시 <sup>a</sup>	7.55	3.58	F=15.111 p=0.000	c>a,b
	중소도시 <sup>b</sup>	7.78	3.61		
	읍면지역 <sup>c</sup>	8.29	3.64		
학업성적	상 <sup>a</sup>	7.54	3.66	F=17.050 p=0.000	c>a,b
	중 <sup>b</sup>	7.68	3.55		
	하 <sup>c</sup>	8.12	3.58		
경제수준	상 <sup>a</sup>	7.55	3.61	F=10.703 p=0.000	b,c>a
	중 <sup>b</sup>	7.86	3.54		
	하 <sup>c</sup>	8.01	3.72		

(단위: 시간)

(3) 청소년 여가시간: 방학 중 하루 평균 여가시간

방학 중 하루 평균 여가시간은 평균 7.88시간(SD=3.52)이며, 일반적 특성에 따라서는 모든 특성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분석되었다(<표 IV-29>). 즉, 성별로는 남자 청소년(M=7.97)이 여자 청소년(M=7.79)보다( $p<.05$ ), 학교급별로는 중학생(M=8.45), 초등학생(M=8.17), 고등학생(M=7.16)의 순으로 방학 중 하루 여가시간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p<.001$ ). 지역규모의 경우, 읍면지역(M=8.38)의 청소년이 중소도시(M=7.96)와 대도시(M=7.68)의 청소년보다( $p<.001$ ), 학업성적이 낮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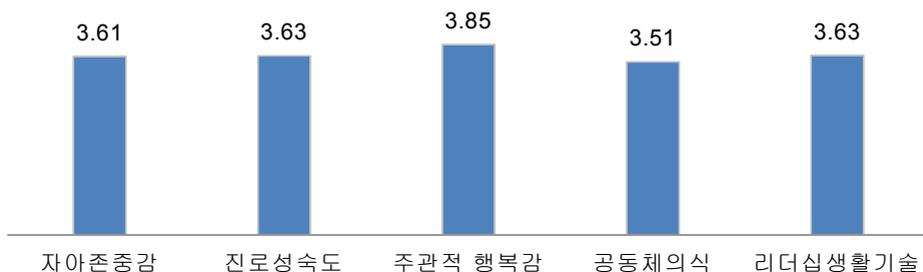
수록(하 8.25, 중 7.94, 상 7.58), 가정의 경제수준별로는 하 집단(M=8.26)과 중 집단(M=8.04)의 청소년이 상 집단(M=7.64)의 청소년보다 방학 중 하루 평균 여가시간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p<.001$ ).

표 IV-29 청소년 여가시간: 방학 중 하루 평균 여가시간(2016년도)

(단위: 시간)

구분		평균	표준편차	통계치	사후검증
전체		7.88	3.52	-	-
성별	남자	7.97	3.60	t=2,341 p=0.019	-
	여자	7.79	3.42		
학교급	초등학교 <sup>a</sup>	8.17	3.54	F=118,208 p=0.000	b>a>c
	중학교 <sup>b</sup>	8.45	3.34		
	고등학교 <sup>c</sup>	7.16	3.54		
지역규모	대도시 <sup>a</sup>	7.68	3.57	F=15,528 p=0.000	c>a,b
	중소도시 <sup>b</sup>	7.96	3.46		
	읍면지역 <sup>c</sup>	8.38	3.49		
학업성적	상 <sup>a</sup>	7.58	3.59	F=23,132 p=0.000	c>b>a
	중 <sup>b</sup>	7.94	3.43		
	하 <sup>c</sup>	8.25	3.50		
경제수준	상 <sup>a</sup>	7.64	3.52	F=20,193 p=0.000	b,c>a
	중 <sup>b</sup>	8.04	3.40		
	하 <sup>c</sup>	8.26	3.72		

### 3. 정의적 특성



\* 주: 1) 전혀 그렇지 않다(1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2점), 보통이다(3점), 그런 편이다(4점), 매우 그렇다(5점)

【그림 IV-26】 정의적 특성(2016년도)

청소년들의 '자아존중감', '진로성숙도', '주관적 행복감', '공동체의식', '리더십생활기술'에 대해 조사하였다. 그 결과([그림 IV-26]), 평균 3.51~3.85로 보통수준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주관적 행복감'이 평균 3.85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 '진로성숙도'와 '리더십생활기술'의 평균은 3.63, '자아존중감'의 평균은 3.61이었으며, '공동체의식'은 평균 3.51로 조사되었다.

#### 4.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변인과 정의적 특성 간의 관계

청소년활동 만족도(활동내용 만족도, 지도자 만족도, 시설·공간·장비 만족도, 일정·시간 만족도), 참여정도, 성취기대수준과 정의적 특성(자아존중감, 진로성숙도, 주관적 행복감, 공동체의식, 리더십생활기술) 간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청소년활동 만족도, 참여정도, 성취기대수준이 청소년들의 정의적 특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 1) 청소년활동 만족도, 참여정도, 성취기대수준과 정의적 특성 간의 상관관계

청소년활동 만족도, 참여정도, 성취기대수준과 정의적 특성 간의 상관관계분석 결과는 다음 <표 IV-30>과 같다. 구체적으로 활동내용 만족도, 지도자 만족도, 시설·공간·장비 만족도, 일정·시간 만족도, 그리고 청소년활동 참여정도와 성취기대수준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진로성숙도, 주관적 행복감, 공동체의식, 리더십생활기술과 상관관계 계수 .086~.287 범위에서 정적상관을 보였다( $p < .01$ ). 즉, 청소년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활동에 참여하면서 자신의 발전에 대한 기대가 크며, 활동에 대한 만족도(활동내용, 지도자, 시설·공간·장비, 일정·시간)가 높은 청소년들이 자아존중감, 진로성숙도, 주관적 행복감, 공동체의식, 리더십생활기술 수준도 높은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청소년활동 만족도, 참여정도, 성취기대수준 간 상관관계 계수는 .727이하로 다중공선성을 의심할 수준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30 청소년활동 만족도, 참여정도, 성취기대수준과 정의적 특성 간의 상관관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①	1										
②	.726**	1									
③	.704**	.727**	1								
④	.631**	.648**	.711**	1							
⑤	.331**	.296**	.288**	.284**	1						
⑥	.409**	.363**	.350**	.321**	.484**	1					
⑦	.222**	.206**	.202**	.181**	.187**	.223**	1				
⑧	.125**	.118**	.101**	.086**	.101**	.116**	.344**	1			
⑨	.267**	.268**	.258**	.234**	.197**	.227**	.685**	.253**	1		
⑩	.279**	.254**	.237**	.206**	.216**	.275**	.329**	.153**	.392**	1	
⑪	.287**	.260**	.246**	.218**	.247**	.268**	.599**	.258**	.583**	.545**	1

\* 주: 1) ① 활동내용 만족도, ② 지도자 만족도, ③ 시설·공간·장비 만족도, ④ 일정·시간 만족도, ⑤ 청소년활동 참여정도, ⑥ 청소년활동 성취기대수준, ⑦ 자아존중감, ⑧ 진로성숙도, ⑨ 주관적 행복감, ⑩ 공동체의식, ⑪ 리더십생활기술  
 2) \*\* $\alpha$ .01

## 2) 청소년활동 만족도, 참여정도, 성취기대수준이 정의적 특성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활동 만족도(활동내용, 지도자, 시설·공간·장비, 일정·시간), 참여정도, 성취기대수준이 청소년들의 정의적 특성(자아존중감, 진로성숙도, 주관적 행복감, 공동체의식, 리더십생활기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검증하였다. 공차한계(Tolerance)와 분산팽창요인(VIF)은 각각 3.44~.741, 1.350~2.910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 (1) 청소년활동 만족도, 참여정도, 성취기대수준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활동 만족도, 참여정도, 성취기대수준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표 IV-31>),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F=115.448, p<.001$ ). 구체적으로 활동내용 만족도( $\beta=.077, p<.001$ ), 지도자 만족도( $\beta=.042, p<.05$ ), 시설·공간·장비 만족도( $\beta=.043, p<.05$ ), 참여정도( $\beta=.075, p<.001$ ), 성취기대수준( $\beta=.121, p<.001$ )이 자아존중감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시 말해, 청소년활동 내용, 지도자, 시설·공간·장비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청소년활동 참여정도와 성취기대수준이 높을수록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7.7%로 분석되었다.

**표 IV-31** 청소년활동 만족도, 참여정도, 성취기대수준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구분	B	S.E	$\beta$	t
(상수)	2.746	.035		78.623 <sup>***</sup>
활동내용 만족도	.060	.013	.077	4.482 <sup>***</sup>
지도자 만족도	.033	.014	.042	2.411 <sup>*</sup>
시설·공간·장비 만족도	.033	.014	.043	2.387 <sup>*</sup>
일정·시간 만족도	.010	.012	.014	.883
청소년활동 참여정도	.053	.009	.075	6.083 <sup>***</sup>
청소년활동 성취기대수준	.086	.009	.121	9.462 <sup>***</sup>

$R^2=.078$ , Adj  $R^2=.077$ ,  $F=115.448$ <sup>\*\*\*</sup>

\* 주: <sup>\*</sup> $p<.05$ , <sup>\*\*\*</sup> $p<.001$

(2) 청소년활동 만족도, 참여정도, 성취기대수준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활동 만족도, 참여정도, 성취기대수준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표 IV-32** 청소년활동 만족도, 참여정도, 성취기대수준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구분	B	S.E	$\beta$	t
(상수)	3.119	.039		79.208 <sup>***</sup>
활동내용 만족도	.051	.015	.060	3.395 <sup>**</sup>
지도자 만족도	.043	.015	.051	2.821 <sup>**</sup>
시설·공간·장비 만족도	-.001	.015	-.001	-.072
일정·시간 만족도	-.011	.013	-.013	-.821
청소년활동 참여정도	.033	.010	.043	3.377 <sup>**</sup>
청소년활동 성취기대수준	.044	.010	.056	4.278 <sup>***</sup>

$R^2=.023$ , Adj  $R^2=.022$ ,  $F=32.118$ <sup>\*\*\*</sup>

\* 주: <sup>\*\*</sup> $p<.01$ , <sup>\*\*\*</sup> $p<.001$

그 결과, 진로성숙도에 활동내용 만족도( $\beta=.060, p<.01$ ), 지도자 만족도( $\beta=.051, p<.01$ ), 참여정도( $\beta=.043, p<.01$ ), 성취기대수준( $\beta=.056, p<.001$ )이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모형은  $F=32.118, p<.001$ 로 적합한 예측모형으로 분석되었으나, 모형의 설명력은 2.2%로 낮았다.

(3) 청소년활동 만족도, 참여정도, 성취기대수준이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활동 만족도, 참여정도, 성취기대수준이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모든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F=157.338, p<.001$ ). 즉, 청소년활동의 활동내용( $\beta=.071, p<.001$ ), 지도자( $\beta=.092, p<.001$ ), 시설·공간·장비( $\beta=.059, p<.01$ ), 일정·시간( $\beta=.036, p<.05$ )에 대한 만족도와 청소년활동에 대한 참여정도( $\beta=.073, p<.001$ ), 성취기대수준( $\beta=.098, p<.001$ )이 높을수록 주관적 행복감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10.3%로 나타났다.

표 IV-33 청소년활동 만족도, 참여정도, 성취기대수준이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구분	B	S.E	$\beta$	t
(상수)	2.781	.036		76.677***
활동내용 만족도	.058	.014	.071	4.215***
지도자 만족도	.074	.014	.092	5.293***
시설·공간·장비 만족도	.047	.014	.059	3.306**
일정·시간 만족도	.028	.012	.036	2.269*
청소년활동 참여정도	.054	.009	.073	6.007***
청소년활동 성취기대수준	.073	.009	.098	7.753***
$R^2=.103, \text{Adj } R^2=.103, F=157.338^{***}$				

\* 주: \* $p<.05$ , \*\* $p<.01$ , \*\*\* $p<.001$

(4) 청소년활동 만족도, 참여정도, 성취기대수준이 공동체의식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활동 만족도, 참여정도, 성취기대수준이 공동체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표 IV-34>), 활동내용 만족도( $\beta=.124, p<.001$ ), 지도자 만족도( $\beta=.072, p<.001$ ), 참여정도( $\beta=.071,$

$p<.001$ ), 성취기대수준( $\beta=.157, p<.001$ )이 공동체의식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F=178.145, p<.001$ ). 이는 청소년활동의 내용과 지도자에 대해 만족할수록, 참여정도와 성취기대수준이 높을수록 청소년의 공동체의식이 증가함을 의미한다. 모형의 설명력은 11.5%로 나타났다.

**표 IV-34** 청소년활동 만족도, 참여정도, 성취기대수준이 공동체의식에 미치는 영향

구분	B	S.E	$\beta$	t
(상수)	2.345	.038		61.080 <sup>***</sup>
활동내용 만족도	.108	.015	.124	7.357 <sup>***</sup>
지도자 만족도	.062	.015	.072	4.181 <sup>***</sup>
시설·공간·장비 만족도	.023	.015	.027	1.521
일정·시간 만족도	-.007	.013	-.008	-.529
청소년활동 참여정도	.056	.010	.071	5.885 <sup>***</sup>
청소년활동 성취기대수준	.125	.010	.157	12.524 <sup>***</sup>

$R^2=.116, \text{Adj } R^2=.115, F=178.145^{***}$

\* 주: <sup>\*\*\*</sup>  $p<.001$

(5) 청소년활동 만족도, 참여정도, 성취기대수준이 리더십생활기술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활동 만족도, 참여정도, 성취기대수준이 리더십생활기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표 IV-35** 청소년활동 만족도, 참여정도, 성취기대수준이 리더십생활기술에 미치는 영향

구분	B	S.E	$\beta$	t
(상수)	2.667	.030		88.004 <sup>***</sup>
활동내용 만족도	.087	.012	.126	7.522 <sup>***</sup>
지도자 만족도	.043	.012	.063	3.656 <sup>***</sup>
시설·공간·장비 만족도	.022	.012	.032	1.833
일정·시간 만족도	.000	.010	.001	.033
청소년활동 참여정도	.073	.008	.117	9.686 <sup>***</sup>
청소년활동 성취기대수준	.080	.008	.126	10.105 <sup>***</sup>

$R^2=.123, \text{Adj } R^2=.122, F=190.686^{***}$

\* 주: <sup>\*\*\*</sup>  $p<.001$

그 결과,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12.2%이며,  $F=190.686$ ,  $p<.001$ 로 분석되었다. 구체적으로 활동내용 만족도( $\beta=.126$ ,  $p<.001$ ), 지도자 만족도( $\beta=.063$ ,  $p<.001$ ), 참여정도( $\beta=.117$ ,  $p<.001$ ), 성취기대수준( $\beta=.126$ ,  $p<.001$ )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활동의 활동내용 만족도, 지도자 만족도, 참여정도, 성취기대수준이 높을수록 청소년의 리더십생활기술 수준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 5. 소 결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를 분석하기 위해 총 8,627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주요 결과를 살펴보면, 최근 1년간 96.1%의 청소년이 청소년활동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역별 참여율은 '건강·보건활동'(93.6%), '문화예술활동'(85.2%), '진로탐색 및 직업체험활동'(72.5%), '봉사활동'(62.9%), '과학정보활동'(61.2%), '모험개척활동'(57.8%), '자기(인성)계발활동'(50.8%), '환경보존활동'(48.8%), '교류활동'(33.9%) 순으로 조사되었다. 참여한 청소년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M=3.37$ )는 보통수준을 상회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참여정도( $M=2.99$ ), 성취기대수준( $M=3.05$ )은 보통수준으로 나타났다. 청소년활동의 참여형태는 '학교에서 단체로 참여'가, 참여경로는 '학교 선생님의 권유'가 가장 많았으며, 장애요인으로는 '참여할 시간이 없어서'를 가장 많이 지적하였다.

다음으로 조사대상자 전체를 대상으로 청소년활동 희망 시간, 희망 장소, 함께 참여하고 싶은 대상, 활성화요인, 향후 참여하고 싶은 활동 등에 대해 확인하였다. 먼저, 청소년들은 청소년활동에 참여하기 좋은 시간대로 '학교 수업시간 중'을 가장 많이 선택하였다. 그리고 공원, 호수, 산, 바다 등 야외에서의 활동을 가장 선호하였으며, 대부분이 친구와 함께 청소년활동에 참여하고 싶다고 응답하였다. 청소년활동의 활성화요인으로는 청소년활동 시간의 확보와 프로그램의 흥미로운 구성을 높게 평가하였다. 향후 참여하고 싶은 활동은 '문화예술활동', '진로탐색 및 직업체험활동', '모험개척활동', '과학정보활동' 등의 순으로 대답하였다.

이어서 관련시설 이용경험, 청소년활동정책 인지도, 여가시간에 대해 살펴본 결과, 관련시설 이용률은 '도서관'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청소년수련시설에서는 '청소년수련관' 이용률이 가장 높았다. 그리고 청소년활동정책에 대한 인지도는 전반적으로 보통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청소년들의 평균 여가시간은 평일 하루 3.21시간(SD=2.20), 휴일 하루 7.73시간(SD=3.61), 방학 중 하루 7.88시간(SD=3.52)으로 조사되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활동 만족도, 참여정도, 성취기대수준이 청소년의 정의적 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활동내용 만족도', '지도자 만족도', '시설·공간·장비 만족도', '청소년 활동 참여정도', '청소년활동 성취기대수준'이 자아존중감에, '활동내용 만족도', '지도자 만족도', '청소년활동 참여정도', '청소년활동 성취기대수준'이 진로성숙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활동내용 만족도', '지도자 만족도', '시설·공간·장비 만족도', '일정·시간 만족도', '청소년활동 참여정도', '청소년활동 성취기대수준'이 주관적 행복감에, '활동내용 만족도', '지도자 만족도', '청소년활동 참여정도', '청소년활동 성취기대수준'이 공동체의식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청소년활동에 대한 만족도, 참여정도, 성취기대수준이 청소년들의 자아존중감, 진로성숙도, 주관적 행복감, 공동체의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제 V 장

---

# 요약 및 정책제언

1. 요약
2. 정책제언



# 제 V 장

## 요약 및 정책제언

### 1.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를 조사 및 분석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청소년활동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정책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의 달성을 위해 관련문헌 분석,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 등을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청소년활동정책 로드맵을 수립하여 제시하였다.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는 전국 초·중·고등학생 8,627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주요 결과를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청소년활동 참여경험, 만족도, 장애요인, 활성화요인, 향후 참여하고 싶은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변인과 정의적 특성 간의 관계 등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

첫째, 최근 1년간 청소년활동에 참여한 청소년은 96.1%로 조사되었다. 청소년활동 참여율은 2014년도 99.3%, 2015년도 97.4%, 2016년도 96.1%로, 매년 근소하게 낮아졌으나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

둘째, 청소년활동 영역별 참여율은 '건강·보건활동'(93.6%), '문화예술활동'(85.2%), '진로탐색 및 직업체험활동'(72.5%), '봉사활동'(62.9%), '과학정보활동'(61.2%), '모험개척활동'(57.8%), '자기(인성)계발활동'(50.8%), '환경보존활동'(48.8%), '교류활동'(33.9%) 순으로 나타났다. 2014년~2016년까지의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건강·보건활동'과 '문화예술활동'의 참여율은 높은 반면, '교류활동'의 참여율은 저조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과학정보활동', '교류활동', '모험개척활동', '환경보존활동', '자기(인성)계발활동'의 참여율은 꾸준히 증가하였다.

셋째, 청소년활동의 '전반적인 만족도'(M=3.37)는 보통수준을 상회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구체적으로 '지도자 만족도'(M=3.43)가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활동내용 만족도'(M=3.37), '시설·공간·장비 만족도'(M=3.32), '일정·시간 만족도'(M=3.27) 순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청소년활동의 참여정도(M=2.99), 성취기대수준(M=3.05)은 보통수준으로 조사되었다.

넷째, 청소년활동의 참여형태는 '학교에서 단체로 참여'(46.0%)했다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교내 동아리활동으로 참여'(17.5%), '개인적으로 참여'(12.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참여경로는 '학교 선생님의 권유로'(38.6%), '부모님 및 가족의 권유로'(20.6%), '친구 또는 선배의 권유로'(14.0%)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청소년활동의 장애요인으로는 '참여할 시간이 없어서'(30.5%)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서 '어떤 내용의 활동들이 있는지 몰라서'(19.0%), '프로그램의 내용이 마음에 안 들어서'(14.2%), '공부에 방해가 될 것 같아서'(13.1%) 등의 순으로 확인되었다.

다섯째, 청소년활동 희망 시간은 '학교 수업시간 중'(43.7%), '방학기간'(23.7%), '주말'(22.8%) 등의 순으로 분석되었다. 희망 장소로는 공원, 호수, 산, 바다 등 '야외'(43.1%)에서의 활동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어서 '학교'(22.1%), '청소년시설'(17.5%), '문화시설'(15.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청소년활동에 함께 참여하고 싶은 대상으로는 대부분 '친구'(85.2%)를 선택하였다. 청소년활동의 활성화요인으로는 '청소년활동 시간이 더 확보되어야 한다'(25.7%)와 '프로그램이 좀 더 흥미롭게 구성되어야 한다'(24.9%)를 높게 평가하였다.

여섯째, 청소년들에게 향후 가장 참여하고 싶은 청소년활동을 질문한 결과, '문화예술활동'(22.5%), '진로탐색 및 직업체험활동'(21.5%), '모험개척활동'(17.0%)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2015년도와 비교했을 때 향후 참여하고 싶은 청소년활동에 대한 순위는 동일하게 나타났으나, 영역별 응답률에 있어서는 다소 차이를 보였다. 즉, '문화예술활동'(1.4%p) 등은 소폭 증가한 반면, '건강·보건활동'(1.5%p), '자기(인성)계발활동'(1.2%p) 등에 대한 욕구는 소폭 감소하였다.

일곱째, 청소년수련시설의 이용률은 '청소년수련관'이 38.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청소년수련원'(36.4%), '유스호스텔'(26.4%), '청소년야영장'(19.1%), '청소년문화의 집'(17.3%) 순으로 분석되었다. 2015년도 이용률에 비해 '청소년수련관' 6.6%포인트, '청소년수련원' 8.0%포인트, '청소년문화의 집' 4.6%포인트, '청소년야영장' 4.9%포인트, '유스호스텔' 5.3%포인트 상승하였다. 한편, 청소년활동정책에 대한 인지정도(3점 척도 기준)는 평균 1.15~1.44로 높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여덟째, 지난 1년 동안 청소년들의 하루 평균 여가시간은 평일 하루 3.21시간(SD=2.20), 휴일 하루 7.73시간(SD=3.61), 방학 중 하루 7.88시간(SD=3.52)으로 조사되었다.

## 2)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변인과 정의적 특성 간의 관계

첫째, 청소년들의 ‘자아존중감’, ‘진로성숙도’, ‘주관적 행복감’, ‘공동체의식’, ‘리더십생활기술’에 대해 조사한 결과, 평균 3.51~3.85로 보통수준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주관적 행복감’이 평균 3.85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진로성숙도’와 ‘리더십생활기술’의 평균은 3.63, ‘자아존중감’의 평균은 3.61, ‘공동체의식’의 평균은 3.51로 조사되었다.

둘째, 청소년활동 만족도, 참여정도, 성취기대수준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활동내용 만족도’, ‘지도자 만족도’, ‘시설·공간·장비 만족도’, ‘청소년활동 참여정도’, ‘청소년활동 성취기대수준’이 자아존중감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셋째, 청소년활동 만족도, 참여정도, 성취기대수준이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활동내용 만족도’, ‘지도자 만족도’, ‘시설·공간·장비 만족도’, ‘일정·시간 만족도’, ‘청소년활동 참여정도’, ‘청소년활동 성취기대수준’이 청소년의 주관적 행복감에 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넷째, 청소년활동 만족도, 참여정도, 성취기대수준이 진로성숙도, 공동체의식, 리더십생활기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활동내용 만족도’, ‘지도자 만족도’, ‘청소년활동 참여정도’, ‘청소년활동 성취기대수준’이 청소년의 진로성숙도, 공동체의식, 리더십생활기술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2. 정책제언<sup>7)</sup>

청소년들의 청소년활동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개발은 1차 년도와 2차 년도 연구에서도 다루어왔다. 조사결과에서도 나왔듯이 청소년활동의 다양성이 부족하고, 청소년활동에 대한 지원체계가 미비하여, 활동터전 및 활동프로그램이 한정되어 있으며,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고 안내하는 청소년지도사 또는 청소년지도자의 신분 및 복지가 미천하며, 법제도적인 안정적

7) 정책제언 구체화 작업에 참여한 13인의 전문가는 김영배 교수(대구한의대학교), 김기남 소장(너를 위한 작은별), 김인규 부장(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박선영 교수(한국체육대학교), 박정배 박사(순천향대학교, 백석대학교), 박찬열 관장(마포청소년문화의집), 오석영 교수(명지대학교), 이진원 부장(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장성문 차장(한국청소년지도자연수센터), 조남익 교수(광운대학교), 조재영 관장(덕풍청소년문화의집), 주경필 교수(한국방송통신대학교), 하종래 관장(창동청소년문화의집) 등이다. 본 정책제언은 이 전문가들의 의견을 참고하여 재정리하였다.

뒷받침이 부족한 실정에서 청소년활동의 활성화를 바라기는 힘들다.

2015년도 2차 년도 연구에서는 좀 더 포괄적으로 활동 활성화를 위한 영역과 과제를 설정해 보고자 하였다. 2차 년도 청소년활동의 참여 실태조사 결과, 청소년들과 전문가들은 공히 시간부족이 청소년활동의 제일 큰 장애요인이라고 언급하였다. 이는 입시위주의 교육환경과 무관하지 않으며, 청소년활동 참여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입시제도 등 제도개선이 중요하다. 하지만 이는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려운 사항으로 보다 현실적인 방안으로 5개 분야 17개 과제를 제시하였다. 이 중 다섯 번째 영역은 학교밖 청소년 관련 과제이므로, 실질적으로는 청소년활동 참여기회 보장, 청소년활동 운영기관 및 지도자 역량 강화, 청소년활동을 위한 가정·학교·지역사회 지원 확보, 청소년활동정책 기반 강화 4개 분야 13개 과제를 제시하였다(최창욱 외, 2015. p.213).

2016년도 3차 년도 연구에서는 2차 년도 연구의 4개분야 13개 과제를 13인의 전문가가 발전시킨 내용들을 토대로 연구진이 5개 분야 20개 세부추진과제로 재정리하여 제시하였다. 5개 분야는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의 개선, 청소년지도자 역량개발 및 처우개선, 청소년활동 시설 및 단체의 기능강화, 청소년활동 홍보 및 정보제공 시스템 구축, 청소년활동정책 기반조성이다. 구체적인 세부정책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의 개선의 세부정책과제는 (1) 정기적인 청소년활동 참여실태 및 요구조사 실시, (2) 환경변화에 대응한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3) 효과적인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의 특성 요인 분석 및 적용, (4) 청소년활동의 효과성 검증을 위한 중단연구 및 국제비교연구, (5) 현장 청소년지도자의 프로그램 역량 개발 등이다.

둘째, 청소년지도자 역량개발 및 처우 개선의 세부정책과제는 ①청소년지도사 직무역량 개발, ②청소년지도사 기본활동 필수교육과정 지정 및 운영, ③청소년지도사 처우개선, ④청소년지도사 배치체계 개선, ⑤청소년지도자 학교 동아리활동 코디네이터 배치 추진 등이다.

셋째, 청소년활동 시설 및 단체의 기능 강화 세부정책과제는 ①청소년수련시설의 기능 재정립, ②청소년수련시설 운영 개선 지원, ③청소년단체의 활동 기반 강화, ④청소년활동 거점시설의 확보 및 운영 등이다.

넷째, 청소년활동 홍보 및 정보제공 시스템 구축의 세부정책과제는 ①청소년활동 홍보 추진체계 구축, ②청소년활동 정보서비스 추진체계 구축 등이다.

다섯째, 청소년활동 정책 기반조성의 세부정책과제는 ①청소년활동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 ②시도 및 시군구 청소년활동진흥센터의 설치 및 기능 강화, ③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제 도입 지원, ④청소년육성기금의 조성 확대 등이다.

표 V-1 청소년활동정책 세부추진과제

정책영역	세부추진과제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의 개선	(1) 정기적인 청소년활동 참여실태 및 요구조사 실시 (2) 환경변화에 대응한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3) 효과적인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의 특성 요인 분석 및 적용 (4) 청소년활동의 효과성 검증을 위한 중단연구 및 국제비교연구 (5) 현장 청소년지도자의 프로그램 역량 개발
청소년지도자 역량개발 및 처우 개선	(1) 청소년지도사 직무역량 개발 (2) 청소년지도사 기본활동 필수교육과정 지정 및 운영 (3) 청소년지도사 처우개선 (4) 청소년지도사 배치체계 개선 (5) 청소년지도자 학교 동아리활동 코디네이터 배치 추진
청소년활동 시설 및 단체의 기능 강화	(1) 청소년수련시설의 기능 재정립 (2)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개선 지원 (3) 청소년단체의 활동 기반 강화 (4) 청소년활동 거점시설의 확보 및 운영
청소년활동 홍보 및 정보제공 시스템 구축	(1) 청소년활동 홍보 추진체계 구축 (2) 청소년활동 정보서비스 추진체계 구축
청소년활동 정책 기반조성	(1) 청소년활동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 (2) 시도 및 시군구 청소년활동진흥센터의 설치 및 기능 강화 (3)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제 도입 지원 (4) 청소년육성기금의 조성 확대

정책담당공무원, 현장전문가, 연구자 등을 위하여 각 영역별로 목적, 추진과제 내용, 단계별 추진계획 등을 추가로 제시하였다.

### 1)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의 개선

- ① 정기적인 청소년활동 참여실태 및 요구조사 실시
  - 체계적인 청소년활동 요구 조사도구 개발
  - 격년 주기의 정기적인 조사 실시
  - 조사결과의 분석 및 보급

- ② 환경변화에 대응한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 인성교육, 진로교육 등 학교교육 연계된 프로그램의 개발 보급
  - 마을교육 연계 프로그램의 개발 보급
  - 공공지원 우수 프로그램 보급 활성화
    - 청소년활동공모사업 등 공공재원이 투입된 프로그램의 확산과 보급
    - 공모사업에서 프로그램의 다양성을 저해하는 요소를 검토하여 폐지
  - 가족·학교·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 운영·확대를 위한 컨설팅지원단 운영
    - 컨설팅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 지역사회의 프로그램 지원 방식으로서 연계 활성화
  
- ③ 효과적인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의 특성 요인 분석 및 적용
  -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의 특성 요인 분석
  -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의 특성에 대한 보급 확산
    - 분석된 성공적인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의 특성에 대한 보급 및 확산
    -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의 특성에 대한 청소년지도자 교육 실시
  
- ④ 청소년활동의 효과성 검증을 위한 중단연구 및 국제비교연구
  - 청소년활동의 효과성 검증을 위한 중단연구
  - 청소년활동의 효과성 검증을 위한 국제비교연구
  - 청소년활동의 체계화된 연구와 연구 결과물 공유
    - 청소년활동의 효과성 검증을 위한 연구시스템 구축
    - 장기적인 예산 지원을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법제화 추진
    - 청소년활동의 효과성에 대한 연구결과 공유와 홍보활동을 전개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예산지원
    - 청소년활동 검증을 위한 연구 인력 확보
    - 청소년관련 연구방법론의 특성화 및 체계화
  
- ⑤ 현장 청소년지도자의 프로그램 역량 개발
  - 현장의 프로그램 연구 활동 지원

- 청소년지도자 연구모임 및 학습동아리 운영 지원
- 현장 청소년지도자 대상 연구 활동 공모 및 지원 사업 실시
- 현장 청소년지도자 연구발표회 등 학술대회의 정기적 개최
- 청소년지도인력을 통한 프로그램 개발·평가·보급·환류 체계 구축
  - 청소년지도사의 프로그램 개발·평가·보급·환류와 관련된 전문교육 확대
  - 청소년현장전문가 중심의 컨설팅단 운영

## 2) 청소년지도자 역량개발 및 처우 개선

### ① 청소년지도사 직무역량 개발

- 현장에 기초한 청소년지도사 직무분석
  - 청소년시설 및 기관의 운영목적에 맞는 체계적인 직무분석 실시
  - 직무분석결과 활용의 다양화
- 청소년지도사 핵심기초역량 개발
  - 청소년지도사 핵심기초역량 개발
  - 현장에서 공통적으로 필요한 핵심기초역량 발굴 및 직급별 필요역량 제시
  - 청소년지도사 핵심기초역량강화 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
- 청소년지도사의 교육요구에 부합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 청소년지도사 학습포트폴리오 운영
  - 교육요구가 반영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청소년지도사 전문연수의 확대 운영
- 청소년지도사 교육훈련의 현업적용도 평가 적용
  - 청소년지도사 교육훈련의 평가체제 강화
  - 현업적용도 평가체제 구축
- 청소년지도자 경력개발 시스템 구축
  - 실질적인 청소년지도자 경력등급체제 구축
  - 경력 연수제도 강화
  - 경력인증시스템 구축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청소년지도자연수센터의 기능강화
  - 교육프로그램 개발, 운영, 평가기능을 강화
  - 자격연수 운영형태의 다양화
  - 청소년지도사 보수교육 강화
  - 전문연수 강화
  - 청소년지도사 직무연수의 컨트롤 타워 역할 수행
  
- ② 청소년지도사 기본활동 필수교육과정 지정 및 운영
  - 청소년지도사의 전문성 명료화
  - 자격검정제도 보완을 위한 청소년지도사 기본활동 필수 교육과정 운영
    - 청소년지도사의 기본활동의 선정
    - 청소년지도사의 기본활동에 대한 필수 교육과정 운영
  
- ③ 청소년지도사 처우개선
  - 청소년지도사 표준임금표 제시
    - 청소년지도사 처우 문제 공론화
    - 중앙정부 차원에서 청소년지도사에 대한 보수 가이드라인 제시
    - 청소년지도사의 급여 산정에 있어서도 생활임금과 전문성의 관점 적용
    - 공무원/사회복지사 기본 급여수준 고려 청소년지도사 표준임금표 책정
    - 청소년지도사의 전문성에 대한 지원과 보상체계 도입
  
- ④ 청소년지도사 배치체계 개선
  - 청소년지도사 배치기준 개선
    - 청소년시설, 단체의 청소년지도사 배치기준 강화 필요
    - 청소년수련시설의 청소년지도사 배치기준 조정
    - 청소년수련시설의 청소년지도사 배치기준 조정에 따른 지원대책 수립
  - 신규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인력지원 대책 수립
    - 환경의 변화에 따른 인력수급 대책 필요
    - 신규 사업 운영시 운영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원

- ⑤ 청소년지도자 학교 동아리활동 코디네이터 배치 추진
  - 교내 청소년 동아리 활동에 대한 다양성 추구
  - 교내 청소년 동아리 활동을 위한 인적 네트워크 구축
  - 청소년지도사의 동아리활동 코디네이터 참여를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 3) 청소년활동 시설 및 단체의 기능 강화

#### ① 청소년수련시설의 기능 재정립

- 시대 환경에 맞는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 모형의 재정립
  - 청소년수련시설 운영모형에 개선을 위한 연구 실시
  - 새로운 청소년수련시설 운영모형에 따른 관련 법령과 지침 개정 및 시행
- 자연권 수련시설의 기능강화
  - 자연권 수련시설의 위상정립
  - 자연권 청소년활동시설의 접근성 개선
- 생활권 수련시설의 기능강화
  - 생활권 청소년수련시설의 기능 전환
  - 생활권 청소년활동시설의 물리적 접근성 개선
  - 생활권 청소년수련시설의 내용적 접근성 개선

#### ②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개선 지원

- 청소년수련시설 표준 관리운영비 기준 마련
  - 청소년수련시설의 유형별, 규모별 표준 관리운영비 분석 실시
  - 표준 관리운영비 기준에 따른 예산 확보 지침 시행
  - 신규 공공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시 관리운영비 확보계획 제출 의무화
- 청소년수련시설의 시설 정비 지원
  - 노후 시설 개선 지원
  - 유스호스텔의 청소년수련원 전환 지원
  - 공공수련시설의 시설유형 정비
- 수련시설 운영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사업

- 지역별 수련시설 특성화 및 네트워킹을 위한 컨설팅 지원
- 민간 수련시설 운영 컨설팅 지원
- 청소년수련시설 종합관리체계 구축
  -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현황 관리 필요
  - 청소년수련시설지원센터의 설치·운영
  - 청소년수련시설 관련 정보의 제공을 위한 공시제도 도입

### ③ 청소년단체의 활동 기반 강화

- 청소년단체의 역할·기능 재정립
- 청소년단체 및 관련기관과의 연계·협력 강화
- 청소년단체 관련 전문인력 배치
- 청소년단체 재정 안정화를 위한 노력 및 지원
- 학교교육제도와의 연계 강화

### ④ 청소년활동 거점시설의 확보 및 운영

- 청소년활동 거점기관의 지정 및 운영
- 청소년활동 현장거점 시설의 지정 및 운영지원
  - 청소년활동 현장거점 시설 지정
  - 청소년활동 현장거점 시설 및 운영 단체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 청소년활동 현장거점 시설의 특성에 따른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지원
- 청소년활동 거점시설 및 유관기관과의 업무협력 체제 구축
  - 청소년체험활동시설 간의 협력 체제 구축
  - 지역내 유관 기관과의 협력 체제 구축
  - 중앙 전담기관 및 시·도지원기관과의 협력 체제 구축
- 청소년체험활동시설 연계를 통한 복합적이고 체계적 프로그램 운영
- 지역내 청소년체험활동시설 운영 확대를 위한 시범지역 운영
- 청소년활동 거점시설 정보관리 및 활동기록관리 지원시스템 구축
  - 지역 및 활동거점 단위의 활동정보 관리체제 구축 및 운영
  - 청소년들의 활동기록 관리 지원 체제 구축 및 운영

#### 4) 청소년활동 홍보 및 정보제공 시스템 구축

##### ① 청소년활동 홍보 추진체계 구축

- 청소년활동 거점 홍보센터의 지정 및 운영
  - 시·군·구 지역단위의 청소년활동의 거점 홍보센터 지정
  - 청소년활동 홍보 관련 프로그램 개발
  - 청소년활동 거점 홍보센터의 운영
- 청소년활동 거점 홍보센터의 전문 인력 양성 방안
- 청소년활동 거점 홍보센터의 역할과 기능 인정
- 유관기관과의 업무 협력 체제 구축
  - 홍보거점 시설 간 협력체제 구축
  - 지역 내 유관 기관과의 협력 체제 구축
  - 중앙 전담기관 및 시·도 지원기관과의 협력 체제 구축

##### ② 청소년활동 정보서비스 추진체계 구축

- 청소년활동정보제공을 위한 전담기구 한국청소년활동정보원의 설치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의 청소년활동정보업무 조직을 확대 운영
- 청소년활동정보의 관리 및 홍보 등 행정전달체계의 강화
  - 시군구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설치를 통한 행정전달체계 구축
  - 청소년수련관을 청소년활동정보의 행정전달체계로 활용
- 정보수요자 대상별 홍보방법과 전략 수립
- 청소년활동정보 소외 대상층에 대한 지원 강화
- 양방향 정보제공 시스템 구축
- 청소년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

#### 5) 청소년활동 정책 기반조성

##### ① 청소년활동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

- 청소년수련시설 세제혜택을 위한 관계법률 개정

-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개정에 따른 활용방안 마련
  - 한국표준직업분류(KSCO) 개정필요
  - 청소년수련원의 운영관련 제도 개선
    - 청소년수련활동의 최저가 입찰제도 개선
    - 민간 청소년수련시설의 시설 개보수비 지원
    - 청소년수련원의 기초생활수급자 수련활동비 지원
  - 청소년수련시설 공과금 절감 대책 마련
    - 전기요금 절감 대책
    - 상하수도 요금 절감 대책
- ② 시도 및 시군구 청소년활동진흥센터의 설치 및 기능 강화
- 지역환경과 청소년활동 여건을 반영한 지방센터 설치 및 운영전략 수립
    - 시도센터 설치 모형의 다양화
    - 시·군·구 센터의 설치를 통한 전국적인 청소년활동 진흥체계 구축
    - 거점센터-단위센터 모형의 도입 검토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의 지방센터 지원기능 강화
  - 시도센터의 공공성 확보
  - 중앙 및 지역단위 관계기관 연계협력체계 구축
    - 중앙단위 관계기관 연계협력체 구성 및 운영
    - 지역 단위의 관계기관 연계협력체 구성 및 운영
- ③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제 도입 지원
-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제도 도입 지원
    -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제 운영지침 제공
    - 지자체의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제 조례제정 지원
    - 지자체의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 채용에 대한 지원
- ④ 청소년육성기금의 조성 확대
- 청소년육성기금의 조성 확대 및 사업 개선

- 청소년육성기금의 지속적인 확충
- 청소년육성기금 의존도의 개선과 기금사업의 차별화

※ 구체적인 세부내용과 연차별 추진과정은 부록 참조





# 참 고 문 헌



## 참 고 문 헌

- 강현주, 신인순 (2015). 청소년 체험활동이 공동체의식에 미치는 영향- 지역사회인식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22(9), 25-48.
-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 (2012). 청소년지도사 전문연수 요구조사.
- 김남정, 임영식 (2012). 청소년 스트레스와 삶의 만족도 관계에서 청소년활동의 증재효과. **청소년학연구**, 19(8), 219-240.
- 김미현, 이현우, 정영근 (2011). 청소년 문화활동의 참여동기, 참여태도, 참여빈도 및 자기효능감의 구조적 관계 분석. **미래청소년학회지**, 8(2), 77-95.
- 김순규, 최혜정, 박신애 (2012). 청소년활동이 청소년의 개인, 가족, 학교측면 결과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복지학**, 64(4), 189-207.
- 김아영 (2008). **학습동기: 이론, 연구와 적용**. 서울: 학지사.
- 김우철, 임순선, 한상철 (2011).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 활동경험과 진로성숙도와의 관계. **교육학논총**, 32(1), 21-39.
- 김윤나 (2012). 청소년정책참여활동의 특성이 생활역량에 미치는 영향: 참여기구, 참여활동 인식(필요성, 중요성), 참여정도(활동기간, 활동몰입, 참여수준), 만족도를 중심으로. **청소년시설환경**, 10(2), 19-30.
- 김인설, 정득, 이종석 (2014). 문화예술 활동이 청소년 정서에 미치는 영향. **문화정책논총**, 28(1), 225-250.
- 김재철, 황매향, 김아영 (2011). 체험활동과 진로성숙 간의 관계에서 긍정적 자아관과 내적 직업가치관의 매개효과. **진로교육연구**, 24(1), 1-23.
- 김현철 (2015).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의 현황과 전망: 생애과정 연구를 중심으로**.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현철, 임희진, 정효진, 민경석 (2013). **국가 청소년활동정책 체계화 연구** (연구보고

- 13-R03).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현철, 최창욱, 민경석 (2010). **초중고 창의적 체험활동과 청소년활동정책의 연계방안 연구**.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현철, 황여정, 민경석, 윤혜순 (2012). **창의적 체험활동 지역사회 운영모형 개발연구 II** (연구보고 12-R02).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형주, 김정주, 김인규 (2014). **청소년수련시설 역할 재정립 및 정체성 확립 방안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형주, 김정주, 김혁진 (2016).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 기능강화를 위한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연구**. 서울: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 도종수, 성준모 (2013). 청소년활동 경험이 사회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복지연구**, 15(2), 145-173.
- 류시영, 강방훈 (2012). 청소년의 체험활동 만족과 자아존중감, 행복감 간의 관계: 아시아태평양챔버리 참가자를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연구**, 23(4), 27-50.
- 맹영임, 길은배, 전명기 (2010). **청소년시설 지도인력의 역량 강화 및 복지 개선 방안 연구**.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맹영임, 이광호, 이진원 (2012). **주5일수업제에 따른 청소년활동 활성화 방안 연구**.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문성호, 문호영 (2010). 청소년활동의 참여실태, 만족도 및 영역별 효과성. **청소년복지연구**, 12(2), 95-122.
- 문성호, 문호영, 김용대 (2009). **2009년도 청소년활동프로그램 공모사업 만족도 및 효과성 연구**. 서울: 보건복지가족부.
- 문성호, 윤동엽, 박승곤, 정지윤 (2014). **2014 청소년활동 실태 및 요구조사**. 서울: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 문화체육관광부 (2012). **2012 문화향수실태조사**. 서울: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문화체육관광부 (2014). **2014 국민여가활동조사**. 세종: 문화체육관광부.
- 박병식, 전오진 (2015). 청소년지도자 교육훈련의 현업적용도 평가와 개선방안. **한국인사행정학보**, 14(1) 155-183.
- 박재숙 (2010). 학교청소년의 수련활동과 자원봉사활동, 자아존중감, 공동체의식의 관계. **청소년학연구**, 17(4), 157-182.

- 박주현, 이태자 (2015). 청소년 체험활동의 참여시간과 참여만족도가 삶의 만족도와 공동체 의식에 미치는 영향 - 학교생활적응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 **청소년시설환경**, 13(2), 237-248.
- 박진규 (2011). 청소년육성기금의 운용 실태와 개선방안 연구. **청소년학연구**, 18(7), 287-309.
- 안선영, 김희진, 강영배, 배경내 (2013). **청소년 직업체험 및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연구 I** (연구보고 13-R06).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여성가족부 (2012). **2011 청소년종합실태조사 결과보고서**. 서울: 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 (2013). **2013 청소년백서**. 서울: 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 (2014a). **2014 청소년백서**. 서울: 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 (2014b). **2014 청소년종합실태조사**. 서울: 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 (2016). **청소년육성기금 2016년도 자산운용지침**. 서울: 여성가족부.
- 오해섭, 맹영임, 문호영 (2014). **청소년 기업가정신 함양 및 창업 활성화 방안 연구 I : 기업가정신 및 창업관련 의견조사**.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이경상, 조혜영, 박현수 (2004). **한국청소년패널조사(KYPS) II - 조사개요보고서**.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이기봉 (2010). **2009 한국 아동·청소년 온라인게임 및 가족여가활동실태조사**.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이용택, 광현, 이은경 (2016). 청소년의 체험활동만족 및 참여수준과 삶의 만족에 대한 중단연구: 학교생활적응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23(2), 345-370.
- 이종원, 장근영, 김호순 (2007). **2007년 청소년활동 참가실태 조사연구** (연구보고 07-R44). 서울: 국가청소년위원회·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임영식, 문성호, 정경은 (2008). **2008년 청소년 인증수련활동 영역별 효과성 척도 개발 연구**. 서울: 보건복지가족부·한국청소년진흥센터.
- 임영식, 문성호, 정경은 (2010). 청소년 인증수련활동 프로그램 효과성 연구. **청소년학연구**, 7(10), 253-276.
- 임지연, 김정주, 김신영, 김민 (2009). **한국 청소년 지표 조사Ⅳ -아동·청소년 활동·문화 지표** (연구보고 09-R12-1).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임지연, 최인재, 김형주 (2008). **한국 청소년 발달지표 조사 Ⅲ -2008 한국 청소년 발달지표**

- (연구보고 08-R03-1).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임희진, 송병국 (2014).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 연구 I** (연구보고 14-R09).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장근영, 김기현 (2006). **청소년 활동참가 실태조사 연구** (연구보고 06-R41). 서울: 국가청소년위원회 · 한국청소년개발원.
- 정건희, 김웅수, 김경휘 (2013). 청소년활동이 시민성 인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미래청소년학회지**, 10(4), 179-198.
- 진은설 (2013). 청소년활동의 참여동기, 활동만족도, 적응유연성 및 행복감의 관계. **한국청소년연구**, 24(1), 185-217.
- 최경학, 문성호 (2015).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 탐험활동의 효과검증: 자아탄력성을 중심으로. **미래청소년학회지**, 12(3), 1-20.
- 최창욱 (2001). **청소년의 리더십생활기술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청구논문.
- 최창욱, 문호영, 김진호 (2015).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 연구 II** (연구보고 15-R02).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최창욱, 신운호 (2012). 중등학생 청소년의 리더십생활기술과 청소년활동 경험과의 관계 분석. **실과교육연구**, 18(3), 171-194.
- 최창욱, 전명기 (2013). **청소년참여기구 활성화 방안 연구**.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한국고용정보원 (2006). **청소년용 진로발달검사개발 연구보고서**. 서울: 한국고용정보원.
- 한국방정환재단, 연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2010). **한국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의 구축과 국제비교연구조사 결과보고서**. 서울: 한국방정환재단.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5).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CYPS) 제1~5차 조사 코드북: 제5회 학술대회용**. [http://archive.nypi.re.kr/brdartcl/boardarticleList.do?brd\\_id=BDIDX\\_k9Fd9oFi29nooCcJ7kX1I4&srch\\_ctgry\\_idx=CTIDX00043&menu\\_nix=qZc474Ak](http://archive.nypi.re.kr/brdartcl/boardarticleList.do?brd_id=BDIDX_k9Fd9oFi29nooCcJ7kX1I4&srch_ctgry_idx=CTIDX00043&menu_nix=qZc474Ak)에서 2016년 3월 14일 인출.
- 홍은숙, 이화숙 (2015). 청소년의 자원봉사활동 경험이 진로의식 성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5(11), 137-153.
- Dormody, T. J., & Seevers, B. S. (1994). Predicting youth leadership and life skills among FFA members in Arizona, Colorado, and New Mexico. *The Journal*

- of Agricultural Education 35(2)*, 65-71.
- European Commission (2014). *Working with young people: the value of youth work in the European Union*, European Commission.
- Morris, J. C. (1996). *Self-perceived youth leadership life skills development among Iowa 4-H members. doctoral dissertation(Ph. D)*, Iowa State University.
- Rosenberg, M. (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Seevers, B. S., Dormody, T. J., & Clason, D. L. (1995). Developing a scale to research and evaluate youth leadership life skills development. *Journal of Agricultural Education, 36(2)*, 28-34.
- Seevers, B. S., & Dormody, T. J. (1995). Leadership Life Skills Development : Perceptions of Senior 4-H Youth. *Journal of Agricultural Extension 33(4)*. [On-line] Available : <http://www.joe.org/joe/1995august/rb1.html>.
- Wingenbach, G. J. (1995). *Self-perceived youth leadership and life skills development among Iowa FFA members. doctoral dissertation(Ph. D)*, Iowa State University.



---

# 부 록

1. 설문지
2. 정책제언 구체화



# 부 록

## 1. 설문지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등)

- ① 통계작성과 관계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 ②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자료는 통계작성의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조사 ID 51

Gallup 2016-163-006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초등학생)**

안녕하십니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국무총리실 산하 국정연구기관으로 아동·청소년관련 각종 조사 연구와 정책개발 업무를 담당·수행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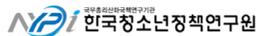
이번 조사는 위 연구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며,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를 살펴보고 이후 청소년활동과 관련된 정책 방향을 마련하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입니다.

또한 여러분께서 응답해 주신 조사내용은 선생님이나 학교에서 절대로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자유롭고 성의 있는 의견은 여러분을 위한 실질적인 아동·청소년 정책 수립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의견이 정확하게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솔직하고 성실한 응답을 부탁드립니다. 본 조사에 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아래 사항은 한국갤럽(조사원)이 기입합니다.

학 교 코 드						
학 교 명						
학 교 소재지	1. 서울	2. 부산	3. 대구	4. 인천	5. 광주	6. 대전
	7. 울산	8. 세종	9. 경기	10. 강원	11. 충북	12. 충남
	13. 전북	14. 전남	15. 경북	16. 경남	17. 제주	
설 립 유 형	1. 국립	2. 공립	3. 사립			
학 년 / 반	(        )학년		(        )반			
반 내 학생 수	전 체	전체 (        )명	남 (        )명	여 (        )명		
	조사 완료	전체 (        )명	남 (        )명	여 (        )명		

발 주 기 관



조 사 기 관



■ 조사 관련 문의처 : (주)한국갤럽조사연구소 || 한경석 연구원 || ☎ 02-3702-2556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등)

- ① 통계작성과정에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 ②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자료는 통계작성의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조사 ID 52

Gallup 2016-163-006

##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중/고등학생)

안녕하십니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국무총리실 산하 국책연구기관으로 아동·청소년관련 각종 조사 연구와 정책개발 업무를 담당·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는 위 연구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며,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를 살펴보고 이후 청소년활동과 관련된 정책 방향을 마련하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입니다.

또한 여러분께서 응답해 주신 조사내용은 선생님이나 학교에서 절대로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자유롭고 성의 있는 의견은 여러분을 위한 실질적인 아동·청소년 정책 수립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의견이 정확하게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솔직하고 성실한 응답을 부탁드립니다. 본 조사에 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아래 사항은 한국갤럽(조사원)이 기입합니다.

학교 코드						
학 교 명						
학교 소재지	1. 서울	2. 부산	3. 대구	4. 인천	5. 광주	6. 대전
	7. 울산	8. 세종	9. 경기	10. 강원	11. 충북	12. 충남
	13. 전북	14. 전남	15. 경북	16. 경남	17. 제주	
학 교 구 분	1. 중학교	2. 고등학교				
설 립 유 형	1. 국립	2. 공립	3. 사립			
고등학교 구분 * 고등학교만 기입	1. 일반	2. 자율	3. 특성화	4. 특수목적		
학 교 유 형	1. 남학교	2. 여학교	3. 남녀 공학			
학 년 / 반	( )학년 ( )반					
반 유 형	1. 남학생 반	2. 여학생 반	3. 남녀 합반			
반 내 학생 수	전 체	전체 ( )명	남 ( )명	여 ( )명		
	조사 완료	전체 ( )명	남 ( )명	여 ( )명		

발 주 기 관

 국무총리실 산하 국책연구기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조 사 기 관



■ 조사 관련 문의처 : ㈜한국갤럽조사연구소 || 한경석 연구원 || ☎ 02-3702-2556

## 설문지 작성 요령

설문지에는 여러분 자신에 관한 질문들이 들어 있습니다. 사실대로 대답해야 하는 질문도 있고, 여러분의 생각을 밝혀야 하는 질문도 있습니다. 질문의 내용을 잘 읽고 정확하게 솔직하게 응답해 주세요. 만일 이해가 되지 않거나 궁금한 것이 있으면 앞에 계신 면접원께 손을 들고 질문해도 좋습니다.

### ♣ 표시하는 방법

질문 다음에는 대개 ①에서 ⑤(또는 ①에서 ④)까지의 숫자 중 하나를 골라 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래의 문장을 읽고, 여러분이 생각할 때 ‘전혀 그렇지 않다’면 ①에, ‘그렇지 않은 편이다’면 ②에, ‘보통이다’면 ③에, ‘그런 편이다’면 ④에, ‘매우 그렇다’면 ⑤에 동그라미(○)로 표시해 주세요.

<보기1>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 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건강하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 나는 건강한 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④’에 표시했습니다.

### ♣ 표시한 것을 바꾸고 싶을 때

<보기2>와 같이 처음 답을 한 곳에 가위표(X)를 하고 맞다고 생각하는 답에 동그라미(○)로 표시해 주세요. 지우개 또는 수정액 등으로 지우지 않아도 됩니다.

<보기2>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 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건강하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del>④</del>	⑤

### ♣ 응답을 선택한 후 지시문에 따라 해당 번호로 이동

항목 오른쪽에 지시문이 있는 경우는, 응답을 한 후 선택한 항목의 오른쪽에 색칠된 지시문이 이동하라고 하는 번호로 이동해야 합니다.

<보기3>

문 A. 학생은 **최근 1년간** 결석을 한 적이 있습니까?

① 결석한 적이 있다 → **「문 B」** 로 가세요

② 결석한 적이 없다 → **「문 C」** 로 가세요

☞ 나는 최근 1년간 결석을 한 적이 있어서 ‘①’에 표시한 후, 문 B로 이동해서 응답합니다.

### ♣ 강조 지침

**색칠이 되어 있는 항목**, 굵은 글씨에 밑줄이 되어있는 항목은 반드시 지침에 따라 응답합니다.

<보기4>

문 B. **「최근 1년간 결석을 한 적이 있는 경우만 응답하세요」** 최근 1년간 결석을 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해당하는 이유를 모두 선택해 주세요.

① 몸이 아파서    ② 학교가기 싫어서    ③ 게임을 하느라    ④ 늦잠을 자서

☞ 최근 1년간 결석을 한 적이 있는 경우만 응답합니다. 결석을 하지 않았으면 응답하지 않습니다.

☞ 결석한 이유를 ‘모두’ 응답하도록 질문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최근 1년간 몸이 아파서, 늦잠을 자서 각각 1번씩, 총 2번 결석을 하였으므로 ①번과 ④번을 모두 표시하여 응답합니다.

## PART I. 다음은 청소년활동에 대한 질문입니다.

문1. 최근 1년간 다음과 같은 '건강·보건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습니까?

건강·보건활동	참여한 적 없음	참여한 적 있음		
		1~2번	3~4번	5번 이상
(1) 신체 단련활동	①	②	③	④
(2) 흡연·음주·약물·비만 예방활동	①	②	③	④
(3) 안전·응급처치활동	①	②	③	④
(4) 성교육활동	①	②	③	④
(5) 학교폭력 예방활동	①	②	③	④
(6) 인터넷 및 스마트폰 중독 예방활동	①	②	③	④
(7) 기타( )	①	②	③	④

문2. 최근 1년간 다음과 같은 '과학정보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습니까?

과학정보활동	참여한 적 없음	참여한 적 있음		
		1~2번	3~4번	5번 이상
(1) 모형 및 로봇활동	①	②	③	④
(2) 컴퓨터 및 인터넷 활용활동	①	②	③	④
(3) 우주천체활동	①	②	③	④
(4) 정보캠프활동	①	②	③	④
(5) 영상매체활동	①	②	③	④
(6) 기타( )	①	②	③	④

문3. 최근 1년간 다음과 같은 '교류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습니까?

교류활동	참여한 적 없음	참여한 적 있음		
		1~2번	3~4번	5번 이상
(1) 청소년국제교류활동	①	②	③	④
(2) 도농(도시-농촌)간 청소년교류활동	①	②	③	④
(3) 다문화 및 국제이해활동	①	②	③	④
(4) 기타( )	①	②	③	④

문4. 최근 1년간 다음과 같은 '모험개척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습니까?

모험개척활동	참여한 적 없음	참여한 적 있음		
		1~2번	3~4번	5번 이상
(1) 등반활동	①	②	③	④
(2) 야영활동	①	②	③	④
(3) 해양 및 수상훈련활동	①	②	③	④
(4) 극기훈련활동	①	②	③	④
(5) 기타( )	①	②	③	④

문5. 최근 1년간 다음과 같은 '문화예술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습니까?

문화예술활동	참여한 적 없음	참여한 적 있음		
		1~2번	3~4번	5번 이상
(1) 문학행사, 문예창작 및 발표, 독서토론활동	①	②	③	④
(2) 미술활동	①	②	③	④
(3) 음악활동	①	②	③	④
(4) 춤·무용활동	①	②	③	④
(5) 영화, 연극, 뮤지컬활동	①	②	③	④
(6) 전통예술활동	①	②	③	④
(7) 사진촬영 및 발표활동	①	②	③	④
(8) 기타( )	①	②	③	④

문6. 최근 1년간 다음과 같은 '봉사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습니까?

봉사활동	참여한 적 없음	참여한 적 있음		
		1~2번	3~4번	5번 이상
(1) 일손돕기활동	①	②	③	④
(2) 위문활동	①	②	③	④
(3) 돌봄 및 지도활동	①	②	③	④
(4) 캠페인활동	①	②	③	④
(5) 자선·구호활동	①	②	③	④
(6) 재능기부활동	①	②	③	④
(7) 기타( )	①	②	③	④

문7. 최근 1년간 다음과 같은 '진로탐색 및 직업체험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습니까?

진로탐색 및 직업체험활동	참여한 적 없음	참여한 적 있음		
		1~2번	3~4번	5번 이상
(1) 청소년모의창업활동	①	②	③	④
(2) 경제캠프활동	①	②	③	④
(3) 진로탐색활동	①	②	③	④
(4) 직업현장체험활동	①	②	③	④
(5) 기타( )	①	②	③	④

문8. 최근 1년간 다음과 같은 '환경보존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습니까?

환경보존활동	참여한 적 없음	참여한 적 있음		
		1~2번	3~4번	5번 이상
(1) 생태체험활동	①	②	③	④
(2) 환경탐사활동	①	②	③	④
(3) 환경음식 만들기 및 재활용공예활동	①	②	③	④
(4) 환경살리기캠페인활동	①	②	③	④
(5) 환경·시설 보존활동	①	②	③	④
(6) 기타( )	①	②	③	④

문9. 최근 1년간 다음과 같은 ‘자기(인성)개발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습니까?

자기(인성)개발활동	참여한 적 없음	참여한 적 있음		
		1~2번	3~4번	5번 이상
(1) 표현능력개발 및 자기표현활동	①	②	③	④
(2) 자기탐구 및 자기존중감 향상활동	①	②	③	④
(3) 심성수련활동	①	②	③	④
(4) 기타( )	①	②	③	④

문10. 최근 1년간 참여한 청소년활동에 대한 만족도를 묻는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곳에 표시해 주십시오.

구분	참여한 적 없음	참여한 적 있음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 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참여한 청소년활동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2) 청소년활동의 내용이 흥미롭고 유익했다	①	②	③	④	⑤	
(3) 청소년활동을 지도한 선생님의 전문성에 대해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4) 청소년활동이 진행된 시설·공간과 진행에 사용된 장비에 대해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5) 청소년활동의 일정과 시간이 적절했다	①	②	③	④	⑤	

문11. 최근 1년간 청소년활동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습니까?

- ① 최근 1년간 청소년활동에 참여한 적이 없다  
 ① 아주 소극적으로 참여하였다  
 ② 소극적으로 참여하였다  
 ③ 보통이다  
 ④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⑤ 아주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문12. 최근 1년간 청소년활동에 참여하면서 자신의 발전에 얼마나 많은 기대를 하였습니까?

- ① 최근 1년간 청소년활동에 참여한 적이 없다  
 ① 전혀 기대한 것이 없다  
 ② 그다지 기대하지 않았다  
 ③ 보통이다  
 ④ 조금 기대하였다  
 ⑤ 아주 기대가 컸다

문13. 최근 1년간 참여한 청소년활동에 대해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도와주거나 지원해 주었습니까?

구분	참여한 적 없음	참여한 적 있음				
		전혀 지원이 없다	지원이 없는 편이다	보통 이다	지원이 있는 편이다	매우 지원이 많다
(1) 부모님 혹은 보호자	①	②	③	④	⑤	
(2) 학교 선생님	①	②	③	④	⑤	
(3) 친구	①	②	③	④	⑤	
(4) 청소년지도자 (청소년수련관, 문화의집 등의 청소년전문가)	①	②	③	④	⑤	





문23. 다음의 청소년활동정책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구분	전혀 모른다	들어본 적이 있다	잘 알고 있다
(1)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	①	②	③
(2)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	①	②	③
(3) 청소년어울림마당(청소년문화존)	①	②	③
(4) 청소년특별회의	①	②	③
(5) 청소년참여위원회	①	②	③
(6) 청소년운영위원회	①	②	③
(7)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 e-청소년	①	②	③
(8) 대한민국 청소년박람회	①	②	③
(9) 청소년수련활동 신고제	①	②	③

문24. 지난 1년 동안 하루 평균 여가시간(식사시간, 취침, 학교수업, 학교숙제, 학원·과외 등의 시간을 제외한 자유 시간)은 어느 정도였습니까?

(1) 평일 하루 평균 여가시간(방학제외)	평일 하루 평균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시간
(2) 휴일 하루 평균 여가시간(방학제외)	휴일 하루 평균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시간
(3) 방학 중 하루 평균 여가시간	방학 중 하루 평균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시간

문25. 다음은 ‘내가 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내용을 천천히 읽어보고 각 항목에 대해 얼마나 동의하는지 해당되는 곳에 표시해 주십시오.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가치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내가 좋은 성품을 가졌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대체로 내가 실패한 사람이라는 느낌이 든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대부분의 다른 사람들처럼 일을 잘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자랑스러워할 만한 것이 별로 없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내 자신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내 자신에 대하여 대체적으로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내가 내 자신을 좀 더 존중할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다	①	②	③	④	⑤
(9) 나는 가끔 내 자신이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느낌이 든다	①	②	③	④	⑤
(10) 나는 때때로 내가 좋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문26. 다음은 '내가 직업과 진로를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내용을 천천히 읽어보고 각 항목에 대해 얼마나 동의하는지 해당되는 곳에 표시해 주십시오.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향후 진로설정과 관련하여,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것(적성 및 소질)이 무엇인지 아직 잘 알지 못한다	①	②	③	④	⑤
(2) 향후 진로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진로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	①	②	③	④	⑤
(3) 향후 진로에 대해 잘 알고 있지만, 가보고 싶은 진로가 너무 많아 하나를 선택하기가 힘들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현재, 내가 가보고 싶은 향후 진로가 자주 바뀐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현재, 향후 진로설정에 대해 나와 부모님의 의견차이가 너무 커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6) 미래란 알 수 없는 것이므로 향후 진로를 미리 설정해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현재, 나의 향후 진로설정에서 나 자신의 의견보다는 부모님의 의견을 더 따르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문27. 다음 문항을 천천히 읽어보고 각 항목에 대해 얼마나 동의하는지 해당되는 곳에 표시해 주십시오.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건강하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학교생활을 좋아한다	①	②	③	④	⑤
(3) 나의 삶에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내가 속한 집단에 소속감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주변사람과 잘 어울린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아무런 이유 없이 외롭다	①	②	③	④	⑤
(7) 여러 가지 면에서 볼 때 나는 행복하다	①	②	③	④	⑤

문28. 다음 문항을 천천히 읽어보고 각 항목에 대해 얼마나 동의하는지 해당되는 곳에 표시해 주십시오.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주변에 어려움에 처해 있는 친구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공휴일에 쉬지 못하더라도 복지기관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우리나라보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나라를 돕기 위해 기부금을 낼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지구를 보호하기 위해 물자절약, 쓰레기 분리수거, 재활용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문29. 다음 문항을 천천히 읽어보고 각 항목에 대해 얼마나 동의하는지 해당되는 곳에 표시해 주십시오.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내가 속한 단체에서 필요로 하는 것을 잘 결정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나 자신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다른 사람에게 나의 감정을 잘 표현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어떤 일을 함에 있어 목표설정을 잘 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다른 사람을 대할 때 항상 진실한 마음을 가진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문제해결을 위해 많은 정보를 효과적으로 사용할 줄 안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어떤 일을 행할 때 각 구성원에게 책임을 맡기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우선순위를 정하여 일을 처리한다	①	②	③	④	⑤
(9) 나는 다른 사람에게 대단히 호의적인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10) 나는 어떤 지식이든지 배울 자세가 되어 있다	①	②	③	④	⑤
(11) 나는 어떤 일을 행할 때 다른 사람의 요구를 잘 고려한다	①	②	③	④	⑤
(12) 나는 어떠한 일에도 책임 있는 태도를 가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3) 나는 다른 사람을 대함에 있어 친근한 성품의 소유자다	①	②	③	④	⑤
(14) 나는 내가 속한 집단 성원들이 제기한 요구사항을 잘 수용한다	①	②	③	④	⑤
(15) 나는 타인의 말을 주의깊게 듣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16) 나는 여러 가지 대안들 중 적절한 것을 잘 선택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17) 나는 나 이외의 다른 사람들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18) 나의 의견이 잘 받아들여지도록 집단의 분위기를 잘 조성한다	①	②	③	④	⑤
(19) 나는 어떤 일을 행함에 있어 여러 가지 대안들을 고려한다	①	②	③	④	⑤
(20) 나는 항상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1) 나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2) 나는 내가 한 실수를 잘 수습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23) 나는 매사에 재치 있게 일을 처리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24) 나는 일처리 과정에서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25) 나는 다른 사람들과 잘 화합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26) 나는 나의 주장이나 생각을 타인에게 명확히 설명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27) 나는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합리적으로 사고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28) 나는 어떠한 변화도 수용할 자세가 되어 있다	①	②	③	④	⑤
(29) 나는 다른 사람에 대한 나의 매너가 좋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30) 나는 다른 사람을 신뢰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 PART II. 다음은 일반적인 질문입니다.

배경문항 1. 학생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 ① 남자                      ② 여자

배경문항 2. 학생의 나이는 만으로 몇 세입니까?

만   세

배경문항3. 학생의 학업 성적(2016년 1학기)은 반에서 대략 어디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까?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지 않으므로 솔직하게 응답해 주십시오.

매우 못하는 수준	못하는 수준	중 간	잘하는 수준	매우 잘하는 수준
①	②	③	④	⑤

배경문항4. 학생 가정의 형편(경제 수준)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까?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지 않으므로 솔직하게 응답해 주십시오.

매우 못 산다		보통 수준			매우 잘 산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 설문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 2. 정책제언 구체화

2016년도 3차 년도 연구에서는 2차 년도 연구의 4개분야 13개 과제를 13인의 전문가가 발전시킨 내용들을 토대로 연구진이 5개 분야 20개 세부추진과제로 재정리하여 제시하였다. 5개 분야는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의 개선, 청소년지도자 역량개발 및 처우개선, 청소년활동 시설 및 단체의 기능강화, 청소년활동 홍보 및 정보제공 시스템 구축, 청소년활동정책 기반조성이다. 구체적인 세부정책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의 개선의 세부정책과제는 (1) 정기적인 청소년활동 참여실태 및 요구조사 실시, (2) 환경변화에 대응한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3) 효과적인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의 특성 요인 분석 및 적용, (4) 청소년활동의 효과성 검증을 위한 중단연구 및 국제비교연구, (5) 현장 청소년지도자의 프로그램 역량 개발 등이다.

둘째, 청소년지도자 역량개발 및 처우 개선의 세부정책과제는 ①청소년지도사 직무역량 개발, ②청소년지도사 기본활동 필수교육과정 지정 및 운영, ③청소년지도사 처우개선, ④청소년지도사 배치체계 개선, ⑤청소년지도자 학교 동아리활동 코디네이터 배치 추진 등이다.

셋째, 청소년활동 시설 및 단체의 기능 강화 세부정책과제는 ①청소년수련시설의 기능 재정립, ②청소년수련시설 운영 개선 지원, ③청소년단체의 활동 기반 강화, ④청소년활동 거점시설의 확보 및 운영 등이다.

넷째, 청소년활동 홍보 및 정보제공 시스템 구축의 세부정책과제는 ①청소년활동 홍보 추진체계 구축, ②청소년활동 정보서비스 추진체계 구축 등이다.

다섯째, 청소년활동 정책 기반조성의 세부정책과제는 ①청소년활동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 ②시도 및 시군구 청소년활동진흥센터의 설치 및 기능 강화, ③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제 도입 지원, ④청소년육성기금의 조성 확대 등이다.

정책담당공무원, 현장전문가, 연구자 등을 위하여 각 영역별로 목적, 추진과제 내용, 단계별 추진계획 등을 추가로 제시하였다.

**부록표 1** 청소년활동정책 세부추진과제

정책영역	세부추진과제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의 개선	(1) 정기적인 청소년활동 참여실태 및 요구조사 실시 (2) 환경변화에 대응한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3) 효과적인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의 특성 요인 분석 및 적용 (4) 청소년활동의 효과성 검증을 위한 종단연구 및 국제비교연구 (5) 현장 청소년지도자의 프로그램 역량 개발
청소년지도자 역량개발 및 처우 개선	(1) 청소년지도사 직무역량 개발 (2) 청소년지도사 기본활동 필수교육과정 지정 및 운영 (3) 청소년지도사 처우개선 (4) 청소년지도사 배치체계 개선 (5) 청소년지도자 학교 동아리활동 코디네이터 배치 추진
청소년활동 시설 및 단체의 기능 강화	(1) 청소년수련시설의 기능 재정립 (2)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개선 지원 (3) 청소년단체의 활동 기반 강화 (4) 청소년활동 거점시설의 확보 및 운영
청소년활동 홍보 및 정보제공 시스템 구축	(1) 청소년활동 홍보 추진체계 구축 (2) 청소년활동 정보서비스 추진체계 구축
청소년활동 정책 기반조성	(1) 청소년활동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 (2) 시도 및 시군구 청소년활동진흥센터의 설치 및 기능 강화 (3)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제 도입 지원 (4) 청소년육성기금의 조성 확대

### 1)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의 개선

#### (1) 목적

청소년을 둘러싼 사회 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따라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의 내용과 운영방식에서의 변화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사회 전반적으로 글로벌화 및 다문화사회로의 진입에 따른 국경 없는 교류와 경쟁의 심화, 모바일 중심의 정보화 사회, 각 부문 간의 융합과 창조성의 중요성 부각, 취업 중심의 진로선택에서 창업과 창직의 중요성 증가, 콘텐츠산업의 지속적 성장 등 새로운 사회 환경이 조성되어 가고 있다.

청소년교육에 있어서는 인성교육과 진로교육의 중요성 부각, 인문계와 자연계의 분리 폐지

등 학교교육에서의 변화, 가정-학교-마을이 함께 하는 교육공동체 형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가, 개인의 개성과 특성을 살린 진로선택에 대한 관심 증가 등 많은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사회 환경 변화 및 청소년의 생활양식 변화는 청소년들의 청소년활동에 참여하는 방식과 프로그램에 대한 선호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청소년들의 청소년활동 참여실태와 요구의 변화추이를 지속적으로 분석하여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개선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청소년들의 청소년활동 참여방식과 프로그램 요구의 변화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여 각 청소년시설 및 단체의 프로그램 개선을 도모할 수 있도록 자료로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인성교육 및 진로교육의 확대, 마을교육사업에 대한 관심 증가, 창업 및 창직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가 등 변화에 따라 청소년 프로그램에서 새로운 컨셉의 도입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기존 실내 강좌형 프로그램에서 청소년 주도의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현장의 새로운 사회변화 추세에 맞는 청소년활동의 개발과 운영을 지원하기 정책사업이 개발되어야 한다.

더불어 청소년활동의 효과성을 과학적으로 입증하여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여야 한다.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의 효과성에 대한 분석 연구들이 늘어나면서, 효과성이 입증되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정부 지원에 의한 인증수련활동 효과성 분석 지표개발을 비롯하여 청소년활동 효과성 분석을 위한 연구들이 있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들이 산발적으로 이루어져, 과학적인 분석에 근거한 청소년활동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인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활동의 효과성을 범사회적으로 입증하기 위한 체계적인 연구 및 학술활동을 촉진하여야 한다.

따라서 사회 환경 및 청소년 생활양식의 변화에 따른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의 개선과 효과성 입증을 위한 정책방안을 개발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서 현 시대적 상황에 적합한 청소년활동을 운영하고, 청소년활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함으로써 청소년활동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2) 추진과제

### ① 정기적인 청소년활동 참여실태 및 요구조사 실시

## ○ 체계적인 청소년활동 요구 조사도구 개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대학 등 전문 연구기관에서 청소년활동에 대한 청소년의 요구조사 도구를 과학적으로 개발한다. 청소년활동 참여실태 조사도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개발한 조사도구를 활용한다. 청소년 요구조사에 관한 국내외 문헌, 선행연구, 관련 자료 등을 수집하고 분석하여 조사도구 개발에 참조한다. 국내외 청소년의 활동에 대한 요구조사, 청소년활동의 필요성, 청소년활동의 효과 검증, 청소년활동의 활용방안 등에 관한 기존의 단행본 및 연구물을 조사하여 요구조사의 주요 방향을 설정한다. 학계 및 현장전문가, 청소년정책 관련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요구조사 도구 개발 및 조사 방법 등을 논의하는 자문회의를 실시한다. 또한 청소년활동에 여러 번 참여한 경험을 가진 청소년을 중심으로 청소년그룹, 청소년활동 현장전문가 그룹, 청소년활동 관련 학계 및 연구자 그룹 등으로 전문가 집단을 구성하여 델파이조사를 실시한다. 요구조사 도구를 개발할 때에 청소년의 성별, 나이, 교급, 학교밖 청소년, 장애청소년, 다문화청소년 등 다양한 사회문화적 배경을 고려하여 대상 유형별로 적합한 조사도구를 개발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요구조사 도구를 개발하고,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청소년활동 요구조사 도구를 확정하여 조사에 사용한다.

## ○ 격년 주기의 정기적인 조사의 실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또는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의 고유과제로 '청소년활동 참여실태 조사'와 '청소년활동 요구 조사' 등 2개의 조사를 편성하여 매년 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방법은 사회조사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조사를 실행한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과 시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의 조직체계를 활용하여 전국적인 조사를 실시하는 방식을 도입하는 것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시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에서 해당지역의 조사를 주관하여 실시하면서, 각 지역별 초·중·고등학교, 다문화센터, 장애인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등 청소년 관련기관들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전국적인 청소년대상 조사체계를 갖추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다. 조사 대상은 초중고교급별 학생청소년, 학교밖청소년, 다문화청소년, 장애청소년 등 청소년의 다양한 유형을 고려하여 표집하고 조사를 실시한다.

## ○ 조사결과의 분석 및 보급

2개의 조사도구를 활용하여 실시한 조사 결과는 매년 결과보고서로 작성한다. 이때 청소년활동 참여실태 조사와 청소년활동 요구 조사는 각각 격년을 주기로 반복하여 조사하고, 격년 주기의 조사결과를 비교분석한다. 이를 통해서 청소년의 활동참여 실태와 청소년 요구의 장기적인

변화 추이를 분석한다. 조사결과를 분석한 보고서를 책자 및 PDF파일 등으로 제작하여 청소년시설 및 단체, 행정기관, 연구기관 등 관련기관에 배포하여 정책개발 및 프로그램 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 ② 환경변화에 대응한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 ○ 인성교육, 진로교육 등 학교교육 연계된 프로그램의 개발 보급

학교교육에서 인성교육, 진로교육, 자유학기제 등이 제도화되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비교과 또는 교과연계 교육활동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서 지역사회와 연계한 학교의 체험활동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가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청소년시설 및 단체도 학교의 요구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청소년시설 및 단체들에서 학교연계활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인성교육, 진로체험활동, 자유학기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여 보급한다.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및 시도별 청소년활동진흥센터 등에서 개발하고, 학교와 연계하여 시범운영의 과정을 거쳐서 프로그램의 개발을 완성한다. 개발된 프로그램의 보급은 청소년지도자연수센터에서 직무교육 과정의 형태로 연수를 실시하여 보급한다.

프로그램 개발은 청소년지도사, 교사, 청소년활동 연구자 등 전문가들이 팀을 이루어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개발하고, 학교와 연계하여 시범운영을 거쳐서 프로그램으로 확정한다. 개발된 프로그램의 보급은 매뉴얼 제작과 청소년지도자 연수과정 운영을 통해서 보급한다. 즉, 개발된 프로그램에 대한 청소년지도자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청소년지도자들이 매뉴얼을 활용하여 프로그램 운영방법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한다.

### ○ 마을교육 연계 프로그램의 개발 보급

사회적으로 청소년 교육에 대한 새로운 관점이 마을교육 공동체 형성 및 마을교육 활성화 등으로 확산되면서,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이 강화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인 현상에서 청소년시설 및 단체는 청소년활동의 전문기관으로서 지역사회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청소년활동 시설은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에서 지역사회와의 관계성을 대폭 확대하고, 프로그램에 있어서도 강사 중심의 강좌형 교육활동 보다는 지역사회활동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서 마을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기존의 우수사례들을 발굴하여 현장에 보급하여야 한다. 즉, 청소년시설에서 주도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마을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기존의 우수한 마을교육 프로그램 운영 사례를 수집하여, 청소년활동 시설 및 단체에 보급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마을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및 시도별 청소년활동진흥센터 등에서 개발과 시범운영의 과정을 거쳐 개발한다. 개발된 프로그램은 매뉴얼로 제작하여 청소년 시설 및 단체에 보급한다. 뿐만 아니라 이 프로그램을 청소년지도자연수센터에서 직무교육 과정으로 편성하여, 청소년지도자들이 직접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기존 마을교육 프로그램 우수 사례를 수집하고 매뉴얼로 제작하여 현장에 보급한다. 우수사례의 매뉴얼화는 해당 프로그램 보유 기관과 협의하여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자와 외부 전문가가 함께 매뉴얼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매뉴얼화 된 우수 사례에 대해서는 청소년지도자연수센터의 직무교육에서 관계자의 사례발표를 통해서 지도자들의 이해를 높인다.

#### ○ 공공지원 우수 프로그램 보급 활성화

##### - 청소년활동공모사업 등 공공재원이 투입된 프로그램의 확산과 보급

우수프로그램의 보급은 청소년현장의 동반 상승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필요한 사항이다. 특히 공공의 재원이 투입된 프로그램이나 사업 중에서 우수한 프로그램은 적극적으로 보급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청소년활동 공모사업의 경우, 우수 프로그램으로 선정될 경우 해당 프로그램의 운영 지도안을 포함한 매뉴얼을 작성하는 단계까지를 과업범위에 포함하여 지원하고, 매뉴얼이 작성된 후에는 전국 시설 및 단체에 배포하여야 한다. 매뉴얼화 단계에서는 해당 프로그램의 기획 및 운영자, 외부 전문 연구자가 함께 협업하여 매뉴얼로 제작할 수 있도록 비용을 지원한다. 국립청소년시설의 경우 기존 특성화프로그램 운영매뉴얼을 배포하고 시범운영을 실시하며 프로그램을 보급하고 있다. 더 나아가서 우수한 프로그램의 청소년 현장으로의 확산을 위하여 보급방법을 다양하게 개발할 필요가 있다.

##### - 공모사업에서 프로그램의 다양성을 저해하는 요소를 검토하여 폐지

여성가족부의 2016년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공모사업 공고를 보면, 예산은 15백만원 내외 정도를 기준으로하고 있는데 이는 사업 예산의 한정으로 인하여 프로그램 기획자의 사고와 사업의 확장성을 제한할 수 있다. 한정된 재원으로의 어려움으로 인한 사항이라면 선정 프로그램

의 수를 조정해서라도 현장의 우수한 프로그램이 발굴되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리고 신청 기관이나 지역, 타 분야와의 컨소시엄을 통한 공모지원 및 사업운영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 가족·학교·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 운영·확대를 위한 컨설팅지원단 운영

- 컨설팅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가족·학교·지역사회 연계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의 운영 확대는 실질적으로 국가 단위의 대안으로 접근하기에 한계가 있다. 또한 각 지역마다의 상황과 환경, 욕구 등의 차이가 매우 뚜렷하여 큰 방향성을 제시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각 지역별 상황별 접근과 대안을 모색할 수 있는 중앙 단위의 컨설팅 지원단을 운영하는 형태의 문제해결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중앙단위에서 가족·학교·지역사회 연계프로그램 컨설팅지원단을 구성하여 운영한다. 중앙에서 구성될 컨설팅지원단의 위원들은 현재 인증심사원 체계나 각종 심사지원단 등의 구성원들을 중심으로 구성한다면 보다 손쉽게 구성될 것이다. 컨설팅과정에서 우수사례 발굴과 공유 등을 통해 지역별 적용 사례개발이 가능할 것이다. 현재 지방교육지원청 단위로 운영되고 있는 교육복지사업 컨설팅이나 학업중단 컨설팅 사업 등과 유사한 방식이거나 협력하여 진행할 수 있다면 보다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안이 만들어 질 것이다.

- 지역사회의 프로그램 지원 방식으로 연계 활성화

한편, 청소년수련시설이 반드시 중심이 되어 운영하는 연계 프로그램보다는 지역사회, 가정, 학교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함께하는 방식으로 연계의 폭과 규모를 늘려가는 방식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마을공동체나 학교 등에서 진행되는 사업에 전문인력을 파견하거나, 예산을 지원하고, 시설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지역사회내의 청소년분야의 지원기관 역할을 한다면 앞서 얘기된 다양한 문제들의 공통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③ 효과적인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의 특성 요인 분석 및 적용

○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의 특성 요인 분석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의 가치 및 성공요인 등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그동안 청소년활동 시설 및 단체 등에서 다양한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며, 여러 연구들을 통해서 효과성이 다양하게 입증되고 있다. 반면에, 청소년활동의 효과성을 가져오는 프로그램의 운영방식 등에서의 특성을 찾아내는 노력은 아직 미흡하다. 이로 인해 바람직한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이 갖추어야 할 특성이 무엇인지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가부의 청소년활동 공모지원사업 등에서, 프로그램을 공모하여 선정·지원·포상하는 과정에서 적용되는 기준들이 있다. 이러한 기준들은 바람직한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이 갖추어야 할 특성을 체계적으로 분석한 이론적 근거를 갖고 있기보다는, 현장 사례에 대한 경험을 토대로 만들어진 경향이 있다. 따라서 바람직한 청소년활동 및 청소년 프로그램의 특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학술적으로 분석하고 검증하여 이를 현장에서도 반영해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의 특성요인 분석 연구 실시한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또는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등에서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의 특성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연구를 실시한다.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을 체험활동, 동아리활동 등 현실적으로 구분 가능한 형태별로 바람직한 특성요인을 분석하여 제시한다. 주요 우수 프로그램 및 사례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서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의 성공요인, 주요 특성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분석된 특성요인에 대한 설명자료 및 운영매뉴얼을 개발하며, 청소년지도자 연수과정을 통해서 현장에 보급한다. 이를 통해서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이 타분야의 청소년 프로그램과 차별성을 구축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 ○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의 특성에 대한 보급 확산

##### - 분석된 성공적인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의 특성에 대한 보급 및 확산

성공적인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의 특성에 대한 현장의 인식 확산을 위해서 분석 내용을 매뉴얼로 제작하여 현장에 보급한다. 아울러 분석 내용을 각종 공모사업의 심사기준 및 컨설팅 지침으로 활용하고, 분석 내용에 맞는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보급함으로써 현장의 이해를 높이도록 한다.

##### -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의 특성에 대한 청소년지도자 교육 실시

청소년지도자 직무연수, 청소년지도사 보수교육 등 다양한 청소년지도자 교육활동에서 청소년활동의 특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또한 여가부의 공모사업, 지자체의 각종 공모사업, 청소년수

런시설평가 등 여러 정책사업 분야에서 청소년활동 특성을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제공한다.

#### ④ 청소년활동의 효과성 검증을 위한 종단연구 및 국제비교연구

##### ○ 청소년활동의 효과성 검증을 위한 종단연구

청소년활동의 효과성에 대하여 단편적으로, 일시적으로 연구되어오던 것을 개선하고자 전문연구팀을 선정하여 청소년활동의 효과성에 대한 전문적인 종단연구를 수행하여야 한다. 우선 청소년활동의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양적연구와 질적연구를 병행하며, 효과성을 입증하기 위하여 관련한 지표를 개발하여야 한다. 이는 지역사회내의 청소년활동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중요한 기초자료와 증빙자료가 될 수 있으며 청소년활동의 효과성이 입증된다면 청소년활동의 활성화는 물론 다양한 공교육과정과의 연대도 가능해 질 수 있다.

청소년활동의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청소년활동이 공교육만큼 그 중요성을 인정받고 있는 유럽사례에 대한 면밀하고 객관적인 분석이 요구된다. 이를 위하여 청소년활동 종단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기관(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등)과 전문연구진의 확보가 선행되어야 하며, 안정적인 예산확보가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 ○ 청소년활동의 효과성 검증을 위한 국제비교연구

국제교육협회(IEA: International Education Association)의 경우 교육과 관련한 다양한 국제비교연구를 수행해오고 있다. 우리나라도 청소년 시민역량에 관한 국제비교연구에는 2016년 현재까지 3번째 참여하고 있다. 또 국제교육협회는 교육의 영역을 공교육과 학교밖 교육, 즉 청소년활동을 모두 아동과 청소년에게 필요한 교육으로 보고 있으므로, 이와 관련하여 국제비교연구에 참여하는 것도 가능하다.

유럽연합은 유럽연합차원에서 이미 2014년에 Working with young people: the value of youth work in the European Union이라는 청소년활동 효과성에 대한 보고서를 발행한 바 있다. 위의 보고서는 유럽연합 회원국들 간의 청소년활동에 대한 비교연구와 그 결과로서 유럽연합은 청소년활동이 크게는 특정 기술과 역량을 개발하며, 청소년의 네트워크와 사회적 자원을 강화하고, 청소년의 문제행동을 수정하는데 기여한다고 보았다. 이 보고서 뿐만 아니라 유럽연합은 이미 청소년활동에 대한 유럽연합 내 비교연구를 통하여 청소년활동의 효과성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오고 있어 청소년활동이 청소년정책 안에서 중요한 영역으로 다루어질 수 있는 근거가 되고 있다.

그러므로 한국 역시, 한국과 유사한 청소년활동이 이루어지는 국가들과 더불어 청소년활동의 효과성에 대한 국제비교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 이때 한국이 주도가 되어 청소년활동에 대한 국제비교를 수행한다면, 이는 청소년활동의 무대를 해외로 옮기는 일이 될 뿐만 아니라, 청소년의 글로벌 역량을 개발하는 일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청소년과 관련한 국제교류 뿐만 아니라 국제비교연구 수행 같은 전문적인 활동과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때이다.

### ○ 청소년활동의 체계화된 연구와 연구 결과물 공유

#### - 청소년활동의 효과성 검증을 위한 연구시스템 구축

청소년활동의 효과성 검증은 소수 연구자의 연구로만 이루어질 수 없으므로, 지역 내, 시·군·구에서 청소년시설과 청소년활동을 대표할 수 있는 기관을 선정하여 이곳의 청소년지도자(기관장)이 청소년활동 효과성 검증을 위한 종단 연구에 참여하도록 한다. 다만 청소년시설의 특성상, 순환보직이 이루어지거나, 위탁이 연장되지 않는 경우를 감안하여, 특정인을 연구 참여자로 하기보다는, 기관이나 시설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으로 연구 인력을 구성하여야 한다. 청소년관련 학과 교수협의회와, 국립청소년시설의 대표자들로 청소년활동 효과성 검증 연구팀에 포함하며, 이때 지역간, 청소년시설간, 학교급간의 균형을 맞추어 연구진을 구성한다.

#### - 장기적인 예산 지원을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법제화 추진

청소년기본법이 국가가 매5년마다 청소년정책기본을 수립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것처럼, 청소년 관련법에 청소년활동 효과성 검증을 위한 국가적 연구 수행에 대한 중앙정부의 책임과 역할을 반드시 명시할 수 있도록 관련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 - 청소년활동의 효과성에 대한 연구결과 공유와 홍보활동을 전개

청소년활동의 효과성을 구체적으로 알리기 위하여, 청소년활동 거점 홍보센터를 지정하여 활용하는 방안이 가능하다. 청소년활동 거점 홍보센터의 지정 및 운영에 대해서는 뒤에서 자세하게 제시하였다.

청소년과 부모, 교사와 지역사회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청소년활동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과 결과에 대하여 그들의 언어로 홍보되고 공유되어야 한다. 이때 연구결과물에 대한 다양한 홍보매체와 방법이 강구되어야 하며, 국가적으로 전국적인 캠페인이나 동영상, 공익광고, 홍보물 제작, 및 배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청소년 친화적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사업의 초기부터 평가까지 청소년이 반드시 참여할 수 있는 플랫폼이 마련되어야 한다.

####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예산지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관련 예산을 확보하여 청소년활동의 효과성에 대하여 올바른 이해를 돕고 기존의 선입관이나 편견이 제거될 수 있기 위하여 지원해야 한다. 청소년활동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연구대상에 청소년뿐만 아니라, 부모, 학교 및 지역사회를 포함하도록 해야 한다.

#### - 청소년활동 검증을 위한 연구 인력 확보

청소년활동 검증은 과학적인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가집단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쉽지는 않으므로 종단연구와 국제비교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청소년관련 학과 대학원 연구 인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 - 청소년관련 연구방법론의 특성화 및 체계화

관련 대학원에서 청소년활동의 효과성에 대한 종단연구와 국제비교에 대하여 소개됨으로써 신진연구자들이 관련 연구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사회복지분야에서는 사회복지조사론이라는 관련 연구방법론이 비교적 체계화되어 있고 사회복지의 특성을 반영한 독창적인 연구방법론이 끊임없이 개발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청소년활동 분야에서는 독립적인 연구방법론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교육학, 사회학, 사회복지학 등의 인접학문의 연구방법론을 차용해서 쓰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므로 청소년활동 검증을 위해서라도 청소년학의 특성을 반영한 독립적인 연구방법이 수립될 수 있기 위한 전문적인 연구도 필요하다.

#### ⑤ 현장 청소년지도자의 프로그램 역량 개발

#### ○ 현장의 프로그램 연구 활동 지원

- 청소년지도자 연구모임 및 학습동아리 운영 지원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의 질적 개선에 관심을 가진 현장 청소년지도자들이 정보를 교류하고 연구 활동을 하는 등 자신들의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학교 교사의 경우 교과별 교사연구회가 전국적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교사들의 교육활동을 개선하는 현장연구를 지원하는 다양한 사업이 수행되고 있다.

청소년분야에서도 다양한 청소년활동 현장지도자 연구모임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연구모임이나 학습동아리 등 다양한 형태로 학습조직을 구성하고,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운영비를 지원한다.

- 현장 청소년지도자 대상 연구 활동 공모 및 지원 사업 실시

현장 청소년지도자들이 청소년활동 현장에서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기관 및 조직 운영, 지도자들의 역량개발 및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주제를 선정하여 연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청소년지도자들이 개인 또는 소그룹으로 연구과제를 개발하여 제안하고, 제안서를 심사하여 연구비를 지원하는 형태로 운영한다.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등에서 사업비를 확보하여 공모를 통하여 지원과제를 선정하고, 연구과정에서 대학교수 등 전문연구자는 자문을 제공한다.

- 현장 청소년지도자 연구발표회 등 학술대회의 정기적 개최

공모사업으로 지원된 현장연구의 성과를 발표하고 확산하여 공유할 수 있는 현장연구 발표회 등 학술대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한다. 공모사업 이외에 현장 청소년지도자들의 연구 활동의 결과를 발표하는 연구발표활동을 지원한다.

○ 청소년지도인력을 통한 프로그램 개발·평가·보급·환류 체계 구축

- 청소년지도사의 프로그램 개발·평가·보급·환류와 관련된 전문교육 확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조사에서 청소년시설에 종사하는 청소년지도 인력에게 실제 업무수행에 필요한 이론지식은 프로그램개발·평가(18.7%)가 1순위로 나타났고, 수련시설의 유형별로 보면 청소년수련관은 프로그램개발·평가(20.3%), 청소년정책·관련법(16.1%) 청소년지도(10.5%) 순으로, 청소년수련원은 청소년지도(20.9%), 프로그램개발·평가(17.5%), 청소년정책·관련법(12.6%) 청소년문화의집과 청소년특화시설에서도 프로그램개발·평가가 18.2%, 36.7%로 1순위로

나타났다(맹영임, 길은배, 전명기, 2010).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2012)에서 코리아리서치를 통해 조사한 청소년지도사 전문연수 요구 조사에서 가장 취약한 업무로 프로그램 기획 및 평가를 응답하였고, 프로그램기획이 취약한 것은 전문적 교육을 받지 못한 것이 원인으로 지적되었다. 따라서 청소년지도자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평가, 환류 등을 위한 전문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직무연수 등의 형태로 실시하여야 한다.

- 청소년현장전문가 중심의 컨설팅단 운영

청소년지도분야 10년 이상 경력자 중심으로 청소년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를 지원할 수 있는 컨설팅단 구성한다. 구성된 컨설팅단에게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환류 등의 컨설팅을 위한 전문교육, 위에서 제안한 청소년활동 효과측정도구 활용 등에 대한 전문교육 실시하고, 찾아가는 프로그램 컨설팅 지원 사업 등을 운영한다.

(3) 단계별 추진 계획

부록표 2 단계별 추진 계획

추진과제	세부내용	1단계		2단계		3단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정기적인 청소년활동 요구조사 실시	조사도구 개발	→					
	조사 실시 및 결과보급		→		→		→
환경변화에 대응한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학교교육 연계프로그램 개발보급	→	→	→	→		
	마을교육 연계 프로그램 개발보급	→	→	→	→		
	공공지원 우수프로그램 보급	→	→	→	→	→	→
	가족·학교·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 운영확대	→	→	→	→	→	→
효과적인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의 특성 요인 분석 및 적용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특성요인 분석	→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특성요인 보급		→	→	→	→	→

추진과제	세부내용	1단계		2단계		3단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청소년활동의 효과성 검증을 위한 종단연구 및 국제비교연구	청소년활동 효과성검증 종단연구	→	→	→	→	→	→
	청소년활동 효과성 국제비교 연구		→		→		→
	청소년활동의 체계화된 연구 및 결과 공유	→	→	→	→	→	→
현장 청소년지도자의 프로그램 역량 개발	현장 지도자 연구활동 지원	→	→	→	→	→	→
	현장지도인력을 통한 프로그램 개발·평가·보급·환류체계 구축	→	→	→	→	→	→

## 2) 청소년지도자 역량개발 및 처우 개선

### (1) 목적

청소년지도자의 열악한 근무여건이나 청소년지도자의 직무 및 직업적 전문성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나, 이를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방안이 아직까지 만들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청소년지도자연수센터를 통해서 청소년지도자의 직무역량 개발을 위한 다양한 직무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NCS를 통해서 청소년지도자 직무분석이 이루어지는 등 청소년지도자 역량개발을 추진하는 체계가 가동되고 있다. 그러나 다양한 시설 유형과 직무분야를 모두 고려한 직무분석이나 직무역량개발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현장지도자의 요구에 맞는 직무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자 직무분석 및 직무역량개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한편 청소년지도자의 직무만족도 및 근무연속성 확보를 위해서 청소년지도자 급여체계 및 복리후생을 개선할 필요성이 크게 부각되었다. 그 과정에서 청소년지도자의 근무여건 등에 관한 조사연구가 몇 차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적으로 반영된 경우는 거의 없다.

청소년지도자 급여체계는 교사나 사회복지사와 같이 특정분야에 해당하는 전국적인 표준임금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각 지자체 및 시설 운영 기관에 따라 보수체계가 매우 다양하고 급여수준의 편차도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장에서 청소년지도사의 표준임금체계

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요구되어 왔으나, 청소년수련시설은 설치자는 국가, 지자체, 회사법인, 개인 등으로 매우 다양하고, 운영도 설치자 직영, 공공법인위탁, 민간법인위탁 등 매우 다양해서 표준임금체계를 적용하기 어려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청소년지도사 표준임금체계를 마련하여 제시함으로써 적어도 국가 및 지자체에서 설립하고 운영하는 시설, 국가 및 지자체의 예산지원을 받은 시설에서는 최소 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청소년지도사의 직무역량 개발과 근무여건 개선을 통해서 청소년지도사의 직무 및 직업만족도를 높이고 근무안정성을 높이는 것은 청소년활동의 질적 개선에 매우 중요한 요인이다. 이를 통해서 능력 있는 지도자의 이직을 줄이고 청소년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청소년활동의 질적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 (2) 추진과제

### ① 청소년지도사 직무역량 개발

#### ○ 현장에 기초한 청소년지도사 직무분석

- 청소년시설 및 기관의 운영목적에 맞는 체계적인 직무분석 실시

직무분석을 통해 기관별 인력개발시스템의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개발된 NCS 직무분석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 등 다양한 시설에 맞는 다양한 요구를 포함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각 기관 특성에 맞는 직무분석을 통해 인력계획, 선발·배치, 교육훈련, 직무역량체제 구축에 효과적인 수행근거를 제공하여야 한다.

청소년 기관별 운영목적 및 성과목표를 분석하여 기관별 전문 직군을 개발하고 대표직군이 수행하는 직무에 대해 관찰, 면접, 중요 직무기록 등을 통해 직무분석을 실시한다. 전략적 직무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기존의 대표 직무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과 동시에 기관의 운영 목적 및 변화하는 사회에 대처하기 위한 기관의 전략 수행에 필요한 직군을 개발하고 해당 직군의 직무분석을 병행하여야 한다.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 지도자의 대표직무와 세부직무를 분석하여 직급별, 수행 빈도별, 중요도별 직무명세서를 작성하여 직무수행에

반영한다. 직무 수행의 주관적 경험과 결과를 지속적으로 공유하여 분석된 직무에 대한 수행 준거를 지속적으로 개선 보완한다. 과업 성과에 대한 경험적 책임, 경험적 의미, 지각하는 필요 지식 등에 대한 주관적 경험을 공유하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마련하여 직무명세서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한다.

#### - 직무분석결과 활용의 다양화

직무분석 시 해당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필요 지식, 기술, 태도의 도출, 해당 과업의 성과가 완전한 결과로 제공될 수 있는가에 대한 정도, 전체 지도과정에 있어서의 해당 과업의 중요성, 수행자의 자유 재량권 필요 정도를 분석하여 직무연수 교육자료로 활용한다.

직무별 우수 수행사례를 발굴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이를 교육 자료로 활용하고, 직무분석 체계를 점진적으로 평가보상 및 인센티브제도에 연계시켜 활용한다. 또한 직무분석내용을 통한 선발·배치를 실시하고 신입 청소년지도자 오리엔테이션 및 업무 매뉴얼에 적극 반영한다.

### ○ 청소년지도자 핵심기초역량 개발

#### - 청소년지도자 핵심기초역량 개발

청소년 기관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갖춰야할 직급별, 직군별 핵심역량군을 개발하여 직무연수에 반영하여야 한다. 핵심기초역량은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전문적 지식 또는 기술 등의 경성적 기술체계(hard skill system)와는 구분되며, 인격적 소양, 윤리적 태도, 사회적 책임으로 이를 통해 청소년지도를 실행하는데 연성적 기술체계(soft skill system)를 확립하는 것이다.

#### - 현장에서 공통적으로 필요한 핵심기초역량 발굴 및 직급별 필요역량 제시

예를 들어 청소년의 심리적 인지적 특성과 문화를 이해하고(청소년 이해역량), 맥락적 상황에서 발생한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며(문제해결역량), 청소년과의 원활한 인간관계 및 의사소통능력을 가지며(의사소통역량), 팀원들과 협력하여 일을 처리하고(팀워크역량), 청소년에게 도덕적, 윤리적 모범을 갖는 것(청소년 윤리역량) 등이 지도자가 갖출 핵심기초역량이 될 수 있다.

핵심기초역량은 직무의 성과와는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지 않지만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므로 심리적 동기가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 청소년지도자의 일터 문화를 상하관계에서 수평관계로

바꾸고 전반적 복지수준을 향상시키는 일터 질 개선을 위한 제도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기관의 비전과 목표에 맞는 역량강화시스템을 구축한다. 공통 핵심역량이 기관의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에 맞는 역량운영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 청소년지도자 핵심기초역량강화 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

직급별 청소년지도자 핵심기초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 각 역량별로 우수사례를 개발하고 역할연기, 사례연구 등을 통하여 관련 역량을 함양시키기 위한 교수방법 개발을 지원한다. 학습조직, 학습공동체(CoP), 멘토링 제도 등 현장에서 관련 역량을 함양시킬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을 제공한다. 핵심기초역량은 일상생활에서 동기를 얻기 때문에 형식적 교육훈련 기관에서의 교육 이외 현장에서 동료 사이, 선후배 사이의 자연스러운 학습과정을 통해 획득되는 특징을 보이는 바, 일터에서의 습득을 위한 제도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리더십, 문제해결능력, 합리적 의사소통능력 등 인사평가제도와 연계되어 운영될 수 있는 내용을 선정하여 보수교육 프로그램으로 개발하여 운영한다.

○ 청소년지도자의 교육요구에 부합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 청소년지도자 학습포트폴리오 운영

청소년지도자의 직무, 경력개발목표 등에 따라 학습계획을 세우고 이에 대한 학업성취를 이력화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체계(가칭 학습포트폴리오제도)를 도입한다. 청소년지도자가 자신의 경력 목표를 직무 또는 기초역량별로 설정하고 이에 대한 학습계획표를 작성하게 하여 학습참여를 지원한다. 이를 통해 실제로 자신에게 필요한 교육기회를 탐색하고 학습을 통한 업무성과 향상 및 자아실현을 위한 일터학습문화를 조성한다.

- 교육요구가 반영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기관별 청소년지도자의 교육요구조사를 실시하여 교육요구조사에 기초한 전문연수 또는 보수교육 프로그램 운영체제 구축한다. 기관별 직무분석에서 도출된 직무별 중요도와 선호도, 현재 수행 수준 등을 분석하여 중요도와 선호도가 높고 현재 수행 수준이 낮은 직무항목부터 체계적으로 교육을 수행하는 보수교육 요구조사 체제 구축한다. 환경 분석, 청소년 동향 분석 등 외부적인 변화에 필요한 새로운 역량에 대한 교육요구조사를 통해 전문연수 콘텐츠를 확대한

다. 그리고 교육결과가 다음 교육에 환류되어 개선될 수 있는 과정 간 환류시스템(Feedback system)을 구축한다.

- 청소년지도자 전문연수의 확대 운영

교육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요구되는 다양한 교육 콘텐츠 확보를 위해 평생교육기관 또는 기타 교육전문기관과의 연계성을 통해 전문연수 기회 확대 운영한다.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상담센터 등 해당 기관의 특성에 따라 요구되는 전문심화과정(예: 자격증 연계과정) 운영을 지원한다.

○ 청소년지도자 교육훈련의 현업적용도 평가 적용

- 청소년지도자 교육훈련의 평가체제 강화

현재 대다수의 청소년지도자 연수과정의 평가체제에서 학습내용에 대한 만족도(반응평가)는 이루어지고 있으나 학습한 지식, 기술 등에 대한 진단평가(사전-사후평가)는 일부 시행 중이며, 실제 현업에서 학습한 내용을 적용하고 있는가(현업적용평가)에 대한 평가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박병식, 전오진, 2015), 학습평가와 현업적용평가 시스템 구축을 통해 교육 효과성을 높여야 한다. 보수교육의 경우 청소년지도자가 기본적으로 유지·관리해야 할 학습 내용에 대해서는 학업성취도 평가를 통해 학습역량을 유지하는 학습평가시스템 구축해야 한다.

- 현업적용도 평가체제 구축

공급자 위주로 설계된 프로그램을 재검토하여 수요자 중심의 현업 교육요구조사에 기초한 프로그램을 설계 운영한다. 교육훈련 프로그램 전반에 대해 수료 후 3개월 후 본인, 동료, 상급자에게 프로그램 관련 학습내용을 현장에 적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사후현업적용도 평가시스템 구축한다. 사후 현업적용도 평가시스템 조사 항목표를 개발하여 업무 시 교육이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가를 효과적으로 평가한다. 학습전이를 높일 수 있는 교수방법(예: 역할극, 사례연구 등)을 개발하여 학습내용을 교육과정 내 체험하고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관리자가 직원의 교육 참여에 대해 긍정적 인식을 갖도록 학습에 대한 지지문화가 조성되고 교육에 대한 참여가 업무시간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교육을 통해 업무성과가 높아질 수 있다는 학습조직문화를 구축한다.

## ○ 청소년지도자 경력개발 시스템 구축

## - 실질적인 청소년지도자 경력등급체제 구축

청소년지도자 자격등급은 실질적 능력과 관계없이 학력이나 근무경력기간에 따라 자격요건이 구분되어 있어 급수간 능력 구분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청소년지도자가 기관별 특성을 고려하여 실제 경력과 능력을 변별할 수 있는 경력등급제도 및 경력 이행 경로체제를 개발한다. 현 NCS 체제에서는 직무의 난이도로 직무수행능력을 구분하였지만 특정 직급 또는 전문 분야를 반영하지 못한 청소년지도자 전반에 대한 수행능력으로 구분하여 직급별, 분야별 직무역량체제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경력등급체제 구축을 통해 업무 분야별 해당 직급(직책)별 직무역량체제를 확립하여 보수교육과 연동시켜 운영한다. 관리직과 전문직(예: 프로그램 운영) 등 주요 직무 분야를 나누어 경력개발체제를 구축한다. 다양한 직무에 대한 경력개발체제를 구축하고 서로 다른 직무체계 간 경력이동 기준을 마련하여 유연한 경력이동경로체제를 구축한다.

## - 경력 연수제도 강화

체계화된 경력등급제가 마련되면 경력에 맞는 직무능력, 핵심기초역량에 해당되는 연수프로그램을 설계하여 제공한다. 일부 연수프로그램의 결과는 수평적, 수직적 경력이동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도록 평가체제를 구축하여 연수 참여를 독려한다. 연수기관 및 연수 방법의 다양화를 통해 직무연수기회를 확대한다. 예를 들어 합숙형태를 벗어나 근무여건이나 상황을 고려하여 학습모듈별로 운영한다든지, 멘토링, 코칭, OJT 등 현장에서 교수할 수 있는 교육자를 양성하여 현장 지도기회를 확대하거나, 거점 교육장소를 만들어 교육 접근성을 높인다.

## - 경력인증시스템 구축

지도자의 경력을 인증할 수 있는 개인 경력관리 통합 시스템을 구축하여 경력에 관한 이력, 학습에 관한 이력, 평가에 관한 이력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경력을 인정하는데 있어 과제(프로젝트) 참여 여부와 결과를 시스템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부서장이 이를 관리하는 형태로 하여 경력관리에 대한 신뢰성을 높인다. 보수교육 등 의무적으로 참여하는 교육에 대한 결과를 경력인증시스템에 연동하여 교육성과를 반영한다.

##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청소년지도자연수센터의 기능강화

## - 교육프로그램 개발, 운영, 평가기능을 강화

직무별 요구되는 지식, 기술, 태도에 대한 내용을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교육프로그램 운영한다. 청소년지도자 핵심기초역량을 개발하고 직급별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정기적인 교육수요조사에 근거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과정별 교육수요조사를 통한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운영, 학습결과에 대한 지식, 기술, 태도에 대한 사전사후 평가 도입을 통한 교육 효과성 강화, 교육 후 현업적용도 평가를 통한 실무교육 효과성 강화, 다양한 전문 강사진 풀(Pool) 구성을 통한 다채로운 프로그램 운영 등을 도입한다.

## - 자격연수 운영형태의 다양화

현재의 청소년지도자 자격연수 시간은 30시간 이상으로, 청소년상담사가 100시간 이상인 점을 감안하면 자격연수의 시간을 대폭 늘릴 필요가 있다. 자격연수의 운영형태도 3박4일 1회로 끝내지 않고 다양한 주제(예: 프로그램 개발, 조직관리 등)를 가지고 다양한 방법으로(예: 직무순환이 포함된 현장실습, 연수원 연수, 교육요구분석에 기반 한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등) 운영한다.

## - 청소년지도자 보수교육 강화

경력등급체제를 새롭게 구성하여 경력단위별 필요 역량 및 경력개발체제와 연동된 보수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온라인교육, 현장 중심 교육 등 다양한 교육방법을 통한 유연한 보수교육 운영체제를 확립한다. 지역 거점 교육시설 등 교육자의 접근성이 고려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관련 시설에서는 학교, 기업, 지역사회가 연계하여 주중, 주말 및 방학을 활용한 청소년 문화 프로그램을 실시토록 한다. 보수교육 평가 및 인사 체제와의 단계적 연동을 통한 청소년지도자의 전문성 질 관리체제를 구축한다.

## - 전문연수 강화

현재 전문연수의 참석은 의무화되지 않아 자발적인 참여로 유지되며, 현장의 인력부족, 교육에 대한 소모적 인식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요구조사에 근거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참여 동기를 독려하고, 교육 참여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예:

단계적 인사평가제도와 연계)하여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고취시킨다.

전문연수 운영에 있어 지역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하고, 경력개발에 필요한 자격증 교육 등 대상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운영하고 지원한다. 일터학습(예: 멘토링, 학습공동체)을 통한 전문연수 지원체제를 지원하고 관련 지식과 매뉴얼을 보급한다.

- 청소년지도자 직무연수의 컨트롤 타워 역할 수행

직무연수 프로그램 대상과 형태를 다양화함으로써 청소년지도자연수센터의 관리영역을 기관 외로 확대시킨다. 타기관의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다양한 교육경험과 결과를 경력개발시스템과 연동할 수 있는 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질 관리 및 교육성과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② 청소년지도사 기본활동 필수교육과정 지정 및 운영

○ 청소년지도사의 전문성 명료화

청소년지도사의 전문성은 국가자격으로서 필요한 교육과정의 이수와 자격검정 절차를 거쳐서 국가자격을 발급함으로써, 청소년지도사라는 국가자격의 형식적인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 청소년수련시설 등 현장에서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은 대체로 청소년지도사들이 직접 운영하기 보다는, 핵심 프로그램 콘텐츠를 보유한 전문강사 및 외부 자원을 활용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결과로 청소년지도사들은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을 위해서 외부 전문가의 코디네이팅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가 보편적이다. 이러한 코디네이팅 역할은 지역사회 자원연계의 측면에서도 그 중요성이 부각되어 있기도 하다. 그러나 현장에서 청소년지도사의 업무가 프로그램 코디네이팅을 중심으로 진행되면서, 청소년지도사의 프로그램 콘텐츠에 대한 전문성이 모호해지는 경향이 있다.

과거에 청소년지도사의 자격검정에서 특정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검증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2005년 3월 청소년기본법시행령이 전면 개정되어 시행되기 이전에는 2급 및 3급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과목에 야외활동, 동아리활동, 자원봉사활동, 문화예술활동 등 13개의 전문선택영역에서 1과목을 선택하여 시험을 응시하도록 한 바 있다. 이를 통해서 청소년지도사들이 특정 영역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유도하는 제도였다. 그러나 현재는 청소년지도자들이 개인적인 관심과 노력으로 진로지도 등 특정 콘텐츠에 대한 전문성을 개발하여 직접 프로그램을

지도하는 경우도 있으나, 전반적으로 청소년지도사의 업무가 지역자원 코디네이팅 방식으로 수행됨으로써 특정 콘텐츠를 직접 지도할 수 있는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 자격검정제도 보완을 위한 청소년지도사 기본활동 필수 교육과정 운영

#### - 청소년지도사의 기본활동의 선정

청소년지도사 검정과목이 청소년이해 및 지도방법 등 일반적인 교과목을 필수로 이수하도록 되어 있는 반면에 청소년활동 영역에 대한 검정과목은 반영되어 있지 않다. 뿐만 아니라 청소년지도사 양성이 대학 및 전문대학, 사이버대학, 학점취득인정기관 등 매우 다양하게 확장되고 있으나, 현장실습이나 특정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검증하는 체계가 갖추어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청소년지도사의 필수적인 활동지도 영역을 선정하여 상시적인 교육과정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청소년지도사들은 현장에서 청소년에 대한 이해 및 청소년지도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것으로 인정받고 있다. 특히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의 기획 및 운영관리, 청소년참여 및 자율활동 지도, 청소년 동아리활동 지도 등의 분야에서는 차별화된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지도사가 현장에서 실무적으로 가장 많이 담당하게 되는 청소년참여활동, 청소년 동아리활동, 청소년상담, 청소년문제행동지도, 주말체험활동, 청소년축제활동, 지역사회자원개발 및 연계 등과 같은 활동관련 업무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 분석을 통하여 청소년지도사의 기본활동으로 선정한다.

#### - 청소년지도사의 기본활동에 대한 필수 교육과정 운영

선정된 청소년지도사의 기본활동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를 통하여 청소년지도사 필수 교육과정으로 개발한다. 그리고 청소년지도사 연수센터에 각 기본활동별로 필수 교육과정을 편성하여 운영한다. 청소년지도사 기본활동 필수 교육과정은 모든 청소년지도사 및 현장의 청소년지도자들이 무료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 청소년지도사 자격연수 및 보수교육에 의무적으로 반영하여 운영하고, 직무교육 과정 등에서도 운영한다.

### ③ 청소년지도사 처우개선

## ○ 청소년지도사 표준임금표 제시

## - 청소년지도사 처우 문제 공론화

사회복지사의 경우는 사회복지사협회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사의 처우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직능별 및 직급별 표준임금표를 책정하여 적용하고 있다. 청소년지도사도 연구기관이나 국립시설 등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신들의 권익을 보장받기 위한 의견을 정리하여, 현재 수행하고 있는 자격기준, 직무수준 및 업무량 등을 고려한 직급별 또는 직능별 표준임금표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 - 중앙정부 차원에서 청소년지도사에 대한 보수 가이드라인 제시

보건복지부의 경우 매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사회복지사 포함)에 대한 기본급 권고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청소년분야에서는 서울시의 경우 시가 운영하는 청소년시설에 대한 표준임금표를 제작, 적용하고 있다. 일부 지자체의 경우 청소년수련시설 종사자의 급여를 공무원 급여나 사회복지사 기본급 권고 기준을 준용하는 경우가 있다. 민간단체 또는 종교법인이 위탁 운영 중인 청소년수련시설의 경우는 독자적인 임금 기준을 적용하기도 한다.

이러한 사정으로 인해 유사한 청소년수련시설에 근무하는 청소년지도사들 사이에도 급여가 상이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위화감을 느끼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차원에서 표준임금표를 제시해야 한다.

## - 청소년지도사의 급여 산정에 있어서도 생활임금과 전문성의 관점 적용

김형주 외(2014)의 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자의 50% 이상의 청소년지도사의 경우 초임 연봉 수준을 2천만원~2천5백만원 수준으로 생각하고 있다. 청소년지도사들에게도 어느 정도의 생활의 질,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급여가 보장되어야 하며, 청소년지도사들의 역량, 교육수준 등도 충분히 고려될 필요가 있다.

## - 공무원/사회복지사 기본 급여수준 고려 청소년지도사 표준임금표 책정

서울시와 성남시 그리고 대구시 등에서는 청소년수련시설에 종사하는 청소년지도사의 급여 책정시 공무원 또는 사회복지사의 급여수준을 참고하고 있다. 아울러, 이들 지역 이외의 청소년수련시설에 종사하는 청소년지도사들에 대한 급여는 배치지도사를 기준으로 삼거나, 위탁 운영

법인의 독자적인 급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배치지도사 기준은 워낙 낮아 생활을 하기 힘들기 때문에 공무원 또는 사회복지사의 급여 수준을 참고하여 표준임금표를 책정할 필요가 있다.

- 청소년지도사의 전문성에 대한 지원과 보상체계 도입

청소년지도사의 역량 강화를 위한 복리후생적 차원(예, 교육훈련수당)의 지원과 전문성에 대한 정당한 보상체계(예, 자격증 수당, 대학원 경력 호봉 산정 등)를 구축해야 한다.

#### ④ 청소년지도사 배치체계 개선

##### ○ 청소년지도사 배치기준 개선

- 청소년시설, 단체의 청소년지도사 배치기준 강화 필요

사회복지관에서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업무, 시설거주 생활지도, 상담업무 등을 담당하는 사람은 사회복지사로 채용하고, 보육교직원 기준도 적게는 영유아 3명 당 1명부터 아동 20명 당 1인의 보육교사 배치 기준을 두고 있다. 이에 비해 청소년수련시설의 청소년지도사 배치기준은 수용정원 500명 기준으로 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지도사 4명(1급 1명, 2급 1명, 3급 2명), 청소년수련원은 2명(2급 1명, 3급 1명), 청소년문화의집 등 나머지 시설은 1명이다. 현재 청소년지도사 배치기준으로는 활동의 질과 안전을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청소년수련시설의 배치기준을 단계적으로 개선하여 청소년시설에서 청소년을 지도하는 종사자는 모두 청소년지도사 자격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

- 청소년수련시설의 청소년지도사 배치기준 조정

우선 1단계로 청소년수련시설 당 최소 배치기준 인원으로 청소년수련관 5명(수용정원 200명 기준), 청소년수련원 5명(수용정원 200명 기준), 청소년문화의집 5명(수용정원 200명 기준)으로 설정하고, 추가되는 수용정원 50명당 1명의 청소년지도사를 추가 배치하도록 한다. 이렇게 조정할 경우 수용정원 500명을 기준으로 수련관과 수련원은 11명의 청소년지도사를 배치하게 된다. 수용정원 200명 이하인 청소년문화의집의 청소년지도사 배치는 5명이 된다.

2단계는 청소년수련시설에 근무하는 인력 중에서 단순기능직(청소, 조리, 시설관리 등 기술 및 기능직 분야)을 제외하고 모든 인력을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보유자로 배치하도록 개선한다.

- 청소년수련시설의 청소년지도사 배치기준 조정에 따른 지원대책 수립

청소년지도사 배치기준의 조정에 인건비의 추가확보가 필수적이다. 국가 및 지자체에서 설치 및 운영하는 청소년수련시설은 해당 행정기관에서 추가적인 인건비 예산확보를 통하여 청소년지도사를 배치하도록 한다. 상대적으로 청소년지도사 추가배치에 부담이 큰 민간 청소년수련시설은 배치지도사 지원사업의 대상으로 포함시킨다.

○ 신규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인력지원 대책 수립

- 환경의 변화에 따른 인력수급 대책 필요

창의적 체험활동, 자유학기제 실시에 따른 연계 지원 등 청소년과 관련된 환경의 변화에 따라 청소년시설 및 단체 등의 적극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청소년시설 및 단체에 청소년지도사가 5명 이하인 시설이 71% 정도(청소년지도사 보수교육 대상자 등록 기준)이다. 새로운 사업이 개발되고 도입이 되었을 때는 항상 해당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운영인력에 대한 지원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청소년활동의 학교교육과의 연계에 있어서도 안정적인 인력지원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청소년현장에서의 사업영역의 확장과 학교 및 교육제도와의 연계 강화가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이다.

- 신규 사업 운영시 운영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원

소규모의 일회성 프로그램 운영 지원이 아닌, 우수 프로그램에 대한 지속적 운영가능 인력 지원을 위한 예산 확보 방안이 필요하다.

⑤ 청소년지도사 학교 동아리활동 코디네이터 배치 추진

○ 교내 청소년 동아리 활동에 대한 다양성 추구

현재 교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창의 체험 활동이나 동아리 활동은 학교의 필요에 의해 운영되거나 교사의 기준에 따라 선정되어 청소년이 단순 참여하는 구조가 많다. 청소년들의 흥미와 요구보다는 생활기록부 기입용 동아리 활동은 그 효과가 미미하다.

교내에서 운영할 동아리 구성 단계에서부터 청소년들에 자율성을 부여하여 동아리 구성에 다양성을 부여하되 최소한의 운영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는 자율방임적 운영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교내 동아리활동에 대한 교사나 청소년지도사의 역할은 커리큘럼 구성 및 계획 수립이 아닌 컨설턴트로서 조언하는 수준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

○ 교내 청소년 동아리 활동을 위한 인적 네트워크 구축

체계적인 청소년 동아리 활동 지원을 위한 수련시설 연계 및 청소년지도사 활용이 필요하다. 기존의 창의적 체험활동 및 방과 후 활동은 청소년 동아리 활동과 통합하여, 지속적이고 정기적인 청소년 활동계획을 수립한다.

교내 청소년 동아리활동 지원을 위한 별도의 부서나 지역연계 코디네이터를 배치하고 지역의 청소년 수련시설 내에도 학교 연계를 기반으로 하는 동아리활동 지원을 위한 인원을 배치하여 교내외가 연계되도록 한다.

○ 청소년지도사의 동아리활동 코디네이터 참여를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청소년 동아리활동을 지원할 청소년지도사의 연계 및 배치 관련 제도마련이 필수적이다. 청소년 수련시설과 연계를 통해 외부 코디네이터를 필수적으로 배치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 또한, 청소년 동아리 활동 코디네이터의 업무와 역할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제시한다.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청소년 동아리 활동 코디네이터 활용을 위한 재원을 별도로 확보하고, 청소년수련시설의 코디네이터 채용 시 청소년활동 전문가로서의 자격요건을 명확히 한다. 코디네이터는 청소년 동아리활동의 지원을 위하여 지역 내 청소년 수련시설과 청소년지도사 등 청소년전문가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를 학교와 공유한다.

(3) 단계별 추진 계획

부록표 3 단계별 추진 계획

추진과제	세부내용	1단계		2단계		3단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청소년지도사 직무역량 개발	청소년지도사 직무분석	→	→				
	청소년지도자 핵심기초역량 개발			→	→		
	청소년지도자 교육요구에 부합하는 프로그램 운영			→	→	→	→

추진과제	세부내용	1단계		2단계		3단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청소년지도자 교육훈련 현업적용도 평가			→	→	→	→
	청소년지도자 경력개발 시스템 구축			→	→	→	→
	청소년지도사 연수센터 기능강화	→	→	→			
청소년지도사 기본활동 필수교육과정 지정 및 운영	청소년지도사 기본활동 필수 교육과정 개발	→					
	청소년지도사 기본활동 필수 교육과정 운영		→	→	→	→	→
청소년지도사 처우개선	청소년지도사 표준임금표 개발	→					
	청소년지도사 표준임금표 시행		→	→	→	→	→
청소년지도사 배치체계 개선	청소년지도사 배치기준 개선	→					
	신규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인력지원		→	→	→	→	→
청소년지도자 학교 동아리활동 코디네이터 배치 추진	교내 동아리활동 지원 인적 네트워크 구축	→	→	→	→	→	→
	청소년지도사 배치를 위한 제도 운영		→	→	→	→	→

### 3) 청소년활동 시설 및 단체의 기능 강화

#### (1) 목적

사회 환경 변화에 따른 청소년활동시설의 새로운 기능 정립이 필요하다. 현재의 청소년활동시설의 설치 및 운영기준은 2004년에 제정에 청소년활동진흥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하고 있다. 청소년활동진흥법의 청소년수련시설 관련 조항은 시설유형의 분류 등에서 일부 변화가 있었으나, 주요 내용은 1991년 12월에 제정된 청소년기본법의 주요 내용을 계승하고 있다.

1991년 12월 청소년기본법 제정 이후로 25년 이상의 시간이 지나면서 사회 환경과 청소년의 생활양식도 크게 변화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청소년활동의 새로운 방향정립을 위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청소년활동과 관련된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 청소년활동신고제 등 새로운 정책도 이미 시행되고 있다. 또한 학교 교육과정에서도 창의적

체험활동, 인성교육, 진로교육, 자유학기제 등의 운영에서 지역사회와 연계를 강조하는 등 학교와 지역사회 체험활동과의 관계도 급속하게 변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과정의 변화가 자연권 청소년 수련시설뿐만 아니라 생활권 청소년수련시설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청소년단체의 역할과 여건 개선 필요성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청소년단체활동은 그동안 학교 단위로 조직을 구성하고 학생 청소년 중심으로 운영되던 교내 청소년단체활동이 위축되면서 여러 가지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청소년단체에서도 지역단위 청소년단체활동 조직화 추진 등을 비롯한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인구의 급속한 감소와 사회 전반적인 청소년단체활동에 대한 관심의 감소로 청소년단체의 회원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

반면에 사회 전분야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과 조직사업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사회 전반적인 인구감소에도 불구하고 문화, 복지, 교육, 체육, 관광,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여러 가지 시설과 공간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들 지역사회 자원들은 대부분 청소년을 주요 이용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이러한 지역사회 자원들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청소년활동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러한 사회환경 변화에 따라 청소년활동시설 및 청소년단체의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청소년시설 및 단체의 재정적 불안정성을 보완해주는 세제지원 등 여러 가지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다양한 지역사회 자원의 효과적인 활용을 통하여 사회 전반적으로 청소년활동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이 필요하다.

따라서 청소년활동의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조직체인 청소년활동시설과 청소년단체가 사회환경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청소년시설 및 단체 등 청소년활동의 현장 조직의 기능과 운영을 활성화시킴으로써, 청소년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 (2) 추진과제

### ① 청소년수련시설의 기능 재정립

#### ○ 시대 환경에 맞는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 모형의 재정립

- 청소년수련시설 운영모형에 개선을 위한 연구 실시

청소년활동시설에 대한 규정은 청소년활동진흥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해서 시설유형, 시설규모, 시설공간 및 설비, 시설운영기준, 안전관리기준 등이 규정되어 있어서 청소년활동 시설의 설치 및 운영모형으로 적용되고 있다. 현재의 청소년활동 시설관련 규정들은 1991년 12월에 제정된 청소년기본법을 근간으로 2004년에 제정된 청소년활동진흥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최초 제정 이후 25년의 시간이 지남으로써 그 동안에 많은 사회 환경이 바뀌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청소년수련활동 및 청소년수련시설의 재정비를 위한 종합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등 전문 연구기관에서 종합적인 청소년수련시설 운영모형 개발 연구를 실시하여, 각 시설유형, 시설별 규모, 공간 및 설비, 운영기준, 안전관리 기준 등을 전반적으로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새로운 청소년수련시설 모형을 개발한다.

#### - 새로운 청소년수련시설 운영모형에 따른 관련 법령과 지침 개정 및 시행

새로 연구개발 된 청소년수련시설 운영모형의 내용을 반영하여 청소년활동진흥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청소년수련시설 운영관리 지침에 반영하여 시행한다. 그리고 개선된 법령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개선을 위한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확보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일차적으로 신규로 설치되는 시설에 대해서 새로운 운영모형을 적용하고, 단계적으로 기존 시설에 대한 기능개선 추진한다. 기존 시설에 대해서는 국가 및 지자체가 설립한 시설을 대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단계적으로 기능개선 추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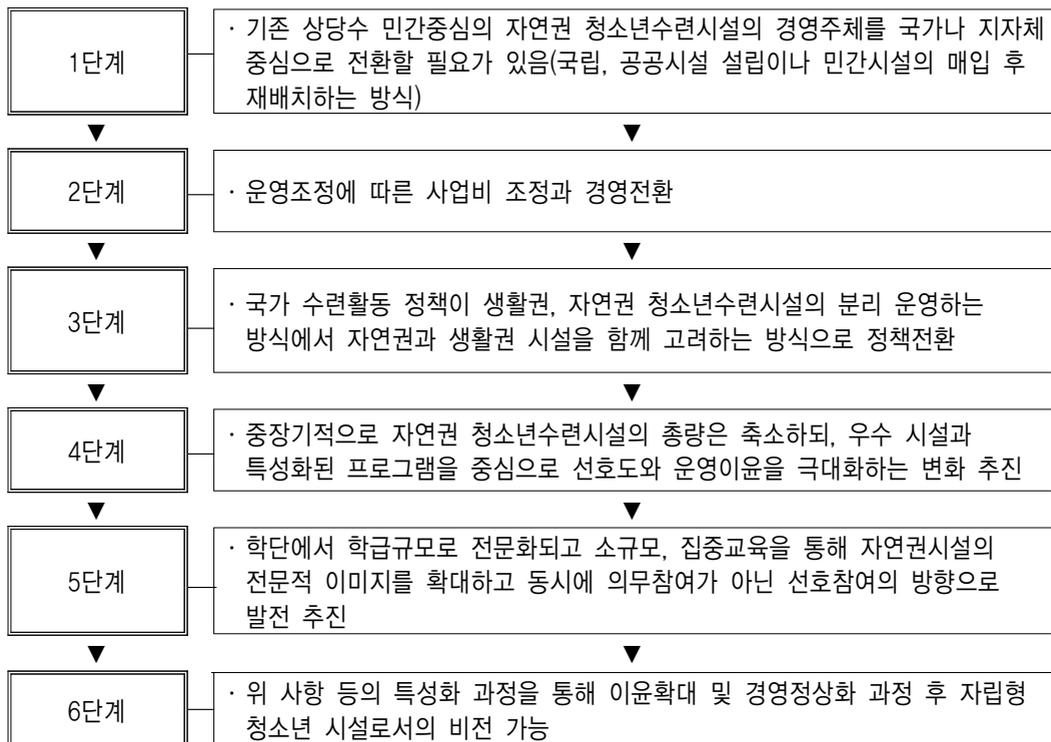
### ○ 자연권 수련시설의 기능강화

#### - 자연권 수련시설의 위상정립

자연권 청소년수련시설은 대규모, 영리 중심의 운영에서 공공성 강화를 통한 영리운영의 최소화 와 자연 및 외부활동 특성화를 중심으로 한 소단위 프로그램 전문기관으로서의 위상 정립의 필요가 있다. 상당수의 자연권 청소년수련시설은 현재의 영리를 추구하는 민간중심의 운영구조로 인해 이윤발생이 극대화된 학교단체 중심으로 구조화된 특성이 있다.

그러나, 특정 계절과 시기에 집중되는 대규모 프로그램 운영방식으로는 일부의 청소년수련원을 제외하고 기본적 운영비 확보조차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며, 이로 인해 고질적 경영난과 양질의 인력부족, 프로그램의 질적 하락 등이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는 자연스레 청소년수련활동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주된 원인이 되어온 것이 현실이다.

더 큰 문제는 민간으로서 갖은 경영교체와 자연권에 위치한 특성상 실질적인 관리감독이 쉽지 않으며, 특히 이런 시설들에서 간혹 터져 나오는 사건, 사고 속에 대부분의 청소년수련시설이 함께 매도되어 부정적 이미지가 확대되고, 이는 경영의 어려움으로 귀착되는 악순환의 연속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단계적 접근 방안으로 자연권 수련시설의 위상을 정립하여야 한다.



【부록그림 1】 자연권 수련시설의 단계적 기능 전환

#### - 자연권 청소년활동시설의 접근성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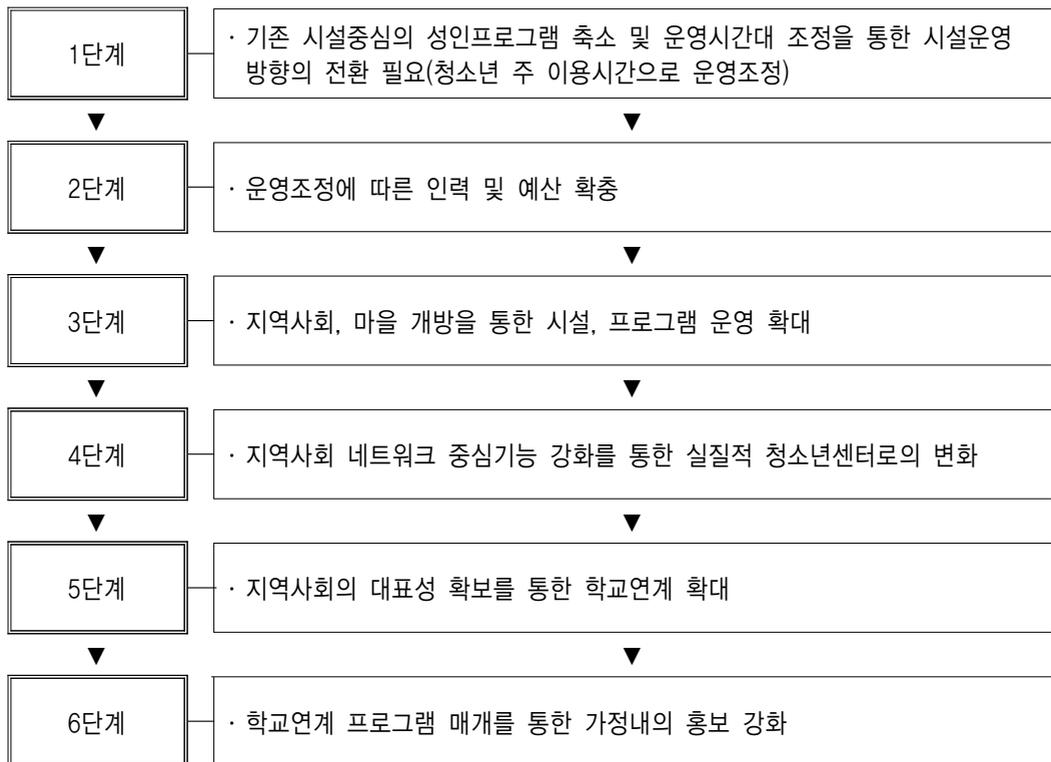
자연권 청소년활동시설로서의 특성과 기능을 가진 청소년수련원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접근성의 문제와 개념이 생활권시설과는 큰 차이가 있다. 자연권 청소년시설의 경우는 시설의 매력도와 프로그램의 특성화에 따라 실질적 접근 시간이나 방법이 어렵다하더라도 큰 문제가 있지 않을 것이다. 이는 자연권 청소년활동시설의 특성화와 전문화가 접근성 강화의 해결방안이라 할 수 있을 것이며, 대규모 단체중심의 기존 프로그램 구성에서 소규모 중심의 가족, 지역 단위의

자발적 프로그램 운영방식의 대안이 필요할 것이다.

### ○ 생활권 수련시설의 기능강화

#### - 생활권 청소년수련시설의 기능 전환

생활권 청소년수련시설은 시설중심 운영에서 지역사회 청소년센터로 전환을 통해 지역사회 청소년중심 기관으로서의 자리매김해야 한다. 생활권 청소년수련시설은 수영장, 체육관 등의 생활체육프로그램 시설 및 교육문화 시설 기반의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는 현재 생활권 청소년수련시설의 특성은 다양한 고민을 지닐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특히, 청소년수련관의 종합 시설적 특성으로 인해 큰 규모와 시설, 이를 유지하기 위한 인력과 예산이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확대의 발목을 잡는 부작용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생활권 청소년수련시설의 기능강화는 다음과 같은 단계적 접근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부록그림 2】 생활권 수련시설의 단계적 기능 전환

지역사회 연계는 마을공동체 사업의 공간 및 인프라 제공, 마을혁신사업 등에 대한 적극적 참여와 운영, 지역네트워크(지역복지협의체, 드림스타트 등) 참여 확대 추진한다. 학교 연계는 교육복지사업, 학업중단예방사업, 방과후 학교, 자유학기제, 창의적 체험활동 등의 사업에 있어 프로그램 코디네이팅 지역기관으로서의 중추적 역할 감당한다.

가정 연계는 학교를 매개로 하는 연계를 기본으로 추진하며, 가정과의 직접 연결은 복지 지원형 단위프로그램 중심의 방안을 모색한다(예, 방과후아카데미 가족캠프, 조손가정 지원 캠프, 부자캠프 등).

#### - 생활권 청소년활동시설의 물리적 접근성 개선

생활권 청소년수련시설의 경우 상당수가 큰 규모의 청소년수련관으로 기획되어져 부지와 예산의 확보가 어려웠으며, 이에 따라 시설 입지가 중심지보다는 도심 외곽이나 생활지구 외곽에 자리 잡은 경우가 많은 편이며, 심지어는 지역 내의 접근도가 좋지 않은 언덕 등에 위치한 경우도 있다.

물리적 접근성 강화의 측면에서 본다면 신규시설 설립 시에는 기존의 대형 청소년활동시설보다는 교통편 등의 입지가 좋은 지역에 소규모 활동시설로 기획되어지는 패러다임의 근본적 변화가 필요할 것이며, 지역 내의 큰 수련관 하나보다는 작은 규모의 센터를 여럿 설립하고 운영하는 것이 다양한 측면에서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미 지어져서 운영되고 있는 기존 생활권 청소년수련시설의 경우는 현실적 관점에서 접근성 강화의 문제해결이 필요한 상황이다. 일차적으로는 현재 수영장, 문화센터 이용을 위한 지입방식의 셔틀버스 운영에서 직영 개념으로 전환하고, 청소년 중심의 운영이 가능한 예산확보가 해결방안의 일순위가 될 것이다.

다음으로는 기존 학교나 학원 셔틀과의 연결시스템 구축을 고민하여 학교나 학원서들의 주된 이용자인 청소년들이 자연스레 청소년활동시설로 연결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 - 생활권 청소년수련시설의 내용적 접근성 개선

청소년활동시설의 내용적 접근성 강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대안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지역적 특성을 매우 강하게 지니는 생활권 청소년활동시설의 경우는 기초단위 지자체와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세밀한 홍보와 정보의 교류가 이뤄지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지역사회와 가정과의 협력체계 구축과 인식전환이 이뤄지게 되면 SNS 및 온오프라인 '입소문'과정 등이

구체적 정보를 통한 접근성의 강화를 가져올 것이다.

## ②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개선 지원

### ○ 청소년수련시설 표준 관리운영비 기준 마련

#### - 청소년수련시설의 유형별, 규모별 표준 관리운영비 분석 실시

청소년수련시설의 표준 관리운영비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각 시설별로 관리운영비 예산의 확보에서 매우 큰 편차를 보이고 있다. 특히, 지자체 예산으로 운영되는 공공시설의 경우에는 공식적인 수련시설 예산편성기준이 없어서 지자체장의 관심 등 지역여건에 따라서 예산확보에 큰 편차가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수련시설의 유형별, 규모별로 시설 관리운영비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최소한의 표준 관리운영비 예산편성 기준을 제시하여야 한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등 전문연구기관의 연구를 통하여 청소년수련시설 유형별, 규모별 표준 관리운영비 기준을 분석하는 연구 실시한다. 시설유형 및 규모에 따른 인건비, 시설관리비, 경상운영비, 사업비 등의 항목별로 표준 관리운영비를 산출하여 기준으로 제시한다.

#### - 표준 관리운영비 기준에 따른 예산 확보 지침 시행

청소년수련시설 유형별, 설치 및 운영형태별, 시설규모별 운영인력 및 인건비 및 운영경비에 대한 표준 관리운영비를 기준을 제시한다. 여가부에서 표준 관리운영비를 중앙정부 및 지자체에서 설치 운영하는 시설의 최소한 표준 관리운영비 이상으로 예산을 확보하도록 지침 또는 훈령으로 제시한다. 이를 근거로 청소년수련시설을 설치 및 운영하는 중앙정부 및 지자체에서 예산을 확보하도록 한다. 이때 표준 관리운영비 보다 더 많은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시설에서는 예산이 줄어들지 않도록 하는 조치도 병행해서 취한다.

#### - 신규 공공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시 관리운영비 확보계획 제출 의무화

국가의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개보수 예산을 보조받아 지자체에서 설치하는 공공 청소년수련시설의 경우에는 지원여부 심의 시에 시설 관리운영비 확보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도록 의무화한다. 그리고 시설 설치 후 시설 관리운영비 예산 확보 여부를 매년 보고하도록 하여, 그 계획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미 이행시에 국고보조금 지원예산의 환수 등의 제제방안을 마련한다.

## ○ 청소년수련시설의 시설 정비 지원

## - 노후 시설 개선 지원

노후화된 수련시설의 시설과 설비를 보완함으로써 청소년의 요구에 맞는 우수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청소년수련시설의 설립시기 및 수련시설 종합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우선지원 대상을 선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공정하게 평가 후 지원한다.

생활권 시설의 경우 인근 다른 시설과 차별화,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시설과 공간을 마련하도록 지원하고, 자연권 시설의 경우 청소년들의 이용에 있어서 안전상 문제가 될 수 있는 시설물(야외무대, 강당 등)을 우선적으로 개보수 하도록 유도한다.

## - 유스호스텔의 청소년수련원 전환 지원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유스호스텔에서 청소년수련원으로 전환하는 경우 적극적인 지원 필요하다. 시설의 유형을 전환하기 위해 활동 시설을 보강하는 경우 장기 저리 융자를 지원한다. 프로그램 운영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인건비를 지원하거나 배치지도사를 지원하고, 이후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경우 추가적인 인센티브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한다.

## - 공공수련시설의 시설유형 정비

일부 지자체에서 설치한 시설 중에는 청소년수련관으로 건립하였지만 입지여건상 청소년수련원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시군구청에서 시군구당 1개소의 청소년수련관 설치의무를 지키기 위한 것이지만, 청소년수련관으로 기능하지 못함으로써 각 지역 청소년들의 다양한 활동 기회의 제약이라는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따라서 전국적으로 자연권에 위치하여 실질적으로 청소년수련원으로 운영되는 청소년수련관의 수와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관리한다. 그리고 자연권에서 숙박시설을 갖추고 청소년수련원으로 운영되는 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수련원으로 시설 유형과 명칭을 변경하고, 신규로 청소년수련관을 건립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시설 유형 및 명칭을 변경하는 공공 청소년수련원의 경우, 민간 청소년수련원과의 운영 경쟁을 피하기 위해 설치 지역 청소년을 대상으로 운영하도록 유도한다.

## ○ 수련시설 운영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사업

## - 지역별 수련시설 특성화 및 네트워킹을 위한 컨설팅 지원

시, 군, 구별로 다수의 청소년 수련시설이 운영되는 경우 각 시설의 기능이 중복되지 않으면서 발전할 수 있는 기반 마련하여야 한다. 청소년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컨설팅 팀을 구성하여 해당 지역의 자원분석, 청소년요구조사, 각 시설별 특성화 전략, 지역 청소년사업의 발전 방안, 청소년육성업무 관련 조례 제정 등에 대한 전문적인 컨설팅을 지원한다. 지자체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기 위해 지자체에서 컨설팅 사업을 신청하도록 하고 지역의 청소년육성업무 담당 공무원이 반드시 참여 할 수 있도록 하여 컨설팅의 실효성을 높인다. 이를 통해 각 수련시설이 경쟁이 아니라 상호 협력하여 각각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 - 민간 수련시설 운영 컨설팅 지원

민간 청소년수련시설은 주로 청소년수련원, 유스호스텔 등으로 안정적인 운영에 필요한 행정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각 시설이 나름대로의 중장기 전략을 갖고 운영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운영 방안에 대한 컨설팅을 지원하여야 한다.

컨설팅을 통해서 민간 청소년수련시설에서 각 시설의 강점과 약점 분석을 통해 청소년 정책 환경 변화에 잘 대응하여 운영할 수 있는 전략 마련하도록 지원한다.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진단 및 이에 대한 대처방안 마련 등 시설에서 요구하는 분야에 집중하여 컨설팅 제공한다. 컨설팅의 운영은 한국청소년수련시설 협회 등에 컨설팅 사업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방안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 ○ 청소년수련시설 종합관리체계 구축

## -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현황 관리 필요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현황을 체계적으로 조사분석하고 청소년수련시설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특히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실태 및 현황, 문제점에 대해 현장 중심의 심층적인 분석과 진단을 통해 청소년수련시설의 대내적·대외적 경쟁력을 확보하고, 질적으로 우수한 청소년활동 서비스를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 - 청소년수련시설지원센터의 설치·운영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또는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등에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운영 실태를 종합적으로 조사, 분석하여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는 조직으로 청소년수련시설지원센터를 설치한다. 청소년수련시설지원센터에서 실태조사, 현황분석 및 진단, 운영컨설팅, 현안 관련 정책개발 등의 사업을 실시한다. 또한 청소년수련시설과 관련한 각종 실태, 평가, 현안 정보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청소년수련시설 관련 제도 및 정책의 개발·집행에 활용할 수 있도록 청소년시설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 - 청소년수련시설 관련 정보의 제공을 위한 공시제도 도입

청소년수련시설의 수요자인 청소년 등에게 알권리를 보장하고, 학술 및 정책연구를 진흥하며, 청소년정책에 대한 참여와 청소년사업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수련시설 현황에 대한 투명하고 객관적인 정보제공이 필요하다. 따라서 개별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현황 및 실태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청소년수련시설 공시제도를 도입한다. 공시제도는 1차적으로 지자체가 설립하여 직영하거나 위탁 운영하는 시설을 중심으로 실시하고, 단계적으로 모든 청소년수련시설로 확대한다.

공시 내용의 범위는 시설, 예산, 사업, 인력, 평가결과 등에서 세부적인 항목을 결정하여 확정한다. 공시의 방법은 전국 공통의 공시항목을 결정하여 각 시설별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공시하도록 한다.

### ③ 청소년단체의 활동 기반 강화

#### ○ 청소년단체의 역할·기능 재정립

청소년단체는 청소년활동, 복지, 보호 사업 뿐 아니라 청소년시설 위탁·운영 등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청소년수련시설과 마찬가지로 청소년단체의 역할 및 기능에 대한 재정립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여기에는 시대적·사회적 환경 변화와 더불어 청소년단체와 청소년시설 간 또는 청소년단체 간의 역할·기능의 모호성 등이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향후 청소년단체의 청소년활동 활성화를 위해 학교 의존적인 활동에서 지역사회 중심의 단체별 특성화·전문화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제도적·정책적 지원과 함께 관련연구도 진행되어야 한다.

## ○ 청소년단체 및 관련기관과의 연계·협력 강화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는 국내외 청소년단체 간의 교류 및 지원 등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8개의 지방청소년단체협의회 및 70개 회원 청소년단체가 가입되어 활동하고 있다(여성가족부, 2015). 국가 혹은 지역사회 단위의 청소년활동이 활성화되기 위해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및 지방청소년단체협의회는 협의체로서의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단체 간 그리고 단체와 시설 간의 협력·교류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등 연계·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 특히 법정단체와 비법정단체간의 유기적 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를 중심으로 조율하는 등의 협의체 기능이 필요하다.

## ○ 청소년단체 관련 전문인력 배치

청소년기본법에서는 청소년단체의 청소년회원 수가 2천명 이하인 경우, 1급 청소년지도사 또는 2급 청소년지도사 1명 이상을 둘 것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청소년지도사의 법적 최소 배치기준으로는 관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이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법적 배치기준의 합리적인 개정이 필요하다. 또한 재정부족 등의 이유로 일부 청소년단체에서는 배치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곳도 있으므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청소년단체는 관련 법 정비, 처우개선, 재정확보 등을 통해 전문 인력이 원활히 배치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청소년지도자의 입장에서도 보수교육, 직무연수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청소년단체 전문가로서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 ○ 청소년단체 재정 안정화를 위한 노력 및 지원

대부분의 청소년단체는 회원 회비, 후원금 등을 통해 재정을 확보하고 있으나, 많은 단체들이 회원 수 감소 등의 이유로 운영비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외부적으로는 청소년단체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제도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청소년단체 내부에서는 특성화·전문화된 프로그램의 개발·운영, 후원자 개발 등과 같은 자구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 학교교육제도와의 연계 강화

대부분의 청소년단체는 학교를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단위 학교는 교원의 업무경감과 야외활동에 대한 부담 등으로 학교기반 청소년단체활동을 축소하고 있다. 시도 교육청에서 청소년단체활동 운영지침 등을 제시하고 단체활동 활성화를 모색하고 있으나 단위 학교에서는

오히려 축소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일부 교육청에서 청소년단체활동 지도자 가산점 제도가 축소되면서 학교 내 청소년단체활동 지도자 확보에 직접적인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학교교육제도와 연계되어 운영하는 기존의 방식과 교사 지도자 확보 방안 등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와 대책 마련 필요하다.

#### ④ 청소년활동 거점시설의 확보 및 운영

##### ○ 청소년활동 거점기관의 지정 및 운영

지역사회의 다양한 청소년 관련 시설의 공간과 인적 자원을 활용한 청소년활동을 개발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지역 내 청소년 관련시설 중에서 청소년의 활용이 가능한 공간을 확보하여 청소년 활동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도입한다.

우선, 지역사회 청소년활동의 중심이 되는 청소년수련관 등 청소년활동시설을 ‘청소년활동 거점기관’으로 지정하여, 지역내 청소년활동 정책과 관련된 정보서비스 제공 등 청소년활동의 거점기능 수행하도록 한다. 시·군·구별 지정된 청소년활동 거점기관은 지역내 청소년활동의 동 단위까지의 책임 실행기관으로의 법적인 지위 부여하고, 각종 청소년 체험현장에 행정·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역할을 부여해야 한다. 즉, 청소년활동 거점시설로 지정된 청소년수련관이나 청소년문화의집 등은 지역사회의 다양한 청소년 체험현장에서 발생하는 청소년활동을 지원하는 기능을 갖도록 해야 한다.

거점기관에서는 지역내 청소년활동 관련기관 간의 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 공동사업 개발 및 운영 등 지역단위의 중추적 기능 수행하고, 지역단위 청소년활동 전문가 풀 구성 운영 등 사업 수행한다. 또한 거점기관에서 지역사회의 다양한 청소년활동 현장거점 시설에 청소년지도사를 파견하여 청소년활동을 운영토록 지원한다.

##### ○ 청소년활동 현장거점 시설의 지정 및 운영지원

###### - 청소년활동 현장거점 시설 지정

지역사회의 청소년 관련 유관기관에서 청소년활동을 운영하는 공간을 갖춘 곳을 ‘청소년활동 현장거점 시설’로 지정하고 청소년활동 운영을 지원한다. 시·군·구별로 각 지역의 지역아동센터, 다문화센터, 드림스타트, 사회복지관, 청소년 이용 시설(문화원, 문화예술회관, 박물관, 전시관,

공공기관 등) 중에서 청소년이 활용가능한 시설공간과 프로그램이 있는 곳을 청소년체험현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청소년활동 현장거점 시설'로 지정하고, 프로그램의 운영 체제를 확립하도록 한다. '청소년활동 현장거점 시설'을 지칭하는 명칭을 '청소년체험활동시설(가칭)' 등과 같이 별도로 개발하여 사용한다.

청소년활동 현장거점 시설은 청소년 이용 시설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문화예술, 전통문화, 관광, 종교, 스포츠, 문화상품 개발 등)에 따라 개별적인 역량을 최대화시킬 수 있는 콘텐츠를 중심으로 체험현장으로 거점화한다. 공공시설은 프로그램 운영 가능한 시설 및 공간을 조사 후 지정하되 민간시설의 경우는 신청을 받아 검증 단계를 거친 후 지정한다.

#### - 청소년활동 현장거점 시설 및 운영 단체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청소년활동 현장거점 시설 및 운영단체에 대해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청소년활동 현장거점 시설로 지정된 곳에서 운영할 프로그램을 시설 자체에서 기획하여 운영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지도인력의 인건비 및 프로그램 운영비 등을 지원한다. 청소년활동 현장거점 시설에 대해서 지역 내 및 다른 지역에 대한 홍보 지원, 민간시설의 경우 세제혜택 추진, 기타 여러 포상제도 실시 등 간접적인 인센티브 지원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 ○ 청소년활동 현장거점 시설의 특성에 따른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지원

청소년활동 현장거점 시설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은 지역사회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모든 범위의 이용 가능 시설로 한다. 그리고 청소년활동 현장거점 시설은 프로그램과 청소년 이용대상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하여 사업의 영역을 특성화한다. 이를 위해 청소년활동 현장거점 시설의 프로그램을 분석하고 신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특성화하도록 한다. 청소년활동을 위해 적용 가능한 기존 프로그램, 청소년들이 시설을 이용하여 직접 기획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 시설 특성을 반영하여 제공이 필요한 프로그램 등 시설별로 운영해야 할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운영기관에서 자체적으로 기획하여 제안하는 청소년체험 활동프로그램은 우선 지원한다. 아울러 지역사회의 다양한 시설 또는 기관의 참여 동기를 높이고, 운영역량을 개발하는 다양한 시책을 개발하여 시행한다.

#### ○ 청소년활동 거점시설 및 유관기관과의 업무협력 체제 구축

- 청소년체험활동시설 간의 협력 체제 구축

시·군·구별로 지정된 청소년활동 거점시설과 청소년활동 현장거점 시설 간의 공동 사업추진과 협력을 위해 업무협의체를 구성하여 정기적인 협의회를 운영한다. 업무협의체 운영은 지역내 청소년활동 거점시설(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단체 등 청소년기관)에서 담당하고, 시설간 협의회와 공동 사업 추진을 통해 지역사회내의 청소년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 지역내 유관 기관과의 협력 체제 구축

청소년활동 현장거점 시설로 이외의 지역내 아동·청소년 프로그램 운영 지원 기관과의 협력을 위해 상호 정보교류 및 협의회를 운영한다. 지역내 학교와의 협력을 위해 청소년활동 거점시설 및 청소년활동 현장거점 시설의 관계자와 학교 관계자와의 정기적인 협의회 운영, 시설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의 학교 홍보, 학교와 지역내 지원시설간의 결연을 통하여 자유학기제 프로그램과 연계하도록 한다.

- 중앙 전담기관 및 시·도지원기관과의 협력 체제 구축

여성가족부 - 시·도- 시·군·구청,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지방청소년활동지원센터-지자체 청소년활동 거점시설(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간에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통해서 각 기관들의 유기적인 업무협력과 지원, 정보의 수집 및 제공 시스템 구축, 활동기록관리의 효율적 운영, 프로그램 참여 활성화를 위한 지원 대책 수립 등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정기적인 업무협의를 통한 협의 체제를 구축하여 운영한다. 시·군·구 단위의 청소년활동 현장거점 시설에 대한 연계와 협력 체제 운영은 지역내의 청소년활동 거점시설(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에서 담당한다. 여성가족부 및 중앙 전담기구(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서는 시·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를 통해 청소년활동 거점시설과 청소년활동 현장거점 시설의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이들의 운영에 필요한 지원 사업 수행한다.

○ 청소년체험활동시설 연계를 통한 복합적이고 체계적 프로그램 운영

청소년활동 현장거점 시설 특성에 초점을 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바탕으로 각 거점을 연계하는 방안을 수립한다. 청소년활동 현장거점 시설의 연계는 지역 내 프로그램 연계, 지역 간 특성화된 분야별 프로그램간의 연계로 구성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하남시 지역에서의 자유학기

제 실행에 따른 지역 내 연계방안 수립의 경우는, 경륜사업(미사리/경륜사업본부)-생태환경(한강유역사업본부)-역사탐방(문화원)-공연문화(문화예술회관) 등 지역의 활동시설을 연계하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 ○ 지역내 청소년체험활동시설 운영 확대를 위한 시범지역 운영

청소년활동 거점기관 및 청소년활동 현장거점 시설 운영 모델 개발을 위한 시범지역 선정하여 운영한다. 일정한 지역을 대상으로 지역 내의 체험활동 및 문화 관련 기관들이 청소년활동 현장거점 시설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프로그램 운영의 지역적 범위를 확장한다. 지역내 체험, 활동, 문화자원이 어떻게 연계되느냐에 대한 시범사업을 위해 사업의 초기 단계에 전국의 시·군·구 중 일부를 시범지역으로 선정한다.

시범지역 운영은 시범지역을 선정 후 지역 내의 체험, 활동, 문화관련 시설에서는 학교, 기업, 지역사회가 연계하여 주중, 주말 및 방학을 활용한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지역 내의 각 시설이나 관련 기관들에게는 청소년들의 체험활동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에 관련된 지원을 제공한다. 지역 간의 연계 프로그램도 소재가 되는 분야를 중심으로 시범 지역 간 연계 사업을 실시하여 사업추진에 필요한 타당성을 확보하면서 전국적으로 확대한다. 시범지역은 청소년들이 개인 참여, 단체 참여 및 가족 참여 등 다양한 참여 방식을 운영하여 학교의 주5일제 수업이나 자유학기제, 체험학습과도 연계시켜 실효성을 보장하면서, 지역 내의 다양한 체험, 활동, 문화시설간의 연계 방식을 개발할 수 있게 한다.

#### ○ 청소년활동 거점시설 정보관리 및 활동기록관리 지원시스템 구축

##### - 지역 및 활동거점 단위의 활동정보 관리체제 구축 및 운영

각 청소년활동 현장거점 시설은 청소년들의 체험, 활동, 문화 활동 정보망 구축을 위한 자원이므로, 청소년활동 현장거점 시설에서는 프로그램 운영 실적, 관련 자료 및 향후 계획 등 관련 정보를 주기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시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에서는 수시로 청소년활동 현장거점 시설의 활동 관리 정보를 수집하고, 각 지원시설에서는 청소년 체험, 활동, 문화와 관련된 정보서비스망을 통해 자료 제공, 교류하도록 한다.

- 청소년들의 활동기록 관리 지원 체제 구축 및 운영

지정된 청소년활동 현장거점 시설에서는 각 시설의 프로그램 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들의 활동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각 시설별로 활동기록관리를 할 수 있도록 전국 공통의 업무시스템을 개발하여 보급한다. 각 시설에서는 기록내용을 활동기록 관리시스템 운영망을 통해 시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로 전송하여 전국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활동기록 관리시스템은 중앙 전담기구에서 개발하여 보급한다. 단계적으로 전국적인 추진체제를 확립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개별 시설의 참여를 확대한 후 전면적으로 도입하는 등 장기적인 과제로 추진한다.

(3) 단계별 추진 계획

부록표 4 단계별 추진 계획

추진과제	세부내용	1단계		2단계		3단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청소년수련 시설의 기능 재정립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모형 재정립	→	→				
	자연권 수련시설의 기능 강화		→	→	→		
	생활권 수련시설의 기능 강화		→	→	→		
청소년수련 시설 운영 개선 지원	청소년수련시설 표준 관리운영비 기준 마련		→				
	청소년수련시설 정비 지원		→	→	→	→	→
	청소년수련시설 컨설팅		→	→	→	→	→
	청소년수련시설 종합관리체계 구축		→	→			
청소년단체의 활동 기반 강화	청소년단체의 역할과 기능 재정립		→				
	청소년단체 및 관련기관과의 연계협력 강화		→	→	→	→	→
	청소년단체 전문인력 배치		→				
	청소년단체 재정안정화 지원			→			
	학교교육제도와 연계 강화		→				
청소년활동 거점시설의 확보 및 운영	청소년활동 현장거점 시설 지정	→	→	→			
	현장거점 시설의 프로그램개발 및 운영지원		→	→	→	→	→
	현장거점시설 업무협력체계 구축			→	→	→	→
	거점시설 정보관리 및 활동기록관리 시스템 구축				→	→	→

#### 4) 청소년활동 홍보 및 정보제공 시스템 구축

##### (1) 목적

청소년활동의 효과성과 필요성에 따라 국가정책으로 시행되어 다양한 시설과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 전반적으로 청소년활동에 대한 인식이 낮은 실정이다. 또한 청소년활동에 관심 있는 청소년이나 부모들은 청소년활동과 관련된 정보를 쉽게 얻지 못하는 실정이며, 정보습득에 유리한 일부 청소년과 부모들에게 청소년활동 서비스가 집중되어 정보격차에 따른 청소년활동 서비스 이용에 격차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러한 청소년활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개선과 청소년활동 정보서비스의 개선을 통해서 청소년들의 청소년활동의 참여 활성화를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

청소년활동에 대한 대국민 인식 개선을 위해서는 청소년활동 홍보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청소년활동 홍보 전담조직을 확보하여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홍보기획사업과 홍보네트워크 구축 등 체계적인 청소년활동 홍보활동을 수행해 나가야 한다. 또한 청소년이나 부모, 교사 등 청소년활동에 대한 정보를 필요로 하는 정보수요자들도 필요한 정보를 쉽게 습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기존의 청소년수련시설, 시도별 청소년활동진흥센터,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등 다양한 기관들에서 청소년활동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제공되는 정보의 내용이나 정보제공 방법 등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국가 수준에서 수요자 중심의 청소년활동 대한 홍보와 정보서비스 제공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청소년활동에 대한 체계적인 홍보활동 추진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함으로써 청소년활동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개선하여 청소년활동의 활성화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청소년활동과 관련한 청소년, 부모, 교사, 지도자 등 정보수요자의 요구에 맞는 정보서비스 제공하는 추진체계를 구축하여 청소년활동 참여와 청소년활동 운영을 지원함으로써 청소년활동을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 (2) 추진과제

###### ① 청소년활동 홍보 추진체계 구축

## ○ 청소년활동 거점 홍보센터의 지정 및 운영

## - 시·군·구 지역단위의 청소년활동의 거점 홍보센터 지정

지역 내 청소년시설(청소년수련원,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쉼터, 청소년특화시설, 야영장, 유스호스텔, 상담복지센터 등 청소년관련법상의 모든 청소년시설) 중에서 한 곳 선정하여 청소년활동에 대한 홍보를 중점적인 사업으로 수행하는 청소년활동 거점 홍보센터로 지정한다. 청소년활동 거점 홍보센터는 지역사회에서 청소년활동 관련한 모든 정보를 최신으로 업데이트하고 제공하며, 정보에서 배제되어 청소년활동에 참여할 수 없는 청소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거점 홍보센터에서는 청소년활동의 중요성과 다양한 청소년활동의 종류, 지역 내에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전국구에서 참여할 수 있는 모든 활동을 홍보한다. 청소년활동의 효과성에 관한 다양한 연구결과물을 청소년과 지역사회 주민 친화적인 언어로 변경하여(표나 다이어그램, 도표 등을 활용) 홍보물 게시나 배포한다.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이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등에서는 청소년활동 홍보와 관련된 청소년지도자 연수 및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함으로써, 거점 홍보센터의 홍보역량을 강화하도록 한다.

## - 청소년활동 홍보 관련 프로그램 개발

지역 맞춤형 청소년활동 홍보를 위한 청소년지도자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홍보 관련 경진대회 및, 홍보아이디어 공모전, 홍보를 전제로 한 지역사회 내 행사 기획하여 운영한다. 지역내 청소년시설의 역량으로만은 부족하다고 판단될 시, 다른 지역단위의 청소년활동 홍보 거점 센터와의 연계협력망을 구축하여 공동으로 청소년활동 홍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시한다. 지역별 홍보활동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서 지역의 청소년활동 및 청소년과 관련한 필요, 특성, 요구, 문제점 등에 대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현황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현황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사회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홍보수단 및 방법에 대한 사전 수요와 필요조사를 실시한다.

청소년활동 홍보 프로그램의 주체에 청소년과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특별위원회 등을 반드시 포함하여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는 홍보 프로그램이 기획될 수 있도록 한다. 지역사회의 사회복지사, 시민단체 활동가 등 현장전문가와 학부모, 교사의 의견수렴을 할 수 있는 통로를 개발하여 홍보 프로그램의 준비와 기획, 실시와 평가 전반에 걸쳐 이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한다. 특히, 청소년활동의 참여 저조는 청소년이 청소년활동 자체에 대한 관심부족과 이해

부족도 있지만 지역사회, 교사, 학부모의 잘못된 인식이나 편견이 있기 때문에 홍보 프로그램의 개발에서 반드시 청소년외의 성인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 - 청소년활동 거점 홍보센터의 운영

기존의 청소년지도사가 홍보 관련 연수나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확보 한 후 청소년활동 거점 홍보센터의 기능을 운영한다. 지역별로 청소년활동 거점 홍보센터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우수 시설을 선정하는 작업이 필요하고, 기존에 여성가족부의 청소년수련시설평가 결과를 활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해당시설의 청소년활동 거점 홍보센터로서의 역할에 대한 운영 의지이며, 지자체의 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다. 지정시설에 대해서는 거점 홍보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와 지도 인력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어야 하며, 이는 지자체의 청소년사업 관련 예산으로 충당하거나 특별지원 예산에서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관련법의 개정 및 보완이 필요하다.

#### ○ 청소년활동 거점 홍보센터의 전문 인력 양성 방안

청소년활동 홍보는 청소년활동에 대한 이해는 물론 홍보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이 있어야만 가능한 일이므로 이에 대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배치하는 것이 사업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주도의 청소년활동 홍보 전문가 양성이 반드시 필요하다.

단기적으로는 청소년활동 홍보 전문가 양성 과정 및 프로그램을 전문연수과정에 포함하여 개설하고 관련 자격증이나 수료증을 발급할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청소년지도사 자격제도와 연계하여 관련 교과목에 홍보와 마케팅을 포함한 내용을 포함하거나 신설 교과목으로 자격제도를 개편한다. 현재 청소년지도사 자격제도에서 요구되고 있는 과목에는 청소년기관운영이라는 1급청소년지도사 과목이나 청소년프로그램 개발과 평가라는 2,3급 과목이 가장 유사한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지금까지 관련 과목이 표준화되어 있지 않은데다가 대부분의 청소년지도사들이 전공 관련학과를 졸업한 경우가 많아, 실제로 관련 과목에서 어떠한 수업내용이 다루어졌는지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가 어렵다. 그러므로 만약 청소년활동 거점 홍보센터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방안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경우에는 청소년지도사 자격제도 개편과 더불어 논의될 필요가 있다.

## ○ 청소년활동 거점 홍보센터의 역할과 기능 인정

기존의 청소년활동에 대한 이해부족과 편견을 바로잡기 위하여 청소년활동 거점 홍보센터의 지정에 대한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아울러 청소년활동 거점 홍보센터로 지정될 경우, 청소년수련시설 평가에 있어 인센티브 점수를 확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청소년수련시설평가에 청소년시설 및 관련 프로그램 홍보에 관한 평가지표가 이미 있으므로 이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청소년활동 거점 홍보센터가 청소년시설의 운영과 존립에도 필요한 것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청소년활동 거점 홍보센터로 지정될 경우 해당 지자체와 협력하여 시·군·구 차원이 지자체 홍보 관련 매체와 매체물에 청소년활동에 대한 정보와 프로그램에 대한 소개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지역사회 내 유관 기관 또는 관련기관과 협력하여 여러 지역을 아우르는 거점 홍보센터로서의 역할을 강조한다. 거점 홍보센터에서는 청소년활동 자체에 대한 홍보뿐만 아니라 청소년활동에 대한 인프라, 즉 청소년활동 시설의 종류, 청소년에 대한 이해와, 부모 및 교사교육에 관한 자료들을 홍보하고 공유함으로써 지역사회 내 청소년에 관한 one-stop지원 서비스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한다. 청소년활동 거점 홍보센터로 운영할 경우에는 지자체 차원에서 여러 포상제나 여성가족부 차원의 다양한 사업의 선정에서 우선순위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실시한다.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의 주요과제로 청소년활동 홍보를 통한 청소년활동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도록 포함시켜야 한다. 홍보센터의 전문 인력의 경우, 관련 연수와 프로그램의 운영에 있어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중앙정부 차원의 재교육 훈련과 해외 연수, 및 교류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전문성을 보다 강화할 수 있도록 한다.

## ○ 유관기관과의 업무 협력 체제 구축

## - 홍보거점 시설 간 협력체제 구축

시·군·구 지역 내에서 청소년활동 거점 홍보센터로 지정된 시설들 간의 공동 홍보 프로그램 기획 및 실시와 이를 지속하기 위한 정례화 된 업무협의체를 구성하여 청소년활동에 대한 홍보가 단발적인 사업에 그치지 않도록 한다. 업무협의체의 구성과 진행을 위한 재정은 거점 시설이 속한 지방정부에서 지원하도록 하며 회의의 참석을 지원할 수 있는 업무지원이 수반되도록 한다. 거점 시설 간 업무협의체에는 담당 청소년지도자만 포함할 것이 아니라 청소년운영위원

회를 포함하여 청소년들 간의 업무협력과 의견 교환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청소년의 의견이 최대한 수렴되고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거점 시설 간 업무 협력을 공식화하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청소년수련시설평가에 있어 대외협력에 관한 평가지표가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여 거점시설 간 업무협력정도를 객관화하고 정량지표로 평가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 - 지역 내 유관 기관과의 협력 체제 구축

청소년활동 거점 홍보센터 외에 지역 내 청소년활동 유관 기관가의 프로그램 협력 및 정보 공유로 청소년활동의 지평을 확대하여야 한다. 지역 내 학교와의 연계협력으로 청소년활동 거점 홍보센터 자체에 대한 홍보와 소개 및 활용에 대한 안내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한다. 학교뿐만 아니라 복지시설, 경찰서, 소방서, 병원 등과 연계 협력하여, 청소년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이 언제 어디서라도 필요한 정보를 활용하고 습득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기관과의 연계협력을 맺는 것이 중요하다.

#### - 중앙 전담기관 및 시·도 지원기관과의 협력 체제 구축

중앙의 전담기구(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와 시·도 지원기관, 시·군·구내 청소년활동 홍보 거점 센터와의 실질적인 협력을 위한 전국구 운영협의체 구성한다. 지역사회 내에서의 청소년활동 홍보뿐만 아니라 전국적 차원에서 청소년활동이 공유되고 홍보될 수 있도록 국가청소년정책기본 계획에 관련 내용을 포함하고 지방정부 청소년정책 평가에 활용한다. 그 결과 중앙과 지방, 지역 간의 청소년활동에 대한 실질적 온도 차이를 줄이고 전국 어디서나 모든 청소년이 원할 경우 청소년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장애물을 제거하고 청소년의 필요와 수요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

청소년활동에 대한 효과성과 긍정적인 역할을 중앙정부와 전국차원에서 홍보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서의 전국구 운영협의체 운영한다. 전국구 운영협의체에는 관련 지자체의 전담공무원을 반드시 포함하여, 청소년활동현장과 지방정부간의 연계협력을 전제로 한다.

#### ② 청소년활동 정보서비스 추진체계 구축

#### ○ 청소년활동정보제공을 위한 전담기구 한국청소년활동정보원의 설치

청소년 관련 기관들이 개별적으로 정보자료를 관리함으로써, 연계성이 없고 분절적으로 운영되어 대국민에 대한 일관된 청소년정보서비스가 불가능한 바, 청소년 관련 기관들의 상호 업무 연계 지원을 위한 기관이 설치되어 이를 총괄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한국청소년활동정보원은 기존 조직의 산하형태가 아닌 독립적인 전담기구로 설치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정보제공에 필요한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인력과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으며 기존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이다.

신설되는 한국청소년활동정보원에서는 대국민 청소년관련 정보의 제공뿐만 아니라 청소년 지도자들의 정보생산 및 관리, 제공 등에 관한 전반적인 능력을 향상시키는 역할도 담당한다. 청소년지도자들은 정보의 제공 및 홍보는 청소년활동의 보조적인 역할이라는 인식이 있는 반면에 홍보의 필요성은 인식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가지는 경향이 있다.

청소년관련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작,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의미가 있다. 다만 기존의 청소년 관련 정보를 취급하는 타 기관과의 특성을 사전에 고려하여 상호협력과 정보공유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기관 간 충분한 사전협의와 참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기존 정부기관의 정보화관련 사업은 하드웨어의 구축에 치우쳤으나, 최근에는 콘텐츠 중심의 소프트웨어를 강화하는 경향이기에 때문에, 콘텐츠 확보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의 청소년활동정보업무 조직을 확대 운영

별도의 기관을 설립하여 통합적인 기능을 수행할 경우 청소년 관련 기관의 기능과 조직 측면에서 기관간의 협력관계 및 역할조정 등의 문제점이 있다. 그동안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이 정보화 관련 사업추진을 통해 관련 H/W 및 S/W 등 정보화사업의 상당한 진전을 보이고 있어 종합적인 정보화 기능수행은 기존 기관을 통해 정보화 사업기능을 수행하되 조직을 확대해서 운영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현행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서 부서형태로 존치하는 것에서 청소년활동안전센터 사례처럼 본부장 수준으로(가칭 청소년종합정보센터) 격상하여, 단순 정보의 제공에서 벗어나 청소년활동 정보와 관련한 종합업무를 수행하는 컨트롤 타워로 자리매김할 필요가 있다. 현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원봉사, 인증제, 방과 후 아카데미, 참여포털 등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와 연계되어 진행될 수 있다는 점에서 안정적인 접근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 ○ 청소년활동정보의 관리 및 홍보 등 행정전달체계의 강화

## - 시군구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설치를 통한 행정전달체계 구축

현행 전달체계에서는 청소년활동관련 정보서비스를 추진 및 제공하고 있으나 대상자인 현장의 청소년들에게 실효성 있게 전달되지 못하고 있으며 청소년복지나 청소년보호에 비하여 청소년활동이 상대적으로 위축되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시군구 청소년활동진흥센터의 설치확대를 통한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의 활성화와 전달체계의 체계화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군·구 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청소년활동 정책의 집행 및 전달과정의 최일선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정책의 전달 뿐만 아니라 정책의 수립 및 집행을 위한 근거인 기초자료를 수집하는 통로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시·군·구 단위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지속적으로 설치·확대 운영되고 있는 것에 비해 시·군·구 청소년활동진흥센터의 설치 및 운영이 매우 저조한 상태이므로 청소년활동진흥법을 토대로 시·군·구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설치 확대는 활동정보의 제공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 청소년수련관을 청소년활동정보의 행정전달체계로 활용

국가 및 지방 재정으로 건립된 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계의 가장 큰 자산이다. 특히 시·군·구 단위로 설치되도록 하였다든 점에서 시·군·구 전달체계와의 접목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활동과 보호, 복지 등 종합적인 기능을 할 수 있는 기반과 인력을 가지고 있다.

## ○ 정보수요자 대상별 홍보방법과 전략 수립

## - 청소년

초기청소년과 후기청소년 등 청소년의 발달특성에 따른 정보제공방식의 차별화 및 맞춤형 전략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초기청소년들은 활동에 대한 정보습득에 취약하므로 청소년과 함께 부모를 대상으로 한 정보제공에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며, 이후 청소년들은 SNS 등을 활용한 정보의 제공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 - 부모

부모들은 활동내용과 함께 안전과 위생에 대한 관심이 높으므로 활동정보에서 부모들의 관심사항이 활동정보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활동자체에 대한 정보 외에 부모들에게 도움이 되는 자녀교육이나 정책자료 등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 - 교사

학교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정보제공을 위해서는 일선교사에 대한 교육 및 연수를 실시하여, 청소년활동정보가 청소년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학교의 교육과정에서 청소년기관이나 단체 등과 연계하고자 할 경우 교사가 수요자가 됨으로 교사들에게 청소년활동정보와 관련한 안내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교육부와의 부처간 업무협약이 필요하다. 학교의 경우 당해 연도의 외부와의 연계 및 재량활동 등에 대한 학사 일정이 확정되기 전에 청소년시설 및 단체에서 제공하는 활동정보가 제공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교육지원청 단위와 지자체의 업무협약이 필요하다.

#### - 청소년지도자

NCS(국가직무능력표준)에서 청소년활동에서 청소년정보관리를 능력단위로 구분하고 학습 모듈까지 개발한 바와 같이 청소년지도자는 정보의 수집과 정리, 활동정보의 활용, 활동정보의 사후 관리까지 청소년활동정보를 다루는 주요 주체이다. 따라서, 이러한 직무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교육과 연수가 제공되어야 한다.

청소년관련 기관의 소셜 미디어 활용 확대 및 교육 홍보 강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청소년기관들의 경우 청소년들의 욕구를 신속하게 반영하고 효율적인 처리를 위한 조직을 만들고, 소셜 미디어와 관련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작년에 시행된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하여 현장에서의 대응이 미흡한 면이 있기 때문에 정보의 제공뿐만 아니라 정보의 수집과 관리에 대한 부분으로 교육내용이 확대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교육 및 연수가 필요하다.

#### ○ 청소년활동정보 소외 대상층에 대한 지원 강화

온라인 중심으로 제공되는 청소년활동정보에 대해 정보격차로 인해 충분한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는 대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최근 언론 등을 통해서 알려지듯이 복지사각 지대에 속해있는 사람들은 온라인이나 정보에 대한 접근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청소년활동정보의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우편물이나 방문, 인근 청소년기관 등과 연계하여 정보소외 혹은 정보사각지대에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오프라인에서의 정보제공이 필요하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제공하고 있는 찾아가는 상담서비스인 청소년동반자 프로젝트와 연계하거나, 별도의 찾아가는 정보제공 서비스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맞벌이 가정의 증가로 인해 청소년활동에 대한 부모들의 정보접근성 및 접근기회의 격차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비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청소년 자녀에 대한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정기적인 온오프라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대상에게 필요할 시기에 적절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해야 한다.

#### ○ 양방향 정보제공 시스템 구축

정보제공자 중심에서 청소년도 활동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편하여 제공함으로써 콘텐츠의 다양화를 꾀하고 더불어 청소년의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다.

활동정보를 제공해 주는 시스템에서 청소년이 활동을 요구하거나, 청소년이 요구하는 활동을 기관이나 단체 등에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 제공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5명의 청소년이 3시간 동안 활동할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하다. 5월 25일에 학교에서 30명의 학생이 진로체험으로 메이크업 아티스트 체험을 할 수 있는 곳을 추천한다.

청소년이 원하는 활동이나 청소년에게 제공되는 활동을 청소년활동정보 전문코디네이터가 개입하여 활동을 제공자와 수요자에게 연결해 주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사례로 서울의 다산콜 서비스 모형을 참조한다.

상기의 해당 정보를 청소년활동정보 코디네이터나 해당 지역 혹은 활동을 제공할 수 있는 기관이나, 단체, 기업 등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양방향 정보공유가 가능하도록 한다.

#### ○ 청소년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

청소년 개인에게 필요하거나 적합한 활동을 온라인 시스템이나 청소년 전문가가 맞춤형으로 청소년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온라인상에서 청소년이 자신의 청소년활동 이력을 입력하면, 청소년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추천하도록 온라인상에서 시스템을 구축한다.

자신의 활동이력에 대한 정보가 부족할 경우 온라인상에서 청소년 자신에게 적합하거나 필요한 프로그램을 선별하여나 안내해주도록 온라인 검사도구를 개발하여 이를 통해 알려주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청소년이 보다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안내를 원할 경우, 일정수준의 청소년지도자가 해당 청소년과 대면 또는 온라인상으로 상담하거나, 검사도구의 해석을 통해 청소년에게 적합한 활동을 제안하거나 정보를 제공해준다.

### (3) 단계별 추진 계획

부록표 5 단계별 추진 계획		1단계		2단계		3단계	
추진과제	세부내용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청소년활동 홍보 추진체계 구축	청소년활동 거점 홍보센터 지정 운영	→	→	→	→	→	→
	청소년활동 거점 홍보센터 전문인력 양성	→	→	→			
	거점 홍보센터의 역할과 위상 제고	→	→	→			
	유관기관 업무 협력체계 구축	→	→	→			
청소년활동 정보서비스 추진체계 구축	청소년활동 정보제공 전담기구 설치 및 운영	→	→	→	→	→	→
	청소년활동 정보 행정전달체계 강화	→	→				
	정보수요자 대상별 홍보전략 수립	→	→				
	정보소외계층 지원 강화			→	→	→	→
	양방향형 정보서비스 제공			→	→	→	→
	청소년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			→	→	→	→

## 5) 청소년활동 정책 기반조성

### (1) 목적

청소년활동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청소년활동 진흥을 위한 정책기반을 조성을 위해 청소년활동 진흥 조직체계 강화, 예산확보, 관련 법령정비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청소년활동진흥법에 중앙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시도별 청소년활동진흥센터가 설치, 시군구 청소년활동진흥센터를 설치하여 전국적인 청소년활동 진흥을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할 수 있게 되어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과 17개 시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가 설치되었으나, 시군구 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설치되지 않아 전국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시군구 청소년활동진흥센터를 설치하여 전국적인 청소년활동 진흥 조직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더불어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및 17개 시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가 청소년활동 진흥사업을 실효성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조직과 사업 등을 재정비하여야 한다.

행정조직에서는 시도 및 시군구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청소년육성 행정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제가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있다. 그러나 몇몇 지자체에서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제가 도입되어 청소년육성 행정이나 청소년시설 운영을 담당하는 사례가 있으나, 전국적으로는 아주 미미한 수준이다. 따라서 각 지자체에서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의 채용을 확대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청소년활동 관련 세제혜택 등 관련제도 정비도 필요하다. 청소년활동시설은 사회복지시설 및 교육시설 등과 유사한 공익적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각종 세제지원 등에서 동일한 지원을 받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따라서 조세특례제한법 등 세제와 관련된 여러 가지 법령을 검토하고 공과금을 비롯한 제반 관련 내용을 개정하여야 한다. 또한 한국표준직업분류 및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검토하여 청소년활동 및 청소년지도가 독립적인 직업과 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여야 한다. 아울러 청소년정책의 안정적 재원확보를 위한 청소년육성기금의 확충과 운용의 개선이 필요하다.

이와 같이 전국적인 청소년활동 진흥 조직체계의 정비, 청소년행정의 전문화를 위한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제 확대, 청소년육성기금 조성 확대, 청소년활동관련 세제의 개선 등 관련 제도개선을 통해 청소년활동 진흥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자 한다.

## (2) 추진과제

### ① 청소년활동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

## ○ 청소년수련시설 세제혜택을 위한 관계법률 개정

청소년수련시설은 청소년활동진흥법 제66조(조세감면 등)의거 조세특례제한법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법령에는 청소년수련시설과 관련된 조세감면 규정 내용이 반영되지 않아서 실효성이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청소년수련시설은 사회복지시설 또는 학교와 같은 교육시설에 준하는 세제혜택 등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안 개정을 추진하여야 한다. 관련법령으로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기치세법, 관세법, 지방세법, 종합부동산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공공요금관련법(전기, 가스, 수도), 교통유발부담금, 시설환경개선부담금, 공원(관광지)법에 의한 건축행위 제한 등의 각 법령별로 개선사항을 분석하여 개정작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 ○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개정에 따른 활용방안 마련

통계청에 의하면 한국표준산업분류는 통계작성 목적으로 제정하였으나, 현실적으로 산업단지 입주, 세금 및 공공요금 부과, 정책자금 및 금융지원 등과 관련한 각종 법령에서 행정목적으로 활용되는 사례(48개, 2004년 → 89개, 2014년)가 급속도로 높아지고 있다.

현재 청소년수련시설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현 숙박 및 음식적업, 오락시설로 분류되어 조세감면대상에 불리하게 적용되고 있다. 청소년수련시설은 제8차 KSIC에서 처음 숙박업으로 규정되었으며, 제9차 KSIC는 숙박시설을 갖춘 청소년수련시설(숙박업), 숙박시설을 갖추지 않은 오락 및 레크리에이션 위주 수련시설(스포츠 및 오락 관련 서비스업)으로 분류되었고, 2016년도 제10차 KSIC 개정안에는 청소년수련시설, 숙박형 교육위주 청소년수련시설, 비숙박형 교육위주 청소년수련시설(교육서비스업)로 분류되었다.

따라서 현재 추진 중인 제10차 KSIC 개정안은 2016.12에 확정하여 2017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므로, 청소년수련시설 세제혜택 관련 법안 개정에 유리하도록 제10차 KSIC 개정안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부록표 6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청소년수련시설 관련 규정**

제8차 KSIC(2000년)	제9차 KSIC(2008년)
▶ 청소년수련원·자연학습원(숙박시설 갖춘)	
유스호스텔(55119) ▶ 숙박시설을 갖추지 않은 청소년 수련원(88999) * 기타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산업(88)	▶ 유스호스텔(55119) ▶ 숙박시설을 갖추지 않은 오락 및 레크레이션 위주 수련시설(91229) * 스포츠 및 오락 관련 서비스업(91) ▶ 교육 위주 수련시설(856) * 교육서비스업(85)
제9차 KSIC(2008년)	제10차 KSIC 변경 안)
▶ I. 숙박업 및 음식점업 - 55. 숙박업 - 551. 숙박시설운영업 - 55114. 청소년수련시설운영업  ▶ R.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91.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 91299.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오락관련 서비스업(청소년수련관/청소년문화의집)	▶ P. 교육서비스업 - 85. 교육서비스업 - 856. 기타 교육기관 - 8566. 청소년수련시설 - 85661. 숙박형 교육위주 청소년수련시설 - 85662. 비숙박형 교육위주 청소년수련시설

○ 한국표준직업분류(KSCO) 개정필요

한국직업표준분류는 각종 통계조사 및 행정자료로 수집되는 직업정보를 기준에 따라 분류함으로써 직업관련 통계자료의 품질을 높이고 국제비교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제표준직업분류(ISCO 1958)를 기초로 제정된 표준분류이다.

한국직업표준분류는 국제분류 개정이나 국내 노동시장 구조변화 등 개정 수요를 반영하여 지금까지 6차례 개정된 바 있으며, 당초 통계작성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나 출입국 관리, 손해배상 및 산업재해보상, 파견근로자보호 등 정책 목적으로 2014년 기준으로 16개 법령에서 준용하고 있다.

한국표준직업분류에서 청소년지도사는 현재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로서 사회복지관련 종사자 소속으로 상담 전문가 및 청소년 지도사로 분류되어 있다. 그러나 청소년지도사는 국가 정책무를 수행하는 청소년산업계의 주된 역할자로서 전문성과 권익보호를 위해 사회복지관련 종사자에서 구분되어, 별도의 청소년지도사 분류로 개정되어야 한다.

제7차(2015년, 2016년) 개정 의견수렴 결과 청소년지도사를 사회복지관련 종사자에서 분류하

는 것이 반영되지 않았다. 따라서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청소년지도사를 독립된 직업군으로 분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록표 7** 한국표준직업분류(KSCO) 개정 제안 (안)

제6차 KSCO(2006년)	개정 제안
2.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24. 보건사회복지 및 종교관련직 247. 사회복지관련 종사자 2474. 상담 전문가 및 청소년지도사	1안) 2.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24. 보건사회복지 및 종교관련직 249. 청소년정책관련 종사자 2491. 청소년지도사 2492. 청소년상담사 2493. 기타 청소년사업관련 종사자
	2안) 2.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25. 교육 전문가 및 관련직 255. 청소년교육관련 종사직 2551. 청소년지도사 2552. 청소년상담사 2553. 기타 청소년사업관련 종사자

○ 청소년수련원의 운영관련 제도 개선

- 청소년수련활동의 최저가 입찰제도 개선

교육적 가치를 추구하는 청소년수련활동을 일반 시장에서 거래되는 제품, 상품처럼 규격화하는 학교단체수련활동의 입찰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현재 학교단체의 청소년수련활동은 최저가 입찰제의 적용과 불가인상을 미반영으로 인해 현실성과 동떨어지게 운영하고 있다. 이로 인해 학교단체수련활동 품질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수련활동의 경우에 최저가 입찰제도 보다는 수련활동 프로그램과 시설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적정가격을 제안하는 기술평가에 의한 적정가격 입찰제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 민간 청소년수련시설의 시설 개보수비 지원

청소년수련시설은 지속적인 시설 유지보수를 통하여 쾌적한 청소년활동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많은 유지보수 비용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공공 청소년수련시설의 경우 국가 및 지자체의 예산지원으로 적절한 수준의 시설유지보수 및 안전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자연권에 위치한 민간 청소년수련시설은 시설 유지보수 및 기능개선을 위한 예산지원이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수련시설 운영수입으로 시설 유지보수를 하는데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민간 청소년수련시설의 시설 유지보수 및 기능보강에 국고 보조금을 지원하는 등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 청소년수련원의 기초생활수급자 수련활동비 지원

청소년수련원에서는 학교단체수련활동 시 학교요청으로 인해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의 청소년들에게 수련활동비를 면제해 주고 있다. 그러나 국가 예산이 전혀 지원되지 않는 민간 청소년수련원의 경우에는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수련활동비 면제를 강제함으로써 인해서, 지속적인 경영악화의 원인이 되고 있다. 국가가 사회약자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정책방향이 민간 청소년수련원의 경영에 큰 영향을 주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따라서 국가 및 지자체 또는 교육청에서 민간 청소년수련원에서 제공한 기초생활수급자의 수련활동비 면제 금액을 보조해주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 ○ 청소년수련시설 공과금 절감 대책 마련

#### - 전기요금 절감 대책

청소년 수련시설의 경우 일반용으로 전기요금이 부과되어 전기료 부담이 많은 상황이다.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2007년부터 전기요금의 20%를 할인받고 있으며, 교육용 전기료는 일반용보다 약 30%정도 낮은 가격으로 공급받고 있다. 청소년 수련시설과 유사한 기능을 하는 교육청 산하 학생교육원의 경우 2015년 8월 이후부터 일반용에서 교육용으로 변경된 바 있다. 따라서 청소년수련시설이 학교 등 교육시설과 동일한 조건으로 전기요금을 경감 받을 수 있도록, 청소년수련시설의 전기요금 개편을 위한 산업통상자원부와의 협의를 추진하여야 한다.

#### - 상하수도 요금 절감 대책

상하수도 요금은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각기 다르게 부과되고 있다. 서울시 상수도 요금 부과체계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사회복지시설은 가정용으로, 학교 등 교육시설은 공공용으로

분류되어 있다. 청소년수련시설의 경우 상대적으로 비싼 상수도 요금을 지불하고 있어 재정여건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청소년수련시설이 현재보다 저렴한 상하수도 요금을 지불할 수 있도록 각 지자체와 협력하여 조례 개정을 추진하여야 한다.

## ② 시도 및 시군구 청소년활동진흥센터의 설치 및 기능 강화

### ○ 지역환경과 청소년활동 여건을 반영한 지방센터 설치 및 운영전략 수립

#### - 시도센터 설치 모형의 다양화

지역현황 및 청소년활동 관련 지역자원 규모 및 인구, 지역면적의 편차를 고려하여 시도센터의 설립 및 운영 방식을 다양하게 발전시켜야 한다. 현재처럼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1개 광역시·도 당 1개의 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으로는 지역환경적 편차를 극복해가며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에 어렵다. 광역시와 광역도를 분류하고 면적과 인구밀집도, 도시화 수준을 고려하여 장애를 극복할 수 있는 효율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시·군·구센터의 설치 역시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한 일률적인 설치보다 위의 요소를 감안하여 청소년인구와 생활권 중심의 배치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 - 시·군·구 센터의 설치를 통한 전국적인 청소년활동 진흥체계 구축

현재 시군구 단위의 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설치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시군구단위까지 청소년활동진흥센터를 설치하여 중앙-시도-시군구로 이어지는 청소년활동 진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시군구 센터의 설치방법은 현재 일부 시군구에서 설치된 청소년육성재단을 활용하거나, 시군구별로 대표적인 청소년수련관을 선정하여 기능을 위임하는 방안이 있다.

#### - 거점센터-단위센터 모형의 도입 검토

시도센터를 권역별로 추가 설치하고 시도센터-시·군·구센터의 수직적 체계에서 거점센터와 단위센터의 수평적, 네트워크 체계로 전환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재의 시도센터를 권역별로 추가해 거점센터로 구축하고, 지역 및 위치적 소요를 파악하여 시·군·구 단위에 단위센터를 구축하되 단위센터는 규모가 큰 기초자치단체가 설립한 공공법인(성남, 수원 등)이 기능을 수행하는 방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의 지방센터 지원기능 강화

먼저 중앙수행기관으로서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과 시·도센터와의 관계의 모호성을 해소하기 위하여 진흥원의 시·도센터에 대한 중장기발전계획 추진, 평가·환류체계 구축(성과관리 지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사업의 이양 등을 보다 명문화하고 관련 조직 구축 및 예산의 확보가 필요하다. 정책사업의 수행은 진흥원 사무처를 중심으로 시·도센터와의 추진체계를 통해 지역 확산을 추진하고, 국립청소년수련원(센터)은 본연의 설립목적에 충실하도록 프로그램 개발·보급기능을 확대하여 자연권 수련시설의 프로그램 운영 및 지도자 역량강화를 지원하는 이원적 추진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 ○ 시도센터의 공공성 확보

시도센터는 센터별로 센터 설치의 근거가 되는 조례를 확보하여야 한다. 시도센터의 설치근거를 조례로 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식적인 조직이나 기관으로서 위상을 갖기 어렵고, 하나의 사업으로 간주될 수 있다. 또한 시도센터는 운영법인으로부터의 독립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여성가족부에서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지침을 통해 시도센터의 공공성 확보 방안으로 명칭, 상근센터장 배치, 인력확보 및 과도한 수탁사업 제한 등을 규정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시도센터의 설치유형에 대해서는 시도센터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독립적인 공공법인으로 설치해야한다는 의견이 63.0%로 우세하였다(김형주, 김정주, 김혁진, 2016).

### ○ 중앙 및 지역단위 관계기관 연계협력체계 구축

#### - 중앙단위 관계기관 연계협력체 구성 및 운영

지역사회에서 한정적인 자원을 효율적으로 동원하고 사용하여 청소년활동정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연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행정기관과 청소년기관을 포함한 전달체계의 측면에서 중앙정부 단위에 구성되어 있는 청소년정책관계기관협의회의 기능을 수행하는 중앙단위협의체가 필요하다.

이를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서 주도하여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등 청소년관련 기관은 물론 각 부처 산하기관이 참여하는 중앙협의체 구성·운영에 역점을 두어

청소년활동에 투입되는 예산과 조직의 규모를 비약적으로 늘려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을 비롯한 청소년 보호, 복지 정책과의 연계협력도 검토되어야 한다.

- 지역 단위의 관계기관 연계협력체 구성 및 운영

시도센터 역시 지역에서의 허브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기능과 사업을 재구조화해야 한다. 현장지원과 지역사회 청소년활동 활성화를 위해 시도 및 시군구 단위의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 주도의 협의체를 운영한다면 여러 조직과 기관으로 나누어져 있는 청소년 관련 예산의 효율적 집행에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협의체를 통해 지역의 거점이 될 만한 수련관을 통해 학령인구 감소로 발생하는 유휴공간에 학교 내 청소년센터를 위탁·운영하거나 청소년활동을 운영하는 공공시설 및 인증기관에 청소년지도사의 배치 및 연계활동을 통해 지원체계를 구축할 수도 있을 것이다(맹영임, 이광호, 이진원, 2012).

③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제 도입 지원

○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의 개념 및 현황

-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의 개념

청소년기본법 상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은 청소년지도사 또는 청소년상담사 자격을 가진 공무원으로 관할구역안의 청소년 및 다른 청소년지도자 등에 대하여 그 실태를 파악하고 필요한 지도를 수행하는 자를 의미한다. 광의로서는 위와 같이 자격을 보유한 상태로 업무를 추진하는 자는 물론, 공무원 중 청소년육성업무 관련 전문직 공무원과 기타 청소년육성업무를 담당하는 학교, 중앙부처 및 지자체의 청소년육성업무 담당부서 및 직영시설에서 청소년육성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포함한다(김현철, 2015).

청소년 기본법 제25조(청소년육성전담공무원)

- ①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읍·면·동 또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육성전담기구에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을 둘 수 있다.
- ② 제1항의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은 청소년지도사 또는 청소년상담사의 자격을 가진자로 한다.
- ③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은 그 관할구역안의 청소년 및 다른 청소년지도자 등에 대하여 그 실태를 파악하고 필요한 지도를 하여야 한다.
- ④ 관계행정기관, 청소년단체 및 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자는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의 업무수행에 협조하여야 한다.
-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 현황

청소년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제의 도입은 전반적으로 미흡하다(김현철, 2015, p. 26). 2015년에 조사된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 현황을 보면 관공서에는 전담공무원이 거의 배치되지 못한 상황이다. 그러나 지자체의 직영시설이 있는 지역 중심으로 경기(17명), 경북(11), 강원(9) 등에서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이 임기제계약직 형태로 청소년시설 운영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김현철(2015)은 「청소년 기본법」 상 규정된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이 실제 다양한 공공영역에 폭넓게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를 그 제도적 구조가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제도와 같은 직렬화 모델로 형성되었기 때문으로 지적하였다.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과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규정을 비교해서 살펴보면 제1항에서 제4항까지는 거의 유사한 방식의 규정이 기술되어 있으나, 제2항에서 임용과 관련된 사항을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하여 각 정권별 해당 공무원에 관한 정책적 관심과 실제 지원을 유도한 것과 제5항에서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의 인사 관련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반면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경우는 국가가 보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게 되어 있는 것이 차별점이다.

부록표 9 사회복지사업법의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규정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사회복지 전담공무원)

- ①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시·도, 시·군·구 및 읍·면·동 또는 제15조에 따른 복지사무 전담기구에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하 "복지전담공무원"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 ② 복지전담공무원은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하며, 그 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복지전담공무원은 그 관할지역에서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 등에 대하여 항상 그 생활 실태 및 가정환경 등을 파악하고, 사회복지에 관하여 필요한 상담과 지도를 한다.
- ④ 관계 행정기관과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복지전담공무원의 업무 수행에 협조하여야 한다.
- ⑤ 국가는 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 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제도 도입 지원

-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제 운영지침 제공

청소년육성 실천분야가 전문성을 기반으로 하고 제도적으로 청소년육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전문성을 갖춘 공무원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제 도입이나 의무적 배치를 위한 조치는 전무해 왔다. 뿐만아니라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이 수행하는 직무나 역할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이와 함께 청소년정책을 담당하는 지자체 공무원들은 잦은 인사이동으로 국가 및 지자체의 청소년정책에 대한 이해도 낮고,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지 못한 실정이다. 따라서 지자체에서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의 활용 방안을 인식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서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의 역할과 직무를 명료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지자체가 수행하는 청소년육성의 행정사무, 청소년육성 관련 민간위탁사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의 활용방안에 대한 지침을 제정하여야 한다.

- 지자체의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제 조례제정 지원

지자체가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지자체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게 되어 있다. 현재까지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 임용에 관한 조례는 대구시 수성구에서만 제정되어 시행되고, 이 조례에 의해 2016년 최초로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이 임용되었다. 그 이외의 지자체에서 조례에 의한 청소년육성전담공무원제가 도입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일부

지역에서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을 운영하는 경우에도, 이에 대한 제도적인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자체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제시하여야 한다.

- 지자체의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 채용에 대한 지원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 운영에 드는 보수 등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청소년기본법의 관련조항을 개정하여야 한다. 국가에서는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제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을 확보하여 지자체에 보조함으로써 지자체의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제 도입을 쉽게 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④ 청소년육성기금의 조성 확대

○ 청소년육성기금 조성 및 사용 현황

- 청소년육성기금의 성격 및 조성 현황

청소년육성기금의 기금관리 주체가 여성가족부이며 그 운용지침도 여성가족부가 작성하고 있다(여성가족부, 2016). 청소년육성기금은 「청소년 기본법」 제53조에 의거하여 청소년육성 등을 위한 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하고 있다. 「청소년 기본법」 제54조 ‘청소년육성기금의 조성’에 따르면 청소년육성기금은 정부의 출연금, 「국민체육진흥법」 제22조제3항제1호 및 「경륜·경정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의한 출연금, 개인·법인 또는 단체가 출연하는 금전·물품 그 밖의 재산,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에 의해 조성하도록 되어있다.

「청소년 기본법」 제55조 ‘청소년육성기금의 용도’는 1) 청소년활동의 지원, 2) 청소년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지원, 3) 청소년지도사의 양성을 위한 지원, 4) 청소년단체의 운영 및 활동을 위한 지원, 5) 청소년복지증진을 위한 지원, 6) 청소년 보호를 위한 지원, 7) 청소년 육성정책의 수행 과정에 관한 과학적 연구의 지원, 8) 기금 조성사업을 위한 지원, 9) 기타 청소년육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청소년육성에 관한 홍보, 청소년의 포상 및 격려, 기금의 운영 및 관리, 그 밖에 여성가족부가 청소년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에 사용하도록 되어있다. 청소년육성기금의 조성 및 집행 내역은 2015년까지 총 9,480천원을 조성하고 총 8,852천원을 지출하였다. 청소년육성기금의 2015년까지 누적 조성규모는 9,480억

원이며, 재원별로는 정부출연금 350억원, 국민체육진흥기금전입금 766억원, 경륜사업수익 법정출연금 3,959억원, 복권기금전입금 2,106억원, 이자수입 등 운용수익 적립금이 2,300억원 등이다. 청소년육성기금에서 2015년까지 총 8,852억원이 청소년육성 사업 지원에 사용되었으며, 기타 경비 등에 86억원, 기금전출 43억원을 합쳐 총 8,890억원이 지출되었다.

**부록표 10** 청소년육성기금 조성 내역

(단위: 백만원)

조성내역		198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누계
수입	정부출연금	35,000	-	-	-	-	-	-	35,000
	국민체육진흥기금 출연금	76,560	-	-	-	-	-	-	76,560
	경륜사업수익 법정출연금	309,189	20,266	22,235	16,933	19,308	14,491	9,566	411,988
	복권기금 전입금	4,814	4,318	34,417	43,403	46,694	76,976	85,477	296,099
	이자 등 기타수입	216,604	2,841	1,955	2,074	1,763	1,796	1,984	229,017
	소계	642,167	27,425	58,607	62,410	67,765	93,263	97,027	1,048,664
지출	사업비	530,728	70,247	58,650	68,238	70,610	87,181	96,023	981,677
	기타경비	887	3,286	3,207	49	419	44	42	7,934
	복권기금 반환금	235	306	30	622	2,704	1,667	1,179	6,743
	계	531,850	73,839	61,887	68,909	73,733	88,892	97,244	996,354
순 조성액		110,317	△46,414	△3,280	△6,499	△8,447	4,200	△217	49,660

자료: 여성가족부 홈페이지(<http://www.mogef.go.kr>)

\* 2014~2016년은 계획 기준

#### - 청소년육성기금의 주요 사업 내용

2015년도에 청소년육성기금은 각종 청소년사업에 약 850억원이 사용되었다. 청소년참여지원, 청소년 방과후활동 지원,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운영 지원,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지원 등 '청소년 정책 및 역량강화'에 약 250억원 사용하였다. 청소년 사회안전망 구축, 청소년쉼터 운영지원,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 치료재활센터 운영, 매체활용 능력증진 및 역기능 해소 등 '청소년 사회안전망 강화'에 약 550억원 사용되었다. 청소년 성문화센터 설치·운영, 성범죄 청소년 치료재활 등 여성·아동폭력 예방 및 보호에 약 60억원 사용되었고, 기금관리비로 약 4천만원 사용되었다. 2016년도 여성가족부의 청소년육성기금 사업계획은 총 950억으로 전년대비 약 100억 정도

증가한 사용계획이 수립되었다.

- 청소년육성기금의 순 조성액은 2015년 기준으로 약 500억원

청소년육성기금의 순 조성액은 2015년을 제외하고 2011년 이래 지속적으로 적자를 나타내고 있어, 2010년 1,100억 수준이었던 기금이 현재는 500억 수준으로 떨어진 상태이다. 다만 2012년부터 수입 영역에서 복권기금 전입금이 크게 늘어나기 시작하였으며, 2015년에는 2011년의 18배 가까운 복권기금이 유입되어 청소년육성기금의 재정 건전성이 다소 회복되고 있는 상황이다.

- 청소년육성기금 운영상의 문제점

청소년육성기금 운영 상 가장 크게 대두되는 문제는 기금으로 지원되는 청소년사업들이 국고 일반회계 등으로 추진되는 다른 청소년사업에 소요되는 지출과 그 목적이나 성격 상 큰 차별성이 없어, 기금 조성 및 운용의 사회적 인지도와 정책적 운용 근거 상 뚜렷한 명분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청소년 관련 예산(정부부처 예산과 기금 합산액)은 2009년까지는 증가해 왔으나 2010년에 급속히 감소하였고(박진규, 2011), 2011년에 최저점을 찍고 다시 완만하게 상승하여 왔으나 여전히 2015년 예산이 2009년의 56% 수준이다. 더 심각한 것은 전체 청소년예산에서 청소년육성기금으로 충당되는 비율은 1995년 9.1%에서 2010년 62.6%로 계속해서 증가하였고(박진규, 2011), 2011년 77.2%로 최대를 기록한 이후 2012년(55%)에서 2015년(54.3%)까지는 50%선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 청소년육성기금의 조성 확대 및 사업 개선

- 청소년육성기금의 지속적인 확충

청소년육성기금은 2011년 이후로 2015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적자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기금의 지속적인 확충이 필요하다. 청소년육성기금의 재원으로 유입되는 복권기금이나 경륜사업 수입금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청소년육성기금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

- 청소년육성기금 의존도의 개선과 기금사업의 차별화

여성가족부의 청소년정책 예산중에서 청소년육성기금으로 충당되는 비율이 50%이상을 넘어서고 있어서, 청소년육성기금의 적자 운영을 가중시키고 있다. 또한 청소년육성기금 지원사업과 일반회계 지원사업의 차별성을 명료화하여 청소년육성기금의 조성 및 운용에 대한 사회적

명문을 확보하여야 한다. 따라서 여성가족부의 청소년정책 예산에서 일반회계의 비중을 높여나가고, 청소년육성기금 사업과 일반회계 사업의 차별화를 도모해야 한다.

(3) 단계별 추진 계획

부록표 11 단계별 추진 계획

추진과제	세부내용	1단계		2단계		3단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청소년활동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	청소년수련시설 세제혜택 관계법률 개정		→	→			
	한국표준산업분류 개정	→	→				
	한국표준직업분류 개정	→	→				
	민간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지원		→	→	→	→	→
	청소년수련시설 공과금 절감대책 마련		→	→			
시도 및 시군구 청소년활동진흥 센터의 설치 및 기능 강화	시도 및 시군구 청소년동진흥센터 설치		→	→			
	한국청소년동진흥원의 지방센터 지원기능 강화		→	→			
	시도센터의 공공성 확보		→	→			
	중앙 및 지역단위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	→	→	→	→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제 도입 지원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제 운영 지침 제시		→				
	지자체의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제 도입 지원			→	→	→	→
청소년육성기금의 조성 확대	청소년육성기금 조성 확대	→	→	→	→	→	→
	청소년육성기금 사업의 차별성 확보		→	→	→	→	→

## Abstract

### A Study on Korean Youth's Participation in Hands-on Activities III

This study aimed to investigate current state of adolescents' participation in hands-on activities in Korea and further propose suggestion in policy making to promote their participations. For the study, previous research review and survey on Korean adolescents' participation in the activity were performed. Based on the study results, implications and suggestions of evidence-based policies for promoting participation and activities in Korea are presented.

The results of youth survey indicated 96.1% of Korean adolescents experienced hands-on activities last year. Among various domains of activities, the Health and Hygiene were the highest participation Domain with a rate of 93.6%. Satisfactions in participating activities were above the average level, and the degree of participation and the levels of expected achievement were moderate. The types of participation were 'mainly organized in groups by schools' and frequently 'recommended by teachers.' Also, their difficulty in participation was mainly 'due to lack of time.'

Most desired participation time and place in participation were 'during school hours' and 'outdoors.' Participants preferred activities 'with friends' most. Securing more time and organizing interesting hand-on activities were emphasized as factors to improve adolescents' participations. For activities for future participation, adolescents preferred activities of 'Art and Popular Culture Domain,' 'Career Exploration and Work Experience Domain,' and 'Adventure Development Domain' in order. Additionally, the result showed that satisfactions in participating activity, degree of participation, and expected levels

of achievement were positively associated with influence on their self-esteem, career maturity, perceived well-being, and sense of community.

Twenty implementation policy details/tasks in five domains are proposed to enhance adolescents' participations in hands-on activities with expert consultation out of original 13 policy measures in four domains of A Study on Korean Youth's Participation in Hands-on Activities II. To be specific, five areas include enhancing programs for hands-on activities, empowering capabilities of leaders and improving labor conditions for the staff, strengthening function of institution for youth, promoting hands-on activities and developing information systems, and strengthening a youth activity policy.

Key words : Hands-on activities for adolescents, Current state of Korean adolescents' participations, Youth activity policy

## 2016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간행물 안내

### 기관고유과제

- 16-R01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을 위한 청소년 삶의 질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 황세영 · 김남수
- 16-R02 청소년정책 분석 및 평가제도 체계화 방안 연구 / 이창호 · 최용환 · 도수관
- 16-R03 탈북 청소년 지원체계화 방안 연구 - 탈북 청소년 역량 진단을 중심으로 - / 좌동훈 · 이민영
- 16-R04 중도입국 청소년 실태 및 자립지원방안 연구 / 배상률
- 16-R05 사회적 기업을 활용한 취약계층 청소년 자립지원 연구 / 김영한
- 16-R06 대학생 졸업유예 실태 및 지원 방안 연구 / 김지경 · 이상호
- 16-R07 청소년의 세대통합역량 증진을 위한 지원 방안 연구 / 황여정 · 변정현
- 16-R08 청년 사회 · 경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 I / 김기현 · 하형석 · 신인철
- 16-R08-1 2016년 청년 사회 · 경제 실태조사 - 기초분석 보고서 - / 김기현 · 하형석 · 신인철
- 16-R09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 연구 III / 최창욱 · 문호영 · 김정주
- 16-R09-1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 연구 III : 기초분석보고서 / 최창욱 · 문호영 · 김정주
- 16-R10 지역사회 청소년 체험활동의 자유학기제 연계 운영방안 연구 - 청소년(수련)시설과 학교의 협업을 중심으로 - / 임지연 · 김한별 · 한도희
- 16-R11 한국 아동 · 청소년 인권실태 연구VI : 총괄보고서 / 김영지 · 유설희 · 이민희 · 김진호
- 16-R11-1 한국 아동 · 청소년 인권실태 연구VI : 학교 인권 관련 환경이 청소년의 인권의식에 미치는 영향 분석 / 구정화
- 16-R11-2 한국 아동 · 청소년 인권실태 연구VI : 2016 아동 · 청소년 인권실태조사 통계 / 김영지 · 유설희
- 16-R12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개발 및 조성사업 연구IV :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 시범사업 II' 운영과 정책화 방안 / 오해섭 · 김세광
- 16-R12-1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개발 및 조성사업 연구IV :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 개발 및 진단 / 서정아 · 김희주
- 16-R13 다문화청소년 종단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IV : 총괄보고서 / 양계민 · 윤민중 · 신현옥 · 최홍일
- 16-R13-1 다문화청소년 종단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IV : 기초분석보고서 / 양계민 · 윤민중 · 최홍일
- 16-R14 청소년 기업가정신 함양 및 창업 활성화 방안 연구III / 강경균 · 이윤주 · 노성호
- 16-R14-1 청소년 기업가정신 교육 프로그램 운영 매뉴얼 / 강경균
- 16-R15 미래인재 개발 전략으로서 재외동포 청소년 지원 방안 연구II - 재중 · 재미동포청소년 인재 개발 방안 - / 김경준 · 정은주
- 16-R16 학교 밖 청소년 이행경로에 따른 맞춤형 대책 연구 I / 윤철경 · 성윤숙 · 유성렬 · 김강호
- 16-R16-1 학교 밖 청소년 이행경로에 따른 맞춤형 대책 연구 I : 학교 밖 청소년 이행경로별 특성에 대한 질적 분석 / 성윤숙
- 16-R17 한국 아동 · 청소년 패널조사 VII 사업보고서 / 이종원 · 모상현 · 강현철 · 정윤미 · 한지형
- 16-R17-1 한국 아동 · 청소년 패널조사 VII : 기초분석보고서 I - 청소년 비행의 실태와 추이 분석 : 현실비행과 사이버비행 / 이종원 · 이순래 · 정윤미

16-R17-2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조사 Ⅶ : 기초분석보고서 II - 청소년 매체이용 추이 및 코호트 간 비교분석 / 모상현·이장주·한지형

## 협동연구과제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6-40-01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Ⅲ : IEA ICCS 2016 - 총괄보고서 - / 장근영·성은모·이경상·진성희·최효선·김균희 (자체번호 16-R18)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6-40-02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Ⅲ : IEA ICCS 2016 - 초·중·고등학생용 기초통계분석보고서 / 장근영·성은모·이경상·진성희·최효선·김균희 (자체번호 16-R18-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6-40-03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Ⅲ : IEA ICCS 2016 - 대학생용 기초통계 분석보고서 / 장근영·성은모·이경상·진성희·최효선·김균희 (자체번호 16-R18-2)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6-40-04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Ⅲ : IEA ICCS 2016 : 사회참여역량 측정 및 분석 연구 / 김태준·박인영·이호경·오민아 (자체번호 16-R18-3)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6-41-01 아시아 청소년 진로체험활동 국제비교 연구 I / 김현철·백혜정·이지연 (자체번호 16-R19)

## 연구개발적립금

- 16-R20 청소년 차별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 김승경·최정원·강지명
- 16-R20-1 청소년 차별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 기초분석보고서 / 김승경·최정원
- 16-R21 청소년 참여예산제 실태 및 발전 방안 연구 / 윤민중·정은진·정건희

## 수 시 과 제

- 16-R22 아동학대에 대한 언론보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이창호·정의철
- 16-R23 청소년 건강 표준모델 개발 / 하형석
- 16-R24 대학생 자살예방을 위한 정책연구 / 이윤주
- 16-R25 청소년운영위원회의 수련시설 및 프로그램 모니터링 활동화 방안 연구 / 최창욱·좌동훈
- 16-R26 놀이정책 수립 지원 연구 / 성은모·강경균
- 16-R27 청소년분야 ODA 사업 아이템 발굴 및 추진방법 마련 연구 / 황세영
- 16-R28 지방자치단체 청년정책사업 현황 및 정책방안 연구 / 조진우·김기현
- 16-R29 미래, 청소년, 그리고 새로운 도전 / 최정원·정은진·조혜영
- 16-R30 해외 청소년정책 추진체계 조사·연구 / 정은진·김기현

## 수탁과제

- 16-R31 한국사회 20대 청년의 생활·의식 실태와 정책과제 / 이종원·유한구·채창균·오승근·김윤나·한영근
- 16-R32 학교 밖 청소년이 경험하는 디지털역기능을 해소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II / 성윤숙·김경준·강경균
- 16-R33 청소년 매체 이용 실태조사와 유해환경 접촉 종합실태조사 통합에 따른 조사항목 등 개선 연구 / 김지경·황여정·정윤미
- 16-R34 2014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육지원센터 연간사업보고서 /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육지원센터
- 16-R35 2015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육지원센터 연간사업보고서 /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육지원센터
- 16-R36 2016년 청소년수련시설종합평가 / 김경준·모상현·정은주
- 16-R37 2015 학교 내 대안교실 우수사례집 /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육지원센터
- 16-R38 2015년 학업중단 예방 우수사례 공모전 수상작품집 /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육지원센터
- 16-R39 청소년 체험 교육 프로그램 평가 / 최창욱·성은모·정윤미
- 16-R40 가출청소년 보호·지원서비스 개선방안 연구 / 백혜정·김승경
- 16-R41 청소년수련시설을 통한 농산어촌 자유학기제 연계지원 모델 개발 연구 / 김현철
- 16-R42 2016년도 청소년쉼터 종합평가 / 김승경·백혜정
- 16-R43 2016행복교육 학생모니터단 운영 / 오해섭·최홍일
- 16-R44 아동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세종시 아동청소년 정책기본계획 수립 연구 / 김영지·오해섭·윤철경·김경준·최용환·유설희
- 16-R45 유엔아동권리협약 국가보고서 작성 연구 / 김영지·모상현·이윤주·유설희
- 16-R46 학교에서 손쉽게 할 수 있는 학업중단예방프로그램 /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육지원센터
- 16-R47 군포문화재단 청소년활동본부 중·장기 5개년 발전계획 수립 연구 / 김현철
- 16-R48 지역아동센터 아동패널조사 2016 / 이종원·모상현·유성렬·김진석·정윤미
- 16-R49 2016년 시립청소년시설 운영실적 평가 / 최용환·최창욱·좌동훈·문호영·정은진
- 16-R50 삼성SDS 강원도 도서벽지지역학교 “행복한 ICT 교실” 효과 및 만족도 연구 / 성윤숙
- 16-R51 실종아동 관계기관 역할 정립 방안 연구 / 좌동훈·문호영
- 16-R52 2016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효과성 및 만족도 조사연구 / 양계민
- 16-R53 2016년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 황여정·김지경·이윤주·정윤미
- 16-R54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운영방안 연구 / 서정아
- 16-R55 유형별 학교 밖 청소년 진로지도방안 연구 / 성윤숙·박선영·송원영
- 16-R56 멘토링코디네이터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 프로그램 개발 연구 / 성은모
- 16-R57 2016 성남시 청소년 실태조사 / 최창욱·성은모·강경균
- 16-R58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 김기현·장근영·김지경·하형석
- 16-R59 2016년 동작혁신교육사업 청소년 자치 참여 활성화 정책연구 / 최창욱·최용환
- 16-R60 학교 밖 청소년 연계관리 강화방안 연구 / 윤철경
- 16-R61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 가이드북 /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육지원센터
- 16-R61-1 재적교 교사를 위한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안내 /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육지원센터
- 16-R62 청년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청년 정책 방향과 과제 / 김기현·한지형

## 세미나 및 워크숍 자료집

- 16-S01 2016년 학교 내 대안교실 관리자 연수 : 1권역 (1/25)
- 16-S02 2016년 학교 내 대안교실 관리자 연수 : 2권역 (1/28)
- 16-S03 2016년 학교 내 대안교실 관리자 연수 : 3권역 (1/29)
- 16-S04 2016년 학교 내 대안교실 관리자 연수 : 4권역 (2/2)
- 16-S05 2016년 제1회 학업중단 예방 교원연수 1권역 (2/17~18)
- 16-S06 2016년 제1회 학업중단 예방 교원연수 2권역 (2/18~19)
- 16-S07 2016년 제1회 학업중단 예방 교원연수 3권역 (2/22~23)
- 16-S08 2016년 제1회 학업중단 예방 교원연수 4권역 (2/25~26)
- 16-S09 제1차 청년정책포럼 (2/22)
- 16-S10 2015년도 고유과제 연구성과 발표회(1차) (3/24)
- 16-S11 2015년도 고유과제 연구성과 발표회(2차) (4/4)
- 16-S12 청소년정책평가의 현안과 과제 (4/22)
- 16-S13 2016년 학교 내 대안교실 컨설팅 위원 워크숍 (4/19)
- 16-S14 2016년 학업중단 예방 집중지원학교 컨설팅 위원 워크숍 (5/4)
- 16-S15 2016년 학교 내 대안교실 담당자 연수 1권역 (5/9)
- 16-S16 2016년 학교 내 대안교실 담당자 연수 2권역 (5/11~12)
- 16-S17 2016년 학교 내 대안교실 담당자 연수 3권역 (5/16~17)
- 16-S18 2016년 학교 내 대안교실 담당자 연수 4권역 (5/18~19)
- 16-S19 제2차 청년정책포럼 - 지역 청년 일자리 정책 강화 방안 (5/17)
- 16-S20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말레이시아 푸트라대학 사회과학연구원 간 국제세미나 (5/17)
- 16-S21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연계기관 담당자 2차 심화 워크숍 (5/18~20)
- 16-S22 2016년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지표 (5/23)
- 16-S23 제3차 청년정책포럼 (6/28)
- 16-S24 진로체험활동에 대한 이론적 탐색 (7/15)
- 16-S25 2016년 꿈키움 멘토단 운영 담당자 연수 (7/15)
- 16-S26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연계기관 담당자 교육 워크숍 (7/20)
- 16-S27 2016년 대안교육 담당교원 등 연수 (8/8~10)
- 16-S28 청소년 행복마을 조성사업 운영 및 정책화 방안 (7/22)
- 16-S29 아동학대사건보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8/23)
- 16-S30 네트워크 사회의 청소년정보 격차와 문화 (8/17)
- 16-S31 2016년 학업중단예방 집중지원학교 관리자 연수 : 1권역 (8/26)
- 16-S32 2016년 학업중단예방 집중지원학교 관리자 연수 : 2권역 (9/2)
- 16-S33 제4차 청년정책포럼 (8/24)
- 16-S34 청소년 현안과제 분석 및 대응을 위한 공동 정책토론회 (8/22)
- 16-S35 아시아 청소년진로교육 사회환경 국제비교 (8/25)
- 16-S36 “미래, 청소년 그리고 새로운 도전” 심포지엄 (10/11)
- 16-S37 학교 밖 청소년 디지털 역기능 예방 워크숍 (10/6~7)
- 16-S38 제5차 청년정책포럼 (10/12)

- 16-S39 제6회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 학술대회 (11/18)
- 16-S40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청소년 차별 문제 (11/22)
- 16-S41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연계기관 2차년도 사업성과발표회 (12/1)
- 16-S42 제6차 청년정책포럼 (12/7)
- 16-S43 청년 세미나-청년 기본법 제정 입법안의 이슈와 과제 (12/14)

## 학 술 지

- 「한국청소년연구」 제27권 제1호(통권 제80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27권 제2호(통권 제81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27권 제3호(통권 제82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27권 제4호(통권 제83호)

## 기 타 발 간 물

-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65호 : 청소년 국제교류 실태 및 효과성 검증
-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66호 : 청소년문화 활성화를 위한 소셜미디어 활용 방안 연구
-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67호 : 아동·청소년 인권관련 국제협약 이행과제
-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68호 : 아동·청소년·가족 보호체계 개선과제
-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69호 : 20대 청년 지원 정책의 중장기 발전 전략
-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70호 :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 II
-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71호 :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정책 체계화 방안 연구
-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72호 : 아동학대에 대한 언론보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연구
-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73호 : 청소년 나눔활동의 실태 및 개선방안
-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74호 : 청소년을 위한 기업가정신 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
-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75호 : 지역사회 청소년의 인성교육 실태와 활성화 방안 연구
-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76호 :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개발 및 조성사업 연구 III
  
-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26호 : 다문화청소년의 다문화정체성 발달특성 분석
-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27호 :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
-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28호 :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 III
-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29호 :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연구 II
-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30호 : 초등학교 4학년 코호트(cohort) 간 휴대전화 이용실태 비교
  - KCYPS 초1 및 초4 패널 -
-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31호 : 청소년 팬덤활동의 종단적 변화 분석
-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32호 :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조사VI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25호 : 다문화청소년 지원을 위한 정책 방안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26호 : 청소년분야 ODA 사업 아이템 발굴 및 추진방법 마련 연구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27호 : 청소년운영위원회의 수련시설 및 프로그램 모니터링 활성화 방안 연구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28호 : 지방자치단체 청년정책사업 현황 및 정책방안 연구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29호 : 미래, 청소년 그리고 새로운 도전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30호 : 해외 청소년정책 추진체계 조사·연구

NYPI BLUE ZINE 창간호

연구보고 16-R09

---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 연구Ⅲ**

---

**인 쇄** 2016년 12월 23일

**발 행** 2016년 12월 30일

**발행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발행인** 노 혁

**등 록** 1993. 10. 23 제 21-500호

**인쇄처** (주)아르빛 전화 044)863-0933 대표 유채란

---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전재·복제를 금함.

구독문의 : (044) 415-2125(학술정보관)

ISBN 979-11-5654-115-8(94330)

979-11-5654-098-4 (세트)